

2021 국별 진출전략

베트남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CONTENTS

kotra 2021 베트남 진출전략

| | |
|---------------------------------------|-----|
|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
| 1. 개요 | 3 |
| 가. 시장 전망 | 3 |
| 나. 주요 경제지표 | 4 |
|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
| 가.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 | 5 |
| 나. 코로나19발 GVC 변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베트남 영향 | 7 |
| 다. 베트남-EU FTA 발효 | 10 |
| 라. 인프라 투자 확대 | 10 |
| 마. 디지털 경제 | 13 |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5 |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5 |
| 2. 시장 분석 | 60 |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60 |
| 나. 수출입 동향 | 63 |
| 다. 투자 진출 | 70 |
| 라. 프로젝트 | 77 |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86 |
| 가. 교역 | 86 |
| 나. 투자 | 94 |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99 |
| III. 진출전략 | 102 |
|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102 |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103 |
| 3. 한-베트남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 115 |
| 첨 부 | |
| 1. 수출유망품목(상품) | 127 |
|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130 |
| 3. 2021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133 |
|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135 |
| 부 록 | |
| 대(對) 베트남 K패키지 | 137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베트남 정부, 2021년 경제성장률 6.0~6.5% 전망

- 응웬 쉰웁 총리는 2020년 9월 개최된 정부 회의에서 베트남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6.0~6.5%로 전망함
 - 2021년 주요 국정과제로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웠으며, 각 기관에서는 차년도 부처 운영방향*을 발표함
 - *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통제와 거시경제 안정을 보장,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무역부) 수출시장 확대하고, 국내소비 촉진, 무역사기 방지 강화 등
 -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2021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최소 4.5%에서 최고 8%대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유행 전 성장률의 80~9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

〈세계 주요 은행의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2020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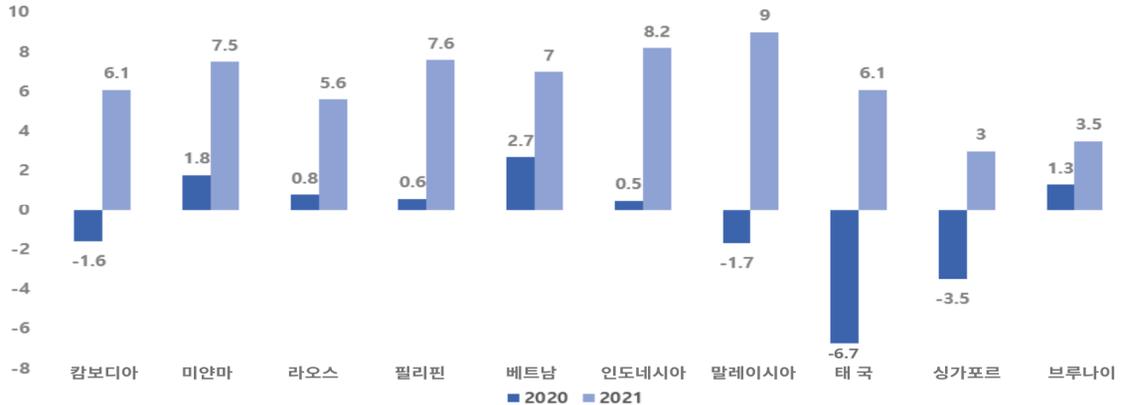
| | 2020년 전망(%) | 2021년 전망(%) | 예상 증감률(%p) |
|---------------|-------------|-------------|------------|
| 베트남 정부 | 4.5 | 6.0~6.5 | 1.5~2 |
| World Bank | 2.8 | 4.5~6.8 | 1.7~4 |
| IMF | 2.7 | 7.0 | 4.3 |
| ADB | 1.8 | 6.3 | 4.5 |
| Goldman Sachs | 2.7 | 8.1 | 5.4 |

자료: 기관별 발간 보고서

□ 베트남 2020년 상반기 경제실적과 전망

- 2020년에도 플러스 성장 전망, 그러나 베트남 정부 목표치 달성에는 난항 예상
 - 주요 경제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플러스 성장을 예측*
 - 그러나 2020년 7월 이후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관광 및 서비스업이 심하게 위축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5%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발표
 - * 주요 경제기관의 2020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IMF(국제통화기금) 2.7%(2020년 5월), ADB(아시아개발은행) 4.1%(2020년 5월), WB(세계은행) 2.8%(2020년 7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3% (2020년 5월)
 - IMF 전망치 기준, 2020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아세안 1위, 2021년에는 5위로 전망됨

〈ASEAN 회원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2020년 4월 기준)〉



자료: IMF

- 2020년 하반기, 국제선 재개를 통한 서비스업 정상화 및 주요국의 생산기지 이전 동향이 주요 변수
 - 2020년 상반기 미얀마,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1% 이하의 저성장 및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은 2.7%의 플러스 성장으로 동남아시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함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코로나19발 GVC 재편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포착되어 상반기에 다소 주춤했던 FDI 유치 회복세 기대
 - 베트남은 인구의 35.5%가 서비스 산업 종사자이며,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구매력 회복이 중요한 변수임
 - 국제선 개방에 따른 관광·숙박·연회 산업의 반등 정도가 주요한 내수시장 회복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지표 | 단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전망 |
|--------------|----------|---------|---------|---------|---------|-------------|-------------|
| 인구 | 백만 명 | 92.64 | 93.64 | 94.58 | 96.48 | 97.50 (e) | 98.16 (e) |
| 명목 GDP | 십억 달러 | 200.49 | 200.40 | 244.9 | 261.9 | 284.8 (d) | 308.6 (e) |
| 1인당 명목 GDP | 달러 | 2,164 | 2,353 | 2,538 | 2,715 | 2,929 (d) | 3,172 (d) |
| 실질성장률 | % | 6.2 | 6.8 | 7.1 | 7.02 | 2.7 (d) | 7.0 (d) |
| 실업률 | % | 2.40 | 2.20 | 2.10 | 1.98 | 2.20 (d) | 3.20 (d)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2.05 | 3.5 | 3.5 | 2.79 | 3.2 (d) | 4.0 (d) |
| 재정수지(GDP 대비) | % | -6.5 | -4.7 | -3.7 | -3.4 | -3.4 (b) | -3.1 (d) |
| 총수출 | 백만 달러 | 176,581 | 215,118 | 243,697 | 264,789 | 285,500 (b) | 226,000 (d) |
| (대한(對韓) 수출) | " | 11,406 | 14,818 | 18,240 | 21,071 | - | - |
| 총수입 | " | 174,804 | 213,006 | 236,869 | 253,071 | 292,200 (b) | 215,000 (d) |
| (대한(對韓) 수입) | " | 32,163 | 46,961 | 47,582 | 48,178 | - | - |
| 무역수지 | 백만 달러 | 1,777 | 2,111 | 6,828 | 11,118 | -6,700 (b) | 16,000 (e) |
| 경상수지 | " | 5.9 | 6.1 | 5.0 | 3.6 (a) | 3.7 (d) | 1.0 (e) |
| 환율(연평균) | 현지국/US\$ | 21,935 | 22,698 | 22,825 | 23,155 | 23,584 (b) | 23,400 (f) |
| 해외직접투자 | 백만 달러 | 970.7 | 350.1 | 477.6 | 380.8 | - | - |
| 외국인 직접투자 | 억 달러 | 12.6 | 14.1 | 14.2 | 14.4 | 14.7 (b) | 27.0 (d) |

주: (a) IHS 추정치, (b) IHS 전망치, (c) IMF 추정치, (d) IMF 전망치, (e) UN 2020 7월 통계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HIS, IMF, 베트남 중앙은행(SBV)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베트남은 10년간의 사회경제개발전략, 5년간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종료와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전략과 5년간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경제개발 목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음. 코로나19발 글로벌 경기 불황 이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발전 방향과 목표 수립에 귀추가 주목됨. 또한 베트남은 2020년 8월 1일 발효된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으로 글로벌 경제 통합 노력을 가속화, EU의 1억 인구 시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음. 장기화 되어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가.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발표

- 베트남, 지난 10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수립
 -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 5년 단위의 사회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방향성 수립과 추진 동력으로 삼음
 - 2020년을 끝으로 지난 10년간의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되며 현재 향후 베트남 경제의 목표설정과 거시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 13차 전당대회에서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며, 지난 10년간의 양적·질적 달성 실적을 평가하여 새로운 목표와 과제 설정 후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5개년(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의 주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 거시경제 안정화, 2011~2015년 실적을 상회하는 고성장 달성, 경제성장 모형 혁신, 생산 능력 및 효율성 증대,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전략 및 경제 구조개혁 이행, 현대적 산업국가로의 조기 전환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음. 경제성장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인 7%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말까지 3.8% 성장 시에는 5개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5.9%로 전망
 - 베트남은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 난항,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연기, 5년만의 재정적자 최고액 예상(2020년 상반기 GDP 대비 -5.08%), 외국인 직접투자의 높은 의존성 등 오랜 해결 과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21-2030 사회경제개발 계획에서도 베트남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 구분 | 지표 | 목표치 |
|------|--------------------------------------|-------------------------|
| 경제지표 | 5년간 평균 국내총생산량(GDP) | 6.5~7%/년 |
| | 2020년 1인당 평균 GDP | US\$ 3,200~3,500 |
| | 2020년 GDP 내 공업 및 산업 비중 | 약 85% |
| | 5년간 평균 사회 전체 투자총액 | GDP의 약 32~34% |
| | 2020년 국가재정 적자액 | GDP의 4% 미만 |
| | 경제성장 기여 총 요소 생산성(TFP) | 약 30~35% |
| | 사회 노동생산력 평균 성장률 | 약 5%/년 |
| | 평균 GDP 대비 에너지 소모율 | 1~1.5%/년 감소 |
| 사회지표 | 2020년까지의 도시화율 | 38~40% |
| | 2020년 사회 총 노동력 가운데 농업 노동력 비율 | 약 40% |
| | 2020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 | 약 65~70% |
| | 2020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 가운데 학위·자격증 소지자 비율 | 25% |
| | 2020년 도시지역 실업률 | 4% 미만 |
| | 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 9~10명 |
| | 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 26.5개 |
| 환경지표 | 2020년 의료보험 보급률 | 인구의 80% 이상 |
| | 빈곤가구 평균 감소율 | 약 1.0~1.5%/년 |
| | 2020년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률 | 도시인구의 95%, 농촌인구의 90% |
| | 2020년 위해 폐기물 처리율 | 85% |
| | 2020년 의료 폐기물 처리율 | 95~100% |
| | 2020년 산림률 | 42% |

자료: Resolution 142/2016/QH13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주요 내용 및 평가

○ 차기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는 2019년 8월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포럼을 통해 개괄적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의 경우 2차례의 정부 문서(18/CT-TTg, 31/CT-TTg)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선 5년간의 사회경제 전략 목표별 달성 현황, 코로나19 확산세 및 글로벌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오는 제13차 전당대회 이후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주요 정책 및 방향〉

| 주요 정책 방향 | 핵심 과제 | 해결해야 할 과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이고 통합된 시장기반 경제로의 전환 -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구축, 수정, 시범운영 -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기업 중심의 발전 지향, 혁신적인 신규 정책의 파일럿 테스트 실행을 허용, 신규 비즈니스 및 기술(국가관리, 제조, 경영, 사회조직의 디지털화) 모델의 실행화 및 리스크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국가 경쟁력 발전과 세계 경제 통합 가속화를 위해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 지역화율 향상,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 향상 (2019년 기준) |

| | | |
|-----------------|---|---|
| 스의 제공, 환경 보호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5G, 인공지능, 블록 체인, 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한 신규 기술의 응용 확대, 청정에너지, 환경 기술, 생산성 향상, 경제 효율성 증대 -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핵심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에 초점, 국가 혁신센터 및 스타트업 생태계 시스템 개발) |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양성 강화, 첨단과학기술 육성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필요 -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시장경제 모델의 완전한 수용 - 디지털 경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확립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 디지털화, 인공지능, 자동화, 재생에너지, 환경기술 등에 집중 투자 필요 |
|-----------------|---|---|

자료: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 발표내용, 2019년 9월 19일 발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우선순위 및 주요 내용

- (1) 거시경제적 안정과 통제 하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관점으로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 체도를 개선
- (2) 더 높은 생산성, 경쟁력 및 경제 회복력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기업의 설립을 촉진, 또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
- (3) 경제의 기본 생산 투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구역의 개발과 산업 지원을 추진
- (4) 교통, 항구, 에너지, IT, 도시 및 농업 분야에서 동기식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 주택 개발 전략과 현대화된 농업의 국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현
- (5)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 개발, 공공 부채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 향상, 국가 우선 프로젝트의 건설 진행을 가속화
- (6)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고 경제 현대화 및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사용
- (7)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천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 강화
- (8) 법의 공식화, 완성 및 집행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
- (9)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 사법행정 및 형 집행과 관련 사법부 운영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 전자정부를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를 위해 노력
- (10) 국방 안보, 영토 보전, 주권 및 독립을 지속적으로 보호, 정치적 안전과 사회 안전 질서 유지
- (11) 외교 정책 및 국제 통합의 효율적 실행 유지, 베트남의 발전을 위한 평화, 안정에 유리한 조건 보장

자료: 18/CT-TTg(2020년 4월 13일),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나. 코로나19발 GVC 변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베트남 영향

□ 코로나19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베트남 영향

- 코로나19발 중국 원부자재 수급·제조공장 셧다운 발생으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선 및 생산기지 다변화 추세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미-중 무역분쟁, 생산가격 상승 등으로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를 물색하던 기업들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분산 동향이 포착됨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동향

- (LG) 중(中)·한(韓) 거점의 생산기지 일부 베트남으로 이전 → 하이퐁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2,000명 신규 채용)
- (Foxconn) 에어팟 생산 물량 30%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 박장성 내 인도국적 기업 인수
- (폐가트론) 중국에서 하이퐁으로 생산설비 이전, 삼성 스마트폰 펜 등 제조
- (퀄컴) 중국라인 대체 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 신규 공장 및 R&D센터 신설 계획 발표
- (Sharp) 호치민시 인근, 2020년 중 LCD 패널 생산기지 마련 계획
- (Dell·HP) 노트북 생산량의 최대 30%가량을 베트남으로 이전
- (파나소닉) 태국의 냉장고, 세탁 제조설비 베트남으로 이전

자료: Asia Nikkei Review, JETRO, CNBC, REUTERS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흐름에 대비한 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재정비
-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사업으로 중국 진출 일본 기업 30개사의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그 중 15개사는 베트남으로 이전 예정으로 자국 기업의 차이나 리스크 분산에 적극적인 입장임
-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개정, PPP법(민관합작투자법) 발효, EVFTA(베트남-EU FTA) 발효 등을 내세운 적극적인 FDI 유치를 준비함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베트남 경제 영향

- 2019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469억 8천 달러로, 전년 대비 34.7% 상승하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 수혜*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
 - * 베트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동향: 2014년 223억 달러, 2015년 257억 달러, 2016년 297억 달러, 2017년 323억 달러, 2018년 348억 달러, 2019년 469억 달러(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중국의 2019년 대(對) 미국 수출액은 310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그 중 46%는 베트남에 흡수되어 140억 달러규모의 공산품을 미국에 추가로 수출한 것으로 분석(AT커니)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으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베트남 이동
 -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 베트남 분산 및 이전 발생
 -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베트남에서의 주력 생산 품목과 유사하여 중국 대체지로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2019년~2020년 상반기 중국 자본의 베트남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부품, 철강금속, 섬유봉제 분야로 미국 수출 장벽 우회 및 EVFTA 발효로 인한 EU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미-중 무역분쟁 이후 탈(脫) 중국기업 현황(2020년 9월 기준)〉

| 기업명 | 생산 제품 | 본사 | 생산 이전 계획 국가 | 비고 | |
|------------------|---------------------------|-------------------------|-------------|-------------------------|--|
| 삼성 | 스마트폰, 가전 | 한국 | 중국 → 베트남 | 이전 완료 및 생산 시작 | |
| LG | 가전 | | | | |
| Lovesac | 가구 | 미국 | 중국 → 베트남 | - | |
| Google(협력사) | 스마트폰 pixel4a | | | 2020년 4월 이전 완료 및 생산 시작 | |
| HP | 데스크톱 및 노트북 | | | - | |
| Amazon | Echo 스피커, Kindle 전자책 | | | 2020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생산 예정 | |
| Brooks Sports | 신발 | | | 호치민으로 이전 완료 | |
| Microsoft | Surface (노트북, 태블릿 PC 제품군) | | | 2020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생산 예정 | |
| 나이키 | 신발 및 스포츠용품 | | | 중국 공장 축소 후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 | 50% ↑ 의류 생산 중. 생산라인 증설 예정 |
| Dell | 데스크톱 및 노트북 | 중국 → 베트남, 대만, 필리핀 분산 이전 | 공장 건설 중 | | |
| Apple iPhone 협력사 | 고에르텍 비나 | Airpods, 스피커폰 | 중국 → 베트남 | 공장 건설 중 | |
| | 력스셰어 ICT (Wistron 인수합병사) | Airpods, Airpods Pro | | 중국 | 2020년 8월 기준 생산기지 이전 임시 중단(직원 거주 기숙사 기준 미달) |
| | Inventec | Airpods | | 대만 | 공장 건설 중 |
| | Pegatron | 아이폰 조립 | | | 이전 완료 |
| | Foxconn | 아이폰 조립 | | | 2020년 말 이전 완료 |
| Panasonic | 전자제품 | 일본 | 태국 → 베트남 | - | |
| Nintendo | Switch 게임기 | | 중국 → 베트남 | - | |
| Sharp | LCD 디스플레이 | | 호치민 신규 건립 | - | |
| | 컴퓨터 | | 대만 → 베트남 | - | |
| Kyosera | 프린터 | | 중국 → 베트남 | - | |
| Asics | 신발 및 스포츠 용품 | | 중국 → 베트남 | - | |
| Citizen Watch | 시계 | | - | - | |
| Casio | 시계 | | 중국 → 태국 | - | |

자료: Asia Nikkei Review, JETRO, CNBC, REUTERS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미국의 대(對) 베트남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지정

- 미 재무부는 2019년 5월과 2020년 1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통해 수출되는 한국과 대만산 철강에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의 대체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 및 우회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20년 8월, 미 재무부는 베트남의 의도적 달러 대비 동화 가치 절하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베트남의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함

다. 베트남-EU FTA 발효

□ 베트남-EU FTA 발효를 통한 EU 시장 진출기반 마련

- 베트남-EU FTA*, 9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8월 1일부 발효
 - 베트남과 EU 양자 간의 FTA 협상이 타결(2015년 8월)된 이후, 양측은 2018년 10월 FTA 서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함
 - EU의회 및 정상회의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EU-베트남 FTA(EVFTA)를 비준하였으며 이후 베트남 국회의 2020년 6월 8일 EVFTA 비준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로 EVFTA가 발효되기 시작함
- *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2012년 6월) → 양국 12차 협상 완료(2012년 6월) → EU-베트남 FTA 타결(2015년 8월) → EU-베트남 FTA 체결(2015년 12월)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 완료(2018년 8월)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 완료(2019년 6월) → EU의회(2020년 2월) 및 EU정상회의(2020년 3월) EVFTA 비준 → 베트남 국회 EVFTA 비준(2020년 6월) → EVFTA 발효(2020년 8월)

□ 기대 효과

- 의류, 식료품 등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대(對) 유럽 수출 확대
 - EV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 최고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자랑하며 베트남의 대(對) EU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물품 70.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7년 후에는 99.7%의 관세가 사라지며 특히 의류·식료품 등의 EU 시장 진출 기회 다대
- * 세계은행, 베트남에 대해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GDP 2.4%, 수출 12% 증가 전망
- 현지 진출 기업은 적극적 EVFTA 활용을 위해 GSP 특혜세율과 EVFTA 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행, 정확한 원산지 판정에 입각한 원산지 증명서 구비 등 준비가 필요
 - EU는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베트남은 EU와의 FTA 발효로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총 무역에서 76%를 차지하게 됨

라. 인프라 투자 확대

□ 베트남 정부, 공공투자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

- 2020년 7월, 공공투자 지출 지난 4년 만에 최고로 증가
 - 2020년 7월까지의 공공투자 지출액은 총 882억 달러(203조 동)로 연간 계획의 42.7%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27.2% 증가함. 7월 한 달간 지출액은 총 1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함

- 2020년 7월 기준 공공기관별 목표 대비 지출액 비율은 교통부(41.6%), 보건부(34.7%), 농업부(39.6%)이며, 물가상승률은 평균 4.07%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핵심 물가 상승률*은 2.74%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과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등 중앙은행이 통제 불가능한 일시적·단기적인 물가 충격요인을 제외해 산출하는, 장기적·구조적인 물가상승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폭 총리는 자본, 부채, 수속 등 3가지 적체문제를 척결하여 국가 예산 및 ODA 자본을 포함한 공공 투자 지출 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

○ 공공투자 지출 효율성 제고, 일부 PPP 사업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 결정

- 2020년 6월, 베트남 국회는 공공투자사업이 자본효율성과 투자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남북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기존 PPP 사업 형태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남북고속도로는 총 654km, 11개 구간, 총 한화 약 6조 3천억 원 규모. 이 중 8개 구간 사업비용은 PPP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미뚜언-껀터 도로 건설사업 형태를 PPP에서 공공투자 형태로 전환 예정. 남북고속도로 건설 PPP 사업은 종전 8개에서 5개로 감소함. △마이선-국도 45호선(63km), △빈하오-판티엣(104km), △판티엣-여우 지어이(98km) 3개 구간, 2020년 9월 30일 착공

□ PPP법 국회 통과

○ 10년간에 걸친 PPP법*, 국회 통과로 2021년 1월 1일부 발효

- 민관합작투자(PPP)법은 2020년 6월 18일 베트남의 국회 승인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 발효 예정임(64/2020/QH14)
- 기존 시행령(63/2018/ND-CP) 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을 허용하는 등의 법령이 신설됨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의 자금, 효율성, 전문성을 활용코자 함

* PPP법 제정 과정: (2007년) Decree 78/2007/ND-CP → (2009년) Decree 108/2009/ND-CP → (2015년) Decree 15/2015/ND-CP → (2018년) Decree 63/2018/ND-CP → (2020년 6월) Law No.64/2020/QH14 PPP 법안 통과 → (2021년 1월 1일) PPP법 발효 예정

○ 베트남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020년 7월 기준, 베트남에는 다수의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준공 시기를 지키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추진 중인 상태임

〈베트남 인프라 사업 현황(2020년 7월 기준)〉

| | | |
|-------|----|--|
| 교통·물류 | 철도 | - 2020~2029년 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기대 - 하노이 호치민 고속철도 건설 사업(총 1,560km), 579억 달러 투입, 2045년 완공 목표(정부 자본 80%, 민간 자본 20%를 합쳐 PPP로 추진 중) - 하노이 도시철도 3~6호선 전체 혹은 일부 구간 포함 |
| | 항만 | - 2020~2029년 평균 2.6% 성장 전망 - 추가 인프라 확충에 약 34억~43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주요 항구의 효율성 개선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에 항만 개발의 초점을 맞추 |

| | | |
|-----------|----------|---|
| | | <p>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는 PPP로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 내용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제구역에 심해항 및 환적항 개발, 처리 용량과 효율성 향상 |
| | 공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9년까지 평균 4.2% 성장 전망 - 베트남은 현재 11개 국제공항을 포함 총 23개 공항 운영 중 -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규 공항 건설의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공항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 - (기존 공항 확장) 하노이 노이바이, 호치민 떤선녓, 다낭 국제공항 검토 중 - (신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롱단 국제공항: 143억 달러 투자, 완공 후 매년 1억 명의 승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 1단계 입찰에서 한국기업 희림이 선정. 1단계 시행사로 베트남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우리기업의 항공관련 기자재 수출 및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 향상 기대 2) 사파 신공항: 연료기지 건설 등 총 7,630만 달러 규모 PPP 예상 |
| 에너지 | 화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사업비 총당과 외국기업의 발전된 기술 활용을 위해 BOT 방식의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스코에너지, 향후 25년간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2019년 10월 팜닌성 몽즈영2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 및 준공에 이어 2020년 2월에는 몽즈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 AES와 함께 18억 5천만 달러를 투입, 베트남 정부와 응에안성 편랍 II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MOU 체결 - 편랍 II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하노이 남쪽으로 270km 거리에 위치한 응에안성 동남 경제특구 내에 1,200MW(600MW × 2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민간 투자자가 건설해 일정 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BOT* 방식의 사업임 * BOT(Build-Operate-Transfer)는 PPP의 한 형태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 |
| | 천연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남부를 중심으로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가스생산량의 감소로 2021년부터 수입이 불가피함. WB는 천연가스 수입 인프라에 최소 70억-9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전망함 - 정부는 2030년까지 천연가스를 전체 발전량의 12%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 천연가스 기업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 |
| | 수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나 부지 부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발전 비율이 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정상 30MW급 발전소 프로젝트만 PPP가 가능하여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민간기업의 관심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 | 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계획된 주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체되며 전력 부족이 현실화함. 원자력발전소 2기(1000MW, 5000MW 각 1기) 건설계획을 국가전력계획 초안에 포함,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추진을 검토 중 |
| | 재생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베트남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릴 계획 -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장비, 기계에 관한 수입관세 면제, 토지세 일정 기간 감면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
| | 전력공급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전력송전공사(NPT), 33개의 송전 프로젝트(500kV 3개, 220kV 30개)를 추진 |
| 주거·비주거 빌딩 | 주거 건설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9년까지 연평균 7.2% 성장 전망 - 2050년까지 베트남 전체 인구의 5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간 신주택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민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진출 확대로 지난 10년간 공공부문보다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임 |
| | 비주거 건설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 중산층 형성과 민간 구매력 증대를 통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투자 환경 재정비 중 - 산업단지에서 항구, 공항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건설 포함 |

| | | |
|--|-----------|---|
| | 관광용 빌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고급 리조트 및 호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이후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단된 곳이 많음 - 40억 달러 규모의 팡남성 리조트, 하노이 소재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파크 하얏트 호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이 재개된다면 관련 프로젝트 역시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및 호치민무역관 종합

○ 신규 제정 PPP법(64/2020/QH14) 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유의사항

- (위험분담제도) 실제 매출이 계획안보다 75%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투자자에게 보전해주기로 함. 반대로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1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분을 베트남 정부와 절반씩 나눠가져야 하므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상 매출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함
- (외화 태환 허용) 민간투자자가 베트남 동으로 받게 되는 수익의 30%까지 달러로 환전해 반출하는 태환이 허용될 예정이나 프로젝트 수행 시기의 베트남 정부 외환 관리정책, 각 시기의 외화 보유고, 사업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총리가 결정하는 사업의 외화 태환 허용률이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함

마. 디지털 경제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의지 다대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6월 '2025년까지, 2030년 지향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 749/QD-TTg)'을 발표
 -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디지털 정부·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베트남 디지털 기술 기업을 설립하는 것임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GDP의 20%, 부문별로 최소 10% 차지, 연간 노동 생산성 7% 향상을 목표로 하며 그 외에도 ICT 발전 지수 및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50위, 글로벌 혁신(GII)에서 3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4G 및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폰 보편화, △인구 80% 이상 전자결제 사용 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 영역을 위주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IT, 데이터 분야 전문가 및 연관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 교육, 금융, 은행, 농업, 교통,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 및 산업 생산

□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센터 운영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4차 산업의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ational Innovation Center: NIC) 설립 결의(1269/QD-TTg)
 - 지난 2019년 6월 SK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설립에 3천만 달러를 보조, 현지 신성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약속
 - 국가혁신센터는 하노이 외곽 지역인 호아락 첨단기술연구단지(Hoa Lac High-Tech Park: HHTP)에 23ha 규모로 건설 예정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2020년 8월 21일 국가혁신센터 입주기업 인센티브 규정(94/2020/ND-CP)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0월 5일부터 발효

〈Hoa Lac High-Tech Park(HHTP) 국가혁신센터 입주기업 인센티브 주요 규정〉

| | |
|------------|---|
| 토지 및 토지 운영 | 입주기업은 첨단기술연구단지에서 5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모든 토지 대여가 면제됨. 기반시설 사용료, 보상금 전액 면제 |
| 수입관세 면제 | 하이테크 고정 자산 개발을 위한 상품 및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 수출입 규정에 따라 R&D, 기술개발, 기술 인큐베이팅, 기술 혁신에 직접 적용되어 아 함) |
| 면세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첫 해부터 10%의 법인세율 적용 - 베트남 내 국내 생산 불가한 제품 생산용으로 수입하는 원료, 물품,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미지급 소득을 받은 날로부터 9년간 미지급 세금 50% 감면 |

자료: 94/2020/ND-CP

○ 국가혁신센터(NIC)의 중점 육성 분야

- NIC의 중점 영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으로, 분야별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디지털 미디어(게임, 광고, 영화, 음악), 네트워크 보안, 환경기술 분야 등임*

* 베트남 정부는 대규모 기술 보유 기업 40개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50개사, 벤처투자펀드 15개사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베트남은 공산당의 단일 지도체제 아래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해외로부터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성공적 방역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이로 인한 관광·서비스업의 불황은 베트남 내수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교역, 내수 경기는 베트남의 내실 있는 경제 체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2020년 투자법 개정, PPP법 국회 통과, EVFTA 발효 등 베트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음. 새로운 회기의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2021년 초 개최 예정인 제13차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새로이 선출될 예정으로, 2021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베트남 경제와 정치의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가. 정치 환경

□ 베트남 정치체제 개관

○ 베트남 정치조직 개관 및 특성

- 베트남은 전통적 레닌주의 정치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 공산당의 강력한 집권 하에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 중임
- 베트남 공산당*은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는 정치기구로서 국가와 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 활동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14만 3천명 신규 입당으로 인해 2019년 기준 베트남 공산당원 규모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됨(베트남 내무부 발표)

○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부 인선 방식

- 베트남의 전당대회*는 5년마다 소집되는 베트남 공산당 최대 행사로, 당의 중요 정책 노선을 결정, 신규 당의 규약 인준·채택**, 차기 지도부***를 구성함

* 전당대회에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정위원 184명, 후보위원 20명)와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구인 정치국이 구성되며, 정치국 위원(17명) 중에서 베트남 정치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선출됨

** 2019년 5월 30일에 공포한 결정문 35-CT/TW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

*** 전당대회 개최 전 열리는 중앙회의에서 차기 당 서기장 선출과 국가 요직(주석, 총리, 국회의장) 후보자 내정이 이루어지며, 전당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승인과 국회 표결을 통해 인사가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

- 최근 전당대회는 2016년 1월에 개최된 제12차 전당대회이며, 13차 전당대회는 2021년 1월 개최 될 예정임

○ 현 지도부 체계

-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서열 1위)

* 2018년 9월 쩌 다이 팡(Tran Dai Quang) 국가주석(권력 서열 2위)이 서거하면서, 응웬 푸 쩡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됨

- 응웬 티 김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3위)

- 응웬 쑤언 푸크(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4위)

〈베트남 지도부 주요 인사(권력 서열순)〉

| 베트남 당 서기장 (Nguyễn Phú Trọng) | 국회의장 (Nguyễn Thị Kim Ngân) | 총리 (Nguyễn Xuân Phúc)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 · 하노이 국립 대학교, 철학 전공 · 러시아에서 유학 · 1968년, 공산당 공식 가입 · 공산잡지의 최고 편집장 진급 · 1994년, 중앙 당 위원회원 · 1997년, 당 정치국원 · 2002년, 국회의원 · 2006년, 국회의장 · 2011년, 당 서기장 · 2016년, 당 서기장 연임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Ben Tre성 출신 · 2016년 Forbes 선정,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 경제대 석사 · 1981년, 공산당 공식 가입 · 2001년~ 중앙 위원회원 · 2002년, Hai Duong성 서기장 · 2007년, 노동사회보훈부 · 베트남 중앙위원회 서기장 · 2016년, 베트남 최초 여성 국회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Quang Nam성 출신 · 하노이 국립 경제 대학교 · 1983년, 공산당 공식 가입 · Quang Nam성 사무소장 역임 · 성 정부 개발투자부장 · 1997년~ 성의 인민위원회원, 부의장, 의장, 부서기장 역임 · 1999~2004년, 성 인민위원장 · 2016년, 베트남 총리 |

주: 2018년 9월 21일 Tran Dai Quang 주석의 서거로 당 서기장인 Nguyen Phu Trong의 국가주석 겸임이 결정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 정치 동향 및 주요 이슈

○ 2021년 제13차 전당대회 개최

- 베트남은 2020년 1분기 중 13차 전당개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차후 10년간의 '2021~2030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과 당 서기장, 중앙집행위원회 등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이 주요 논의 사항임

- 전당대회는 개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실질적 토의나 결정보다는 사전에 제출된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역할 수행하며, 현재 13차 전당대회에 제출될 서류들의 초안은 작성이 완료되었음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의 당 서기장 선출의 예상후보로는 응웬 쑤언 푸크 총리, 쩌 꾸억 브엵 당 상임서기, 팜 밍 쩡 당 중앙 조직위원장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임

〈2021년 제13차 전당대회 당 서기장 선거 예상후보〉

| 응웬 쉐언 푸 현 총리 (Nguyễn Xuân Phúc) | 쩐 꾸억 브영 현 당 상임서기 (Trần Quốc Vương) | 팜 밍 쩡 현 당 중앙 조직위원장 (Phạm Minh Chính)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팜남성 출신 · 2선 정치 국원 · 정치 리더로서의 경험을 두루 쌓아 후계 경쟁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타이빈성 출신 · 1선 정치 국원 · 중앙 검찰위원장 출신, 쩡 서기장의 반부패 사정을 주도한 인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타이호아성 출신 · 팜닌성에서 당을 이끌며 경제·행정 개혁을 추진한 것이 강점 |

자료: Reuters, VNExpress

○ 2021년 13차 전당대회 주요 논의 사안

- 2020년 8월 31일, 응웬 푸 쩡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1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 방향과 준비 정도를 발표하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함
-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연대, 민주주의, 규율, 혁신 및 발전을 골자로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이행 정도와 35년간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 '플랫폼 1991'*의 이행, 2011년 개정 및 보완된 이후의 플랫폼 이행, 2011~2020년 동안의 사회경제개발전략 등을 검토할 계획임
- * 제7차 전당대회(1991년)에서 제안된 의회의 보고서로, 1991년 사회주의 전환기의 국가 건설 플랫폼, 2000년까지 사회경제 안정화 및 발전 전략 등이 주요 내용임
- 특히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국가의 과제와 지향점을 발표하고,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30년의 사회경제 목표와 함께 2045년을 지향한 국가 발전 비전(민주공화국 창립 100주년 기념해)을 제시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 12대 집권 초부터 당 중앙위원회는 8개 당 조직, 45명의 당원 등을 포함 총 111명의 당원을 징계 하였으며, 중앙위원회 관리직의 경우 정치국 2명, 전 중앙위원회 위원 21명, 경찰 38명, 군 장성급 23명 등을 포함한 총 92명을 징계함
-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서기장은 임기 동안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부패 척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 126/NQ-CP을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베트남은 2020년 96위로 2년 만에 21계단 상승함
- 이러한 베트남의 부패 척결 의지로 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일부 개선 된 것으로 보이나, 지방 정부까지 개선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부정부패 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 북부 빈곤퇴성의 건설부 뇌물수수 연루 사건(2019년 6월), 호치민시 베트남 건설부 감찰반 직원 뇌물 요구 사건으로 직원 7명 기소(2019년 6월), 응우옌 득 쯡 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넷코잉 사건 관련 비리, 국가 기밀문서 도용 및 공공자산 관련 배임 등 세 가지 혐의로 90일간 정직 처분을 받던 도중 18일 만에 구속 기소 됨(2020년 8월)

나. 경제 환경

□ (경제 성장)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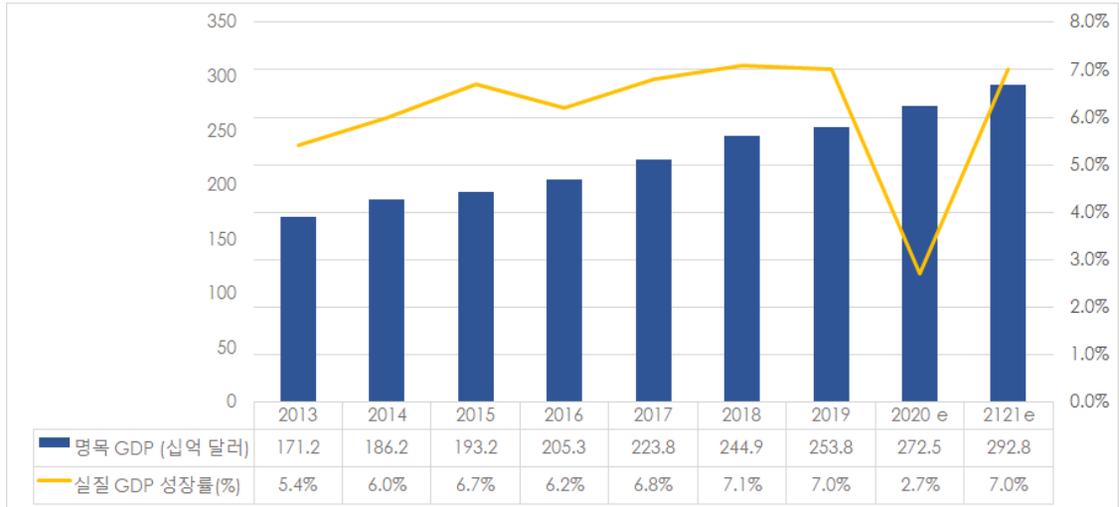
- 베트남은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81% 기록(2020년 1/4분기 3.68%, 2/4분기 0.36%)
 -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2020년 상반기 1.8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2020년 상반기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산업은 제도가공업(4.96% ↑), 도소매업(4.3% ↑), 금융은행 보험업(6.79% ↑) 등임
 - 베트남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결의안(Resolution No. 85/2019/QH14)'을 통해 2020년 경제 성장 목표를 6.8%로 확정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성장 둔화가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당초 성장 목표를 4.5%로 하향 조정
 - 주요 경제기관들은 베트남은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되나, 2020년 7월 이후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관광 및 서비스업이 심하게 위축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수정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5%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국제 금융기관의 베트남 경제 전망〉

| 기관명 |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업데이트 시기) |
|--------------|---|
| IMF(국제통화기금) | 2.7%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년 4월) |
| WB(세계은행) | 4.9% (World bank Economic outlook, 2020년 4월) |
| ADB(아시아개발은행) | 4.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2020년 4월) |

자료: IMF, WB, ADB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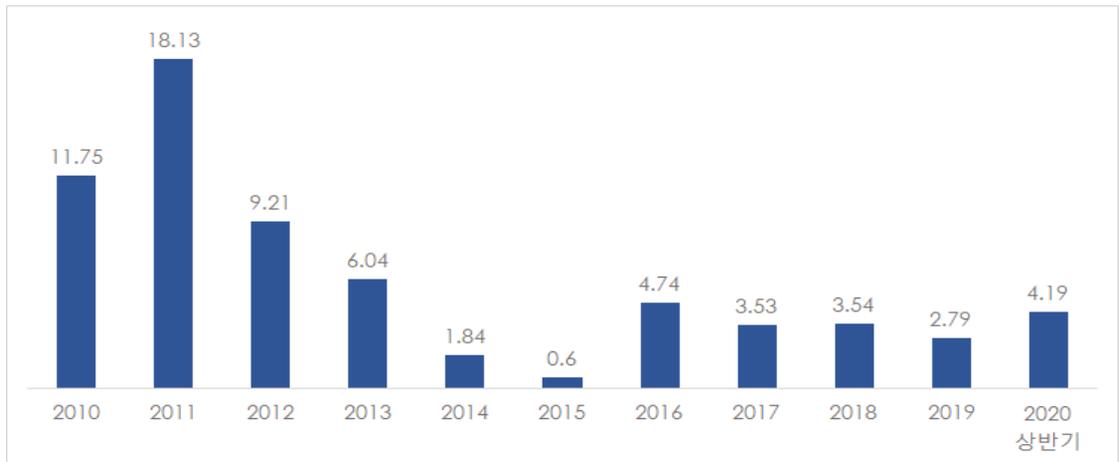
○ 2020년 물가상승률은 4% 미만대로 전망

- 2019년도 경제성장률은 7.02%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어 당초 베트남 정부의 목표인 4% 이하 수준을 달성함

* 베트남의 연평균 CPI 상승률 추이(%): (2013년) 6.60% → (2014년) 4.09% → (2015년) 0.63% → (2016년) 2.66% → (2017년) 3.53% → (2018년) 3.54% → (2019년) 2.79% → (2020년) 4.00%(목표)

〈지난 10년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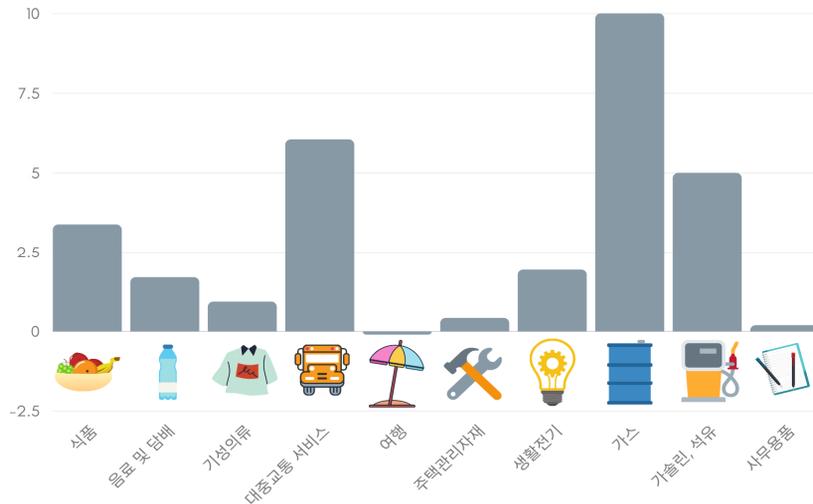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2020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

- 이는 전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인 2.64%보다 높은 수치이며 특히 6월의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0.66%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식품이나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2.81% 상승함
- 곡물, 식품, 외식 물가가 각각 전년 대비 11.17%, 3.38%, 14.28% 상승하는 등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음료 및 담배 가격이 7.54% 증가하여 물가 상승을 견인
- 베트남 정부는 2020년도 물가상승률 목표를 4% 이하로 설정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감소, 주식 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힘

〈2020년 상반기 항목별 CPI 지수 변화〉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산업별 환경) 코로나19의 영향, 공업·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성장 둔화

- 2020년 상반기(1~6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8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보임. 공업·건설업(33.44%), 서비스업(42.04%), 농림수산업(14.16%) 순으로 비중을 차지
 - (공업·건설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제조업 품목 수출량 감소*
 - * 2018년 34.28%의 비중에서, 2019년 상반기 51.8%로 2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업·건설 산업이 위축되며 33.44%로 하락함
 - (서비스업) 해외 관광객 유입 제한으로 인해 관광 및 서비스업에 타격**
 - ** 2019년 상품·서비스 시장의 소매 매출 규모는 4940조 동(약 2,148 달러)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0.57% 성장에 그침
 - (농림수산업) 상반기 농림수산업 성장률은 1.19%로 쌀 수출만 13.3% 증가하고 다른 주요 농작물은 수출 감소를 보임***
 - *** 2020년 상반기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산물 36억 달러(7.6%↓), 커피 15억 9천 달러(0.6%↓), 캐슈너트 14억 8천 달러(1.3%↓), 쌀 17억 달러(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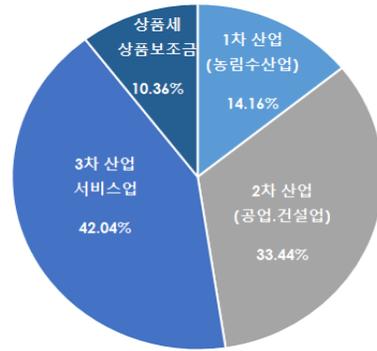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산업별 GDP 성장률〉

(단위: %)

| 구분 | 성장률(GDP 성장 기여도) |
|-------------------|-----------------|
| 전체 | 1.81 |
| 1차 산업 (농림수산업) | 1.19(2.10%p) |
| 2차 산업 (공업·건설업) | 2.98(5.30%p) |
| 3차 산업 (서비스업) | 0.57(1.03%p) |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산업 구조〉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2020년 6월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1.1로, ASEAN 국가 중 1위를 차지
 - 베트남(51.1), 말레이시아(51.0), 필리핀(49.7), 미얀마(48.7), 태국(43.5), 인도네시아(39.1), 싱가포르(38.8) 순(아세안 평균 43.7)
 - 베트남의 생산물량, 새 주문물량 및 일자리의 증가로 PMI는 50 이상의 확장세가 지속 유지되고 있어, 생산·경기의 활황을 나타냄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제조업 PMI 추이〉



주: 구매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자료: IHS Markit

□ (교역 동향) 상반기 무역흑자 54억 6천억 달러, 코로나19 속 완만한 회복세 시현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지난 4년간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2.2%(수출액 12.9%, 수입액 11%)의 속도로 증가함
 - 2017년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삼성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20% 이상 수출·입이 증가 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완만해짐

- 최근 2020년 1~6월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의 위축 속에서도 각각 1,227억 달러, 1,173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
 - 특히 무역수지는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규모를 달성하며 수출 주도형 경기 부양기조를 지속함

〈최근 베트남의 대외 교역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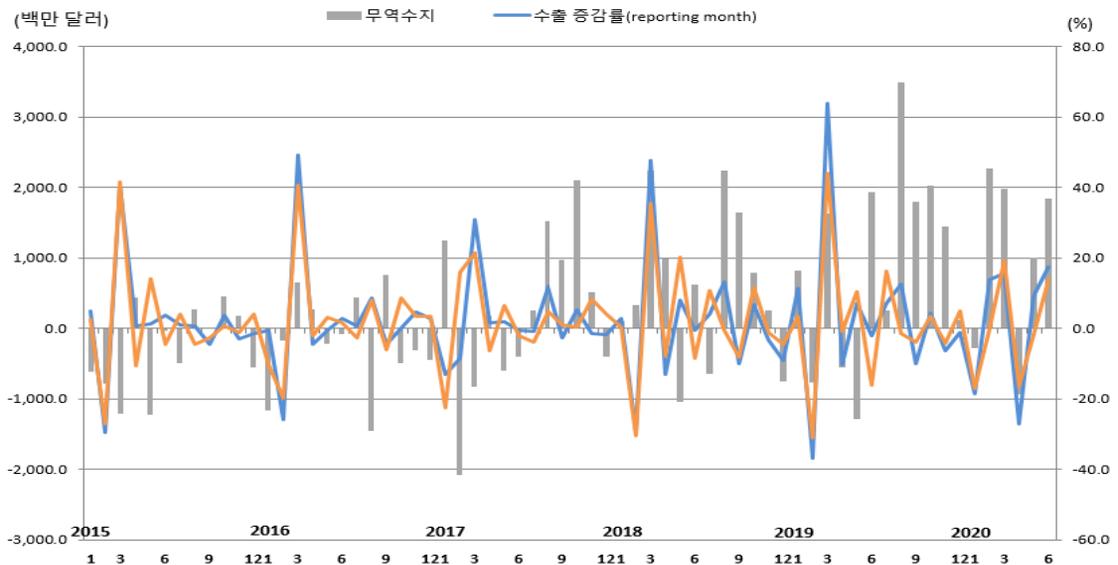
(단위: US\$ 백만)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상반기 |
|-------|------------------|-------------------|-------------------|------------------|-------------------|
| 수출 | 176,581 (9.0) | 214,019 (21.2) | 243,483 (13.2) | 264,289 (8.4) | 122,788 (0.2) |
| 수입 | 174,804 (5.6) | 211,104 (20.8) | 236,688 (11.1) | 253,071 (6.8) | 117,326 (-2.9) |
| 무역 규모 | 351,385 (6%) | 425,123 (21%) | 480,171 (12%) | 517,360 (7%) | 240,114 |
| 무역수지 | 1,777 | 2,916 | 6,795 | 11,118 | 5,461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특히, 강한 수출 증가로 4년 연속(2016~2019년)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 2019년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
 - 베트남 수출 증가는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무역수지 흑자 증가는 외환보유고 및 환율 개선을 견인
 - * 2020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베트남 수출 주요 품목: 휴대폰 및 부분품(490억 달러), 석유 및 의류(304억 달러), 컴퓨터 및 전자기기(293억 달러), 기계 장비(165억 달러), 신발류(162억 달러), 목재류(89억 달러) 등
 - 중앙은행은 무역수지 흑자 덕분에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동화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월별 무역수지 추이 동향〉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FDI 동향) FDI 기업*의 수출 성장 주도

- 2020년 상반기 수출 총액은 1,212억 1천만 달러이며 베트남 자국 기업 수출은 413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1%를 차지함. 원유를 포함한 FDI 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798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5.9%를 차지함

* 연도별 FDI 기업의 수출액 비중 추이: (2014년) 62.5% → (2015년) 68.2% →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8% → (2020년 8월까지) 64.2%

- FDI 수출액은 1,81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대비 68.8% 비중을 차지하여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베트남 내 FDI 기업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US\$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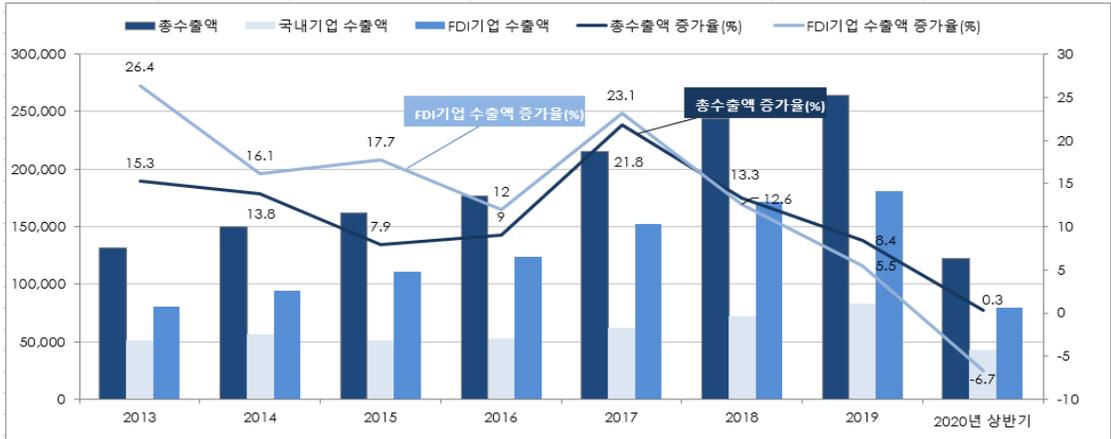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1월~6월 | 2015~2019년 CAGR(%) |
|---------------|---------------------|---------------------|---------------------|---------------------|--------------------|----------------|-----------------------|
| 수출액 (증감률) | 110,556.6 (17.7) | 123,874.4 (12.0) | 152,188.7 (22.9) | 171,766.9 (12.9) | 181,350.0 (4.2) | 79,716.5 | 13.9 |
| 수입액 (증감률) | 97,226.5 (15.5) | 102,436.0 (5.4) | 126,372.8 (23.4) | 141,939.0 (12.3) | 145,500.0 (2.5) | 65,664.3 | 11.8 |
| 총교역액 (증감률) | 207,783.1 (16.6) | 226,310.4 (8.9) | 278,561.6 (23.1) | 313,705.9 (12.6) | 380,200.0 (7.2) | 145,380 | 13.6 |
| 무역수지 | 13,330.1 | 21,438.4 | 25,815.9 | 29,827.9 | 35,850.0 | 14,052.2 | -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2019년 FDI 기업 수출액 증가율은 베트남의 총 수출액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함
 - 2019년 FDI 기업은 1,8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2018년 대비 4.2% 증가함
 - 베트남 기업 수출 수익의 대부분은 FDI 분야에서 창출, 무선통신과 부품 분야에서 FDI 수출 가치의 95%를 차지함
 - 베트남 국내기업은 2019년 259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반면 FDI 부문은 25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베트남 국내기업 수출액 증감률: (2014년) 10.1% → (2015년) -8.5% → (2016년) 2.4% → (2017년) 18.7% → (2018년) 14.9% → (2019년) 15.3%

〈베트남 내 FDI 기업 및 국내기업 수출액 동향〉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기획투자부

다. 산업 환경

□ 전기·전자

- 베트남 내 최대 전자 제조회사인 삼성전자 및 자회사(디스플레이, 전기, 호치민 가전)는 2019년 약 658억 달러의 매출, 513억 달러 규모(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5%) 수출을 달성하며 베트남의 전기·전자 산업분야를 견인
 - 전기·전자 분야는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33.8%를 차지하며 베트남 교역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이외 LG전자(휴대전화), 애플(에어팟), 폭스콘(휴대폰, PC), 파나소닉(냉장고, 세탁기), 닌텐도(콘솔게임기)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추가 투자 및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음
- 전기·전자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베트남 전기 전자 기업의 1/3에 불과하나 수출 점유율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수요의 80%를 차지할 만큼 외국 투자기업의 영향력이 큰 상황
-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인해, 전기 전자 분야 탈 중국기업의 진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투자국으로는 홍콩·중국·대만·싱가포르·일본 등임

〈2020년 상반기 주요국 전기·전자분야 베트남 투자기업 현황〉

| 프로젝트명 | 투자금액(US\$ 백만) | 투자 분야 | 투자 국가 |
|----------------------|---------------|----------------|-------|
| UNIVERSAL | 200 | PCB, 반도체 부품 | 중국 |
| WISTRON INFOCOMME | 273 | 컴퓨터 부품 | 대만 |
| GLOBAL SUN | 50 | 서버용 부품 | 대만 |
| CE LINK Vietnam | 50 | 통신장비 부품 | 홍콩 |
| TOPBAND SMART | 20 | PCB 부품 | 중국 |
| PEGATRON | 20 | 컴퓨터 부품 | 중국 |
| ACC TECHNOLOGIES | 35 | 음향기기 부품 | 싱가포르 |
| CHEE YUEN INDUSTRIAL | 20 | 전자기기 케이스(사출) | 홍콩 |
| FASTRONG | 10 | 전자장비 용 금속부품 가공 | 대만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통계자료

-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탈 중국 가속화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베트남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 지표도 반등하고 있음. 핵심 전자제품 수출국 순위는 2001년 47위에서 2019년 전 세계 12위로 도약하였음
 -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전기, 전자제품 수출 대상국 순위는 중국(19.3%), 미국(18.2%), 한국(9.1%), 홍콩(4.9%), 일본(4.9%) 순임
 - 2020년 상반기 전자, 컴퓨터 및 광학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2% 증가하였으나, 주력 수출품목인 핸드폰 및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8.4% 감소함
 - 미국, 유럽 수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베트남 휴대폰 공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의 영향을 직접 겪고 있음
- 전기·전자제품 국내 유통의 경우, 외국 투자기업이 제조한 제품이 베트남 국내 시장수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유통망은 온-오프라인의 융합화를 진행 중임
 - 일본 전자기업(파나소닉, 사프, 캐논, 교세라, 후지) 및 한국 전자기업(삼성전자, LG전자)은 베트남에 생산기지 설립과 동시에 베트남 내수시장도 진출
 - 최근 다수의 중국계 전자업체 및 베트남 현지기업(Vinsmart, Viettel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 베트남 내 전자제품 취급 매장은 가파른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점유율 1위인 Mobile World(매장 수 1,058개)을 비롯하여 FPT Shop(473개), Media Mart(95개), Nguyen Kim(64개), Vinpro(36개), PICO Mall(23개), Home Center(14개) 등 판매 유통망 보유
- 제조시장은 이미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조성되어 있고, ATIGA/CPTPP/베-EU FTA 등 거대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섬유·의류

-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 분야는 업스트림(섬유생산), 미드스트림(직물생산 및 염색), 다운스트림(의류제조) 분야로 구성되며, 베트남 자국기업의 섬유, 직물 생산능력이 낮아 생산 제품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됨
 - 수출 분야의 약 65%는 CMT(Cut-Make-Trim) 단순 가공이었고, OEM 및 ODM 제품은 35%에 불과한 상황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에 취약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섬유·의류 수출액 중 외국직접투자(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함
 - 지난 2019년~2020년 상반기까지 총 240여개 2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FDI)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최대 투자규모임
- 세계 3대 섬유,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의 2019년 섬유, 의류 분야 총 수출액은 390.0억 달러, 수입액은 22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6%, 2.2% 증가함

〈2015~2019년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18~2019년 증감률 |
|------------------|--------|--------|--------|--------|--------|-------------------|
| 수출 | 27,021 | 28,123 | 31,159 | 36,264 | 39,000 | 7.6% |
| 수입 | 16,528 | 16,970 | 18,976 | 21,897 | 22,380 | 2.2% |
| 수출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 13,184 | 13,646 | 15,544 | 18,354 | 19,265 | 10.2% |
| 무역수지 | 10,493 | 11,153 | 12,183 | 14,367 | 16,620 | 15.7% |

자료: 베트남 섬유협회(VITAS 보고서)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첫 5개월간의 총 수출입액은 각각 123.6억 달러, 7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5%, -14.4%를 기록하는 등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유행한 3월 중순 경 전체 의류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 바이어들의 잇단 주문 연기나 취소로 인해 베트남 섬유, 의류 기업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2020년 1~5월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분류 | 2020년 1~5월 금액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총수출액 | 12,369 | -15.55 |
| 의류 | 9,704 | -14.41 |
| 직물 | 744 | -12.88 |
| 섬유·방적사 | 1,348 | -21.35 |
| 직물원단 | 169 | -35.25 |
| 액세서리 | 404 | -15.82 |
| 총수입액 | 7,954 | -14.14 |
| 의류 | 1,123 | -8.90 |
| 직물 | 860 | -15.77 |
| 섬유·방적사 | 4,657 | -14.51 |
| 액세서리 | 1,306 | -15.59 |
| 수출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 6,449 | -16.68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년 4~5월 섬유, 의류에 대한 해외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베트남 주요 섬유기업의 손실액은 전년도 순이익의 약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함
- 베트남 섬유협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다수 베트남 내 섬유, 의류기업의 가동률은 전년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됨
- 2020년 중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면 작년 대비 10%대의 수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상황 연장 시 최대 17% 이상의 시장 침체도 경고함

- 전체적인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2020년 7월 기준, 20.5%로 증가함
 - 반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2019년 말 29.7%에서 2020년 7월 21.7%로 큰 폭 하락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의 대미 섬유·의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의 직물 및 봉제 제품 주요 수출국 및 수출액 추이〉

(단위: US\$ 백만)

| 국가/지역 | 2019년 | 2020년 1~4월 | 2020년 1~4월 |
|-------|------------|------------|------------|
| 미국 | 14,849 | 4,421,219 | 3,947,741 |
| 일본 | 3,987,967 | 1,162,481 | 1,174,758 |
| 한국 | 3,353,387 | 982,618 | 902,474 |
| EU | 4,261,886 | 1,138,648 | 814,607 |
| 중국 | 1,594,180 | 413,718 | 350,479 |
| 기타 | 4,803,266 | 1,342,638 | 1,457,554 |
| 총합 | 32,850,225 | 9,461,322 | 8,647,614 |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에 사용되는 약 60% 이상의 원부자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2020년 3~5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중국 생산공장이 셧다운 되어 베트남 내 의류기업 대부분이 원부자재 수급 지연, 공장 가동에 난항
- 상당수의 베트남 자국 섬유·의류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활로 개척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베트남은 약 6억 장 이상의 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하였으며, 향후 월 3억 장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임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EU FTA 효과
 - 2019년 1월부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되었으며, 20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된 베-EU FTA**는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 수출 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됨
 - * CPTPP 회원국 간 섬유·의류 제품 교역액은 연 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베-EU FTA: 베트남은 10년, EU는 7년에 걸쳐 상대국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진적 철폐할 계획(EU는 발효 즉시 70.3% 관세 철폐, 7년 안에 99.7% 철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32만 2,458대를 기록, 전년 대비 약 11.7% 성장

〈베트남 연도별 자동차 판매추이〉

(단위: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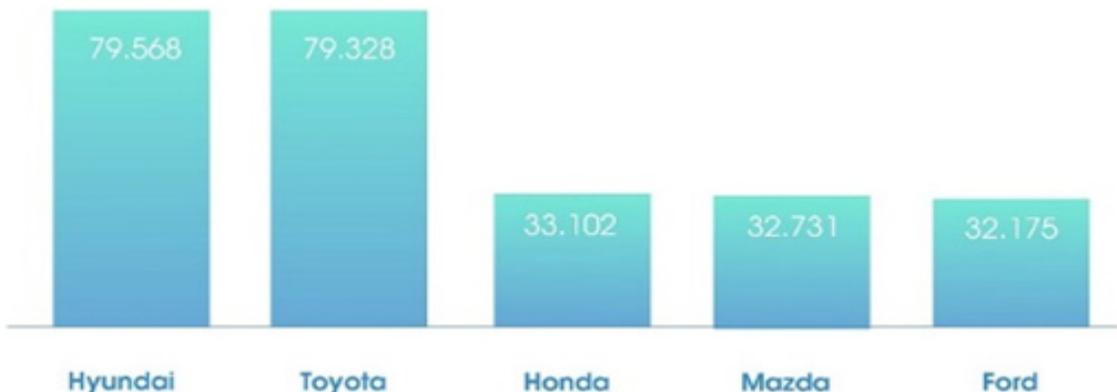
| 연도 | 주요 내용 | 증감률(%) |
|----------|---------|------------------|
| 2014년 | 157,810 | 43 |
| 2015년 | 244,914 | 55 |
| 2016년 | 304,427 | 24 |
| 2017년 | 272,750 | -10 |
| 2018년 | 288,683 | 5.8 |
| 2019년 | 322,458 | 11.7 |
| 2020년 7월 | 131,248 | -27.5%(전년 동기 대비) |

자료: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 2019년 주요 자동차 판매기업으로는 Thaco, 현대-Thanh Cong 합작사, 도요타, 혼다 등이 있으며, Thaco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조립회사로서 약 9만 대 이상을 판매하였음
- 현대-Thanh Cong 합작사는 2019년 처음으로 판매 대수에서 일본의 도요타를 앞섰으며, 자동차 브랜드로서는 베트남 내 1위에 등극하였음
- Thaco는 승용차 중 자사 브랜드는 없으며, Kia, Mazda, 푸조 등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제조사임

〈2019년도 베트남 최대 판매 톱5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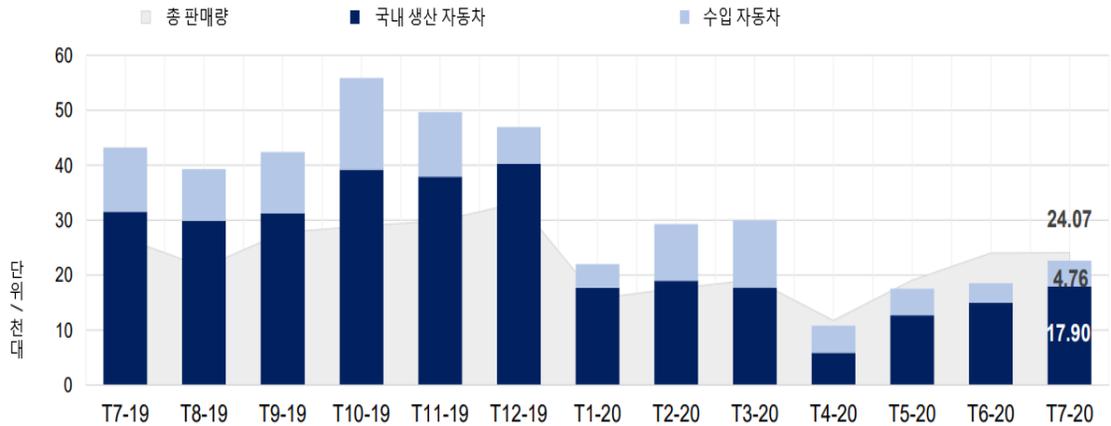
(단위: 대)



자료: 베트남 자동차산업협회(VAMA), Hyundai-Thanh Cong

- 2020년 7월 기준, 1~7월 베트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3만 1천대 규모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7.5% 하락한 수치임. 국내 생산 차량은 총 10만 8,400대, 수입 차량은 4만 5,000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3%, -47.5%를 기록함
-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한 2020년 4월을 최저점으로 서서히 국내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계는 올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이 15% 역성장 할 것으로 보여, 판매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2020년 베트남 월별 자동차 시장 동향〉



자료: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 2020년 1~7월, 차종별 판매추세는 승객용 차량이 전년 대비 28.9% 감소한 9만 4,275대, 트럭 등 상용차량이 전년 대비 22.7% 감소한 3만 4,821대를 기록
 - 승객용 차량의 판매 비율은 약 71.8%, 트럭 등 일반 상업용 차량은 26.5%, 특수차량 1.7% 순임
- 2020년 상반기 기준, 현대-Thanh Cong의 자동차 판매량은 총 2만 5,358대로, 전체 시장 판매량의 21.3%에 해당하며,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인 21.1%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올해 베트남산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 산업을 위한 것임
 - 2020년 6월 28일부로 국내 생산 자동차 등록세 50% 인하 및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납부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함
 - 또한 2020년 7월 10일부로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가 현지 생산이 어려운 원료,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 대해 수입관세 0%를 적용

□ 유통산업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유통산업의 전체 시장규모가 약 1,61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매장 직접구매 감소, 온라인 쇼핑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등 제한조치로 인해, 호치민 및 하노이시 소비자들의 매장 직접 방문 구매 비율은 이전보다 약 50%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 등의 활성화로 도·소매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 여행업 및 요식업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20%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유통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US\$, %)

| | 2020년 1~6월 | 2019년 1~6월 | 전년 대비 증감률 |
|-----------|---------------|---------------|------------|
| 전체 | 1,019억 | 1,030억 | -1% |
| 도소매 | 814억 | 785억 | 4% |
| 여행, 관광 | 4.4억 | 9.6억 | -54% |
| 요식업 | 99억 | 123억 | -20% |
| 기타 | 101억 | 117억 | -9%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Q&Me Vietnam Market Research

- 베트남 유통산업 분야는 아직 전통적인 소형 마켓 및 소매업자들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USDA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Food & Beverage 유통 분야 매출액은 약 51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13% 성장한 수치임
- 유통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여러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2019년과 2020년 1~6월 간 베트남 투자분야 중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조분야에 이어 2위를 기록
- * IGD Research는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2021년까지 편의점 시장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로 선정

〈베트남 유통산업 매출액 및 성장률 동향〉

(단위: US\$ 십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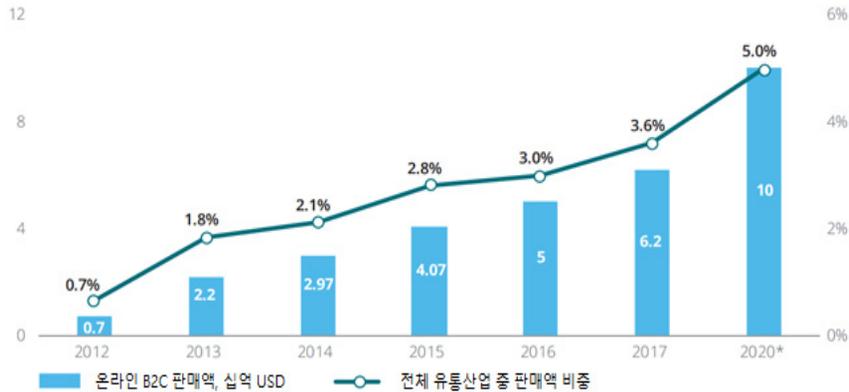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Deloitte/ 2020년 전망치

- E-commerce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2025년에 이르면 베트남 E-commerce 시장규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은 2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 CIA(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약 40% 가량은 24세 이하의 젊은 세대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향후 온라인 쇼핑과 같은 E-commerce 시장의 비약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
- 2020년 5월 18일에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5년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 소매 및 서비스 매출의 10%가 전자상거래 형태로 결제될 것이라 밝힘

〈베트남 온라인 B2C 판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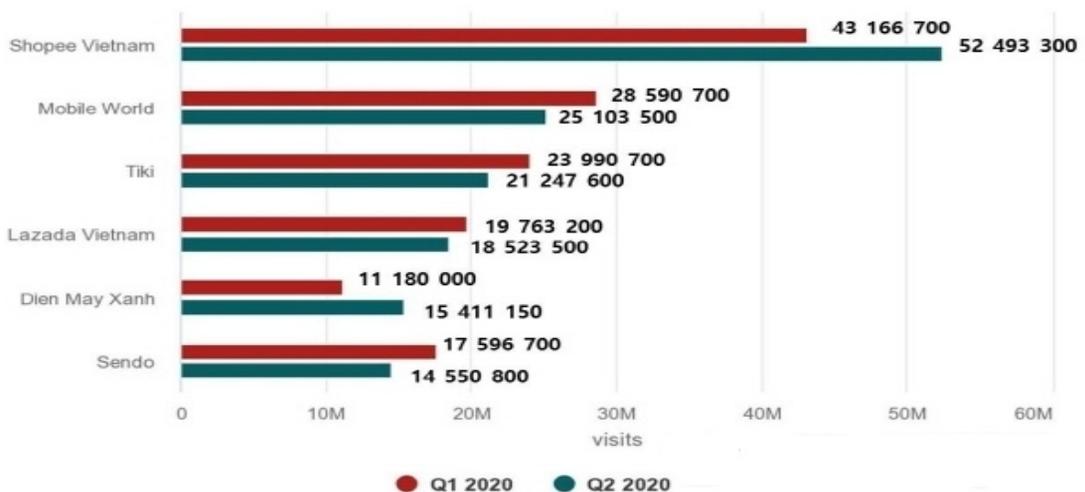
(단위: US\$ 십억, %)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E-commerce Vietnam White Book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변화로 전자상거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관련 기업들이 성행함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페이스북은 베트남에서 고비엣(Go-Viet)이라는 이름으로 승차공유배달서비스 및 핀테크 업체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기반의 고젯(Gojek)에 투자했다고 최근 발표하였음
 - 2020년 1분기 월평균 트래픽의 품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특수를 누린 식료품에서 45%가량 대폭 증가하였음.
 - 그 외에는 화장품 10%, 전자제품 5% 증가하였으며 패션 분야는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VnExpress에 따르면 Shopee Vietnam은 2020년 2분기 월간 방문수가 5,250만 건으로 베트남의 새로운 웹 트래픽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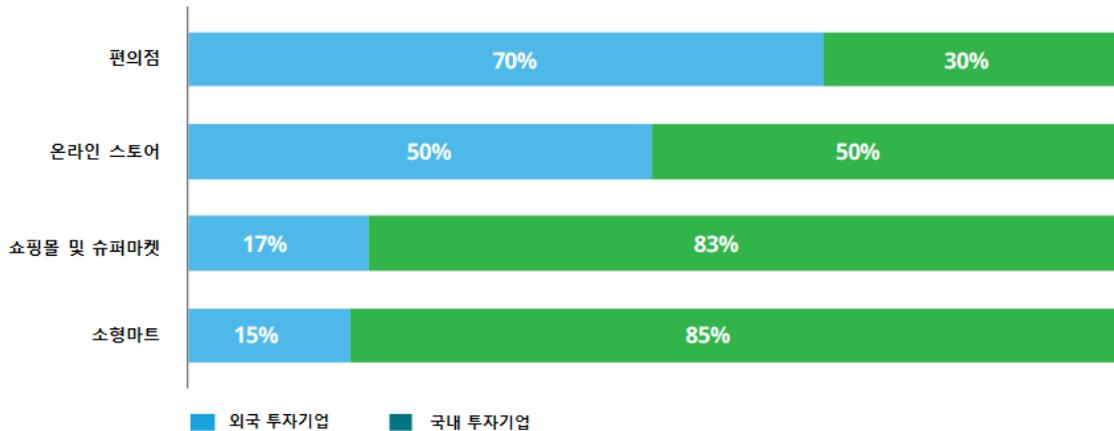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수〉



자료: iPrice Group Research 2020

- 베트남 유통산업 영향력은 과거 한국, 일본, 프랑스 기업들의 대형마트 유통채널이 주도하였으나, 서서히 쇼핑몰, 온라인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Vincom, Vinmart+, Bach Hoa Xanh 등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임
 - 베트남은 급속한 도시화, 소득수준 상승, 젊은 소비층의 확대 등으로 재래시장이 감소하는 한편, 편의점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6월 기준 베트남에는 총 5,228개의 편의점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불경기 속에서도 주요 외국, 내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산업 중 주요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통산업인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 분야는 자국기업이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신규 유통산업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베트남 유통산업 분야별 외국·국내 기업 점유율〉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 소매 유통기업 현황(외국기업)〉

| 매장명 | 세부 구분(특이사항) | 진출시점 | 매장 수 | 분야 |
|---------------|---|-------|------|-------|
| 7-eleven(일본) | - | 2017년 | 33 | 편의점 |
| AEON(일본) | AEON Mall | 2013년 | 5 | 쇼핑몰 |
| | Mini Stop | 2011년 | 141 | 편의점 |
| | AEON Citimart 2014년 Citimart 지분 49% 인수 | 1994년 | 24 | 슈퍼마켓 |
| Bic C(프랑스) | 2015년 Central Group이 인수(10.5억 달러) | 1998년 | 35 | 하이퍼마켓 |
| B's Mart(태국) | - | 2013년 | 109 | 편의점 |
| Circle K(미국) | - | 2008년 | 392 | 편의점 |
| E-Mart(한국) | - | 2016년 | 1 | 하이퍼마켓 |
| Fuji Mart(일본) | Fuji Mart, Sumitomo- BRG 그룹과 합작 | 2018년 | 1 | 슈퍼마켓 |
| GS25(한국) | Son Kim 그룹과 합작 | 2018년 | 54 | 편의점 |

| 매장명 | 세부 구분(특이사항) | 진출시점 | 매장 수 | 분야 |
|--------------------|-------------------------------------|-------|------|--------|
| Guardian(싱가포르) | | 2011년 | 100 | 헬스, 미용 |
| Lotte(한국) | Lotte Mart | 2008년 | 15 | 하이퍼마켓 |
| | Lotte Hanoi Department Store | 2014년 | 1 | 백화점 |
| | Lotte Duty Free Da Nang, Nha Trang점 | 2017년 | 2 | 면세점 |
| MM Mega Market(태국) | 2016년 TCC Group인수 Metro에서 상호 변경 | 2002년 | 19 | 슈퍼마켓 |
| Parkson(말레이시아) | | 2005년 | 6 | 백화점 |
| Robins(태국) | | 2014년 | 2 | 백화점 |
| Shop&Go(싱가포르) | | 2005년 | 95 | 편의점 |
| Takashimaya(일본) | | 2017년 | 1 | 백화점 |
| Watson(홍콩) | | 2019년 | 1 | 헬스, 미용 |

주: 2020년 6월 기준

자료: Deloitte, Report of Retail in Vietnam 2019

<2020년 2분기 기준 베트남 편의점, 미니마트 현황>

(단위: 개)

| 브랜드명 | 호치민시 | 하노이시 | 기타 | 총계 |
|---------------|-------|------|-------|-------|
| 7-eleven | 33 | 0 | 0 | 33 |
| Bach Hoa Xanh | 463 | 0 | 751 | 1214 |
| B's Mart | 109 | 0 | 0 | 109 |
| Cheers | 39 | 0 | 3 | 42 |
| Circle K | 212 | 154 | 26 | 392 |
| Family Mart | 126 | 0 | 21 | 147 |
| GS25 | 54 | 0 | 0 | 54 |
| Mini Stop | 139 | 0 | 2 | 141 |
| Statrafoods | 183 | 0 | 0 | 183 |
| Vinmart+ | 652 | 723 | 1495 | 2870 |
| Zakkamart | 38 | 0 | 50 | 43 |
| 총계 | 2,048 | 877 | 2,303 | 5,228 |

자료: Q&Me Vietnam Market Research Q2, 2020

□ 건설

- FitchSolutions는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건설산업은 5.7%, 인프라 산업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산업과 인프라 산업은 2029년까지 각각 5.7%, 6.8%대의 높은 성장을 유지, 2028년에는 각각 430억 3,796만 달러, 98억 2,999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 성장 전망〉

(단위: US\$ 백만, %)

| 연도 | 2020년(f) | 2021년(f) | 2022년(f) | 2023년(f) | 2024년(f) |
|--------------------|----------|----------|----------|----------|----------|
| 건설 시장규모 | 17,251.6 | 19,265.2 | 21,323.2 | 23,595.3 | 26,104.5 |
| 건설산업 성장률(%) | 5.7 | 7.2 | 6.9 | 6.8 | 6.8 |
| GDP 대비 건설 시장 비중(%) | 6.1 | 5.9 | 5.9 | 5.9 | 5.9 |
| 인프라 분야 | 4,336.4 | 4,738.3 | 5,170.0 | 5,653.9 | 6,179.0 |
| 인프라 산업 성장률(%) | 4.2 | 4.9 | 5.4 | 5.6 | 5.5 |
| 연도 | 2025년(f) | 2026년(f) | 2027년(f) | 2028년(f) | 2029년(f) |
| 건설 시장규모 | 28,903.0 | 31,996.4 | 35,415.7 | 39,197.7 | 43,379.6 |
| 건설산업 성장률(%) | 6.8 | 6.8 | 6.7 | 6.7 | 6.7 |
| GDP 대비 건설 시장 비중(%) | 6.0 | 6.0 | 6.0 | 6.0 | 6.0 |
| 인프라 분야 | 6,772.4 | 7,423.9 | 8,152.1 | 8,951.8 | 9,829.9 |
| 인프라 산업 성장률(%) | 5.7 | 5.7 | 5.9 | 5.9 | 5.9 |

자료: FitchSolutions, (f) 전망치, 베트남 중앙은행 환율 1US\$ = 2만 3,150VND 기준

- 베트남의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향후 10년간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수요에 있어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베트남 도시화율은 39.3%로 작년 대비 0.5% 증가함
-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도시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2040년이면 도시인구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도시인구: 2000년 1,900만 명, 2017년 3,300만 명, 2040년 전체 인구의 절반

□ 신재생에너지

-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2030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5%, 2030년 25%, 2050년 45%까지 감축하고, 석탄 및 석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임
- 2030년까지 풍력 발전 6,000MW, 태양광 발전 1만 2,000MW까지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킬 예정임
- 개정된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로 설정함

〈발전 형태별 발전용량 목표〉

| 발전 형태 | 단위 | 2016년 | | 2020년 | | 2025년 | | 2030년 | |
|--------|----|--------|-------|--------|-------|----------|-------|---------|-------|
| 총 발전량 | MW | 40,805 | 100% | 60,000 | 100% | 96,500 | 100% | 129,500 | 100% |
| 수력 | MW | 15,368 | 37.7% | 18,060 | 30.1% | 20,361.5 | 21.1% | 27,800 | 16.9% |
| 가스화력 | MW | 8,872 | 21.7% | 8,940 | 14.9% | 15,054 | 15.6% | 19,000 | 14.7% |
| 석탄화력 | MW | 13,826 | 33.9% | 25,620 | 42.7% | 47,574.5 | 49.3% | 55,300 | 42.6% |
| 신재생에너지 | MW | 2,344 | 5.7% | 5,940 | 9.9% | 12,062.5 | 12.5% | 27,199 | 21% |
| 수입 에너지 | MW | 395 | 1% | 1,440 | 2.4% | 1,447.5 | 1.5% | 201 | 1.2% |
| 원자력 | MW | - | - | - | - | - | - | - | 3.6% |

자료: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Power Master Plan VII)

○ 베트남 제8차 전력산업발전계획(PDP8) 초안은 신재생에너지 ↑, 석탄 화력 발전 ↓

- 산업부, 2020년 7월 베트남의 전력사업 마스터플랜인 제8차 전력산업발전계획(PDP8) 개정 초안을 발표
- PDP8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기반을 만들기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인프라 증설, LNG 송전 설비를 구축하는 반면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을 지양하여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 목표임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격 비교〉

| | 설비 첫 해 비용 (USD/MW) | 설비 첫 해 비용과 향후 발전 비용 비교 | | |
|---------------------|--------------------|------------------------|------------|------------|
| | | 2025~2029년 | 2030~2039년 | 2040~2045년 |
| 육상풍력 발전(>=to 6m/s) | 1.7 | -10.7% | -18.3% | -24.5% |
| 육상풍력 발전(5.5-6m/s) | 2.0 | -10.7% | -21.4% | -29.2% |
| 육상풍력 발전(4.5-5.5m/s) | 2.0 | -10.7% | -21.4% | -26.7% |
| 육상풍력 발전 평균 | 1.9 | -10.7% | -20.4% | -26.8% |
| 해상풍력 발전(고정식) | 3.1 | -2.3% | -17.3% | -23.2% |
| 해상풍력 발전(부유식) | 4.3 | -2.3% | -16.1% | -37.9% |
| 해상풍력 발전 평균 | 3.7 | -2.3% | -16.7% | -30.5% |
| 대형 태양열 발전 | 1.1 | -10.4% | -20.8% | -29.8% |
| 옥상형 태양광 발전(PV) | 1.1 | -10.4% | -20.8% | -29.8% |
| 태양열 발전 평균 | 1.1 | -7.8% | -19.2% | -28.7% |

자료: 산업부 제8차 전력산업발전계획 초안(Power Master Plan VIII), 2020년 7월

○ 2020년 말까지 태양열·풍력 발전 증량 계획

- 베트남 에너지협회는 태양광 발전용량이 2020년 7월 기준 5,053MW에서 2020년 말까지 8,000M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산업부는 풍력 발전용량은 2020년 말 429MW에서 800MW로, 2025년에는 2,000M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태양열·풍력 발전 프로젝트 현황〉

| 종류 | 프로젝트명 | 기업명 | 지역 | 발전용량 | 예산 | 현황 |
|-----|--------------------------------|-------------------------------------|--------|-------|--------------|------------------------|
| 태양광 | TRUNG NAM-THUAN NAM SOLAR FARM | 쑹남 그룹 (Trung Nam Group) | 닌 뚜언 | 450MW | 5억 1,775만 달러 | 2020년 3월 착공, 10월 완공 예정 |
| | Dau Tieng PV | Xuan Cau Holdings/ BGrimm Power LLC | 떠이닌 남부 | 410MW | 4억 4,593만 달러 | 2019년 6월부터 발전 설비 가동 중 |
| | PHU MY SOLAR FARM | Bamboo Capital Group | 빈 단 중부 | 330MW | 2억 6,751만 달러 | 건설 중, 2020년 말 완공 예정 |
| | BIM SOLAR FARM | BIM Group/ AC Energy Philippines | 닌 뚜언 | 330MW | 3억 201만 달러 | 2019년 4월 완공 발전 설비 가동 중 |

| 종류 | 프로젝트명 | 기업명 | 지역 | 발전용량 | 예산 | 현황 |
|------|-------------------------------|-------------------------------------|---------|----------|--------------|---|
| | HOA HOI SOLAR FARM | TTVN Group/ BGrimm Power LLC | 푸옌 중부 | 257MW | 2억 1,529만 달러 | 2019년 6월 완공 발전 설비 가동 중 |
| | SAO MAI SOLAR FARM | Sao Mai Group | 안장 남부 | 210MW | 2억 5,888만 달러 | - 1차 104MW급 발전설비 2019년 7월부터 가동 중, - 2차 106MW급 설비 2019년 9월 착공 |
| 해상풍력 | TRUNG NAM WIND FARM | Trung Nam Group | 닌뚜언 | 151.95MW | 1억 7,258만 달러 | 2016년 8월 착공, 2020년 말 완공 예정 |
| | QUOC VINH SOC TRANG WIND FARM | ECOTECH Vietnam | 속짱 남부 | 129MW | 2억 2,954만 달러 | 2020년 3월 착공, 2021년 중 1차 30MW 생산 예정 |
| | HIEP THANH WIND FARM | Ecotech Tra Vinh | 짜빈 남부 | 78MW | 1억 4,540만 달러 | 2020년 3월 착공, 2021년 초 완공 예정 |
| 육상풍력 | BAC LIEU WIND FARM | Cong Ly Co. | 박 리유 | 99.2MW | 2억 1,573만 달러 | 2016년 완공 발전 설비 가동 중 |
| | HOA BINH WIND FARM | Phuong Anh Trade and Investment Co. | 박 리유 남부 | 100MW | 2억 2,222만 달러 | 2020년 7월 착공 2021년 11월 완공 예정 |

자료: 베트남 에너지협회, 산업부, REUTERS

○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정책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 △신용대출, △법인세·소득세 혜택, △토지 이용비 면제, △PPA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려 정책 실시

*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결정서13/2020/QĐ-TTg(2020년 4월6일)에 따라 지상 태양광 발전소 0.0709/kWh, 옥상형 태양열 발전 0.0038/kWh, 수상 태양광 0.0769/kWh FIT 비율 제공,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를 상용화하는 경우에만 신규 FIT를 지원받을 수 있음

□ ICT 산업

○ 베트남 정보통신부 'ICT 산업' 베트남 4차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 평가

- 2019년 베트남 ICT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43% 증가한 1,029억 달러임
-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는 5년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약 4만 개의 기업체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수치임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44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수치이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 기업체 수는 54.6% 증가하였음
- (하드웨어) 베트남 ICT 산업 시장규모의 큰 부분은 여전히 하드웨어 부분이 차지하고 있음. 하드웨어 시장은 2019년 915억 달러 규모로 집계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신규 대규모 기업들의 유입이 적은 탓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일자리 또한 전년 대비 5.8% 감소한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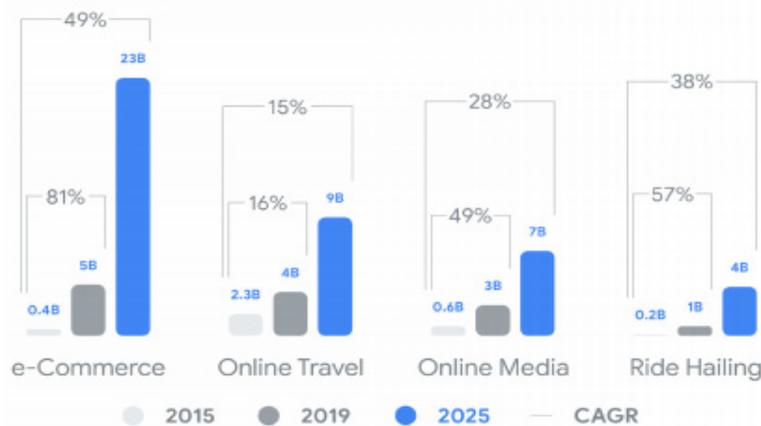
- (서비스) ICT 서비스 분야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61억 8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
- 2019년 1월 10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ICT 산업 개발 목표 및 임무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정보통신산업 개발 지향에 관한 정보통신부 지시문(No. 3/CT-BTTTT) 발행

- 2019년 ICT 산업 개발 목표
 - 정보통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수출, 정보통신 및 전자제품 생산 관련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되고 베트남 내 4차 산업 기술 대중화를 목표
 - 소프트웨어 개발 강국을 지향한 비디오/이미지 식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등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활동 촉진
 - 베트남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개발 촉진 프로젝트 완료
 - 일부 콘텐츠에 대한 시범정책(샌드박스 형식) 구현
 - IoT 산업 개발전략 구축
 - 2021~2025년 정보통신산업 개발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2020~2025년 4차 산업혁명 요구 충족을 위한 인력 개발 관련 내용 구축
 - 2019~2020년, 2021~2025년 정보통신 제품 개발계획 관련 일부 중점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계획 수립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관련 보충 및 개정을 위해 중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정의 기준 및 조건 완성

- **(전자상거래)** 구글과 테마섹(Temasek)의 'e-Conomy SEA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9년 인터넷 경제 규모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50억 달러 규모임
 - 특히 베트남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2025년에는 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Lazada, Shopee, Sendo, Tiki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 이외에도 Ecomobi, iFind, Zodi, Jamia, Massoffer, Wisepass 등 많은 기업이 활동 중임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 부문별 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e-Conomy SE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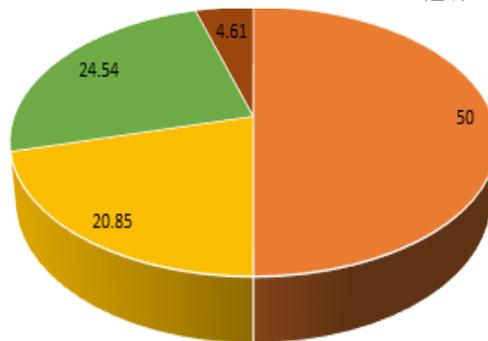
- **(핀테크)** Solidiance 컨설팅사에 따르면,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2020년까지 약 78억 달러의 시장규모에 다다를 것이라 전망
 - 지난 2015년부터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하노이 및 호치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Momo, Money Lover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기준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 수는 136개사로 주변국인 싱가포르(1,157개사), 인도네시아(511개사), 말레이시아(376개사)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인공지능)** Open AI, Open CV, TensorFlow, Caffee와 같은 인공지능(AI)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AI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품질 및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필요가 커지고 있음
 - FPT AI, ELSA, QRM, Hana AI, CyRadar, Gottl 등은 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큰 수익을 내고 있음. 최근 베트남 민간기업인 빈 그룹(Vingroup)은 AI-VinAI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AI 시장에 진출
 - TopDev의 'Vietnam IT Landscap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IT 회사의 73% 이상이 AI를 제품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소프트웨어 서비스)**
 -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는 베트남 IT 기업들의 새로운 트렌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며, Better Cloud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IT 기업의 73%가 SaaS를 운영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Misa와 같은 오랜 명성을 가진 기업 이외에도 Base, Cloudjet, Vexere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 그러나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적으로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음
-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 IT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 업체(Uber, Grab, Go-Jek, Amazon)와 사용자 간의 트랜잭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과 개발 플랫폼(App Store, Google Play)으로 구분됨
 - 베트남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E-Logistics 분야에서 Grab, Go Viet, FastGo, Be, Now, AhaMove 등 다수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예약 부분에서 Jupvic, eDoctor, Luxstay, Homedy, Chili 등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에듀테크)**
 - 2019년 베트남 에듀테크 참여기업의 수는 121개사이며, 에듀테크 관련 시장규모 20억 달러로 추정, 연평균 성장률 약 20.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Topica Founder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지 에듀테크 산업에 5,400만 달러에 가까운 투자금이 유치된 것으로 추산됨
 -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는 핀테크, 전자상거래, 여행테크, 물류 등으로 에듀테크 또한 5위 순위 안에 꼽힘

□ 통신 산업

- 베트남 통신국(VNTA)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베트남의 전체 모바일 가입자 수는 1억 4,3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음
 - 2019년 12월말 기준 3G 및 4G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6,448만 명을 기록
 - * 3G/4G 가입자: (2016년) 36.2백만 명, (2017년) 44.9백만 명, (2018년) 52.8백만 명, (2019년) 64.4백만 명
 - 시스코의 2019년 10월 5G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의 5G 가입자 수는 6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베트남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구축을 통해 2025년부터 매년 최대 3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베트남인들의 전체 모바일 가입 수 중 88%는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만이 후불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광대역 회선망(3G & 4G) 가입률은 전체 모바일 가입 수 중 45%에 불과함
- 베트남 모바일은 시장 Viettel, Vinaphone, Mobifone 등 3개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3개 통신사의 모바일 가입 점유율은 95.4%로 베트남 전체의 상당 부분 차지
 - 3대 통신사 중에서도 Viettel이 가장 많은 비중은 50.0%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Vinaphone 24.5%, Mobifone 20.8% 순

〈베트남 통신사 점유율(2019년 기준)〉

(단위: %)



■ Viettel ■ Mobifone ■ Vinaphone ■ 기타

자료: White Book 2019

□ 철강산업

- 베트남 국내 철강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량 증가세 여전
 - 베트남 철강협회(VSA)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은 2,526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임. 생산 총량 중 459만 톤은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수치임
 - 베트남은 총 42억 달러 규모, 1,480만 톤의 철강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으며, 2019년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나 수입 총량은 4.2% 감소함

- 2020년 8개월간 베트남은 1,6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970만 톤으로 560억 달러 규모임

〈2019년 베트남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출입액 상위 10개국〉

(단위: US\$)

| 분류 | 수출 | | 수입 | |
|----|-------|--------|-------|--------|
| 1 | 캄보디아 | 11.44억 | 중국 | 52.4억 |
| 2 | 미국 | 9.87억 | 대한민국 | 21.1억 |
| 3 | 인도네시아 | 6.38억 | 일본 | 19.2억 |
| 4 | 일본 | 5.96억 | 인도 | 11.3억 |
| 5 | 말레이시아 | 4.80억 | 대만 | 10.8억 |
| 6 | 태국 | 4.07억 | 인도네시아 | 4.1억 |
| 7 | 대한민국 | 3.26억 | 태국 | 2.7억 |
| 8 | 중국 | 2.80억 | 말레이시아 | 2.3억 |
| 9 | 인도 | 2.47억 | 러시아 | 1.9억 |
| 10 | 대만 | 1.78억 | 브라질 | 1.5억 |
| 기타 | | 15.7억 | | 6.7억 |
| 총계 | | 68.5억 | | 134.4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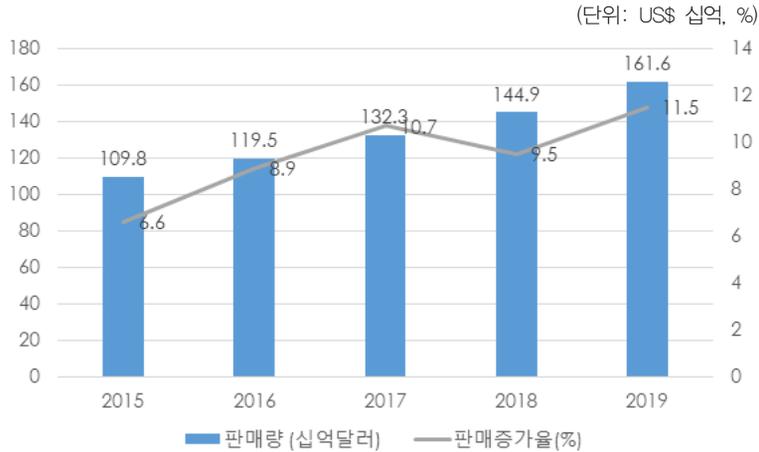
주: 통계자료는 Iron and Steel 과 Iron and Steel products의 합계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Customs of Vietnam)

- 베트남의 철강 시장은 건설용 철강, 강관, 아연 도금 강판, 냉연 강판, 열연 강판 등 총 5개로 구분함
 - **(건설용)** 건설용 철강 부분에서는 Hoa Phat 그룹(26.2%)이 최대 기업임. VN Steel(15.9%), Vinakyoei(8.6%), Pomina(8.1%), Posco SS(7.6%)와 같은 업체들이 뒤를 이음
 - **(아연 도금 강판)** Hoa Sen 그룹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29.5%)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Ton Dong A(17.1%), Ton Nam Kim(15.8%), TVP(7.4%), CSV(7.2%)와 같은 업체들이 있음
 - **(강관)** Hoa Phat(31.5%)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뒤이어 Hoa Sen(15.3%), Minh Ngoc(9.6%), TVP(8.2%), Viet Duc(7.7%)가 있음
 - **(열연강판)** 열연강판 부분에서는 Formosa사가 베트남 내 생산 독점(100%)
 - **(냉연강판)** POSCO Vietnam(42.8%)사가 최대 기업, 뒤이어 CSV(24.8%), POSCO VST(9.6%), TVP(9.6%), Phu My Flat Steel(9.0%) 업체들이 있음

□ 소비재

- 소비재 총 판매량 성장률* 매년 증가세
 - 2019년 한 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5% 증가로 지난 5년간 최고 판매 성장률 시현
 - * 연간 소비재 판매량 증가율: 2015년(6.6%) → 2016년(8.9%) → 2017년(10.7%) → 2018년(9.5%) → 2019년(11.5%)

〈베트남의 5년간 소비재 총 판매량〉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대표 소매기업 5개사, 동남아시아 소매기업 상위 50위 안에 등극, 베트남 소매기업 및 소비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발현

〈동남아시아 소매기업 상위 50위에 진입한 베트남 소매기업 순위〉

(단위: US\$ 2019년 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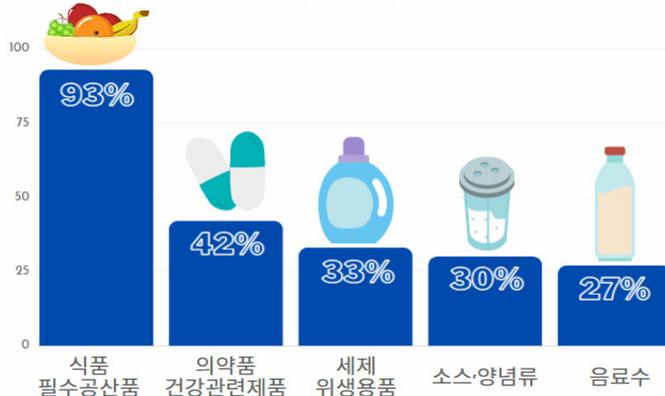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코로나19로 인한 비필수 소비재 구입은 감소,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소비 증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화장품, 의류 오락 등과 관련된 비필수 제품 구입량은 감소하고 식품 및 의약품 소비는 증가*

* 고품질베트남제품기업협회는 520명의 베트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 구매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가장 높은 비율로 식품 및 필수 공산품 구매를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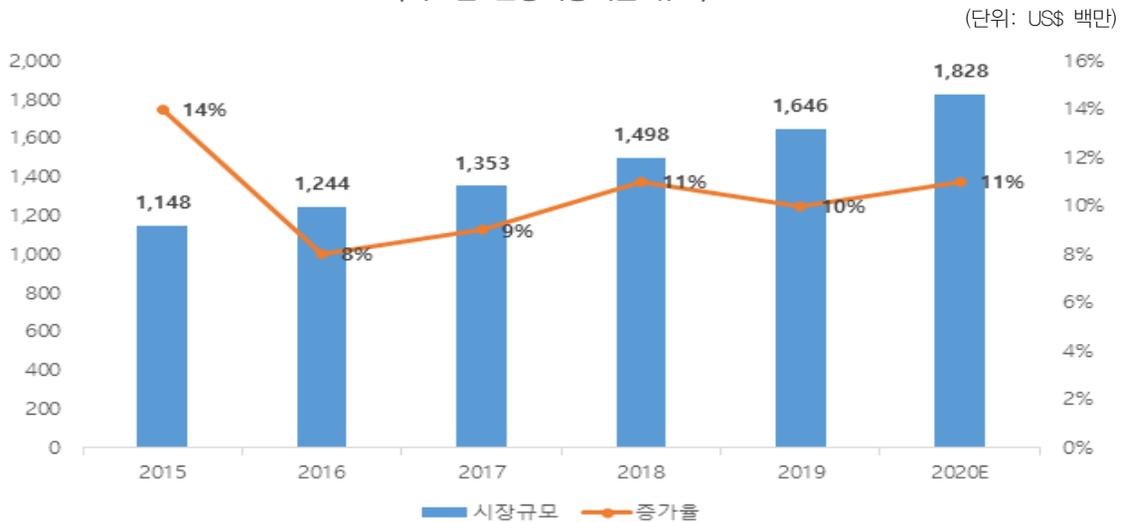
〈2020년 1~6월 베트남 소비자의 소비자재 구매 선호도〉



자료: 고품질베트남제품기업협회, 칸타르월드패널

- 지난 5년(2015~2019년)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며 2019년 약 18억 2,80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함.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에 더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비 경향이 지속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의 유망 소비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규모〉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또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원산지, 사용설명서, 유효기간, 원재료 성분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로 베트남 생산업체들도 상품 안내 표기방식을 더 자세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라. 정책·규제 환경

□ 투자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통과
 -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세 시행령이 제정될 시기까지는 다소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여건의 개선 노력이 보여 지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 채권 중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 추가
-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세부 내용

- 채권중심 서비스 분야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이번 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조건부 투자분야에 있었던 '채권중심 서비스' 분야는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되었음
 - 동 법률이 발효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는 현행 채권중심 서비스 제공 기업의 추심활동은 인정되나 발효 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하여야 함
- 조건부 사업* 목록 중 15개 사업 제외
 - 무역중재 조직의 서비스 활동
 -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제조 및 수리
 - 무역 감정 서비스
 - 프랜차이즈 활동
 - 물류, 서비스 사업
 - 배송 대행 서비스
 - 비즈니스 교육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교육 및 육성 서비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운영 서비스
 - 아파트, 콘도 운영관리, 전문 지식 훈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HIV 검사 서비스
 - 출산 보조, 정자 보관, 배아 보관 서비스
 -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검사 서비스
 - 예방접종 서비스
 -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치료 서비스
 - 성형수술 서비스
 - 인공수정 등 임신 관련 서비스

* 조건부 사업이란 일정(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상기 15개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없이 투자 가능(별도의 기본적인 투자자격은 갖추어야 함)

- 조건부 사업으로 신규 추가된 6개 사업
 - 금연서비스, HIV/에이즈 치료,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 정수(생활용)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수입 잡지 발행 서비스
 - 어선 등록, 검정 서비스
 - 선원 훈련 및 육성 서비스

- 또한 이번 개정 투자법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혜택 적용을 결정
- 특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 및 기간은 현행 법률이 정하는 분야별 최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법인세율 기본 10% 적용,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 ** 의미상 기존 최고 인센티브 혜택에 추가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정부의 정확한 해석 필요

○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에 관한 추가 규정**

- 총 투자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 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 총 투자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확장하는 R&D센터, 혁신센터 프로젝트
- 총 투자 자본이 30조 VND(약 12.5억 USD) 이상이며 투자 후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을 투자 집행하는 특별우대 산업 및 분야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 정부 총리 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프로젝트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 집행 보증을 위한 기금, 은행 보증 필요**

- 정부 토지 할당 및 임차 사용, 토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5가지 경우는 제외됨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이 필요한 경우

○ 기금 또는 은행 보증이 필요한 경우

-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종 사용자로 선정된 투자자가 토지 할당비, 임대비용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이미 프로젝트 사용 토지가 있고 프로젝트 투자자로 낙찰 받는 경우
-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며 기 허가된 투자등록 허가서 및 투자증명서 내용대로 투자자본금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증기금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료한 후 투자권한이 양도되는 토지와 그에 부속하는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 하이테크 산업단지, 경제특구, 수출제조 구역, 산업단지 건설용 인프라 등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 투자우대 수혜 대상에 대한 수정 및 보완

-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추후 베트남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산업 및 분야 목록, 지역을 공표 및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및 지역

○ 수혜 분야

- 과학기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결과로 도출된 첨단기술 활동, 첨단기술지원 산업 제품, 연구 개발활동 그와 연관된 생산품 및 기술
- 신규 소재,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그 생산,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 주요 전자제품,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 선박 건조
- 부품소재 지원 산업 혜택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생산
- 정부기술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생산
- 농업, 임업 및 수산물 재배, 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어업 및 관련 물류, 식물 및 동물 품종에 대한 개발 및 생명공학제품 생산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 도심지역의 공공 여객 운송 개발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 건강진단 및 치료, 약물, 의약품 및 필수약품 개발, 생물학적 제품, 백신, 약초, 전통 의약품, 희귀 의약품 생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공학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문화유적 가치 개발 및 보호
- 노인 및 정신질환 관리 센터, 고엽제 치료센터에 관한 투자(요양원, 장애인 복지원, 고아원 등)
- 일반인에 대한 신용금융, 소액 금융기관
- 산업 가치사슬 및 클러스터 생성, 참여를 위한 제품 생산, 서비스 활동

○ 수혜 지역

- 사회경제적 조건 낙후 지역과 매우 낙후된 지역
- 산업단지, 수출가공 구역, 첨단산업단지, 경제특구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 총 투자자본이 6조 VND(약 2.5억 USD)을 초과하며 투자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6조 VND(약 2.5억 USD)을 집행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 10조 VND(약 4.2억 USD)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 농촌 지역에 투자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하는 프로젝트
- 첨단기술 기업,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조직,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이 권장되는 분야 항목에 포함된 프로젝트,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 및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 혁신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중소기업 제품 유통체인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시설,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분야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진출을 위한 분야별 시장접근 기준 마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가분야 및 시장접근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부는 세부규정을 마련

- 경제조직,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투자지분 조건
- 투자 형식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의 범위에 관한 조건
- 투자활동 참여 대상 및 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조건
- 국제조약, 국회의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가속화

-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협상 진행 중인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 발효 중 | 발효 예정 (타결·서명) | 협상 중 | 검토 중 |
|----------|--|------------------|---|-------|
| ASEAN 차원 | AIFTA(인도, 2010년 1월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2010년 1월 발효) AKFTA(한국, 2007년 6월 발효) AJCEP(일본, 2008년 12월 발효) ACFTA(중국, 2005년 7월 발효) AHKFTA(홍콩, 2019년 6월 발효) | - | RCEP | - |
| 베트남 단독 | AEC(아세안경제공동체, 2015년 12월 출범) VJEPA(일본, 2009년 10월 발효) VCFTA(칠레, 2014년 1월 발효) VKFTA(한국, 2015년 12월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2016년 10월 발효) CPTPP(2019년 1월 발효) EVFTA(2020년 8월 발효) | -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 FTAAP |

자료: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CPTPP 및 ASEAN-홍콩 FTA 정식 발효(2019.06)

- 2019년 1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정식 발효됨
- 베트남은 CPTPP를 통해 회원국, 특히 기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

○ EU-베트남 FTA(EVFTA)* 발효(2020년 8월 1일)

- 베트남과 EU 양자 간의 FTA 협상이 타결(2015년 8월)된 이후, 양측은 2018년 10월 FTA 서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함
- EU의회 및 정상회의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EU-베트남 FTA(EVFTA) 비준,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8일 EVFTA 비준, 2020년 8월부터 EVFTA 발효
-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물품 70.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 7년 후에는 99.7%의 관세가 사라져 특히 의류·식료품등의 EU 시장 진출 기회 다대

*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2012년 6월) → 양국 12차 협상 완료(2012년 6월) → EU-베트남 FTA 타결(2015년 8월) → EU-베트남 FTA 체결(2015년 12월)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 완료(2018년 8월)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 완료(2019년 6월) → EU의회(2020년 2월) 및 EU정상회의(2020년 3월) EVFTA 비준 → 베트남 국회 EVFTA 비준(2020년 6월) → EVFTA 발효(2020년 8월)

□ 고용 노동 정책

○ 2021년 베트남 최저임금 '동결' 유력

- 베트남 임금위원회(National Salary Council)는 2020년 8월 5일 2021년 최저임금 동결을 최종 결정했으며, 연말 베트남 총리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중
- * 베트남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노동자, 기업 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발표하는 것이 원칙

〈2021년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안)〉

| 구분 | 2019년 최저임금 | 2020년 현행 최저 임금 | 2019년 대비 2020년 인상률 | 2021년 최저임금 동결(안) | 2020년 대비 인상률(안) |
|--------|-----------------------|-----------------------|-----------------------|-----------------------|--------------------|
| 1지역 | 4,180,000동 (180달러) | 4,420,000동 (190달러) | 5.74% | 4,420,000동 (192달러) | 0.00% |
| 2지역 | 3,710,000동 (160달러) | 3,920,000동 (169달러) | 5.66% | 3,920,000동 (170달러) | 0.00% |
| 3지역 | 3,250,000동 (139달러) | 3,430,000동 (149달러) | 5.54% | 3,430,000동 (149달러) | 0.00% |
| 4지역 | 2,920,000동 (125달러) | 3,070,000동 (133달러) | 5.14% | 3,070,000동 (133달러) | 0.00% |
| 평균 인상률 | - | - | 5.52% | - | 0.00% |

주: () 안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 기준환율 1USD = 23,176VND(베트남 중앙은행(SBV), 2020년 9월 9일)
 자료: 베트남 임금위원회, 베트남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Decree No.90/2019/ND-CP)

- 2016년까지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7년 이래로 한 자릿수의 인상폭을 보이며, 인상률이 감소하는 추세임
- 2019년에서 2020년은 평균 5.52%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으나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이 동결 될 가능성이 유력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이 발달되어,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FDI 투자가 집중된 제조 산업에 제조원가를 인상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베트남 상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정책

- 2018년 10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와 관련한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이 공포되어, 기존 현지인 노동자에 국한되었던 사회보험 납부대상이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됨
-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질병·사망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음
- 202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만 총 급여의 3.5%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며, 2022년부터는 고용주 17.5%, 근로자 8%의 비율로 의무적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 납부에는 급여 실링이 적용되며 베트남 당국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즉 2019년 8월 기준 급여 실링은 2,980만 동(약 1,280달러)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가 기준 급여 실링 이상이 적용되는 바,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의 3.5%인 104만 3,000동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단계적 납부 일정〉

| 구분 | 2018년 12월 1일~2021년 12월 31일 | | | | 2022년 1월 1일 이후 | | | |
|---------|----------------------------|------------|-------|------|----------------|------------|-------|-------|
| | 질병 및 출산 | 산업재해 및 직업병 | 질병·사망 | 합계 | 질병 및 출산 | 산업재해 및 직업병 | 질병·사망 | 합계 |
| 외국인 근로자 | - | - | - | - | - | - | 8% | 8% |
| 고용주 | 3% | 0.5% | - | 3.5% | 3% | 0.5% | 14% | 17.5% |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베트남, 노동법 전면 개정

- 베트남 정부, 2019년 11월 30일 신(新) 노동법*을 공포, 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Law No. 45/2019/QH14)

* 노동법 개정 타임라인: 노동법 개정안 발표(2019년 4월 28일) → 개정안 국회 제출 및 논의(2019년 5월) → 국회 수렴 후 개정안 수정(2019년 5~10월) → 10월 회기 통과(2019년 10월) → 의결(2019년 11월 20일) → 발표(2019년 12월 17일) → 2020년 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 발효(2021년 1월 1일)

○ 2012년 노동법 대비 2019년 신규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Law No. 45/2019/QH14)

(1) 근로 계약 관련

| | | |
|---------------|--|------------|
| 적용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 추가(제2조 1항)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된다는 의미. 즉 법인장 등도 근로자에 포함 | 제2조 1항 |
| 근로계약형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변경 - 구두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新)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 | 제14조 1, 2항 |
| 근로계약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 이하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과,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 두 가지*로 단순화 * 기간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단기간 제한 없음(기존 1년) * 1년 이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삭제 | 제20조 1항 |
| 수습(인턴) 근무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수정됨 -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근무기간을 위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제24조 |
| 수습근무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습근무기간 조항에서 기업 관리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법적 대표자, 회사주식 등 기업법상 관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수습근무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설정하지만 업무당 수습은 1회만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법, 국영기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관리직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고급전문기술 혹은 고급전문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실무직, 기술직, 중급전문자격, 중급전문기술에 관한 업무의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기타 업무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25조 |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자는 최소 45일 전 b)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0일 전 c) 12개월 미만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일 전 d) 특정 직업, 직종의 계약해지 통보기한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5조 1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참여 기간의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문서의 원본(있는 경우)을 반환한다. b)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 복사 및 발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기존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여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 제48조 |

| | | |
|--|---|---------|
| | 도 발생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임금 미지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근무 장소에 배정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단, 해당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단, 해당 법 제97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사용자의 폭행, 구타, 폭언 혹은 명예, 인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 강제노동을 당할 경우 d) 근무지에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dd) 임신부는 해당 법 제138조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e) 해당 법 제169조에서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이 됐을 경우, 단, 양측이 합의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사용자가 해당 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제35조 2항 |

(2) 외국인 근로 계약 관련

| | | |
|--|--|------------------|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해지사유 추가 및 근로기간 관련 규정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인과 달리 횡수에 제한 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 제36조 제151조 |
| 개정 노동법 내 외국인 근로계약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계약의 해지 사유 제5항.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유효한 판결이나 관할 당국의 결정에 의해 추방된 경우 제12항. 제156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 제151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필요사항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은 근로허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쌍방이 복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협상을 할 수 있다. | 제36조 제151조 |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허가는 2년을 한도로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추가 * 기존에는 노동허가 연장에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법은 1회 연장 이후 재연장 시, 노동허가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함 -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사유로 추가 | 제 155조 제154조 제8항 |

(3) 급여 관련

| | | |
|---------------------|--|------|
| 급여지급조항 | - 급여지급에 관한 기본조항을 추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에는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공제 금액에 대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 제95조 |
| 급여지급방식 | -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지급방식을 합의하도록 하고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 제96조 |
| 급여표 등록 의무 삭제 | -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와 논의하여 급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관할 노동청 등록 의무는 삭제 | 제96조 |

(4) 초과근무 관련

| | | |
|--------------------------|---|--------------------|
| <p>초과근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초과근무 가능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 - 연 초과근무는 200시간까지 가능하며 특정 수출 업무 등에 한해 신고 후 300시간을 한도로 함(기준과 동일) - 애초 외국투자기업들이 요청했던 연간 4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반영되지 않음 | <p>제107조</p> |
| <p>초과근무 세부 조항</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근로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b) 초과근무 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주간(週間) 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을 합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c)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1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이 조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혹은 산업 분야, 작업에 대해 1년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방직, 봉제, 가죽, 신발, 전기, 전자, 농·수산·임업 및 소금 상품의 가공 및 수출 b) 전기, 통신, 정유 상품 공급 및 생산, 상하수 c) 고도의 기술 혹은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해결해야 하나 근로시장에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d) 계절적 이유 혹은 원자재나 상품 수급으로 시간을 지연할 수 없는 긴박한 작업, 기상, 자연재해, 화재, 적으로부터 피해, 전력난, 원자재 부족, 생산라인의 기술적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 dd) 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4. 해당 조 3항의 경우에 의해 초과근무를 실행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성 인민위원회 소속 노동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5. 정부에서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p>제107조 제2~5항</p> |
| <p>초과근무 예외조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법률 제107조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초과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 규정에 따른 국방,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소집 및 동원령을 수행할 경우 2)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및 기타 재난으로부터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단, 산업안전위생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 | <p>제108조</p> |

(5) 법정 공휴일

- 기존 독립기념일(Ngày Quốc khánh) 공휴일을 1일에서 2일로 변경, 연간 법정공휴일은 총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남
- 신규 공휴일은 매년 9월 1일 혹은 3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구정(Tet) 연휴처럼 매년 총리령으로 발표

〈신·구 노동법 내 법정 공휴일 조항〉

| 2012년 노동법 | | | 2019년 노동법 | | |
|-------------|-----------|-------|-------------|-----------|-------|
| 공휴일 | 날짜 | 휴일 수 | 공휴일 | 날짜 | 휴일 수 |
| 신정 | 양력 1월 1일 | 1일 | 신정 | 양력 1월 1일 | 1일 |
| 구정 | 음력 1월 1일 | 5일 | 구정 | 음력 1월 1일 | 5일 |
| 승전기념일 | 양력 4월 30일 | 1일 | 승전기념일 | 양력 4월 30일 | 1일 |
| 국제 근로자의 날 | 양력 5월 1일 | 1일 | 국제 근로자의 날 | 양력 5월 1일 | 1일 |
| 독립기념일 | 양력 9월 2일 | 1일 | 독립기념일 | 양력 9월 2일 | 2일 |
| 홍봉왕 기념일 | 음력 3월 10일 | 1일 | 홍봉왕 기념일 | 음력 3월 10일 | 1일 |
| 개정 전 연간 공휴일 | | 총 10일 | 개정 후 연간 공휴일 | | 총 11일 |

자료: 2019년 노동법 제112조

(5) 정년퇴직 연령

- 기존 만 60세, 만 55세였던 정년퇴직 연령이 만 62세, 만 60세로 변경(제169조)
- 시행 첫 해 2021년부터 남성 만 60세 3개월, 여성 만 55세 4개월이 적용되며, 이후 매년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씩 증가
- 중노동, 위험직군, 노동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는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직, 관리직,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음

〈개정 후 연도별 정년퇴직연령〉

| 기준연도 | 남성 | 여성 |
|-------|---------|---------|
| 2021년 | 60세 3개월 | 55세 4개월 |
| 2022년 | 60세 6개월 | 55세 8개월 |
| 2023년 | 60세 9개월 | 56세 |
| 2024년 | 61세 | 56세 4개월 |
| - | - | - |
| 2027년 | 61세 9개월 | 57세 4개월 |
| 2028년 | 62세 | 57세 8개월 |
| - | - | - |
| 2034년 | 62세 | 59세 8개월 |
| 2035년 | 62세 | 60세 |

자료: 2019년 노동법 제169조,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6) 기타

| | | |
|-----------------------------|---|------------|
| 사전 통보 없이 근로감독관 검사 가능 | -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강, 명예 등을 위협하는 급박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결정으로 사전 통보 없이 기습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
| 복수노조 허용 | - 기존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하의 단일 노조에서 별도의 근로자단체 설립을 허용했음. 이는 베트남의 CPTPP, EU-베트남 FTA, ILO 협약과 부합하는 내용 | 제3조, 제170조 |
| 사내간담회 | - 기존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했던 간담회를 1년 1회 이상 개최로 변경 | 제63조 제1항 |

○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법 규정

| | | |
|---------------------------------------|--|--------------|
| <p>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p> | <p>- 근로 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 시 다음 규정을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으로 인하여, 전기 또는 수도시설의 불량으로 인하여, 또는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은 연간 60일을 넘지 못한다. 2.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 할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일 전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배치 전환 기간을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치 전환하는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동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에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이 전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는 최초 30일의 기간 동안 전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전직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가 정하는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제31조</p> |
| <p>근로계약 이행이 정지되는 경우</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p>제32조</p> |
| <p>작업 중단 시 임금 및 무급휴가</p> | <p>- 작업 중단 시 임금: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작업이 중단된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 임금 보다 낮을 수 없다. 3.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 중단 시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 <p>제98조</p> |
| | <p>-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동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p>제116조</p> |
| <p>연차휴가 및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p> | <p>- 연차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사용자를 위해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통상적인 근로환경에 근무하는 경우 12명업일 b) 노동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미성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명업일 c)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지가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p>제111조</p> |
| | <p>-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c) 천재지변, 화재, 법률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p>제38조</p> |

□ 경제·산업 성장 정책

○ 5개년(2021~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 베트남은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의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설정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 특히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세스에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고 평가하며, 다가오는 어려움과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위해 각 부처와 기관, 경제단체, 국영기업, 지방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함

〈2021년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 | |
|----------------------|---------|
| GDP 성장률 | 평균 7% |
| 국내 예산 징수 및 세금 징수 증가율 | 9~11% ↑ |
| 무역규모 성장률 | 4~6% ↑ |

자료: 31/CT-TTg(2020년 7월 29일),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우선순위 및 주요 내용

- (1) 거시경제적 안정과 통제 하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관점으로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 체도를 개선
- (2) 더 높은 생산성, 경쟁력 및 경제 회복력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기업의 설립을 촉진, 또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
- (3) 경제의 기본 생산 투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구역의 개발과 산업 지원을 추진
- (4) 교통, 항공, 에너지, IT, 도시 및 농업 분야에서 동기식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 주택 개발 전략과 현대화된 농업의 국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현
- (5)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 개발, 공공 부채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 향상, 국가 우선 프로젝트의 건설 진행을 가속화
- (6)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고 경제 현대화 및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사용
- (7)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천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 강화
- (8) 법의 공식화, 완성 및 집행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
- (9)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 사법행정 및 형 집행과 관련 사법부 운영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 전자정부를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를 위해 노력
- (10) 국방 안보, 영토 보전, 주권 및 독립을 지속적으로 보호, 정치적 안전과 사회 안전 질서 유지
- (11) 외교 정책 및 국제 통합의 효율적 실행 유지, 베트남의 발전을 위한 평화, 안정에 유리한 조건 보장

자료: 18/CT-TTg(2020년 4월 13일),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제조산업 육성 정책

- 베트남 정부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중

- 또한, '2045년 전망, 2030년까지의 국가산업발전정책'(2018년 3월 22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향후 정보통신, 깨끗한 에너지, 스마트 기술, 국방, 안보, 섬유 및 신발, 전자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힘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강화되고, 제조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법인세 우대 | 초기 4년간 면세 및 이후 9년간 50% 적용 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 |
| 수입세 우대 | 기계류 수입세 면제(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국내 미생산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
| 부가가치세(VAT) 우대 | 부품·소재산업 품목 관련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월/분기별 신고가 일반적) |
| 신용대출 우대 | 정부 투자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중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 동화 단기 대출금리 적용 가능 |
| 환경보호산업 관련 인센티브 | 부품·소재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 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
|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감면 및 면제 |
| 기타 | <p>R&D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R&D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 <p>기술이전 및 적용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공정물(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 등) 사용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p>인적지원 개발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지원 훈련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p>시장 개발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

자료: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

- 2018년 1월 중소기업지원법을 최초로 시행하고, 법인세 감액·은행 대출 지원·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시 중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서는 13만 8,100여개의 기업이 신설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등록 자본규모는 53만 6,480달러, 누적 신규 등록자본 총액은 742억 달러에 달함

- 그러나 중소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인 지난 2020년 9월 현재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대출, 토지,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정된 가용재원과 복잡한 행정절차, 일관성 없는 사업 요건, 모호한 규제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힘
-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Decision 844/QĐ-TTg)'를 수립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전개

〈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목표 | <p>지식·기술·신 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유형(스타트업)의 형성과 발전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p> <p>① 혁신 스타트업 지원 법체계 완비, ②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 ③ 800개 프로젝트, 200개 스타트업 지원과 이 중 5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4,408만 8,000달러) 달성 등의 신속한 진행</p> <p>2025년까지 2,000개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300개 스타트업 기업 지원, 10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8,804만 7,000달러) 달성</p> |
| 지원 대상 | <p>창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집단 또는 지식·기술·신 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창업 기업으로서 기업 활동기간이 최초 기업등록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하인 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설·기술, 투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직</p> <p>대표자가 기업 대상 투자, 재무 및 지원 컨설팅, 기업 개발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의 경험 보유</p> <p>최소 1년간 10개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활동 경험이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억 동(약 4만 4,000 달러) 규모의 투자 또는 투자 유치 경험 보유</p> <p>조직 활동의 기능, 임무에 적합한 창업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양성·컨설팅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조직</p> |
| 지원 활동 | <p>기술, 특허, 국가표준, 인력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p> <p>혁신 스타트업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p> <p>과학기술 관련 연간 국가 예산에 TECHFEST(국제 규모의 국가기술창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경비 편성 및 지원</p> <p>2020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 상업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p> <p>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활동 개발</p> <p>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기술 개발</p> <p>스타트업 활동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비 지원</p> <p>역내 및 세계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p> <p>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파트너, 투자자 소개 및 투자자와 국내 스타트업 수속 지원</p> <p>혁신 스타트업의 연구, 시험, 시장 테스트, 저이자/무이자 융자 등에 중앙 행정부처 및 직할 성·시의 과학기술발전기금 사용 장려</p> <p>혁신 스타트업 환경 조성에 필요한 각종 법규의 개정, 신설 등</p> |

자료: Decision 844/QĐ-TTg(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현황〉

| 한국 투자자 | 베트남 스타트업 | 투자금액 | 투자시기 | 내용 |
|----------------------|-----------------|-----------|-----------|---|
|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 JobHopin | 미공개 | 2020년 5월 | 베트남의 2천여 개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140만 명 이상의 구직자 DB를 이용한 구인구직 서류심사 및 구직자 매칭 서비스 |
| 브리즈인베스트먼트 | Propzy | 미공개 | 2020년 5월 | 베트남의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
|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 Sapo Technology | 150만 달러 | 2020년 5월 | 전자·상거래 관련 온·오프라인 영업 관리 플랫폼 제공 스타트업 |
|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 Logi | 100만 달러 | 2019년 11월 | 음식 배달 앱, 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1시간 이내 배송하는 스타트업 기업 |
| 키움인베스트먼트 | OnPoint | 미공개 | 2020년 4월 | 전자상거래 지원 플랫폼 |
| 본엔젤스/넥스트랜스 | eDoctor | 미공개 | 2020년 4월 | 모바일 병원 예약 및 원격 진료 플랫폼 |
| 스틱벤처스 | Tiki | 1천만 달러 이상 | 2017년 4월 | 베트남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에 투자 |
| 미래에셋-네이버아시아그 로쓰펀드 | POPS Worldwide | 3천만 달러 | 2019년 11월 | 62만 개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 자산과 콘텐츠 제작자 및 파트너를 보유한 베트남 최대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 투자 |
| 우아한 형제들 | Vietnammm | 미공개 | 2019년 5월 | 베트남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Vietnammm 인수 |

자료: The VC

○ 민간기업 육성 정책

-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민간기업을 150만 개, 2030년까지 200만 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
- ‘민간부문 지속 가능 성장 계획’을 모토로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 및 지속 가능한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 △청정생산기술 적용을 통한 자원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 등 국가와 기업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
- 2030년까지 기업 간 기술력 및 노동경쟁력 격차는 현저히 줄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 비율을 ASEAN 주요 4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임
- 또한 2021~2030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매년 6~8% 확대하고 노동자의 평균소득을 연 25~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기업의 국가 예산 기여는 연간 23~35% 성장을 목표로 함

○ 국영기업 혁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

-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 가속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17년 8월, 결정문 Decision 1232/QĐ-TTg을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 진행 중임**

* 2017~2020년, 406개 국영기업 내 정부 투자금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회수 예정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2017년) 135개 → (2018년) 181개 → (2019년) 62개 → (2020년) 28개

- 국영기업은 2016년 기준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비경제성과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비효율성의 주범으로 꼽히나 국영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영기업은 신용거래, 정부사업 조달, 연구개발에서 특혜를 받음에도 △부지 사용, △은행 대출, △노동 및 고정자본의 활용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 확대와 공기업 간의 상호 지분보유도 규모의 비(非)경제성을 초래
-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주식화로 전략적 투자유치 도모 및 경제적 효율성, 관리 투명도를 추구
- 베트남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중***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2017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50%까지 확대, 10년 전인 2007년 민간기업 비중은 20% 내외 수준, 정부는 2020년까지 105개 이상의 공기업 민영화를 목표로 하나 실제 민영화 비율은 낮은 편임

〈베트남 정부의 주요 국영기업 내 국가 지분 매각 계획〉

(단위: %)

| 기업명 | 현 지분율 | 국가 지분 매각 과정 | | | | 잔존 지분율 |
|---|-------|-------------|-------|-------|-------|--------|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Vietnam Engine and Agricultural Machinery Corporation | 88.5 | 52.5 | - | - | 36 | 0 |
| Petrolimex | 78.6 | - | 24.9 | - | - | 53.7 |
| Vinaincon | 82.8 | - | 46.8 | 36 | - | 0 |
| Machines and Industrial Equipment Corporation | 99.6 | - | 63.5 | - | - | 36 |
| Vinatex | 53.5 | - | 53.5 | - | - | 0 |
| VNSteel | 93.9 | - | 57.9 | - | 36.0 | - |
| ACV | 95.4 | - | 20 | - | 10.4 | 65 |
| Vietnam Airlines | 86.2 | - | - | 35.2 | - | 51 |
| Vinawaco | 36.6 | - | 36.6 | - | - | 0 |
| Cienco 5 | 40 | - | 40 | - | - | 0 |
| Cienco 8 | 18.4 | - | 18.4 | - | - | 0 |

자료: Decision 1232/QĐ-TTg

□ 시장 규제

○ 독점금지법(Competition law)

-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상위의 법으로, 2004년도 구 법령을 수정·보완한 최종 개정안이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됨
- 새롭게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law)은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베트남 당국의 독점기업에 대한 관리·감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독점사례를 조사·감독하기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의 국가경쟁관리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위원회 인사 배치와 주요 업무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초안을 제작 중

〈독점금지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개념 정의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 | 베트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업 |
| 금지 행위의 추가 |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의 금지 | 불공정 경쟁 행위를 유발하는 조직 및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행위 포함 |
| 위반 시 벌금 | N/A |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상한선 지정 ① 독점규제 위반: 기업의 총 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 ②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정 위반: 최대 20억 동 of 벌금 ③ 기타 규정 위반: 최대 2억 동 |

자료: Competition law 23/2018/QH14

2. 시장 분석

베트남은 양자/다자 간 FTA를 통한 통상 저변 확대 등으로 동남아시아 교역의 거점으로서 공고한 입지를 다져 나가는 중임.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1.81%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며 경기 성장 기조를 유지해나가고자 노력함.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와 코로나19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베트남의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 각종 투자 관련 규제, 투자 과밀화에 따른 투자비용 상승 등은 지속적 주목이 필요한 장애요인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생산기지·대체 공급처 유망지로 부상

○ ‘모든 것을 중국에 두지는 않는다’, 중국 편중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함. 특히 중국의 공장 섯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와 위기감은 기존의 생산기지 및 원부자재 공급선 다변화 계획에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미-중 무역분쟁 이후 탈 중국화를 검토 중이던 일본, 호주, 인도* 등 국가에서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며 생산기지 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침

* 해당 3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함께 4대축을 형성하는 ‘쿼드’ 협력국으로 미국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10월 7일 도쿄에서 개최된 4자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역내에서의 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

– 특히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이 포함된 새로운 연합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 베트남 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쿼드’가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과 군사외교적 동맹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참여 여부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나, 일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함

○ 리쇼어링 대신 ‘니어쇼어링’, 가깝고 안정적인 베트남으로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흐름에 따라 기존의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소환 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생산 제품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기존 생산기지나 본국에서 근접한 곳으로 분산·이전 하는 ‘니어쇼어링’의 추세 증가

–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정치·경제적 안정성,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바탕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대상지로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20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된 EVFTA로 EU 시장으로의 통상저변 구축까지 마련하여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확보

〈중국-베트남 최저임금 비교(대도시 기준)〉

(단위: US\$)

|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증가율 |
|-----|-------|-------|-------|-------|-------|-------|-------|-------|-------|-------|------|
| 중국 | 165 | 198 | 229 | 261 | 296 | 324 | 329 | 340 | 365 | 359 | 8.1% |
| 베트남 | 71 | 75 | 96 | 112 | 127 | 142 | 159 | 167 | 176 | 181 | 9.8% |

자료: 중국·베트남 노동부, 증가율은 연평균 기준

- 또한 베트남은 FDI 기업들에 의해 '원부자재 수입 → 제조 및 가공 → 완제품 수출' 순으로 산업구조가 편재되어 해외기업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며, 진출 시 베트남 현지기업 뿐 아니라 이미 진출한 FDI 기업들의 제조 인프라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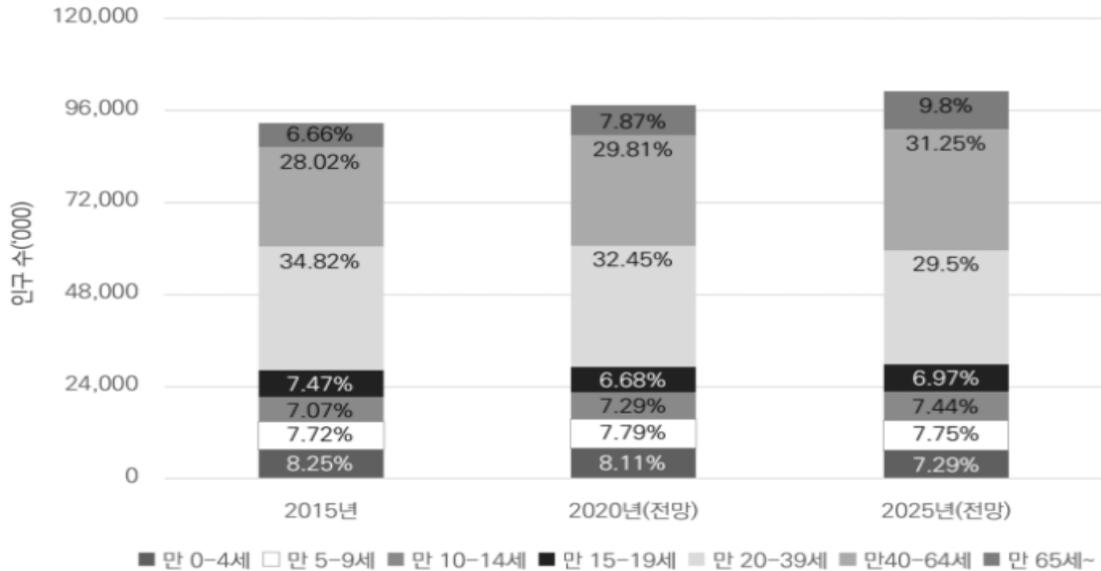
○ 단기에 급격한 중국 대체는 어려워, 생산 비용과 효율성 검토에 따른 장기적 접근 필요

- 중국은 대표적인 글로벌 생산기지임과 동시에 10억 명 규모의 최대 소비시장인 바,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 시 무역 정책에 따라 중국 시장 점유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장 이전에 따른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 과밀에 따라 2020년 공단 부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6.5%, 2분기 12.2% 증가하고 있어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제조업 시장에 대한 다각화는 가능하나 노동력·인프라의 수준을 감안 시 완전 대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인 바, 향후 지속적인 동향 주시 필요

□ 1억 인구의 젊은 소비시장,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소비심리

- 베트남은 9,600만여 명의 세계 15위 인구 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8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2023년경 1억 명 돌파, 2030년경 1억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만 19세 이하의 베트남 인구는 약 29.9%, 20~39세 인구는 32.5%로 상당히 두터운 젊은 인구층 보유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이들의 주요 소비품목인 IT·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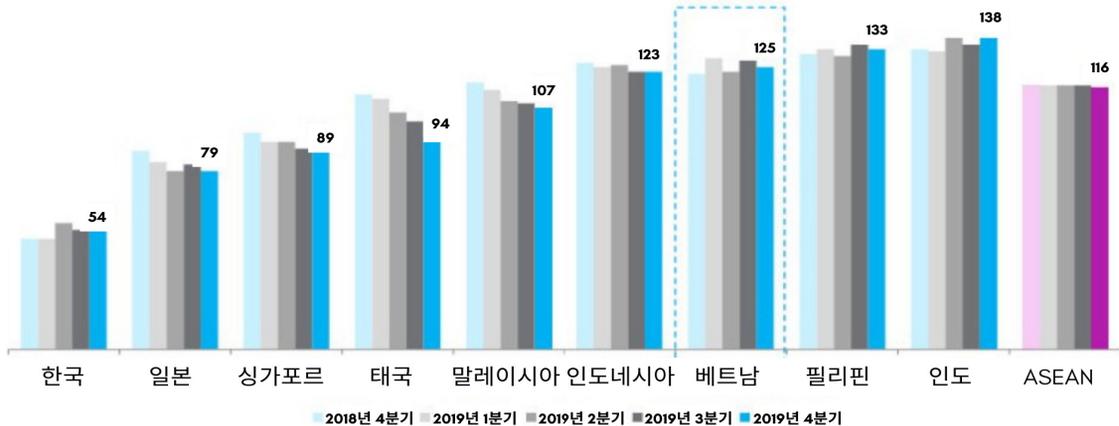
〈베트남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자료: BMI Research, 호치민무역관 종합

- 도시 유입 인구 증가 및 소득수준 증대로 상품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도로 발달, 프랜차이즈 진출도 활성화 추세
 -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와 편의점이 급속히 성장 중임
 - 1억에 가까운 인구 성장 및 현지 소비자들의 경제력 제고 덕분에 베트남은 노동 시장의 강점이 우선 부각됐던 과거와 비교해 소매유통 시장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
 - 실제로 일부 지역(특히 호치민시와 하노이 같은 5대 중앙정부직할시)의 소득 수준은 국가 평균 대비 2~3배가량 높음. 다만,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연간 3,000달러 전후이며 베트남의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 큰 편차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CCI)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2020년 2분기 기준, 117점으로 세계 2위
 - 베트남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불경기 속에서도 경기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소비심리를 유지해나간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4분기 소비자신뢰지수(CCI) 조사에서도 베트남은 인도, 필리핀에 이어 ASEAN 국가 3위를 차지한 바 있음*
- * 2019년 4분기 ASEAN 국가 소비자신뢰지수 순위: 1위 인도(138점), 2위 필리핀(133점), 3위 베트남(125점), 4위 인도네시아(123점), 5위 말레이시아(107점)

〈2018년 4분기~2019년 4분기 ASEAN 국가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자료: The Conference Board

- 베트남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3개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베트남의 경제발전예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팽창되고 있으며, 아세안의 대표 시장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함

* 베트남의 소비자 신뢰지수 3개년 동향: 2017년 4분기(115점) → 2018년 4분기(122점) → 2019년 4분기(125점)

나. 수출입 동향

□ 베트남 수출입 동향

- 지난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2.6%(수출액 13.7%, 수입액 11.6%)의 속도로 증가했으며, 2019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642억 달러, 수입액은 2,531억 달러를 달성
 - 2019년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8.4%, 6.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11억 1,845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2020년 6월 누적 기준 베트남은 수출액 1,227억 달러, 수입액 1,173억 달러 달성
 -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증가, 2.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함
 - 6월 당월 교역액은 432억 달러로 전월 대비 15.8% 증가했으며, 수출은 17.6%, 수입은 14% 증가하여 점차적인 회복세에 돌입함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US\$ 백만,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
| 수출 | 162,017 (7.9) | 176,581 (9.0) | 214,019 (21.2) | 243,483 (13.2) | 264,289 (8.4) | 63,234 (7.5) | 122,788 (0.2) |
| 수입 | 165,570 (12.0) | 174,804 (5.6) | 211,104 (20.8) | 236,688 (11.1) | 253,071 (6.8) | 59,494 (3.7) | 117,326 (-2.9) |
| 무역수지 | -3,554 | 1,777 | 2,916 | 6,795 | 11,118 | 3,740 | 5,461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한국(4위)

-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각각 미국 351억 달러(비중 25.7%), 중국 196억 달러(비중 16%), 일본 93억 달러(비중 7.6%), 한국 91억 달러(비중 7.47%)임
- 미국, 중국, 일본은 전월 대비 각각 30.8%, 13.2%, 5.6%로 전월 대비 플러스 전환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전월 대비 수출액이 -1.6%로 소폭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중국(1위), 한국(2위), 일본(3위), 대만(4위)

- 4대 수입국은 모두 전월 대비 10% 이상 수입량 회복하였으며, 그 외 10위권 국가 중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전월 대비 각각 -13.7%, -5.7%, -10.3% 감소함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US\$ 십억, %)

| 순위 | 국가명 | 수출액(비중)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비중) |
|----|------|--------------|----|-------|--------------|
| 1 | 미국 | 31.5(25.7) | 1 | 중국 | 34.9(29.8) |
| 2 | 중국 | 19.6(16.0) | 2 | 한국 | 20.8(17.7) |
| 3 | 일본 | 9.3(7.6) | 3 | 일본 | 9.4(8.0) |
| 4 | 한국 | 9.1(7.4) | 4 | 대만 | 7.5(6.4) |
| 5 | 홍콩 | 4.1(3.3) | 5 | 미국 | 7.0(6.0) |
| 6 | 독일 | 3.2(2.7) | 6 | 태국 | 5.0(4.3) |
| 7 | 네덜란드 | 3.2(2.6) | 7 | 말레이시아 | 3.0(2.6) |
| 8 | 태국 | 2.2(1.8) | 8 | 인도네시아 | 2.5(2.1) |
| 9 | 영국 | 2.2(1.8) | 9 | 호주 | 2.3(2.0) |
| 10 | 대만 | 2.2(1.8) | 10 | 인도 | 2.0(1.7) |
| 기타 | | 35.8(29.2) | 기타 | | 22.8(19.4) |
| 합계 | | 122.7(100.0) | 합계 | | 117.3(100.0)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품목별 수출 동향

- 6월 품목별 수출액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이 전월 대비 16.2% 증가한 39억 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전화기 및 그 부분품 36억 5,000만 달러(24.5%), 섬유·의류 제품이 26억 달러(39.4%), 신발 14억 4,000만 달러(9.8%), 수산물 7,200만 달러(12.1%) 등의 순으로 전 부문에 걸쳐 증가함

○ 품목별 수입 동향

- 6월 수입액 중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전화기 및 그 부분품, 섬유·의류 제품인 수입량 상위 3개 제품군의 수입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함
- 다만, 섬유·의류 제품의 수출량은 감소는 5, 6월에 본격화되었고 국영기업 비나 텍스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올해 섬유·의류 수출은 작년보다 23% 감소한 3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상반기 섬유 생산은 코로나19에도 2.8%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 동기의 11.5% 성장에 비해 저조한 성적이며, 의류 생산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수출주문 취소 또는 연기로 4.7% 감소함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품목 | 6월 기준(누적) | 전년 대비 증감률 | 비중 |
|----|---------------------|-----------|-----------|-------|
| 1 | 전화기 및 그 부분품 | 21,955 | -6.5 | 17.9 |
| 2 |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 19,471 | 25.4 | 15.9 |
| 3 | 섬유·의류제품 | 13,181 | -12.7 | 10.7 |
| 4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 10,415 | 26.5 | 8.5 |
| 5 | 신발류 | 8,130 | -6.9 | 6.6 |
| 6 | 목재 및 목제품 | 5,036 | 3.6 | 4.1 |
| 7 |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 3,758 | -11.4 | 3.1 |
| 8 | 수산물 | 3,603 | -7.4 | 2.9 |
| 9 | 철강재 | 2,085 | -5.6 | 1.7 |
| 10 | 농산물 | 1,757 | -13.6 | 1.4 |
| | 기타 | 33,393 | - | 27.2 |
| | 총 | 122,788 | 0.2 | 100.0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0년 상반기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품목 | 6월 기준(누적) | 전년 대비 증감률 | 비중 |
|----|---------------------|-----------|-----------|--------|
| 1 |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 27,163 | 13.8 | 23.2 |
| 2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 16,820 | -4.5 | 14.3 |
| 3 | 전화기 및 그 부분품 | 5,971 | 2.7 | 5.1 |
| 4 | 직물 | 5,521 | -15.9 | 4.7 |
| 5 | 철강재 | 4,014 | -16.6 | 3.4 |
| 6 | 플라스틱 원료 | 3,919 | -10.6 | 3.3 |
| 7 | 플라스틱 제품 | 3,238 | 5.8 | 2.8 |
| 8 | 비금속류 | 2,786 | -11.7 | 2.4 |
| 9 | 화학제품 | 2,622 | 3.6 | 2.2 |
| 10 |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 2,513 | -14.3 | 2.1 |
| | 기타 | 42,756 | - | 36.4 |
| | 총 | 117,326 | -2.9 | 100.01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베트남의 수입규제 및 진입장벽

○ 무역규제 조치(2020년 6월 30일 기준)

- 베트남은 7개국 4개 품목에 대해 18건 무역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5건의 조사 진행 중(총 23건)
- 규제 형태별로는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이 각 3건, 20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3건, 화학 3건, 플라스틱 및 고무 3건, 섬유 및 의류 4건임

〈베트남의 조치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 산업 | 조치 | 반덤핑 | | 상계관세 | | 세이프가드 | | 계 | |
|---------|----|-----|--------|------|--------|-------|--------|----|--------|
| | | 전체 | (조사 중) | 전체 | (조사 중) | 전체 | (조사 중) | 전체 | (조사 중) |
| 철강/금속 | | 11 | 1 | - | - | 2 | - | 13 | 1 |
| 화학 | | 2 | - | - | - | 1 | - | 3 | - |
| 플라스틱/고무 | | 3 | - | - | - | - | - | 3 | - |
| 섬유/의류 | | 4 | 4 | - | - | - | - | 4 | 4 |
| 전기전자 | | - | - | - | - | - | - | - | - |
| 기계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총계 | | 20 | 5 | 0 | 0 | 3 | 0 | 23 | 5 |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의 국가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 대상국가 | 조치 | 반덤핑 | | 상계관세 | | 계 | |
|-------|----|-----|--------|------|--------|----|--------|
| | | 전체 | (조사 중) | 전체 | (조사 중) | 전체 | (조사 중) |
| 한국 | | 2 | - | - | - | 2 | - |
| 중국 | | 9 | 2 | - | - | 9 | 2 |
| 인도 | | 2 | 1 | - | - | 2 | 1 |
| 말레이시아 | | 3 | 1 | - | - | 3 | 1 |
| 태국 | | 1 | - | - | - | 1 | - |
| 인도네시아 | | 2 | 1 | - | - | 2 | 1 |
| 대만 | | 1 | - | - | - | 1 | - |
| 총계 | | 20 | 5 | - | - | 20 | 5 |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 KOTRA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음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품목명 |
|------|--|
| 대상품목 | 석유류, 안전장치,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시멘트, 건축자재, 음식, 비료 등 |
| 유효기간 | 최대 3년 |
| 인증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 점검 - 시료 채취 및 시험 후, 적합할 경우 기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정부 부처별 국가기술 규정(QCVN) 관할 내용〉

| 구분 | 품목명 |
|---------|---|
| 보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설비 및 기기(일반 X-ray 진단기, 주사류, 멸균설비, 수술용 기구,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 백신, 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 필요 (ISO 인증서, 자율판매증명서, 기타 인증서 제출)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 유통허가서 등 필요 |
| 농업농촌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품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등 |
| 산업무역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 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필수 |
| 운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종기, 크레인, 특수차량, 건설기계용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탱크운반차, 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
| 건설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류, 콘크리트제품, 블록, 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ISO 9001, 14001 등) 요구 |
| 노동보훈사회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분진마스크, 안전보호대, 압력용기, 리프트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
| 과학기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 헬멧, 철근, 강연선, 전기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연료유, 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유지, 특별소비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각종 자동차 수입요건을 규정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진입을 방어하고 있음
- 2020년 2월 5일 발표된 시행령 17/2020/ND-CP에는 자동차 수입요건의 완화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입요건이 까다로운 상황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수입 관련 시행령 신규 대조표〉

| 규정 | 구 시행령 116/2017/ND-CP | 현행 시행령 17/2020/ND-CP |
|--------------|--|--|
| 신품 자동차 수입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수입업체는 하기의 서류 제출 필요 - 외국 유관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품질인증서(사본) - 외국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발급한 품질검사표(원본) - 외국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공장의 품질보증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대행기관 혹은 외국기관에서 인증) | 삭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패키지별로 샘플검사를 수행 ○ 샘플검사가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 재수출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첫 번째 패키지의 샘플만 검사하고 통과될 경우면 최대 36개월의 VTA 인증서를 발급 |

| 규정 | 구 시행령 116/2017/ND-CP | 현행 시행령 17/2020/ND-CP |
|--------------------------------|--|---|
| | 야 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수입되는 차량의 경우 랜덤검사를 통해 허가된 같은 종류의 자동차 유형인지 검사 |
| 자동차 수입업 라이선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 관련 조항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권 및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지도가 포함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라이선스 정지 |
| 자동차 제조, 조립 인증서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라인의 기술담당자는 기계 공학 또는 자동차 관련 전공 학위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 조립 및 제조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산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할 충분한 인력과 계획을 보유해야 함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 규정 준수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서류 구비 | 삭제 |

자료: 116/2017/ND-CP 및 17/2020/ND-CP,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에서는 FDI 기업이 수출입 또는 유통할 수 없는 품목 공시(Circular No. 34/2013/TT-BCT)

〈FDI 기업 대상 수출입·유통 제한 품목〉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상세기준 |
|---|--|---|
| 수출금지 품목 | 광유 및 역청광 추출 원유 | · 2709.00/10/20/90 |
| 수입금지 품목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켈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 · 2402.10.00, 2402.20.10/20/90, 2402.90.10/20 |
|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2403.11.00, 2403.19.11/19/20/90, |
|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및 웨이스트오일 | · 2710.12/11/12/13/14/15/16/20/30/40/50/60/70/80/90, 2710.19.20/30/41/42/43/44/50/60/71/72/79/81/82 |
| |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4902.10.00, 4902.90.10/90 |
| | 디스크·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디스크·테이프 생산을 위한 패턴과 주요 자재까지 포함) | · 8523.21.90, 8523.29.21/29/41/42/43/49/61/62/63/69/81/82/83/84/89/63 |
|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 · 8802.11.00, 8802.12.00, 8802.20.10/90, 8802.30.10, 8803.10.00, 8803.20.00, 8803.30.00, 8803.90.10/20/30 | |

| 구분 | 품목명 | HS Code / 상세기준 |
|---------|---------------|---|
| 유통금지 품목 | 쌀 | - |
| |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 - |
| | 담배, 시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켈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 기타 제조 담배와 기타 제조된 담배 대용물; “균질의” 또는 “재구성된” 담배, 담배 추출 및 에센스 |
| | 원유 및 가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형태의 광유와 역청유 · 광유 및 역청유 |
| | 약품 | · 의약품법(Law 34/2005/QH11)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 |
| | 폭발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용 화약 · 추진용 화약 이외의 폭발 조제물 · 안전신관, 기폭신관,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
| | 서적, 신문 및 잡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된 책, 브로슈어, 전단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장 수 불문) · 전문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삽화 또는 광고물의 포함 여부 불문 아동용 도서, 삽화, 색칠하기 책) |
| | 귀금속 및 귀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가공 여부 불문)로서 부착되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또는 등급분류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합성, 복원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은(금 또는 백금 도금 포함)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금(백금 도금 포함)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백금 ·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으로서 반제품 형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 주화 |
| |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따른 문화, 사회, 정치 안보 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자료: Circular No. 34/2013/TT-BCT

다. 투자 진출

□ 베트남 FDI 총괄

- 2019년, 베트남은 최근 5년간 최대 FDI를 유치하며 호황
 - 2019년 한국은 대(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의 23.2%를 차지하며 1위 투자국 위치
 -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한 탈 중국기업 베트남 투자 증가로 주요국인 홍콩(15.1%), 중국(13.4%), 일본(12.8%), 싱가포르(8.0%) 모두 투자 확대
 - 특히,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한 M&A 및 지분 취득 형태의 투자 큰 폭으로 증가*
 - * M&A 및 지분 취득 형태 투자: 2018년 98.9억 달러 → 2019년 155.6억 달러 (57% 증가)
- 2020년 1~8월, 베트남의 FDI 유치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20년 1~8월 동안 베트남 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
 - 제조업 투자비율은 2019년(64.7%)에서 2020년 1~8월 47.6%로 감소하며 베트남 FDI 하락의 주요인이 됨
 - 싱가포르 General Electric 'Bac Lieu LNG 화력발전소(3,200MW)' 40억 달러 투자, 태국 SCG Chemicals Company, Ba Ria Vung Tau 석유화학 시설 13억 달러 투자 등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으나 일반 제조분야 투자는 상대적 부진

〈연도별 외국인 총 투자액〉

(단위: US\$ 백만, 건)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8월 |
|------------|----------|----------|----------|----------|----------|
| 투자 금액 | 26,890.5 | 37,100.6 | 35,465.5 | 38,951.7 | 19,538.3 |
| 증감률(전년 대비) | - | 37.9% | 4.4% | 9.8% | -13.7% |
| 투자 건수 | 9,832 | 9,000 | 10,711 | 16,227 | 7,319 |
| 증감률(전년 대비) | - | -8.4% | 19.0% | 51.4% | -14.3%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0년 1~8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연도별 주요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비율〉

(단위: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8월 |
|---------------------|-------|-------|-------|-------|----------|
| 제조업 | 63.0 | 44.3 | 46.8 | 64.7 | 47.6 |
| 부동산 경영업 | 8.8 | 8.4 | 18.7 | 9.9 | 14.7 |
|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 7.3 | 6 | 10.4 | 6.7 | 6.1 |
|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 1.2 | 22.6 | 4.6 | 2.6 | 20.5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최대 투자국인 한국과 주요국 간의 투자 격차는 늘어나는 추세
 - 대(對) 베트남 누적투자 기준 한국은 부동의 1위 투자국, 2위 투자국인 일본과의 투자 격차에는 지난 5년간 큰 변동 없음
 - 기타 주요 투자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과 한국과의 투자 격차는 2016년에 비해 10~87%까지 더욱 벌어지는 추세임

- 한국과 일본은 꾸준한 베트남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기타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국과 주요국 간 베트남 투자 격차 변동추세〉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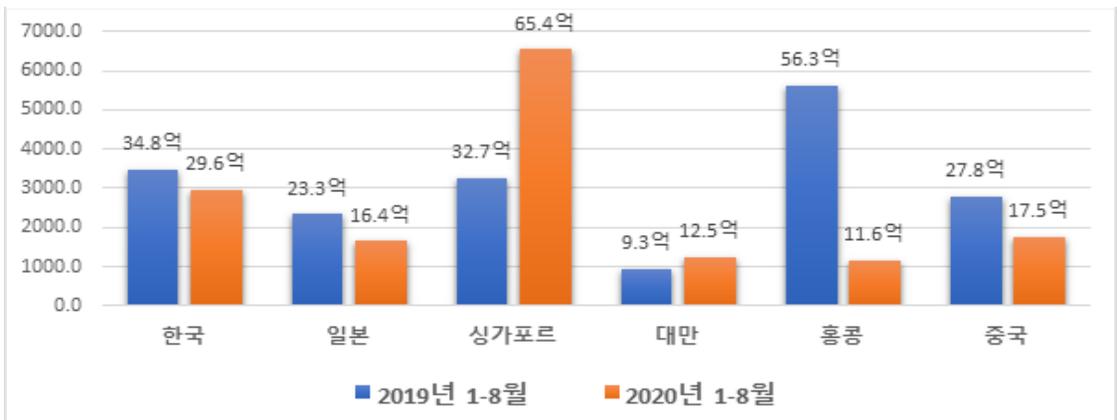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6 | 2016년 대비 격차 증감률 |
|--|---------|---------|---------|---------|---------|--------------------|
| 한국 누적투자액 | 50,553 | 57,861 | 62,566 | 68,102 | 68,315 | |
| [한국과 주요국 간 대(對) 베트남 누적투자액 격차, 한국 투자액 대비] | | | | | | |
| 일본 | -8,119 | -8,554 | -5,548 | -8,738 | -8,218 | 1.2% |
| 싱가포르 | -12,298 | -15,320 | -15,943 | -18,329 | -13,573 | 10.4% |
| 대만 | -18,668 | -26,994 | -31,122 | -35,723 | -35,077 | 87.9 |
| 홍콩 | -33,550 | -39,928 | -42,737 | -44,380 | -43,584 | 29.9 |
| 중국 | -40,025 | -45,838 | -49,218 | -51,817 | -47,320 | 18.2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무역관 자체 분석

□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트남 외국인 투자동향

- 2020년 1~8월, 국가별 월평균 투자액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감소세
 - 싱가포르(1월, 화력발전소 40억 달러), 대만(4월, 전자부품 기업 2개사 투자 3.3억 달러)을 제외한 주요국 투자지표 지난해* 대비 하락

〈주요국 대(對) 베트남 투자 동향〉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무역관 자체 분석

-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다다른 2월 및 다낭발(發) 지역사회 감염이 재확산된 8월 주요 국가의 대(對) 베트남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2020년 3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입국제한 실시 이후에도 주요국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규모는 축소
- 탈 중국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공정이전과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아직 없으나, 일부 글로벌 기업의 경우 베트남으로의 생산라인 이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19년 1~8월 주요 국가의 월 평균 투자액: 한국(435.0백만 달러), 홍콩(703.9백만 달러), 싱가포르(408.8백만 달러), 대만(117.3백만 달러), 중국(348.0백만 달러), 일본(292.4백만 달러)

〈2020년 1~8월 주요국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US\$ 백만)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월평균 투자액 |
|--------------|---------|--------------|---------|---------|---------|---------|---------|--------------|--------------|
| 한국 | 264.5 | 160.9 | 283.5 | 282.3 | 230.9 | 207.3 | 1,397.2 | 139.1 | 370.7 |
| 일본 | 129.2 | 82.2 | 635.3 | 309.3 | 109.3 | 198.8 | 139.3 | 46.5 | 206.2 |
| 싱가포르 | 4,161.7 | -41.0 | 424.1 | 522.4 | 237.8 | 133.6 | 979.5 | 125.1 | 817.9 |
| 대만 | 116.5 | 112.3 | 131.8 | 638.5 | 191.5 | 89.5 | -68.4 | 41.9 | 156.7 |
| 홍콩 | 212.0 | 47.1 | 124.0 | -73.5 | 332.3 | 324.3 | 70.4 | 133.3 | 146.2 |
| 중국 | 160.5 | 559.9 | 95.2 | 241.0 | 209.7 | 311.1 | 126.3 | 47.7 | 218.9 |
| 주요국 월간 총계 | 5,044.3 | 921.4 | 1,693.9 | 1,920.1 | 1,311.5 | 1,264.7 | 2,644.3 | 533.7 | |

주: 파란색 박스는 국가별 2020년 1~8월 기간 중 최대 투자시점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무역관 자체 분석

○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탈 중국 대체지로 기대감 상승

- 애플은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의 생산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원화, 2020년 5월 초부터는 에어팟 2세대 생산량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
- 아마존은 2019년 말부터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스마트 스피커 ‘에코’의 베트남 현지 생산을 검토 중
- 세계 1위 휴대폰 모뎀칩 생산기업인 퀄컴은 미-중 무역갈등의 재개 조짐에 2020년 6월 중국 생산 시설 베트남 이전 결정
- 중국 소재 전자, 자동차 분야 15개 일본 기업(6개 중견·대기업, 9개(중소기업) 베트남 공장 이전 결정
- 중국에 뒤처지는 내수시장(인구 + 소비력), 고속권 노동자 부족, 빈약한 부품소재 산업 기반 등은 투자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힘

□ 주요 국가별 대(對) 베트남 투자동향(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 한국, 전년 동기 대비 대 베트남 투자액 47.6% 큰 폭 감소
 - 대(對) 베트남 한국 투자는 금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주요 산업군 대부분이 전년 대비 감소세
 - 2020년 3월 21일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인해 베트남 현지 신규 투자에 어려움 발생
 -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제조분야 투자가 부진하며, 주요 투자분야인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축소된 중·소형 투자가 증가
- 베트남은 여전히 투자유망지역, 탈 중국기업의 이전 수요는 적은 편
 - 2020년 3월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경영현황 설문’에 따르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 중 약 12.6%만이 해외 공장 이전을 희망
 - 다수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은 현지 법인을 유지하면서 제3의 지역에 진출하여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선호

- 국내 또는 중국에서 해외 공장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 중 우선 투자대상 국가로 여전히 베트남에 높은 관심.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비교하여 아직 베트남의 투자매력도가 비교 우위인 것으로 판단됨.

〈Forbes 세계 2000대 기업 중 한국기업 목록 및 베트남 진출 현황〉

(단위: US\$ 십억)

| 순위 | 기업명 | 연매출 | 순익 | 기업 자산 | 시장가치 | 사업 분야 | 베트남 진출 사업현황 | 사업 내용 |
|-----|--------|-------|------|-------|-------|------------------|---|--|
| 16 | 삼성전자 | 197.6 | 18.4 | 304.9 | 278.7 | 전자제품 | 박닌, 타이응우엔, 사이공하이테크파크 | 휴대폰, 디스플레이, TV, 법인 진출 |
| 189 | 현대자동차 | 90.5 | 2.3 | 163.3 | 20.1 | 자동차 | 꽁닌 현대-탄콩 공장 | 자동차생산 현지회사 Thanh Cong과 합작법인(HTMM) 설립 |
| 268 | 신한금융그룹 | 33.9 | 2.9 | 477.7 | 11.7 | 금융 | 본점 포함 베트남 전역 36개 지점 | 금융업 법인 진출 |
| 278 | KB금융그룹 | 37.3 | 2.7 | 449.9 | 11.1 | 금융 | 은행, 손해보험, 증권 총 5개 지점 | 금융업 지점 진출 |
| 365 | 포스코 | 53.2 | 1.3 | 67.6 | 12.1 | 철강 | 붕따우 | 냉연공장 법인 진출 |
| 417 | 현대모비스 | 31.9 | 1.8 | 38.7 | 13.2 | 자동차 부품 S/W | 호치민 과학단지 R&D,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데이터 매핑, 자율주행 R&D센터 |
| 420 | 하나금융그룹 | 28.3 | 2.1 | 364.5 | 6.6 | 금융 | 하노이, 호치민 2개 지점 베트남 국영상업은행인 BIDV에 2019년 1조 원 투자 지분 15% 인수로 2대 주주 등극 | 투자·금융업 지점 진출 |
| 478 | 기아자동차 | 50.9 | 1.2 | 45.8 | 9.8 | 자동차 | 추라이 경제특구 공장 | 자동차생산 THACO와 합작법인 |
| 529 | 삼성생명 | 23.8 | 0.84 | 270.4 | 7.2 | 보험 | 투자 진출 추진 중 베트남 1위 생명보험사 인수 추진 중(바오비엣생명) | 보험업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에 삼성생명, FDI 투자 추진 중 |
| 541 | SK홀딩스 | 85.1 | 0.62 | 114.2 | 7.3 | 투자 | SK동남아 투자법인 | 마산그룹(지분 9.5%, 4억 7천만 달러), 빈그룹(지분 6.1%, 10억 달러) 등 투자 |
| 594 | 한국전력 | 50.7 | -2 | 170.9 | 12.6 | 전력발전 | 베트남 지사 진출(하노이1개소) | 에너지 관리 시스템 MOU 체결, 베트남 현지기업 3곳에 K-SEMS 에너지 통합제어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613 | 우리금융그룹 | 16.7 | 1 | 301.1 | 5 | 금융 | 본점 포함 지점 10개 | 금융업 법인진출 |
| 615 | SK텔레콤 | 15.2 | 0.75 | 38.6 | 12.7 | 통신 | 투자 법인, 빈그룹 10억달러 투자 | 국영기업 독과점이 심한 베트남 통신업에서 빈그룹 통신 사업 협약 및 투자로 대신함 |
| 629 | 기업은행 | 13.8 | 1.3 | 275.1 | 3.7 | 금융 | 지점 2개 | 금융업 지점진출 |

| 순위 | 기업명 | 연매출 | 순익 | 기업 자산 | 시장가치 | 사업 분야 | 베트남 진출 사업현황 | 사업 내용 |
|-----|---------|------|-------|-------|------|--------|------------------------------------|----------------------------------|
| 719 | LG화학 | 24.6 | 0.13 | 30.5 | 23.7 | 화학 | 빈패스트와 합작 법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하이퐁 공장 1개소 | 빈패스트 합작법인 |
| 728 | 삼성화재해상 | 19.1 | 0.55 | 73 | 6.6 | 보험 | 지점 1개소 진출 | 2017년 5월 베트남 손해보험사 PJICO 지분 인수 |
| 770 | LG전자 | 52.5 | 0.41 | 37.4 | 8.1 | 전자제품 | 하이퐁 공장 | 현지 법인 진출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생산 |
| 851 | 한화 | 43.2 | 0.08 | 157.6 | 1.2 | 투자, 무역 | 박닌 공장 및 현지 법인 | 항공, 기계, 금융, 건설 종합 진출 |
| 929 | SK이노베이션 | 42.8 | -0.03 | 34.2 | 7.1 | 정유화학 | 현지 법인 | 16-2 탐사광구 운영권 인수 |
| 981 | KT | 20.9 | 0.53 | 29.5 | 4.8 | 통신 | 지사 진출 | 호아빈 그룹과 MOU 체결 스마트 호텔 및 스마트시티 추진 |

주: 연매출, 순익, 기업자산, 시장가치를 합산하여 Forbes에서 2020년 발표, 상위 1000위 기업 중 한국기업만 발췌
 자료: 세계 2000대 기업 순위 Forbes(2020년), 베트남 진출 현황은 각 회사 매체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일본〉

- 일본, 전년 동기 대비 대 베트남 투자액 24.9% 감소
 - 역시 제조업 투자가 상당한 감소세,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의 제조거점(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경영악화로 신속한 투자진출에 어려움
 - 상반기 제조업 신규투자는 전자부품 및 자동차 제조 분야가 가장 많으며, 도소매 유통 분야는 활발한 M&A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60% 이상 증가
- 일본 정부의 탈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정책 베트남에 집중
 - 7월 21일 일본 정부는 탈 중국 자국기업 87개사에 6억 5천만 달러 보조금 지급을 결정. 이 중 인근 동남아시아로 생산공장 이전(니어쇼어링) 기업 37개 중 15개 기업은 베트남을 이전지로 선택함
 - 탈 중국을 결정한 일본 기업은 전체 중국 진출 일본기업의 약 1% 정도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베트남에 진출 가능성은 미지수임
 - 중국 소재 일본기업 대다수는 중국을 제조거점이자 거대판매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인식과 유사

〈싱가포르〉

- LNG 대형 프로젝트에 40억 달러 투자,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
 - 싱가포르는 2020년 1~6월 상반기 베트남 최대 투자국
 - 지난 1월 General Electric 싱가포르 법인이 'Bac Lieu LNG 화력발전소(3,200MW)' 4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투자 감소

- 싱가포르는 조세 규정상 장점이 있는 만큼 우회 투자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싱가포르 기업 투자 보다는 제3국 기업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하는 경우 다수

〈대만〉

- 대만, 2020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액 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 투자 증가
 - Wistron Corp(컴퓨터 부품), Chaun Chuong Corp(전자제품 모듈) 등 전자부품 제조 분야에만 6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탈 중국화에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 제조업 주요 투자분야는 전자부품 및 섬유 봉제 기업들이며, 도소매 유통 분야의 경우 적극적인 M&A를 통해 진출 중임

〈홍콩〉

- 홍콩, 전년 동기 대비 81.3% 감소 주요국들 중 최대 폭 하락
 - 홍콩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불거진 2019년 상반기부터 제조업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Goertek 2.6억 달러, Risun 7천만 달러)가 이미 진행되었음
 - 2019년 제조업 분야에 대한 베트남 외국인 투자 중 홍콩은 한국에 이은 2위 투자국
 - 2020년 상반기 중 베트남 최대 봉제, 섬유 분야 투자기업인 TEXHONG이 약 2억 달러 규모의 방직 제조시설을 투자, CAINIAO SWAN Holdings는 Long An성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 진행
 - 2019년 시작된 '홍콩보안법 사태'로 인해 향후 금융·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홍콩의 대(對) 베트남 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국〉

- 중국, 총 투자액 큰 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제조분야 최대 투자국
 - 베트남 투자 누계 기준, 중국의 투자는 한국의 1/3 수준(전체 투자국 중 7위)에 그치나 최근 3년간 (2018년 5위 → 2019년 3위 → 2020년 상반기 3위) 대(對) 베트남 투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특히, 전체 누계 기준 중국의 대(對) 베트남 제조, 가공업 투자 비중이 62.1%인 것에 반해 2020년 상반기(1~6월) 중국의 투자 중 약 91%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됨
- 코로나19보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제조기업에 더 큰 영향
 - 2019년~2020년 상반기 중국의 베트남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부품, 철강금속, 섬유봉제 분야로 미국 수출 장벽 우회 및 EU-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선제적 투자 접근 가능성 높아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중 다수의 중국 공장 가동이 멈추었으나, 현재 대부분 정상화되었으며, 미국의 무역 압박(보복관세) 탈피 및 수출 다변화 목적으로 베트남 내 제조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향후 대(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전망

○ 긍정적 요인

- 베트남 정부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로 향후 코로나 재확산 시 타국에 비해 공장 섯다운 등의 리스크 최소화 가능

* 2020년 9월 8일 기준, 베트남 코로나19 확진자 1,054명, 사망자 35명(한국인 확진자 없음)

- 중국과 접경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물류 이점과 함께 제조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탈 중국기업 유치에 유리
- 2019년 11월 타결된 세계 최대 FTA인 'RCEP**' 및 2020년 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등 베트남의 개방적인 대외교역 여건은 수출을 위한 제조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요소

** RCEP 참여국: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인도 미참여)

- 하이테크 기업 지원, 부품소재 산업 지원, 수출가공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자를 위한 특별 지원 등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노력 중

*** 특별 투자인센티브: 연구개발 및 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2.5억 달러 이상 투자, 일반 투자이면서 총 투자금액 12.5억 달러 이상인 경우(기본 법인세율 5%로 13년간 적용, 최초 4년 면제 후 9년간 50% 감면)

○ 부정적 요인

-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억제한 동남아 국가들이 '생산 안정성'을 내세우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정 행정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 투자유치에 총력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확실한 비교우위의 투자유치 정책 마련 및 투자 환경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

〈동·서남아 주요국 투자 환경 및 유치 정책〉

| 투자 환경 |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 |
|-------|---|---|---|
| 강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 중국에서 생산시설 이전 기업에게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전력수급, 무역통관, 청산 절차 등 주변국 대비 기업경영 환경 우수 <p>* 임금수준(2018년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 인도(0.68달러), 베트남(1.28달러), 인도네시아(0.96달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까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항만, 공항, 산단 등 124조 원 투자) • 아세안 최대 내수시장(3억 인구, 소비력 최고 수준) • 다수의 유니콘 기업 활동, 미래 산업 잠재력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 • 12대 ICT 미래산업 육성계획 '타일랜드 4.0' • 미래산업기지 '동부경제회랑' 2021년까지 250억 달러 투자, 인프라 구축 • 최대 13년간 법인세 면제, 기타 세금 최대 5년간 50% 감면 • 투자 기업별 별도 인센티브 지급 |
| 약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처 미흡 • 정치적 불안정 및 기업에 불리한 조세 제도 • 생활 인프라 미비 • 노동법, 통관법, 소송법 등 개혁 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 규제철폐 위한 '옴니버스법' 통과 지연 • 토지소유권, 노동법 등 투자자 보호위한 제도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보다 높은 인건비와 공단 임대비 •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 첨단산업 노하우 부족 |

-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 공단 임대비용 상승 등으로 투자 및 생산비용 증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산업(섬유, 신발, 플라스틱 가공) 제조 경쟁력 악화
- 유연성이 부족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인한 행정절차 불투명, 정보 제공의 폐쇄성, 외국기업 차별 등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는 상황

○ **향후 전망**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2차 팬데믹이 발현하며 원활한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국들 중 가장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책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이에 지난 5월부터 제조업생산지수(PMI)도 반등하여 베트남의 2020년 7월 기준 PMI 지수는 2019년 10월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
 - * 베트남 PMI 지수 변동 추이(기준점 50point): 2019년 10월(50.5p) → 2020년 4월(41.9p) → 2020년 5월(32.7p) → 2020년 7월(51.1p)
- 기존 최대 투자국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 소재 기업들 역시 베트남으로의 이전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바, 2020년 10월 이후 입국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점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대선이 있는 연말까지 해결 가능성이 낮으며, 탈 중국 사례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의 노력(지원정책 강화, 산업 인프라 개선, 행정절차 개선) 여하에 따라 베트남이 탈 중국기업들의 최대 이전 기지로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

라. 프로젝트

□ 건설 시장규모 및 전망

- Fitch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건설산업은 5.7%, 인프라 산업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건설산업과 인프라 산업은 2029년까지 각각 5.7%, 6.8%대의 높은 성장을 유지, 2028년에는 각각 430억 3,796만 달러, 98억 2,999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 성장 전망〉

(단위: US\$ 백만, %)

| 연도 | 2020년(f) | 2021년(f) | 2022년(f) | 2023년(f) | 2024년(f) |
|--------------------|----------|----------|----------|----------|----------|
| 건설 시장규모 | 17,251.6 | 19,265.2 | 21,323.2 | 23,595.3 | 26,104.5 |
| 건설산업 성장률(%) | 5.7 | 7.2 | 6.9 | 6.8 | 6.8 |
| GDP 대비 건설 시장 비중(%) | 6.1 | 5.9 | 5.9 | 5.9 | 5.9 |
| 인프라 분야 | 4,336.4 | 4,738.3 | 5,170.0 | 5,653.9 | 6,179.0 |
| 인프라 산업 성장률(%) | 4.2 | 4.9 | 5.4 | 5.6 | 5.5 |

| 연도 | 2025년(f) | 2026년(f) | 2027년(f) | 2028년(f) | 2029년(f) |
|--------------------|----------|----------|----------|----------|----------|
| 건설 시장규모 | 28,903.0 | 31,996.4 | 35,415.7 | 39,197.7 | 43,379.6 |
| 건설산업 성장률(%) | 6.8 | 6.8 | 6.7 | 6.7 | 6.7 |
| GDP 대비 건설 시장 비중(%) | 6.0 | 6.0 | 6.0 | 6.0 | 6.0 |
| 인프라 분야 | 6,772.4 | 7,423.9 | 8,152.1 | 8,951.8 | 9,829.9 |
| 인프라 산업 성장률(%) | 5.7 | 5.7 | 5.9 | 5.9 | 5.9 |

자료: FitchSolutions, (f) 전망치, 베트남 중앙은행 환율 1USD = 23,150VND 기준

- 베트남의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향후 10년간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수요에 있어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베트남 도시화율은 39.3%로 작년 대비 0.5% 증가
 -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도시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2040년이면 도시인구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 도시인구: 2000년 1,900만 명, 2017년 3,300만 명, 2040년 전체 인구의 절반
-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 수요는 높지만 ODA 수원여건 악화, 공공부채 증가 등 대규모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빠르게 발전하는 베트남 경제로 인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베트남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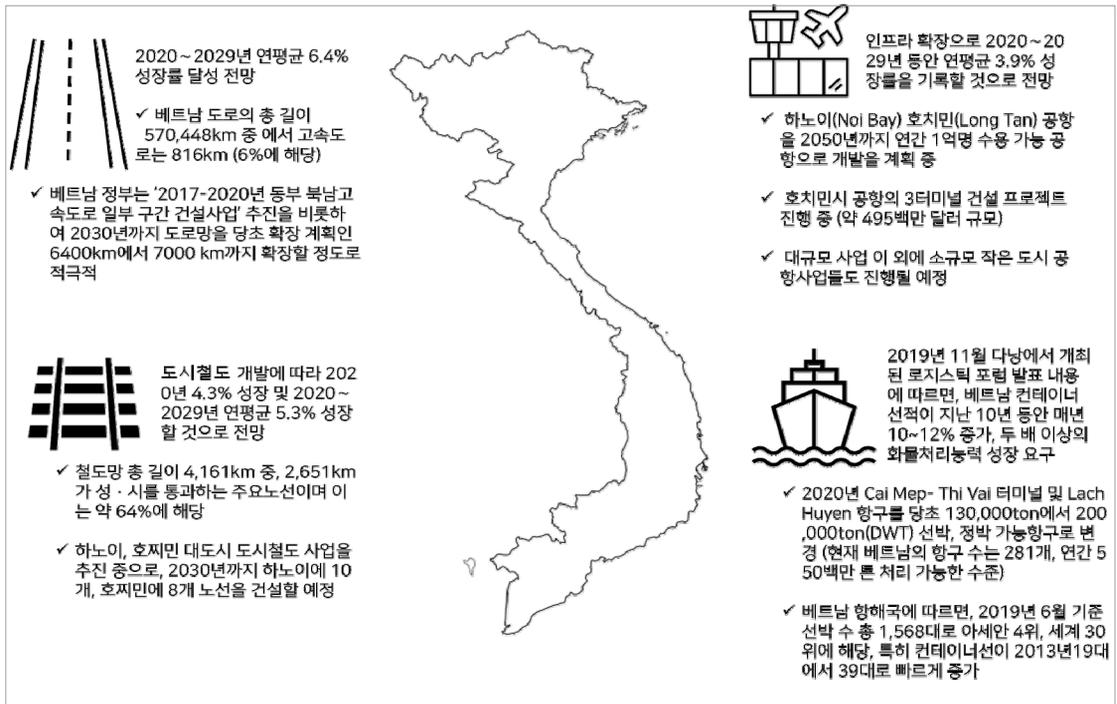
| 프로젝트명 | 분야 | 사업규모 (US\$ 백만) | 건설 규모 | 진행상황 (2020년 9월 기준) | 완공 예상 | 비고 |
|--------------------------|---------|----------------|-----------------------------|--------------------|-------|---|
| 하노이-호치민 고속도로프로젝트 | 도로 | 58,700 | 1,560km | 계획단계 | 2045년 | - 총 예산에 정부 예산 33억 6,000만 달러 포함 - 동남 고속도로: 23억 5,000만 달러 - 3개 하위 프로젝트 10억 달러 |
| 롱탄 국제 공항 (1단계 사업) | 공항 | 4,917 | 연간 승객 2,500만 명 수송 | 계획단계 | 2025년 | - |
| 롱탄 국제 공항 (3단계 사업) | 공항 | 16,000 | 연간 승객 1억 명 수송, 500만 톤 화물 수송 | 계획단계 | 2040년 | - |
| 호치민-껀터 철도 | 철도 | 5,700 | 139km | 계획단계 | 2024년 | - |
| 호치민 메트로 4호선 응우옌 반 린-벤깡대교 | 도시 철도 | 4,570 | 36km | 계획단계 | 미정 | - |
| 탄롱 풍력발전 프로젝트 | 해양 풍력발전 | 11,900 | 3,400MW | 계획단계 | 2026년 | - |
| 권랍 발전소, 응에안 | 화력발전 | 4,700 | 2,400MW | 계획단계 | 2026년 | 한국정채금융공사, 포스코, 수출입은행 참여 |
| 남딘발전단지 | 화력발전 | 4,500 | 2,400MW | 계획단계 | 미정 | 포스코, 태광 참여 |
| 송하우3 석탄화력발전소 | 화력발전 | 3,636 | 2,000MW | 계획단계 | 미정 | - |
| 송하우2 석탄화력발전소 | 화력발전 | 3,500 | 2,000MW | 계획단계 | 2022년 | - |

자료: FitchSolutions,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교통인프라 현황

- FitchSolutions는 2020년 베트남 교통인프라 성장률을 4.6%로 전망, 2020~202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5.5%로 전망
-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재정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함
 -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3년 기간 동안 교통인프라 개발에 약 480억 달러 투자가 필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전체의 30%만 부담 가능한 상황
 - 2021년 PPP법의 발효로 지연되었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전망됨

〈교통인프라 산업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자료: Fitchsolutions,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전력인프라 현황

- 베트남의 발전용량은 2020년~2029년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까지 34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베트남의 전력소비량은 향후 5년간 평균 8.5~9.5%로 빠르게 증가하여, 아세안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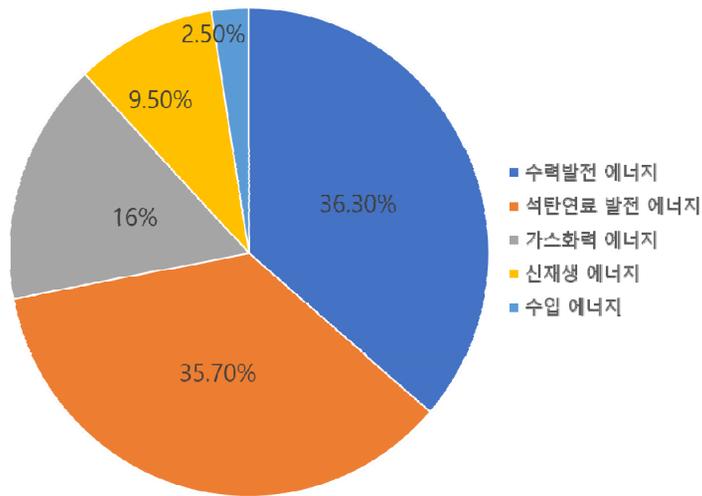
〈2020~2024년 베트남 전력 생산 및 소비량 전망〉

| 구분 | 2020년(f) | 2021년(f) | 2022년(f) | 2023년(f) | 2024년(f) |
|-------------|----------|----------|----------|----------|----------|
| 전력 생산량(Twh) | 202.7 | 227.4 | 242.4 | 257.0 | 274.1 |
| 전력 소비량(Twh) | 191.8 | 210.5 | 223.6 | 238.3 | 254.7 |
| 발전설비용량(MW) | 60,742.2 | 67,094.9 | 70,661.3 | 74,530.8 | 77,472.9 |

자료: FitchSolutions, e/f = 추정/전망치

-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베트남의 총 발전용량은 5만 6,767MW임
 - 수력발전이 가장 많은 36.3%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석탄발전 35.7%, 가스화력 16%, 신재생 9.5%, 수입 2.5% 순
 - 베트남의 전력발전 용량은 ASEAN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에 위치함

〈2019년 베트남 발전 형태별 발전용량〉



자료: EVN(Orientation to build efficient and region connecting smart grid)

- 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향후 5년 베트남은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전력발전계획(PDP7)에 있는 200MW 용량 이상 발전소 62개 중 47개의 완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전력부족량은 2023년 150억kwh로 고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화력발전소) 2020년~2029년 석탄화력발전소, 가스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연평균 각각 9.1%, 6.7% 증가 전망
 - Fitch Solutions은 2018년 말 기준,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에 대한 석탄발전소의 비중은 36%에서 2029년 5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는 환경문제로 2020년 발표될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서 석탄발전량을 37% 수준으로 낮출 것을 논의 중
 - * 제7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에 따른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목표 비중:53%

- 베트남의 가스 매장량이 갈수록 고갈되어 LNG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수력발전소) 2029년 수력발전의 용량은 약 20.5GW로 전체의 23% 비중을 차지할 전망
 - 수력발전은 현재 베트남 발전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의 빠른 발전, 적은 강수량, 가뭄 등으로 비중이 감소할 전망
 - 주목할 점으로 위에 언급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 타당성 이유로 제7차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21개 수력발전소 중 투안티엔후에성에 위치한 9개의 수력발전(357MW) 건설계획 취소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8GW에 이를 전망이지만 전체 비중의 4.8% 수준
 - 적은 비중의 원인은 전력망 인프라 때문이며 지난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개발지역 내 110~500kV 전력망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의 송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 FitchSolution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2018~2028년 연평균 39.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발전 사업은 총 92개(약 4,393MW)이며, 추가로 승인받은 135개 프로젝트 용량은 1만MW 수준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2만 9,000개 가정과, 5,096개 태양광 회사들이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발전용량은 578MW
 - 2020년 6월 91개의 신규 풍력발전소(6,976MW)가 승인되었으며 250개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대기 중 (45,000MW)

□ 분야별 인프라 중장기 개발계획

- (도로) 2017년 11월 22일, 베트남 국회 승인을 얻은 '2017~2020년 동부 북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건설사업' 개발 계획에는 총 11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포함
 - 11개 고속도로의 전체 구간 합산 거리는 654km이며, 총 투자금액은 약 42억 8,710만 달러로 추산, 이 중에서 6개 프로젝트가 100% 정부 자금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5개 프로젝트는 PPP(BOT)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
 - 최초 국제입찰로 진행된 8건의 PPP프로젝트가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한 투자자 수가 많지 않고 경쟁력 또한 높지 않아 국제입찰방식을 취소하고 국내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3개의 PPP 프로젝트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자금을 통한 개발로 변경됨
- (철도) 2015년 8월 베트남 총리는 '2030비전, 2020년까지의 베트남 철도개발계획' 조정안 승인
 - 2020년까지 기반시설, 철도차량, 철도산업 관련 약 1,355조 동의 자금 필요

〈베트남 철도개발계획 주요 목표〉

| 구분 | 목표 | |
|------|---|---|
| | ~2020년 | ~2030년 |
| 철도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 수요 1~2% 및 화물운송 수요 1~3% 충족 하노이, 호치민 철도여객이 교통 수요의 최소 4~5% 충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 수요 3~4% 및 화물운송 수요 4~5% 충족 대도시 여객철도 수요의 15~20% 충족 |
| 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철도망 철도 국가표준 1등급으로 개선 국제항구, 공단, 경제구역, 광산 관개단지를 잇는 철도 건설 Lao Cai-Hanoi-Hai Phong, Dong Dang-Hanoi 구간 철도 완공 신속한 하노이 및 호치민 철도교통 개발 남-북 고속철도 일부 구간 우선 개발 도시철도 확장 및 단선 철도를 복선철도로 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노이와 호치민 철도망 완공 및 기타 대도시 철도망 건설 착수 북-남 고속철도망 기초 완성 중부 고원지대 철도망 건설 착수 북부 연안 지역과 메콩강 삼각주 지역을 잇는 철도 건설 착수 |
| 철도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내 부품, 장비, 자재, 기계설비로 기본적인 보수, 유지, 개선작업 실현 철도망 업그레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철도와 새 철도 건설을 위한 부품, 장비, 자재, 기계설비에 대한 단계별 수요 충족 철도산업의 현대화 형성 |
| 교통안전 | 단계적으로 철도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감소 | |

자료: 베트남 철도공사

- 이 외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하노이*에 10개, 호치민**에 8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

* 하노이: 2050년 비전, 2030년까지의 수도 하노이 교통개발계획 결정문(Decision 519/QD-TTg)

** 호치민: 2020년 이후 비전, 2020년까지의 호치민 교통개발계획 결정문(Decision 568/QD-TTg)

- 2050년까지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연결하는 1545km 고속철도 586억 달러 대형 프로젝트 진행 중***

*** 2030년까지 Hanoi-Vinh, Nha Trang-HCMC 구간 1차로 건설 예정

○ **(항구) 결의안 제1037 QD-TTg(2014년 6월 24일)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수출입항 물류·운송 여건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부합하는 항만인프라 조성을 위한 항만체계 개발계획 수립**

- 2015년까지: 연 4억 톤~4억 1,000만 톤의 화물수송량(컨테이너 2억 7,500만 톤~2억 8,000만 톤 포함)
- 2020년까지: 연 6억 4,000만 톤~6억 8,000만 톤의 화물수송량(컨테이너 3억 7,500만 톤~4억 톤 포함)
- 2030년까지: 연 10억 4,000만 톤~11억 6,000만 톤의 화물수송량(컨테이너 6억 3,000만 톤~7억 1,500만 톤 포함)
- Hai Phong항, Ba Ria-Vung Tau항 및 중부 경제특구 중점 항구를 화물처리량 10만 톤 이상(컨테이너 8000TEU)의 국제항만 규모로 증설하고, 금속, 원유, 화력발전용 석탄 운송을 위한 거점화 추진
- 각 지방성 내 중점 항만의 현대화 및 수송량 확대를 위한 개조 및 개선을 실시

○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베트남의 수출입 운송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 2030년 까지의 내륙항(Dry Port) 개발계획 개정안(2072/QD-TTg)을 발표

- 2020년까지: 항구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화물 수요의 최소 15~20% 충족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처리용량 연 403만 5,000~684만 5,000TEU
- 2030년까지: 항구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화물 수요의 최소 25~30% 충족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처리용량 연 1,200만~1,760만TEU

- (전력) 베트남은 5년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 수립된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Power Master Plan VII)'은 2016년 3월 18일 개정
 - 내용에 따르면 2016~2030년 동안 운영될 발전소는 총 116개로 수력발전 34개, 화력발전 57개, 신재생에너지 11개, 양수발전 3개, 원자력 2개 등으로 구성
 - 베트남은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6만MW, 2030년까지 12만 9,500M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16~2030년 간 BOT 사업을 제외한 전력망 및 전력원 개발을 위해 약 1,480억 달러의 예산 필요
- 2019년 6월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 개정안 실행현황을 발표함. 최초 연도별로 계획한 운영 발전용량 달성이 어려운 상황
 - 2018~2022년에 운행되어야 하는 발전소들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었고, 지연된 발전소 대부분이 남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사업임

〈2019~2030년 베트남 예상 운영용량〉

| 기간 | 운영용량(MW) | | 차이 |
|------------|----------|--------|--------|
| | 계획 | 점검 이후 | |
| 2019년 | 6,230 | 3,650 | -2,580 |
| 2020년 | 4,571 | 3,230 | -1,341 |
| 2021~2025년 | 38,010 | 30,485 | -7,525 |
| 2025~2030년 | 36,192 | 34,382 | -1,810 |

자료: 58/BC-BCT(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 개정안 실행현황 보고서)

- 2020년/2021년 제8차 전력산업발전계획이 발표될 예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2026~2030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등의 주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2030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발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5%, 2030년 25%, 2050년 45%까지 감축하고, 석탄 및 석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
 -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6,000MW, 태양광발전은 1만 2,000MW까지 전력생산량을 증가시킬 예정
 - 개정된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로 설정

〈발전형태별 발전용량 목표〉

| 발전형태 | 단위 | 2016년 | | 2020년 | | 2025년 | | 2030년 | |
|--------|----|--------|-------|--------|-------|----------|-------|---------|-------|
| 총발전량 | MW | 40,805 | 100% | 60,000 | 100% | 96,500 | 100% | 129,500 | 100% |
| 수력 | MW | 15,368 | 37.7% | 18,060 | 30.1% | 20,361.5 | 21.1% | 27,800 | 16.9% |
| 가스화력 | MW | 8,872 | 21.7% | 8,940 | 14.9% | 15,054 | 15.6% | 19,000 | 14.7% |
| 석탄화력 | MW | 13,826 | 33.9% | 25,620 | 42.7% | 47,574.5 | 49.3% | 55,300 | 42.6% |
| 신재생에너지 | MW | 2,344 | 5.7% | 5,940 | 9.9% | 12,062.5 | 12.5% | 27,199 | 21% |
| 수입에너지 | MW | 395 | 1% | 1,440 | 2.4% | 1,447.5 | 1.5% | 201 | 1.2% |
| 원자력 | MW | - | - | - | - | - | - | - | 3.6% |

자료: 제7차 전력산업발전계획(Power Master Plan VII)

- 2020년 5월 22일부터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발표되었으며 연내 상업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베트남 태양광 FIT〉

| 구분 | VND/kWh | US ¢/kWh |
|--------------------|---------|----------|
| 수상 태양광 | 1,783 | 7.69 |
| 지상 태양광 | 1,644 | 7.09 |
| 옥상 태양광 | 1,943 | 8.38 |
| 닌투언(Ninh Thuan)상** | 2,086 | 9.35 |

주1: 수상/지상/옥상 태양광 FIT 적용환율은 1USD = 23,175VND(베트남 중앙은행 2020년 3월 10일 고시환율 기준)

주2: 닌투언상 태양광 FIT 적용환율은 1USD = 22,316VND(베트남 중앙은행 2017년 4월 10일 고시환율 기준)

주3: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Decision No.13/2020/QĐ-TTg

- (도시 개발) 2030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은 각각 15만 7600~18만 3700ha, 27만~29만ha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 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약 150m², 100~150m² 목표
 - * 하노이: 2050년 비전, 2030년까지의 하노이 도시개발계획 결정문(Decision 768/QĐ-TTg)
 - ** 호치민: 2050년 비전, 2030년까지의 호치민 지역 개발계획 결정문(Decision 2076/QĐ-TTg)

□ 한국기업의 수주 현황

- 해외건설협회 통계에 따른 2020년 6월 31일 기준 대(對) 베트남 한국기업 수주계약 누계는 1,465건, 413억 4,990만 달러 기록
 - 2020년 상반기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주계약 건수는 65건, 계약금액은 6억 6,059만 달러 기록

〈한국기업의 대(對) 베트남 수주 현황〉

(단위: 건, US\$ 천)

| 구분 | 합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금액 | 41,349,909 | 31,115,249 | 2,315,302 | 1,205,329 | 4,403,520 | 1,649,914 | 660,595 |
| 건수 | 1,465 | 1,032 | 85 | 80 | 82 | 121 | 65 |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20년 1월 1일~6월 31일 기준, 한국기업의 베트남 공종별 수주금액은 산업설비 54.7%, 건축 45.6%, 전기 8.1% 용역 3.7% 순

〈한국기업의 대(對) 베트남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건, US\$ 천)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상반기) |
|-------|----|---------|-----------|---------|------------|
| 토목 | 금액 | 150,121 | 372,007 | 645,383 | -41,796 |
| | 건수 | 6 | 3 | 9 | 0 |
| 건축 | 금액 | 322,449 | 1,156,750 | 706,991 | 282,060 |
| | 건수 | 29 | 19 | 28 | 10 |
| 산업 설비 | 금액 | 693,452 | 2,793,781 | 166,619 | 338,714 |
| | 건수 | 3 | 14 | 9 | 4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상반기) |
|----|----|-----------|-----------|-----------|------------|
| 전기 | 금액 | 10,138 | 25,328 | 69,325 | 50,139 |
| | 건수 | 18 | 15 | 32 | 32 |
| 통신 | 금액 | 3,637 | 0 | 86 | 0 |
| | 건수 | 2 | 0 | 1 | 0 |
| 용역 | 금액 | 25,532 | 55,654 | 61,510 | 31,478 |
| | 건수 | 22 | 31 | 42 | 19 |
| 합계 | 금액 | 1,205,329 | 4,403,520 | 1,649,914 | 660,595 |
| | 건수 | 80 | 82 | 121 | 65 |

자료: 해외건설협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베트남 양국 간 교역 동향

- 2020년 6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311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2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반도체를 제외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5.7%, 1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진출 전자기업의 신규 모델 출시 준비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2014년) 6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 (2017년) 3위 → (2018년) 3위 → (2019년) 3위 → (2020년 6월) 3위
 - 수입: (2014년) 15위 → (2015년) 10위 → (2016년) 8위 → (2017년) 7위 → (2018년) 7위 → (2019년) 5위 → (2020년 6월) 4위
 - 교역: (2014년) 8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 (2017년) 4위 → (2018년) 4위 → (2019년) 4위 → (2020년 6월) 3위
- * 2020년 6월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

○ 대(對) 베트남 수출 및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 2020년 4월부터 베트남의 수출 둔화가 수입 감소로 확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 지속, 이로 인해 양국 교역 규모도 축소하는 추세임
- * 2020년 대(對) 베트남 월별 수출증감률(전년 동월대비, %): (1월) 1.4 → (2월) 10.0 → (3월) △1.6 → (4월) △35.3 → (5월) △20.0 → (6월) △2.3

〈한국의 대(對) 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6월 |
|---------------|------------------|------------------|------------------|------------------|------------------|------------------|
| 수출 (한 → 베) | 27,771 (24.2) | 32,630 (17.5) | 47,754 (46.3) | 48,622 (1.8) | 48,178 (△0.9) | 21,154 (△8.4) |
| 수입 (베 → 한) | 9,805 (22.7) | 12,495 (27.4) | 16,177 (29.5) | 19,643 (21.4) | 21,071 (7.3) | 10,033 (△0.6) |
| 무역수지 | 17,966 | 20,135 | 31,577 | 28,979 | 27,106 | 11,121 |
| 교역 규모 | 32,576 | 45,125 | 63,931 | 68,265 | 69,249 | 31,187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품목별 대(對) 베트남 수출 동향

-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으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이 대(對)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54%)을 차지

- 6월 누적 기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수출품목 대부분이 마이너스로 전환
- 코로나19 특수 품목(컴퓨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신규 모델 출시 준비,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기업들의 생산 기지 분산 투자로 인해 전자 관련 품목의 경우 소폭 회복세로 접어들

〈한국의 대(對) 베트남 2020년 6월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품목명 | 수출금액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비중 |
|----|--------------|--------|-------------|-----|
| 1 | 반도체 | 5,314 | -6.2 | 25 |
| 2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3,301 | 5.7 | 16 |
| 3 | 무선통신기기 | 1,503 | 12.9 | 7 |
| 4 | 기구부품 | 976 | -8.6 | 5 |
| 5 | 합성수지 | 732 | -8.1 | 3 |
| 6 | 석유제품 | 526 | -30.4 | 2 |
| 7 | 플라스틱 제품 | 524 | -12.6 | 2 |
| 8 | 철강판 | 499 | -12.4 | 2 |
| 9 | 광학기기 | 448 | -14.7 | 2 |
| 10 | 기타기계류 | 379 | -11.4 | 2 |
| | 기타 | 6,952 | - | 33 |
| | 합계 | 21,154 | -8.4(평균) | 1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품목별 대(對) 베트남 수입 동향

- 수입 2대 품목인 의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의류 산업 최초 산업 생산지수 감소 이후 조업 중단, 하반기 주문 취소 및 보류 등 업계 경영난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 10.6% 감소

〈한국의 대(對) 베트남 2020년 6월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 순위 | 품목명 | 수입금액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비중 |
|----|------------|--------|-------------|-----|
| 1 | 무선통신기기 | 2,677 | 2.1 | 27 |
| 2 | 의류 | 1,348 | -10.6 | 13 |
| 3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568 | 11.3 | 6 |
| 4 | 신변잡화 | 563 | -23.2 | 6 |
| 5 | 컴퓨터 | 493 | 50.3 | 5 |
| 6 | 목재류 | 333 | -6.9 | 3 |
| 7 | 산업용 전기기기 | 260 | 56.9 | 3 |
| 8 | 기타섬유제품 | 257 | 12.4 | 3 |
| 9 | 영상기기 | 216 | 17.0 | 2 |
| 10 | 가정용 회전기기 | 207 | -4.1 | 2 |
| | 기타 | 3,111 | - | 31 |
| | 합계 | 10,033 | 0.6(평균) | 1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참고(1)〉 한국의 대(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17~2019년)

(단위: US\$ 백만, %)

| 순위 | 수출품목명 | 2017년 수출액(비중) | 2018년 수출액(비중) | 2019년 수출액(비중) |
|----|--------------|------------------|------------------|------------------|
| 1 | 반도체 | 9,234(19.3) | 10,939(22.5) | 10,730(22.3) |
| 2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7,367(15.4) | 8,909(18.3) | 7,970(16.5) |
| 3 | 무선통신기기 | 3,286(6.9) | 2,632(5.4) | 2,933(6.1) |
| 4 | 기구부품 | 2,612(5.5) | 2,332(4.8) | 2,230(4.6) |
| 5 | 석유제품 | 1,987(4.2) | 1,659(3.4) | 2,194(4.6) |
| 6 | 합성수지 | 1,442(3.0) | 1,976(4.1) | 1,624(3.4) |
| 7 | 플라스틱 제품 | 1,152(2.4) | 1,205(2.5) | 1,210(2.5) |
| 8 | 철강판 | 985(2.1) | 1,107(2.3) | 1,158(2.4) |
| 9 | 편직물 | 1,118(2.3) | 1,107(2.3) | 996(2.1) |
| 10 | 자동차 | 852(1.8) | 944(1.9) | 991(2.1) |
| | 기타 | 18,043(37.8) | 15,870(32.6) | 14,123(33.5) |
| | 합계 | 47,754(100.0) | 48,622(100.0) | 48,178(100.0) |

〈참고(2)〉 한국의 대(對)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2017~2019년)

| | 수입품목명 | 2017년 수입액(비중) | 2018년 수입액(비중) | 2019년 수입액(비중) |
|----|--------------|------------------|------------------|------------------|
| 1 | 무선통신기기 | 3,964(24.5) | 4,838 (24.6) | 5,691(27.0) |
| 2 | 의류 | 2,875(17.8) | 3,570 (18.2) | 3,646(17.3) |
| 3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604(3.7) | 1,137 (5.8) | 1,197(5.7) |
| 4 | 신변잡화 | 797(4.9) | 980 (5.0) | 1,053(5.0) |
| 5 | 컴퓨터 | 511(3.2) | 793 (4.0) | 679(3.2) |
| 6 | 목재류 | 560(3.5) | 539 (2.7) | 657(3.1) |
| 7 | 기구부품 | 496(3.1) | 417 (2.1) | 512(2.4) |
| 8 | 산업용 전기기기 | 317(2.0) | 445 (2.3) | 479(2.3) |
| 9 | 반도체 | 374(2.3) | 396(2.0) | 471(2.2) |
| 10 | 영상기기 | 400(2.5) | 396 (2.0) | 356(1.7) |
| | 기타 | 5,391(33.3) | 6,164 (31.4) | 4,311(30.0) |
| | 합계 | 16,177(100.0) | 19,643 (100.0) | 21,071(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우리나라의 입지

-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1위), 미국(2위)에 이어, 3위 교역 국가이며 4위 수출 국이자 2위 수입국임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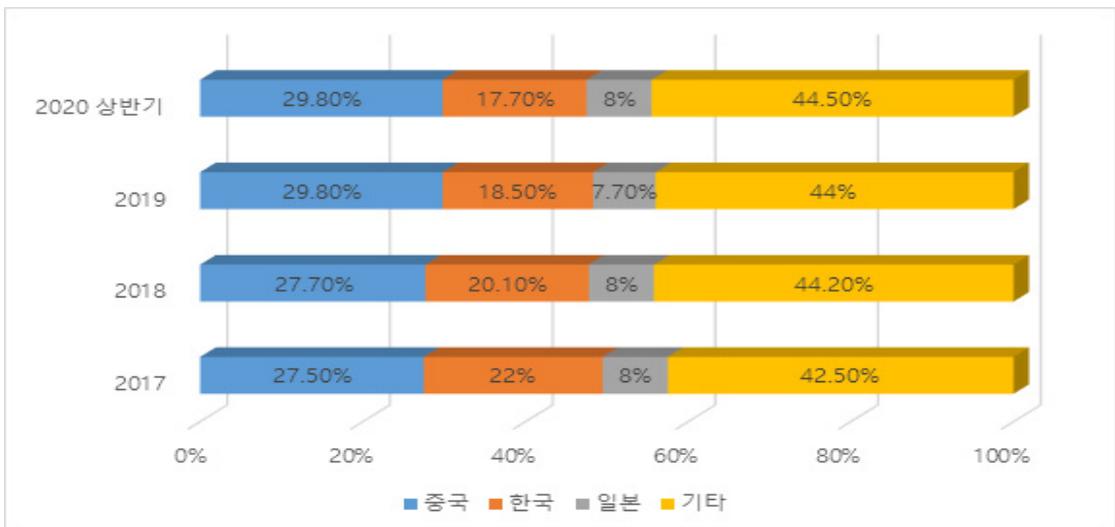
| 순위 | 국가명 | 수출액(비중)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비중) |
|-----|------|--------------|-----|-------|--------------|
| 1 | 미국 | 31.5(25.7) | 1 | 중국 | 34.9(29.8) |
| 2 | 중국 | 19.6(16.0) | 2 | 한국 | 20.8(17.7) |
| 3 | 일본 | 9.3(7.6) | 3 | 일본 | 9.4(8.0) |
| 4 | 한국 | 9.1(7.4) | 4 | 대만 | 7.5(6.4) |
| 5 | 홍콩 | 4.1(3.3) | 5 | 미국 | 7.0(6.0) |
| 6 | 독일 | 3.2(2.7) | 6 | 태국 | 5.0(4.3) |
| 7 | 네덜란드 | 3.2(2.6) | 7 | 말레이시아 | 3.0(2.6) |
| 8 | 태국 | 2.2(1.8) | 8 | 인도네시아 | 2.5(2.1) |
| 9 | 영국 | 2.2(1.8) | 9 | 호주 | 2.3(2.0) |
| 10 | 대만 | 2.2(1.8) | 10 | 인도 | 2.0(1.7) |
| 기 타 | | 35.8(29.2) | 기 타 | | 22.8(19.4) |
| 합 계 | | 122.7(100.0) | 합 계 | | 117.3(100.0)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최근 3개년 국가별 대(對) 베트남 수입액 비중을 보면, 중국이 1위, 한국 2위*,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입액 비중 추이: 2016년 18.4%, 2017년 22.0%, 2018년 20.1%, 2019년 상반기(1~6월) 18.6%

〈최근 3년간 베트남 상위 3위 수입국의 수입액 비중 추이〉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 5대 수입품목 기준 우리나라의 위치

-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입품목 중 1위 수입품목(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며, 전체 수입액의 36%를 차지함
- 한국은 베트남의 2, 3, 4위 최대 수입품목의 2위를 차지, 5위 수입품목의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이은 최대 수입국가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음

〈베트남의 대(對) 한국 주요 수입품목 기준 주요 수입국별 점유율 현황〉

(단위: %)

| 순번 | 품목명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1 |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 한국 (29.0) | 중국 (24.5) | 대만 (11.7) | 일본 (8.9) | 미국 (8.4) |
| 2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 중국 (41.4) | 한국 (17.5) | 일본 (12.9) | 독일 (4.0) | 대만 (3.6) |
| 3 | 휴대폰 및 그 부분품 | 중국 (50.8) | 한국 (42.2) | 일본 (1.4) | 대만 (1.4) | 홍콩 (0.2) |
| 4 | 직물 | 중국 (59.6) | 한국 (14.1) | 대만 (12.3) | 일본 (6.2) | 태국 (2.2) |
| 5 | 철강 | 중국 (34.2) | 일본 (17.3) | 한국 (15.2) | 인도 (12.1) | 대만 (11.3) |

주1: 순위는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대(對) 한국 수입 상위 5위 품목
 주2: () 안은 베트남의 품목별 수입액 대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중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한국과 베트남의 FTA

○ 한국과 베트남,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두 개 협정 체결

- 우리 기업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선택적 적용이 가능함. 특히 한-베트남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한 FTA임
-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거점 및 신규 판매시장으로서 베트남과의 교역관계 활성화에 일조하였음
- 한국산 제품을 베트남에서 수입 판매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양허관세를 적용하면 세제절감의 혜택이 있으며, 전체 교역액 기준 89.9%의 품목이 관세양허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한-베 FTA 이용률은 양국이 비대칭적, 한국기업은 '수출용원재료 면세제도' 이용률이 높은 편

- 한-베트남 FTA의 양국 활용률 집계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입 FTA 활용률이 한국발 수출 대비 비대칭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 특성상 베트남은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인 경우가 대다수임
-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음에도 수출용 원재료는 베트남 관세법률에 따른 면세처리가 가능하여 FTA 적용 실익이 낮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는 생산기지로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FTA보다는 수출용원재료 관부가세 면세제도 고려가 적합함

〈한-베트남 FTA 활용률〉

(단위: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수출활용률 (한국 기준) | 36.9 | 50.4 | 47.8 | 46.1 |
| 수입활용률 (한국 기준) | 88.2 | 86.7 | 90.0 | 85.7 |

자료: 한국 관세청

□ 베트남의 FTA를 활용한 생산거점화

- 베트남은 단독 추진 협정으로 ATIGA(아세안 상품무역협정), 한국-베트남 FTA, 베트남-일본 FTA, 베트남-EU FTA,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체결함
 - 아세안 차원 협정으로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인도 FTA 등을 체결하여 주요 국가와의 FTA 혜택을 활용한 생산거점화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함
- (베트남-EU FTA, EVFTA) 베트남과 EU(27개국)는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베트남은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이후 EU와 두 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임
 - EU는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과의 지역 간 FTA 체결을 원하고 있음(EU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도 FTA 협상 진행 중)
 - EVFTA 발효 후 섬유 및 의류, 신발,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전반적인 대(對) EU 수출 확대가 전망됨
 - (EVFTA의 EU 관세양허) EU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수입액 기준 99.7%의 품목에 관세양허 예정으로, FTA 발효 즉시 양허품목의 70.3%가 무관세 적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9.4%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EVFTA의 베트남 관세양허) 베트남은 EU산 제품에 대한 수입액 기준 99.8%의 품목에 관세양허 예정으로, FTA 발효 즉시 양허품목의 64.5%가 무관세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35.3%는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한국기업의 EVFTA 기회 요인)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섬유, 의류, 신발류 등 봉제기업과 일부 전자제품 생산기업의 베트남에서 EU로의 직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관세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증대가 예상됨. 반면, 베트남과 경합품목이 전자기기, 기계 및 부분품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EU 시장 내 베트남산과 한국산 제품의 경쟁 증가 가능성이 존재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에서 CPTPP가 공식 발효되어 베트남은 일곱 번째 CPTPP 발효 국가가 됨. 2018년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우선적으로 CPTPP가 발효됨
 - CPTPP 10개국 중 7개국은 베트남과의 FTA 체결국으로, CPTPP 체결로 인한 새로운 수혜국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3개국이며, 이 중 캐나다와의 교역 증가가 가장 주목받고 있음. 양국 협상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CPTPP 협정을 최대한 활용한 공급망 및 글로벌 생산공정의 연계 강화를 도모한 바도 있음

- CPTPP는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국내 기업들 역시 외국기업과 경쟁우위 확보, 서플라이 체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제품의 다변화로 인한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주요 우려 사항임

□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 FTA 거점 활용 전략으로 자동차 부품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A사

○ 성공사례 세부 내용

- 2009년 설립된 한국 운송기기 부품회사 A사는 베트남의 제조업 단지 조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로 제조기지로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북부성 공단에 진출하였음
- 한국 및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본 기업은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거점 제조기지에서도 최종 생산을 하여 내수공급 또는 하청공급을 하는 구조로 공급망을 구성하여 왔음
- A사 인도 공장의 경우 한-인도 CEPA를 활용하여 FTA 관세 혜택을 수혜 받고 있었으나, 베트남 시장에서의 FTA 활용에 대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고 관련 원재료의 베트남 관세율 및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음
- 주요 원재료가 한국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중-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FTA 적용여부에 따라서 5~7% 가량의 관세율 차이가 존재하여 영업 이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음
- 이후 A사에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 원재료와 완제품의 종류가 단순하여 부가가치 기준보다는 세번 변경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베트남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날짜, 한국세관 발급담당자 명칭 등 요식적 사유를 이유로 FTA 적용 거절통지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KOTRA 하노이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실무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음
- 현재는 한국 및 중국 수입 원재료에 대한 FTA 적용으로 세액 절감효과를 충분히 받아 베트남 내 제조, 판매에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은 현재 EU,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체결된 상황이며, 주요 원자재 조달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FTA를 활용한 관세 절감효과가 높음. 따라서 베트남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사의 경우 한국 조달 원재료는 한-베트남 FTA를, 중국 조달 원재료는 중-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세 혜택을 영위할 수 있었음
-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베트남 제조 이후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수출용 원재료 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으나, 하도급 관계에 따른 베트남 국내 공급이나 내수용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FTA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해소 사례: 양 국가의 HS코드가 다른 경우의 FTA 활용 방법

○ 애로사례 상세 내용

- 2012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식품회사 B사는 베트남 북부 공단에서 식물성 생산품을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기업임.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20% 이상 급감 하였으나 다시 회복 중에 있으며, 한국에서의 발주량 증가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음
- 해당 수출 제품은 한국 수입통관 시 기본 세율 45% 적용 품목이지만 한-베트남 FTA 적용 시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45%의 관세율 차이는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음
- B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해당 HS코드를 8년간 적용해 왔으나, 베트남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HS코드 적정성 검토 통지와 함께 수출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음
- B사는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생산으로 생산거점화 전략에 성공하였으나, 2020년 베트남 세관에서 수출제품의 HS 코드를 재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 애로해소 지원 내용

- (해결책 1) 베트남 관련 법률(CIRCULAR No. 06/2011/TT-BCT)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코드는 수입국을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베트남 관세행정관행은 법률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신고필증상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발급을 위하여 서류절차가 매우 복잡함
- (해결책 2) 한국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HS코드가 협정 상대국과 상이한 경우의 세관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하여 HS코드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서 수출국 HS코드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한국 수입통관 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상기 두 가지 해결책 중 B사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베트남 세관에 증빙자료를 통한 HS코드 적정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베트남 세관에서 한국 기준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음

○ 시사점

- 베트남의 일선 세관 관세행정은 관세총국의 지휘 하에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일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매수가 2매를 넘어가는 경우에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 하거나, 베트남 세관의 수출 HS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시 약 1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함
- 베트남 현지에서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금전제공을 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관세행정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여 일괄적인 법률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관세청, KOTRA 등의 기관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나. 투자

□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현황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

(단위: US\$ 백만)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8월 |
|----------------|-----------------|-----------|-----------------|-----------------|-----------------|-----------------|---------------|
| 연도별 한국 총 투자 | 투자금액 (US 백만) | 미집계 | 7,965.2 (1위) | 8,719.9 (2위) | 7,212.0 (2위) | 8,344.4 (1위) | 2,965.7(2위) |
| | 투자 건수 | 미집계 | 2,702(1위) | 2,642(1위) | 3,345(1위) | 4,908(1위) | 2,140 (1위) |
| 한국 투자 누계 | 투자금액 (US 백만) | 44,900.6 | 50,553.5 | 57,861.7 | 62,567.0 | 68,103.3 | 70,158.7 (1위) |
| | 투자 건수 | 4,944 | 5,773 | 6,549 | 7,459 | 8,504 | 8,895 (1위) |
| 총 FDI 누계 | 투자금액 (US 백만) | 279,038.8 | 293,700.4 | 319,613.1 | 340,159.4 | 363,309.7 | 381,165 |
| | 투자 건수 | 19,929 | 22,594 | 24,803 | 27,353 | 30,943 | 32,539 |

주1: 총 투자는 기존 신규, 증액투자 + 주식 및 지분투자(M&A) 포함, 2016년부터 발표

주2: 누계자료에는 신규 + 증자 투자만 반영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0년 6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2020년 6월 20일 기준)

- 2020년 8월까지 누계 기준, 한국은 8,895개 프로젝트에, 701.5억 달러 투자로 누계 기준 여전히 1위 투자국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및 증자 투자가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연간 투자 순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은 2위에 그침
 - 전년 동기 대비 총 투자액은 17.3%, 투자프로젝트 수는 22.5% 각각 감소
- 2019년 12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 환경 악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문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직접적 영향
 -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전체 외국인의 대(對) 베트남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나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는 하반기 들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기업의 업종별 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업종별 신규 + 증액 투자 현황〉

(단위: 건, US\$ 백만)

| # | 구분 산업 | 1988년~2020년 8월 누적 | | | 2020년 1~8월 (신규 및 증액 투자) | | |
|---|------------|-------------------|----------|------------|----------------------------|----------|------------|
| | | 투자 건수 | 투자 금액 | 점유율 (%) | 투자 건수 | 투자 금액 | 점유율 (%) |
| 1 | 제조, 가공 | 4,474 | 51,382.2 | 73.2% | 285 | 1,239.2 | 53.7% |
| 2 | 부동산경영 | 191 | 9,597.0 | 13.7% | 16 | 798.3 | 34.6% |
| 3 | 건설 | 916 | 2,841.4 | 4.0% | 40 | 47.7 | 2.0% |
| 4 | 도소매, 유지보수 | 1,267 | 1,449.6 | 2.1% | 170 | 112.1 | 4.8% |
| 5 | 물류운수 | 181 | 1,165.6 | 1.7% | 14 | 37.4 | 1.6% |
| 6 | 호텔, 요식업 | 369 | 883.9 | 1.3% | 26 | 12.8 | 0.5% |
| 7 | 전문과학기술업 | 615 | 631.7 | 0.9% | 50 | 29.9 | 1.2% |
| 8 | 정보통신업 | 389 | 509.5 | 0.7% | 39 | 13.0 | 0.5% |
| 9 | 전력, 가스, 용수 | 25 | 459.7 | 0.7% | - | - | - |

| 구분 | | 1988년~2020년 8월 누적 | | | 2020년 1~8월 (신규 및 증액 투자) | | |
|-----------|-------------|-------------------|-----------------|---------------|----------------------------|----------------|-------------|
| # | 산업 | 투자 건수 | 투자 금액 | 점유율 (%) | 투자 건수 | 투자 금액 | 점유율 (%) |
| 10 | 의학 및 사회봉사 | 40 | 234.4 | 0.3% | 3 | 1.1 | 0.1% |
| 11 | 용수 및 폐기물 처리 | 11 | 200.7 | 0.3% | - | - | - |
| 12 | 행정, 지원 서비스 | 140 | 185.7 | 0.3% | 18 | 4.4 | 0.2% |
| 13 |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 25 | 180.2 | 0.3% | - | - | - |
| 14 | 농, 임, 수산 | 41 | 118.9 | 0.2% | 1 | 0.6 | 0.0% |
| 15 | 채광산업 | 5 | 115.3 | 0.2% | - | - | - |
| 16 | 교육, 양성 | 125 | 107.3 | 0.2% | 15 | 9.7 | 0.4% |
| 17 | 재정, 금융업 | 14 | 57.0 | 0.1% | 2 | 0.3 | 0.0% |
| 18 | 기타 서비스업 | 64 | 36.9 | 0.1% | 2 | 0.1 | 0.0% |
| 19 | 가정용 렌탈서비스 | 3 | 1.2 | 0.0% | - | - | - |
| 합계 | | 8,895 | 70,158.7 | 100.0% | 681 | 2,306.8 | 100% |

자료: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1988년~2020년 8월 누적 투자액 순(2020년 8월 20일 기준), 누적에는 출자 및 주식매입 미포함

- 2020년 8월까지 누계 기준, 한국의 대(對) 베트남 분야별 투자는 제조 가공 분야가 가장 많은 73.2%를 차지,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13.7%), 건설(4.0%), 도소매 수리업(2.1%), 물류/창고업(1.7%) 순임
- 2020년 1~8월 간 신규 + 증자 투자액 기준으로는 제조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중 53.7%를 차지하며 누적 평균보다 상당히 감소한 상태
 - 그러나 M&A, 주식 매입 투자의 경우 도소매 유통 및 유지보수(16.5%), 전문 과학기술업(20.5%), 금융업(14.0%)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인 투자방식에서 서서히 자본 투자방식으로 변환되는 형태를 보류 중임

〈한국기업의 업종별 M&A, 주식 매입 투자 현황〉

(단위: 건, US\$ 백만)

| 구분 | | 2020년 1~8월 누적 (M&A 및주식 매입) | | |
|-----------|--------------------|-------------------------------|--------------|---------------|
| # | 산업 | 투자 건수 | 투자금액 | 점유율(%) |
| 1 | 제조, 가공 | 338 | 207.21 | 31.4% |
| 2 | 부동산경영 | 53 | 34.56 | 5.2% |
| 3 | 도소매 유통 및 유지보수 | 556 | 109.36 | 16.5% |
| 4 | 전문 과학기술업 | 121 | 135.65 | 20.5% |
| 5 | 재정, 금융업 | 8 | 92.78 | 14.0% |
| 6 | 건설업 | 86 | 21.82 | 3.3% |
| 7 | 물류 운송업 | 39 | 4.10 | 0.6% |
| 8 | 호텔, 요식업 | 114 | 19.11 | 2.9% |
| 9 | 정보통신업 | 54 | 7.05 | 1.0% |
| 10 | 교육, 양성업 | 28 | 6.37 | 0.9% |
| 11 |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 | 2 | 10.30 | 1.5% |
| 12 | 행정, 지원서비스 | 31 | 2.80 | 0.4% |
| 13 | 의료 및 사회봉사 | 16 | 3.88 | 0.5% |
| 14 | 용수 및 폐수처리 | 2 | 2.17 | 0.3% |
| 15 | 기타 활동 | 7 | 1.46 | 0.2% |
| 16 | 농, 임, 수산업 | 4 | 0.28 | 0.2% |
| 17 | 재정, 금융업 | 14 | 57.0 | 0.0% |
| 합계 | | 1,459 | 658.9 | 100.0% |

자료: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1988년~2020년 8월 누적 투자액 순(2020년 8월 20일 기준)

□ 한국기업의 지역별 투자 현황

- 2020년 8월 누계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5.3%(107.6억 달러)를 차지
 - 이어 하노이 10.7%(75.6억 달러), 하이퐁 10.4%(72.9억 달러), 동나이 10.3%(712.3억 달러), 타이응우옌 7.7%(54.6억 달러), 호치민 7.4%(52.6억 달러) 순
 -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7.9%, 남부 36.0%, 중부 및 기타 6.1% 순

□ 주요 한국 투자 프로젝트

〈2019년~2020년 8월 한국기업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US\$ 백만)

| 연번 | 기업명 | 분야 | 투자금액 | 지역 |
|----|-------------------------------|----------|------|-----------------|
| 1 | Global Consultant Network | 경마장 | 420 | Hanoi(북부) |
| 2 | Samsung R&D Center | 연구소 | 210 | Hanoi(북부) |
| 3 | YOUNG POONG ELECTRONIC | 전자부품 | 200 | Vinh Phuc(북부) |
| 4 | S&D HANOI (선경E&C) | 호텔사업 | 180 | Hanoi(북부) |
| 5 | Dongwha Enterprise | MDF 합판 | 163 | Thai Nguyen(북부) |
| 6 | JNTC | 전자부품 | 150 | Phu Tho(북부) |
| 7 | Hyosung Financial System Vina | ATM 단말기 | 110 | Bac Ninh(북부) |
| 8 | Chang Shin Dong Nai | 신발 봉제 | 100 | Dong Nai(남부) |
| 9 | Seojin System | 전자부품 | 100 | Bac Giang(북부) |
| 10 | Chang Shin Vietnam | 신발 봉제 | 100 | Dong Nai(남부) |
| 11 | SNS STYLE COMPLEX | 부동산 개발 | 89 | Hanoi(북부) |
| 12 | Fursys Holdings Inc | 인테리어 소품 | 75 | Dong Nai(남부) |
| 13 | SEBANG BATTERY VINA | 배터리 | 60 | Dong Nai(남부) |
| 14 | NOX CORPORATION | 플라스틱 | 60 | Dong Nai(남부) |
| 15 | HANA MICRON | 반도체 | 60 | Bag Giang(북부) |
| 16 | DENTIUM | 의료(임플란트) | 60 | Da Nang(중부)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신규 투자 중 투자신고액 6천만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 베트남 투자진출 진입장벽

- 제조업
 - **(토지임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탈 중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 부족현상 발생. 제조인프라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하노이, 호치민, 항만 인근 등 주요 도시 주변지역 공단 진출이 대부분이나 투자 과밀화로 인해 최소 공단 임대면적(1ha) 이하는 토지 임대가 어려우며, 일정 이상의 투자(US\$ 200만~3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례 빈번
 - **(공장임대)** 베트남은 국가 또는 공단에서 임대용 공장을 따로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일부의 경우 공단에서 공장을 지어 임대하기도 하나 임대비는 약 4~5US\$/m²/월 수준으로 상당히 비쌌. 공장 임대를 위해 공장주의 재무정보 파악이 필요하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어 공장주 파산 시 공장 매각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정이 올 수 있음

- **(인센티브 혜택)** 우리 제조기업의 대부분은 임가공 수출업이며 이를 위해 관련 인증 '임가공수출 기업(EPE)인증'을 받아 수입세,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몇몇 성들은 EPE 인증서 발급에 인색함. 베트남은 과거 외국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공*

* 하이테크 산업 인증, 투자규모에 의한 인센티브 등은 사실상 일반 중소기업의 수혜가 어려우며, 기타 인센티브를 인정 받기 위해 업체의 자구적 노력 필요

- **(세무)**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해 2017년 5월 1일부로 '연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음. 납세자는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또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작성보고서 패키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 보고서(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등 3부

○ 서비스·유통업

- **(인허가)** 현재 베트남 투자법은 도·소매·서비스 투자 분야 투자 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그러나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현지인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243개 조건부 사업 분야를 두어 관리 중이며, 세부 사업별로 별도의 허가 기준 적용

- **(수입·유통품목 규제)** 베트남은 WTO 양허안에 따라 유통, 수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유통을 개방하여야 함. 투자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 수입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허가서(Business Licence)를 획득하여야 하는 등 여전히 수입 및 유통허가 발급을 조건부로 하고 있으며, 과도한 절차 및 비용을 강요

-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 역시 외국인 100% 투자 가능 분야, 그러나 실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함. 제품의 수입허가, 유통관리 등을 위해서는 단독 투자보다 현지인과의 합작을 원하는 추세

□ 베트남 투자진출 성공사례: 베트남 유통사업 진출 시 합작법인 설립보다는 단독 무역법인 설립 후 현지기업과의 에이전트 판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진출을 한 T사

○ 진출 개요 및 방법

- 해당 기업은 기계공구 및 유류 보조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 T사는 베트남 시장의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한 후 현지 진출을 통해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의 유통사업에 대해 100% 완전 자유화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용 기계 및 공구류 (베트남 내 미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100% 단독 투자 설립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외국 투자기업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인해 현지기업과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불화로 인하여 현지 법인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한 상품권 및 수입권한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등 자본금만 손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 해당 기업은 KOTRA 면담을 통해 외국인 투자 수출입, 무역법인(도매업 가능)을 설립하여 직접 제품을 통관 후 현지기업(에이전트)에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업 진행
- 비록 현지 시장 진입에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제품의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소유권 보존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초 2019년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독점계약은 아님)을 통해 북부지역 판매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남부지역 에이전트 계약을 위한 기업 선정 작업 중
- 3년 이내 현지 시장 진입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현재 에이전트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및 사업 진행 예정

○ 시사점

-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 시 해당 시장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시장에 맞는 마케팅 방법 등을 찾기 위한 일정기간의 시간 할애 필요
- 단기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최초 사업구조를 취약하게 가져갈 경우, 성공적인 시장 판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장기적인 사업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베트남은 이제 막 산업발전 단계로 진입한 만큼 현지 제조, 유통시장이 활발해 질 때까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기술 및 권리를 현지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아닌 한국기업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 투자진출 실패 사례: 오랜 기업과 기술 협력을 위해 구두 계약만으로 설비를 지원 하였던 P사

○ 진출 개요 및 방법

- 해당 기업은 플라스틱 사출 분야 제조기업으로 지난 2016년 베트남 북부 소재 공단 지역에 진출 하였음
- 이후 약 4년간 현지기업과 외주 임가공 계약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이후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 하고자 하였음
- 합작법인의 설립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현지 파트너사의 설비 증설이 필요하였으며, 구두 계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설비를 양도하고 이후 정식 합작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물량이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 파트너 역시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해당 파트너사는 합작 계약을 미루고 있으면서도, 한국기업이 양도한 설비를 통해 자신의 제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한국 P사는 설비를 반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베트남 파트너사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은 이미 무상으로 기계를 양도받았기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을 포함한 계약 체결 없이, 선제적인 투자 및 양도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음
- 베트남 기업들 중 기술력 및 설비의 한계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한국 기업의 신뢰를 얻어 합작 법인 설립 및 설비 양도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현지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문제 발생 후 유일한 해결방법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며, 이마저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베트남 기업과의 모든 거래는 완벽한 서류 계약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생산거점 베트남 이전양상과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에 관련 정보 확산 지원

○ 베트남의 중고설비 수입규정 강화와 현행 세관처리 실태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미국 행(向)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생산설비 이전추세로 인한 베트남의 중고기계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낙후설비의 국내 유입 및 밀수 방지를 목표로 2019년 중고설비 수입규정을 총리령으로 강화하는 등 중고기계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기업의 생산라인 현지 이전 및 설비 투자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임
- 환경오염 야기 및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중국산 중고설비의 유입을 방지코자 검사·인증·통관에 관한 중고설비 수입규정* 시행 중
 - * 베트남, G7 국가 표준 및 한국 표준 준수, 베트남 과기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증명서 발급 필수, 제조연한 10년 이내 등
-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정 강화에 대비함으로써 생산라인·설비의 원활한 현지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근 베트남 세관의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반려, 수입불가 통보에 따른 화물반송 빈도가 증가

○ (경협 방안)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종합 가이드북 마련을 통한 수출종합지원

- 중고설비 수입규정 중 우리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의 적절한 구비이며, 국가 기술표준의 부합여부와 감정결과 등 기재사항에 대한 베트남 세관의 요구수준 충족여부가 수입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임
- 따라서 중고설비 수입규정 관련 현지 규정·제도·통관절차 등 정보가 수록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해 베트남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검토 후 자료 발간 및 배포하고, 해당 과정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베트남 제조설비 노후화 추세 방지에 대한 협조를 제공

- 또한 베트남 정부 승인 중고기계 수출 공인검사기관,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전문가, 통관전문 기관, 기계대표단체 등 중고기계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내 종합 네트워크(전문가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지로 설비 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의 중고설비 이전 수요와 현지 정부의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 정책 추진 지원을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파트너 관계 구축 제안 가능

□ 베-EU FTA 섬유 교차누적 활용 및 한국-베트남-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을 통한 섬유제품 수출 지원

○ 한국산 섬유제품의 베-EU FTA 교차누적 활용지원 필요

- 베트남은 EU와 베-EU FTA를 2019년 6월 30일 최종 서명하였으며, 2020년 8월 1일부 발효함. 베-EU FTA에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차누적에 관해 규정*함
- 본 누적규정을 활용하여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단이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베-EU FTA 2장 3조(원산지 누적) 7항: 베트남에서 제6조(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5에 기재된 품목(제61류, 제62류)으로 추가가공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

- 해당 교차누적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활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국과 베트남 섬유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차누적 기준에 대해 안내할 필요성 존재

○ (경협 방안) 한국산 직물을 활용한 베트남 내 섬유 임가공 활성을 위한 수출입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산 직물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원부자재의 수출확대 기여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임가공 수출입산업 활성화 기대
-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주요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동 조항을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
- 교차규정을 활용한 한국산 직물 원산지 활용 가이드북 제작 및 활용 희망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구비 및 성공사례 발굴
-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 임가공·제조기업의 EU 시장 신규 진출 또는 기존 EU 시장 확대 가능성 확보

□ 부품소재 협력 구축을 위한 GVC 거점화 및 인증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 미발달로 진출 베트남 기업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

- 한국 전자, 기계 및 글로벌 기업들의 GVC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나, 관련 연구 기관 및 인력 부재 등으로 자체적 발전 가능성이 모호함*

○ 부품소재 FDI 기업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부실 → 산업별 주요 부품소재 기업 DB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 납품 경쟁력 필요

* 2016년,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부품소재 산업 인증제도를 시행했으나 시스템 부재로 효과 미미

○ (추진방안 ①) 한-베 부품소재 산업전용 특구 조성을 통한 GVC 거점화 추진, 인프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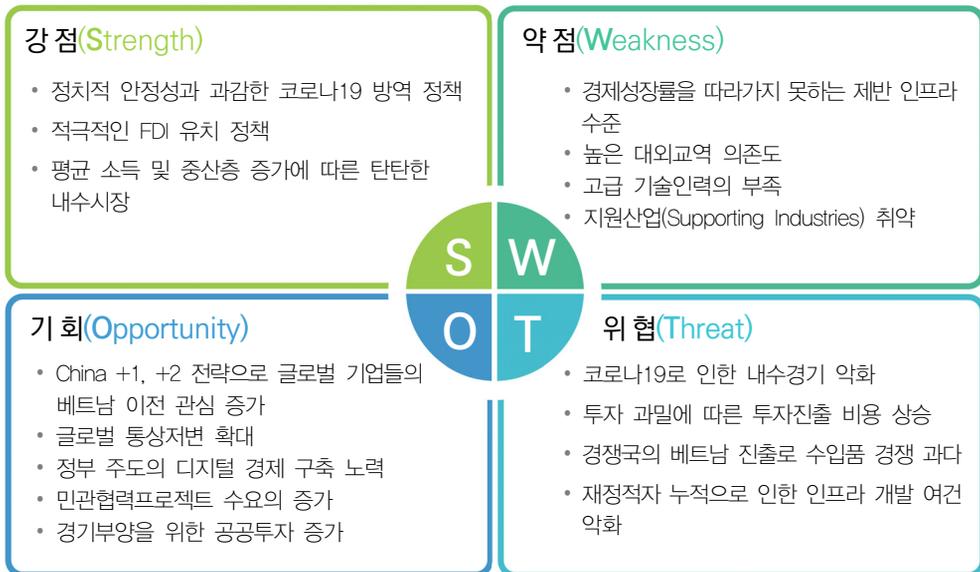
- 한-베 부품소재 산업 특구 조성을 통해 한국기업들에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정책, 인프라 마련
- 베트남 기술 이전 및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베 부품소재 기술협력 센터' 및 '기술 연구소' 공동 설립 운영
- 특구 전용 물류센터, 세관, 서비스 지구 조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한국 산업용 기계, 장비 기업의 진출 및 수출을 위한 상설 판매 전시장 조성
- **(추진방안 ②) 한-베트남 TASK 센터 중심, 부품소재산업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에서의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한-베 소재 부품 산업 협력 지원 거점기관인 'TASK' 설립을 위한 논의 중
 - 한-베트남 TASK 센터 설립 추진과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을 위하여 베트남의 우리나라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부(공업국) 간 '부품소재산업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협력 MOU 체결 가능
 - 이후 KOTRA, KIAT 및 베트남 담당부서인 공업국과 협력기반 마련 → 한국 관리시스템 도입, 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III 진출전략

우리 기업의 대(對) 베트남 투자 진출 가속화에 따라 양국 간 상생 협력관계 강화. 따라서 주재 한국기업의 베트남 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고, 베트남 정부 수요에 기반한 산업(ICT, 4차 산업혁명, 부품소재, PPP 인프라 구축 등)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발(發) GVC 변동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내 한국 진출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또한 기대됨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베트남 지역 SWOT 분석〉



| 전략방향 | 세부전략 |
|------------------|--|
| SO 전략 (역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VC 이동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기업 인프라 활용 베트남 통상협정 기반을 활용한 제3국 진출 |
| ST 전략 (강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재정적자 대응 |
| WO 전략 (기회 포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의 정책 수요에 따른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교류 |
| WT 전략 (위험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및 고부가가치형 투자 진출 확대 |

| 진출전략 |
|-------------------------|
| 포스트 코로나19 유망 시장 선점 |
| 베 무역협정 활용 제3국 진출 |
| GVC 재편 대응 투자 진출 |
| 인프라 및 4차 산업 관련 분야 진출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 시장 선점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거치며 온라인 주문, 재택근무, 홈코노미 등 비대면 산업에서의 수요 발생*
 - * 2020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이후 온라인 유통망 주문량 전기 대비 31% 증가
- 기존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
- 온라인 유통망 입점, 홈코노미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시장 공략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온라인 유통망 주문량 전기 대비 31% 증가
 - iPrice 조사에 따르면, 식품류(42%), 화장품 및 헬스케어(21%), 전자제품(8.7%), 스마트 기기(0.2%) 부문 접속량은 증가한 반면 패션부문은 38% 하락함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식품류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문량 증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새롭게 창출된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망 성장을 이끌 주요 상품으로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증가
 - 2020년 3월 3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 및 다낭발(發) 2차 지역사회 감염 이후 정부기관과 대다수 민간기업에서 재택근무확산
 - 이에 따라 재택근무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도 증가함. 현재 줌(ZOOM), 웹엑스(Webex) 등과 같은 해외기업 서비스가 주류이나, V-Com(VNPT사), Vmeet(Viettel사)과 MegaMeeting(Mobifone사) 등 현지기업의 화상회의 플랫폼도 성장 중
 - 현재 베트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으나 국제선의 제한적 운행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입국하지 못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
 - 과거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은 일부 사립학교들에만 국한돼 있었으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공립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홈코노미 경제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홈코노미'가 확산 중이며, 베트남에서도 실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홈코노미 산업이 주목받음. 외출을 줄이면서 외부 소비활동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며, 이러한 온라인의 오프라인 대체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홈트레이닝) 오프라인 피트니스 운영 불가로 인해 유명 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함. 이로 인해 홈트레이닝 관련 제품들은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온라인 유통망 주문량의 전기 대비 31% 증가함

- (OTT 서비스) 가정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역시 증가함. 현재 베트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 시장은 글로벌 기업 Netflix, 베트남 정보통신업체 FPT, 국영 케이블방송사 VTVcab 등이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한 옴니채널 구축

- 베트남 인구 중 만 15~54세 연령층은 약 31.2%를 차지하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에 민첩하여 온라인을 통한 구매에 적극적인 인구임
- 현재 베트남은 지역사회 감염세 약화에 따라 기존에 확보된 오프라인 유통망에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 옴니 채널 구축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베트남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상품을 구매한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 Zalo, 전화, 오프라인 방문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편리한 실시간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 중*

* 육아용품 종합 판매소매점인 Concung의 경우, 일일 온라인 프로모션 상품을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함께 게시하며, 모든 프로모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접근 채널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동일한 구매 환경 제공

옴니채널(Omni-channel)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구매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함. 각 유통채널의 특성을 결합하여 어떤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던 같은 매장을 이용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뜻함

-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나서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여 온라인 구매 시 주어지는 프로모션을 활용, 제품 비교 구매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반대로 웹사이트나 온라인 앱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본 후에 실제로 매장에 방문하여 온라인에서 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음

○ 2020년 메가트랜드 ‘홈코노미’ 품목 공략

- **(홈트레이닝 제품)** 아령, 요가복, 요가매트 등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소도구 등
- **(컴퓨터 및 관련 제품)** 노트북, 웹캠, 키보드 등 재택근무에 소요되는 부속품 수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 간 이동 불가, 국내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꾸준한 수요 예상됨
- **(주방용품)** 외식 수요 감소에 따른 조리도구 등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베이킹 관련 용품 수요도 증가

2-2. 양자·다자 간 경제협력 기반 활용한 제3국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은 주요 경제권과의 공격적 FTA 체결을 통해 생산거점으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제고하여 왔으며, 베트남 진출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는 물론 베트남 정부가 체결한 다양한 FTA를 활용하여 관세율 혜택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음
-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의 발효로 베트남은 주요 교역국 중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경제 통합을 달성하였고, FTA를 활용한 생산거점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및 다자 FTA의 공격적 체결로 아세안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EU,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효되어 있음
 -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은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혜택을 영위하기 위하여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출 FTA를 활용하여 관세차익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도 용이함
- 특히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인접국은 물론 유럽과 러시아 등 유럽국가와도 FTA가 체결되어 있어 유라시아 경제권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을 이룩하고 있어 제조기업의 입지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2020년 베트남 FTA 체결 현황〉

| 구분 | 기체결 | 협상 중 | 검토 중 |
|-------|------------------------|---------------|-------|
| 베트남 | ATIGA | 베-EFTA FTA | FTAAP |
| | 베-일본 EPA | 베-이스라엘 FTA | |
| | 베-칠레 FTA | - | - |
| | 베-한국 FTA | | |
| | 베-EAEU FTA (러시아 포함) | | |
| | CPTPP | | |
| | 베-EU FTA(EVFTA) | | |
| ASEAN | 아세안-중국 FTA | RCEP(ASEAN+6) | |
| | 아세안-한국 FTA | - | |
| | 아세안-일본 FTA | | |
| | 아세안-인도 FTA | | |
| |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 | |
| | 아세안-홍콩 FTA | |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종합

- 베트남이 아시아의 다국적기업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베트남의 교역구조는 외국산 원재료 수입조달 후 임가공 수출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완제품도 베트남 내수시장 대비 역외 국가로 수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원재료 공급국은 물론 주요 수요 시장과도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입 양방향에 모두 FTA 활용 실익이 있으므로, 협정별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제절감에 따른 생산거점화 이점이 극대화 가능
-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휴대폰, 컴퓨터 및 섬유제품, 신발류 등이며, 해당 산업은 우리 기업이 베트남 남북부에 걸쳐 다수 진출해 있는 분야에 해당되어 무역협정 활용실익이 높음
-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EVFTA 발효 이후 FTA 활용에 따른 생산거점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우리 기업의 베트남 생산기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FTA 활용 실익이 충분함(단,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WTO ITA 협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기본관세율 0%인 품목이 다수)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주요 수출입품목〉

| 수입품목 | 수입금액 (억 달러) | 순위 | 수출품목 | 수출금액 (억 달러) |
|------------|----------------|----|------------|----------------|
| 컴퓨터 및 부분품 | 271.6 | 1 | 휴대폰 및 부분품 | 219.6 |
| 기계 및 장비 | 168.2 | 2 | 컴퓨터, 전자제품 | 194.7 |
| 휴대폰 및 부분품 | 59.7 | 3 | 섬유제품(의류 등) | 131.8 |
| 섬유, 신발 원자재 | 55.2 | 4 | 기계 및 부품 | 104.2 |
| 철강 | 40.1 | 5 | 신발 | 81.3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동향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원재료 조달처 선정전략 시 베트남의 통상 저변 활용
 -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수입 구매 시 수입자는 FTA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선 변경 및 구매 단가 조정 등 구매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 발생하여 생산단가 전반에 영향
 - 동종동질의 범용성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베트남의 FTA 체결상대국인지 여부와 세율 차이에 의거한 조달처 선택이 중요하며, 동일 체결상대국 내에서도 FTA 원산지증명 가능 제조자인지 여부에 따라 가격 협상 진행
 - 핵심 원재료로서 공급자가 제한적인 경우 해당 공급자의 생산기지가 여러 국가에 입지한다면 베트남 FTA 체결상대국 제조물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주요 수출대상국가와의 FTA 공급사슬망 전략적 활용 가능
 - 베트남 제조공장 입지선정에 있어 품목별 최종 수출대상국가와의 FTA 체결여부를 고려하여 FTA 원산지 전략 수립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 EU, 한국, 일본, ASEAN 등이 FTA 체결상대국이므로 FTA 활용전략의 선택지가 다양함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산 제품 원산지 증명이 강화됨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뿐만 아니라 비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전략도 동시에 수립 필요

○ ASEAN 회원국 소재 다국적기업 연결공정 활용성 증대(누적기준 활용)

-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여러 국가에서 단일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 국가 간 연결공정을 수행한 경우 최종제품 원산지 결정 시 누적된 부가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규정하며,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ASEAN회원국과 체결된 FTA에서는 누적기준* 활용실익이 큼

* 누적기준(cumulative rules):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다라도 그 원재료를 국산 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베트남 FTA 협정별 누적기준 규정〉

| 구분 | FTA 체결 | 누적기준 | |
|-------|------------------|-------|----------------|
| | | 적용 여부 | 근거 규정 |
| ASEAN | 아세안-중국 FTA | 적용 | 협정문 부록 III 제5항 |
| | 아세안-한국 FTA | 적용 | 협정문 부록 III 제7항 |
| | 아세안-일본 FTA | 적용 | 협정문 제29조 |
| | 아세안-인도 FTA | 적용 | 협정문 제5조 |
| |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 적용 | 협정문 제6조 |
| | 아세안-홍콩 FTA | 적용 | 협정문 제3.7조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종합

- 공정단계별 FTA 협정세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세특혜 정도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FT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
- 특히, 부가가치 산업군인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수송기기 및 기계제품 등은 연결공정을 수행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한 FTA 활용실익이 높음
- 공정특성상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국가 간 연결공정을 거친 제품을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누적조항 활용 극대화

○ EVFTA 한국산 원단 특혜조항 활용 누적공정(2021년 상반기 적용 예정)

EVFTA 한국산 원단의 역외교차누적 조항 세부내용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및 62) 생산 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따름
- 단,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내에서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이상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만 가능(원산지 관련 협약 제3조 7항)
- 또한 완제품 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는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 문구가 기입되어야 함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의 섬유 원재료 수입은 중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점유율: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순)이나, 한국산 원단 관련 역외교차누적 조항은 베트남 봉제 산업 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

- EU 국가로 섬유·의류제품 수출 시 EVFTA의 원산지 누적(Origin Accumulation)규정을 활용하면 한국산 원단의 베트남 시장점유율 증가와 우리 봉제 기업의 EU향(向) 의류수출 증가 예상됨*
- * 현재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의 절차 진행 중, 추후 EU 최종 동의절차 거쳐 발효 예정

2.3. GVC 재편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 정부는 자국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략산업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 미발달로 진출 베트남 기업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30년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은 100~120만 대 수준 도달 전망*
* 2019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 대수 약 41만 9,140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2030년 자동차 생산량 100~120만 대 전망
-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기업 외에도,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기업의 전기·전자 업종 투자 확대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투자기업과 한국 기존 투자 기업 간 협력 기회 다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분산 움직임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국 이외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
 -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전망에 따라 미국 일각에서는 자국으로의 U턴보다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의 진출기지 이전을 권장하며 탈 중국 및 대체 투자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함
- 공급망·낮은 기술력 등은 여전한 베트남 진출 애로요인
 -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낮은 성숙 단계의 공급망, 기술력 부족 등임
 -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공급선을 대체할 베트남 기업 발굴 수요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발전되지 않은 단계의 제조업이거나 중국으로부터 2차 가공을 아웃소싱 받는 기업인 경우가 다수임
 - FDI 기업들은 단순히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뿐 아니라 이후 자신들의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로컬 공급자들과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부품소재 산업 중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의 현지화 비율은 10~30% 수준에 불과함*
 - 베트남 정부는 고부가가치의 자국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부품소재산업 지원정책(2016년 시행)', '과학 및 기술기업 지원정책(2019년 시행)'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 및 현지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노력 중

* 전기·전자 분야 중 글로벌 제조사에 직남 가능한 자국 기업은 50개사가 넘지 않음

** 베트남 최대 자동차 회사인 타코(Thaco) 현지화 비율은 승용차 15%, 트럭 35%, 버스 60%, Toyota 37%, 기타 태국·인도네시아 현지화 비율은 약 70% 수준

○ 자동차 분야, 전기·전자 분야, 한국 제조사 다수 진출

- 현재 베트남에는 삼성을 필두로 약 1,500개 이상의 전기·전자 외국 투자기업이 진출하였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최대 산업 분야로 발전함
- 완성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의 경우 기존 일본 완성차업체(토요타, 혼다, 마쓰다)와 현대자동차 이외 최근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진출이 확대됨*

* 2018년~2019년 상반기 기간 약 130개 이상의 한국 자동차 부품사가 진출하며 베트남 초기 전기·전자 산업 발전과 비슷한 발전 추세를 보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글로벌 기업, 베트남 투자 시 한국기업들의 제조 인프라 활용에 관심

- 현재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산업에서 외국 투자기업과 자국기업과의 격차는 20년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
- 전기·전자 산업 분야는 베트남 전체 시장의 약 95%가량을 외국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사실상 현지기업의 영향력이 미미함
- 현재 베트남에서 조달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사들은 타이어나 배터리, 와이어 같은 저부가가치 부품이거나 용접이나 도색 공정 같은 단순 공정의 아웃소싱임. 또한 한국과 일본 기업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빨리 자리를 잡은 반면에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딘 편임
-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제조공장 이전 과정에서 기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제조시설 현황, 부품 소싱 능력 등에 대한 검토는 병행되고 있으며 우리 진출 기업과 관련 정보를 제공을 통한 협력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제조사, 베트남 진출 고려 중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납품 시장 선점과 동시에 해외 전진 수출기지로서의 혜택 전망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TIGA), 2020년 8월 1일부 발효된 베-EU FTA, 2019년 1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은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좋은 요건임
- 최근 불거진 미-중, 한-일 무역전쟁 등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동반진출 국내 협력사 외 추가적인 글로벌 협력사 확보 기회는 한국 제조 산업의 버팀목 될 것으로 전망

2-4. 인프라 및 4차 산업 관련 분야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0년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각각 4.2%, 5.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베트남 인프라 분야에 연간 최대 25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2/3정도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2021년 1월 1일부 발효되는 PPP투자법을 활용에 대한 기대감 상승
- 베트남 정부는 차후 10년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범정부적 차원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각 부문에서의 ICT 경쟁력 강화와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전자결제 사용 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됨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기관 협의체 '팀 코리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정보 파악, 각종 지업사원 활용도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역 균형개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교통,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 2020년 베트남 도시화율은 39.3%로 2019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라 2040년이면 도시인구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 도시인구: 2000년 1,900만 명, 2017년 3,300만 명, 2040년 전체 인구의 절반
- 베트남 정부는 신속·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재정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함
 -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3년 동안 교통인프라 개발에 약 48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전체의 30%만 부담 가능한 상황
 - 2021년 PPP법의 발효로 지연되었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전망됨
 - 2015년 2월 15일 민간투자 관련 시행령인 Decree 15/2015/ND-CP를 제정, 2018년에는 해당 시행령을 Decree 63/2018/ND-CP(Decree 63)으로 개정
 - 시행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2020년 6월 18일 2021년 1월 1일 발효로 하는 PPP 관련 신규 제정 법률안이 제14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9차 회의에서 99.75%의 찬성률로 통과

PPP투자법 초안 주요 내용

- 가능 영역
 - 운송 및 교통
 - 수력발전소 및 전력 법에 따라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지닌 기타 경우를 제외한 송전선로 및 발전소
 - 관개, 급수 시스템, 배수 시스템, 폐수 처리 시스템
 - 의료, 교육-훈련 및 직업 훈련
 - 정보통신시설
 - 위 예시 영역 외에 (i)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중 (ii)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iii) PPP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더 적합하며 (iv) 총 투자금액이 2,000억 동 이상의 것으로서 (v) 총리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예외로 진행 가능(5조 1항 C호)

- 투자가능 형태
 - BOT(건설·운영·양도)
 - BTO(건설·양도·운영)
 - BOO(건설·소유·운영)
 - O & M(운영 및 관리)
 - BTL(건설·양도·임대)
 - BLT(건설·임대·양도)
 - 여러 방식의 조합
- 투자규모
 - 교통, 발전, 관개, 급수 시스템, 배수 시스템, 폐수처리 시스템 부문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2,000억 베트남 동, 투자법에 따른 빈곤 지역 또는 극심한 빈곤 지역 행정구역의 경우 1,000억 베트남 동
 - 의료, 교육-훈련에 규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00억 베트남 동 이상이어야 함
- 최소자본 규제
 - 투자자는 해당 법의 제70조 및 제72조에 규정된 국가자본을 제외하고 총 프로젝트 자본금의 15% 이상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규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투자 인센티브 및 보증
 - 투자자 및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기업은 세제, 토지, 투자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세제, 토지 이용료, 토지임대료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허용된 토지사용권 보장
 - 사업 경비를 제외, 프로젝트 수익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환 잔고를 보장
 -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리 보장
 - 프로젝트 시설을 상업적으로 운영할 권리 보장
 - 실제 수익이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계약의 재무 계획상 수익을 125%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 및 PPP 기업은 실제 수익 및 재무계획 수익금액 125% 증가분의 50%를 국가와 공유해야 함. 증가된 수익의 공유는 제50조, 제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재화 및 용역의 가격 및 프로젝트 계약기간의 조정 이후 적용됨
 - 실제 수익이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계약의 재무계획상 수익의 75% 이상 감소하는 경우 국가는 실제 수익 및 재무계획상 수익 75%의 수익 감소분의 50%를 투자자 및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기업과 공유함

자료: 64/2020/QH14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의지 다대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6월 '2025년까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 749/QĐ-TTg)'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이 GDP의 20%, 부문별로 최소 10% 차지하고 연간 노동생산성은 7% 향상될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ICT 발전 지수 및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50위, 글로벌 혁신 지수(GII)에서 3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4G 및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폰 보편화, △인구 80% 이상 전자결제 사용 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 영역*을 위주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IT, 데이터 분야 전문가 및 연관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의료, 교육, 금융, 은행, 농업, 교통,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 및 산업 생산

- 2019년 개최된 '열린 정보통신기술 인재포럼'에서는 베트남에서 2020년까지 최대 40만 명의 정보 기술(IT)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
- 4차 산업, 디지털 경제, ICT 관련 베트남의 적극적인 비전 제시와는 별개로 현지의 하이테크놀로지 개발 역량, 제조 인프라 등은 미흡한 수준
 - 아직까지 베트남은 단순 전자부품 조립, 제조 단계에 머무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술 개발 역량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력 이전을 통한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G, ICT 등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FDI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베트남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 프로젝트 참여
 - 현재 베트남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ODA 수원여건 악화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PPP 프로젝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수익 산출방법, 환율 변동에 대한 기준시점, 자기자본 납입시기 등 이번 PPP법 발표 이후에도 불명확한 사항들이 남아 있어, 참여 관심기업들은 투자 위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수익 확보와 위험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 방안 자체적 수립 필요
 - PPP법 제정 이후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행령에 대한 내용 숙지 필요

〈베트남 주요 PPP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발주처 | 기간(잠정) | 규모(백만 달러) |
|---|---|------------|-----------|
| Dong Dang - Tra Linh Expressway | Cao Bang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0~2024년 | 902 |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Hoang Hoa - Sam Son section, Quang Xuong - Tinh Gia section) | Thanh Hoa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0~2023년 | 146.5 |
| Sapa Air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 Lao Ca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30년 | 256 |
| Quang Tri Air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 Quang Tr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30년 | 345 |
| Quang Ngai - Binh Dinh Expressway | Binh Dinh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25년 | 600 |
| Ho Chi Minh - Moc Bai Expressway | HCMC People's Committee | 2021~2025년 | 460 |

자료: 베트남 건설부

- 기술집약적 4차 산업 관련 품목 유망
 - 한-베 간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ICT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솔루션·SW·장비 관련 한국 중소·중견기업 진출 방안 고려 가능
 - **(AI)**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9년 5월 한국로봇학회와 MOU를 맺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이전, 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여 한-베 간 AI 공동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 팩토리)** 베트남 정부는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며, 국가혁신위원회의 우선 발전 분야*로도 선정됨
 - *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중점 육성 분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안보기술, 환경기술
- **(스마트시티)** 베트남 정부는 ICT 활용도가 높은 다낭, 호치민시, 하노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예정으로, 2018년 8월 1일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을 공포함(Decision No. 950/QD-TTg)
 - *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주력 분야는 도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인프라 개발, 스마트 교육, 헬스케어, 전자정부, 스마트 농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적용

3. 한-베트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부품소재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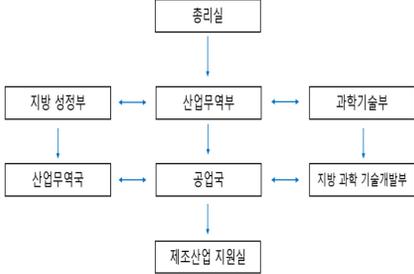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 대수 약 41만 9,140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2030년 자동차 생산량 100~120만 대 전망
 - * 베트남 최대 자동차 제조사 타코(Thaco) 현지화 비율은 승용차 15%, 트럭 35%, 버스 60% 수준
- 전기·전자 분야 베트남 수출액 약 34.4%(1위)로, 2019년 삼성전자 베트남 수출액 658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약 24.9%, 베트남 진출 전기, 전자 분야 FDI 기업 수는 약 1,500개사 60만 명 고용
- 2019년 베트남 중앙경제연구소(CIEM)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기·전자 수출은 전 세계 12위, 아세안 3위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책 수요)** 베 정부, 베트남 산업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투자 강화 및 제조 산업의 고도화 도모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주요 육성 정책〉

| 관련 산업 부처 기관도 | 주요 정책 | |
|--|-------------------------------|--|
| | 정책명 | 내용 |
|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 · 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 /QD-TTg를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 | Decree 116 | · 2018년 1월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 자동차 산업의 국가 핵심 발전산업 육성 의지 |
| |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Decree 111 | · 2016년 1월부터 자동차 조립, 전기 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7개 부품 소재 분야 발전 지원정책 발표 |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부품소재 분야의 낮은 현지화, 우리 기업의 대거 진출로 인해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현지기업 증가. 우리 기업들 역시 투자 리스크 회피 차원 지분투자를 통한 제조업 진출 확대 추세

〈우리 기업의 베트남 제조업 분야 지분, 주식 구매 방식 투자 동향〉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6월 |
|-------------|-------|-------|----------|
| 투자 건수 | 369건 | 445건 | 368건 |
| 투자금액(\$ 백만) | 260 | 432 | 219 |

주: 베 자동차 부품사 규모 태국의 1/5 수준, 전기·전자 현지화 비율 약 12.5%,
자료: 베트남 투자청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베트남 정부 개발정책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진행

-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 유망
- 베트남 지역별 특성 및 유망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투자 진행
- 한-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 활용을 통한 한국 진출기업 기반 마련 → 글로벌 GVC 재편을 대비한 베트남 생산거점 확보에 선제적 대응

* LH,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주요 경쟁국(싱가포르, 일본 등) 주도의 베트남 산업단지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 407만㎡(123만 평)의 개발계획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 주요 내용: 흥옌성 산업도시 중 클린산단·산단1구역에 한-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로 조성, 현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기대효과: 한-베트남 경협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쪽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되며,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도 우수



자료: 경제외교활용포털

3-2. 4차 산업 기술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Phuc 총리는 2018년 8월 1일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공포(Decision No. 950/QD-TTg)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
- 베트남은 ICT 활용도가 높은 다낭, 호치민시, 하노이를 시작으로 하여 경제개발구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화 스마트시티 조성까지 확장 추진 중으로, 양국의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주 및 진출 지원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베트남,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

* Phuc 총리는 2018년 8월 1일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을 공포(Decision No. 950/QD-TTg)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주요 내용

- 2020년까지를 법률 기반 조성 및 프레임 구축 단계로 지정, 2025년까지를 시범사업 수행 단계, 2030년까지를 시범사업의 완성 및 확장 단계로 구성(2018년 8월 1일, 베트남 총리 결정문)

| 구분 | 주요 계획 |
|-------|--|
| 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 기반 구축 · 도시 기반시설(조명, 교통, 급·배수, 쓰레기 처리, 전력망,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표준 수립 · 기반 ICT 프레임워크 구축 · 최소 3개 이상의 도시에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유관 부처 인력의 50%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수행 · 메콩델타지역에 프로젝트 우선 개발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법률 기반 완성 · 최소 6개의 도시 또는 6개의 경제구역에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유관 부처 인력의 100%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수행 · 도시 관리, 조명, 교통, 급·배수, 쓰레기 처리, 전력망,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표준 발표 |
| 203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완성 및 대규모 사업 수주로 확장 ·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건터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및 메콩델타지역에 스마트 도시 체인을 구축 |

- VINASA(베트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협회), 베트남 스마트시티 어워드(Vietnam Smart City Award) 조직
 -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베트남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 기대

Vietnam Smart City Award 2020

- 주최기관: VINS(A(베트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협회)
- 조직연도: 2020년(추후 매년 개최 예정)
- 주요 역할: 그룹1~4까지 분류하여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우수 프로젝트 선발 및 시상
- 개최기간: 2020년 9월 7일~10월 10일까지 신청서 수령 후, 11월 17일 Vietnam Smart City Summit 2020에서 시상

- 베트남은 ICT 활용도가 높은 다낭, 호치민시, 하노이*를 시작으로 하여 경제개발구역에서의 첨단산업 단지과 스마트시티 조성까지 확장 추진

* 하노이 BRG 스마트시티, 흥옌성(Hung Yen) 에코파크(Ecopark) 스마트시티, 다낭 드래곤(Dragon) 스마트시티, 호치민시 투티엠에코(Thu Thiem Eco) 스마트시티

〈베트남의 ICT 평가지표 상위 3개 도시〉

| 순위 | 도시명 | 기술 인프라 수준 | 인적 자원 수준 | IT 활용 수준 | ICT 지수 | 순위 | | |
|----|------|-----------|----------|----------|--------|-------|-------|-------|
| | |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1 | 다낭 | 0.93 | 0.96 | 0.93 | 0.9407 | 1 | 1 | 1 |
| 2 | 호치민시 | 0.58 | 0.74 | 0.67 | 0.6652 | 3 | 2 | 2 |
| 3 | 하노이 | 0.58 | 0.77 | 0.59 | 0.6473 | 2 | 3 | 3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 'Vietnam ICT Index report 2018'

베트남 북부 광닌성(Quang Ninh) 광옌(Quang Yen)해안경제구역 개발계획

- 주요 내용: 광닌성 20개 행정구역에 걸쳐 1만 3,303ha(4024만 평) 규모, 향후 15년 동안 3단계로 개발*
 - * 우옹비시 5개 프영(phuong, 동 단위)과 광옌시(xa, 면 단위) 8개 프영에 6,403.7ha(1,937만 평) 규모의 주거산업복합구역 및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광옌시 7개 프영에 6,899.3ha(2,087만 평) 규모의 항만서비스구역 및 도시구역이 조성
- 기대효과: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목적경제구역으로 개발, 홍강(Hong River) 삼각주지역에 산업, 서비스, 항만물류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
 - * 향후 번돈(Van Don), 단부-갓하이(Dinh Vu-Cat Hai), 타이빈(Thai Binh)경제구역 등의 해안경제구역과 연결돼 종합적인 해안경제구역망을 구축할 계획
- 추진계획: (1단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2단계) 2021~2025년 경제 및 기술 인프라를 확충한 뒤
(3단계) 2026~2035년 전체 구역을 스마트시티로 완성

- (한국 역량) 2008년 세계 최초 스마트도시법 제정, 스마트시티 선진국 도약을 위해 세종과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등 각종 정책적 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마련 중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 2019년 10월 대통령 주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의지 표명, 베트남 하노이 등 KOTRA 해외 무역관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협력 전략) ① 주요 도시별 정책에 따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② 한국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한 베트남 기술 전수 및 유관기업 진출/수주 지원

| | 다낭 | 호치민시 | 하노이 |
|-------------|---|--|--|
| 도시 면적 | 약 1,284km ² | 약 2,095km ² | 약 1,284km ² |
| 인구 | 106만 명 이상 | 845만 명 이상 | 760만 명 이상 |
|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 | 공공서비스, 오픈데이터, 여행, 커머스, 농업, 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관리, 교육, 헬스케어, 위생 및 식품 안전, 보안 및 응급 서비스, 재난 예방, 교통 등 | 교통, 의료, 식품 안전, 환경, 홍수 예방, 인적 자원, 공공 안전, 전자정부 등* * 미국 상공회의소와 호치민시, 국제금융공사(IFC)는 호치민시의 2군, 9군, Thu Duc District 등을 중심으로 공동 PPP 개발에 착수 | 헬스케어, 교육, 교통, 여행 등*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스미토모(Sumitomo Corp) 종합상사, 미쓰비시(Mitsubishi Heavy Industries)와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 |

자료: 베트남 과학기술부,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e-Government'

한국, 우수 ICT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경험·자원·기업 기술력 보유 → 베트남 국가적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우수 한국기업 진출 지원

- 스마트시티 공동 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 생태계 조성*
* 스마트시티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기업의 서비스 발굴 및 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대표적 IT 선도기업 FPT와 한국 KT 간의 MOU 체결 → 스마트시티 공동 투자 진행
*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정부 예산으로 국내 입찰(베트남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현지 유력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출이 필요
- 스마트시티는 도시, 철도 건설 등의 인프라 개발, 스마트 교육, 헬스케어, 전자정부, 스마트 농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

3-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 협력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0년 6월 25일, 베트남 총리, 91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목록 발표*
* Dispatch No. 795/TTg-CN(Dispatch 795)에 명시된 프로젝트, 베트남의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 수립함. 차후 풍력 에너지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대만, 일본, 한국에 편승하여 아시아의 풍력발전 리더로의 의지 표명
- 양국 공동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신재생에너지 밸리 조성, 스마트 그리드 분야 등 협력 가능
(한) LS산전, LG화학, 큐엔와이에너지, KOIC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베) Petro Vietnam Gas, 환경부, 전력공사, 산업무역부 등
- 한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 베트남 풍력, 태양열 발전 사업 진출 증가
* 두산, 한화, 한전 등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 베트남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 협업 사례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수요) 베트남의 전력 소비량은 향후 5년간 평균 8.5~9.5%로 빠르게 증가하여 아세안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 시현함. 2019년 기준 베트남은 수력발전이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다원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중도 확대 중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는 소수력 발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을 포함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집중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 △신용 대출, △법인세·소득세 혜택, △토지이용비 면제, △PPA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려 정책 실시
*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결정서13/2020/QĐ-TTg(2020년 4월 6일)에 따라 지상 태양광발전소 0.0709/kWh, 옥상형 태양열 발전 0.0038/kWh, 수상 태양광 0.0769/kWh FIT 비율 제공,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를 상용화하는 경우에만 신규 FIT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 역량)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주도 중,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신재생발전 관련 부품 산업도 발달함
- 양국 협력 현황
 - (해상풍력 및 ESS 실증단지 협력) 2018년 3월, 두산중공업과 한국남동발전, 베트남 전력공사는 베트남 해상풍력자원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동선정부지에 1기의 해상풍력 및 ESS 실증사업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베트남 공기업과 국내 풍력발전 제작업체의 베트남 해상 풍력 발전 진출 교두보 확보
 - (신재생에너지 협력)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베트남 에너지협회, 2018년 3월 22일 양국 기업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동 협력지원, 제3국 공동진출 상호 협력 및 기업 정보 공유를 위한 MOU 체결,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협력창구 마련 및 시장선점 가속화 토대 마련
 - (한-베트남 국제 신재생 포럼) 2019년 6월 25~27일 3일간,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와 한국 에너지공단은 호치민에서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함.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ESS, 스마트 그리드 등 한국 100여 개, 베트남 300여 개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보유기업이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논의

- (베트남 신재생 정책 설명회) 한전KDN*은 2020년 5월 15일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대사관 무역 대표부 상무관 Pham Khac Tuyen을 초청,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 이에 앞서 2019년 5월, 한전KDN은 베트남지사를 개소하고 베트남 전력공사 EVN 계열사인 베트남 전력정보통신회사 EVNICT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에너지 관련 한-베트남 MOU 체결 현황

| | |
|---|---|
| 에너지효율투자사업 MOU (에너지공단-베 산업무역부) | (내용) 한-베트남 간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의의) 한-베트남 간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 해상풍력·ESS 실증단지 협력 MOU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베 전력공사) | (내용) 베트남 해상풍력자원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동선정부지에 1기의 해상풍력 및 ESS 실증사업 구축 (의의) 발전 공기업과 풍력발전 제작업체의 베트남 해상풍력 발전 진출 교두보 확보 |
| 풍력 프로젝트 협력 MOU (두산중공업-베 CC1*) *Construction Company No. 1 JSC | (내용) 발전소 운영, 정비를 위한 기술 서비스 제공과 사업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의의) 한전KPS의 축적된 발전소 정비기술의 원활한 사업연계를 통한 수주 확대 도모 |
| 전기기능인력 양성·교류 협력 MOU (전기공사협회-베 타이응우옌 대학) | (내용) 전기공사 분야 시공기술 향상 및 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교류, 기술 교류 협조 채널 구축·운영 (의의) 한-베 간 전기공사 분야 협력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교류 촉진 |
|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신재생에너지협회-베 에너지협회) | (내용) 양국 기업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동 협력지원, 제3국 공동 진출 상호협력 및 기업정보 공유 (의의)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협력창구 마련 및 시장선점 가속화 토대 마련 |

<한국 회사 참여 태양열·풍력 발전 주요 프로젝트>

| 종류 | 프로젝트명 | 회사명 | 지역 | 발전용량 | 예산 | 현황 |
|------|------------|---|-----|-------|-----------------|-------------------------|
| 태양열 | 감람 태양열발전소 | 한화에너지 Long Thanh Golf Investment & Trading JSC Kosia E&C CAM LAM VN | 카잉화 | 100MW | 9,895만 달러 | 2019년 6월 완공, 운영 중 |
| | 롱안 태양열발전소 | 한화 에너지 BCG Bang Duong | 타잉화 | 100MW | 1억 달러 | 2019년 6월 완공, 운영 중 |
| 풍력발전 | 짜빈 풍력발전단지 | 투자 ST 인터내셔널(한국) 터빈 :Vestas (EPC) (덴마크) Tra Vinh Power Company(베트남) | 짜빈 | 48MW | 1억 2천만 달러 | 2020년 9월 완공 예정 |
| | 빈투언 해상풍력단지 | 두산 중공업 (풍력 터빈, 저장 시스템, EPC공급) 한국 남동발전 (한전 KDN 자회사) CC1 EVN | 빈투언 | 105MW | 2억 2,666만 달러 | 2018년 3월 MOU 서명 |

자료: 베트남 에너지협회, 각 회사 공식 사이트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에너지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내용

- 개최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 개최 경과: (1차) 2011년 7월 서울, (2차) 2011년 10월 하노이, (3차) 2012년 3월 서울, (4차) 2013년 11월 켄터, (5차) 2014년 12월 서울, (6차) 2015년 11월 하노이/켄터, (7차) 2016년 12월 서울, (8차) 2018년 2월 호치민, (9차) 2019년 10월 서울
- 참여기관 및 기업
 - (한국) 12개 기관 30여 명 참석(산업부, 한전,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삼성전자, 엘에스엠트론, 동진모터스)
 - (베트남) 4개 기관 26명(산업무역부, 베트남 전력공사, 베트남 석유공사, 주한 베트남 대사관)
- 양국 신재생 사업 관련 협의 내용
 - (재생에너지) 베트남 측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투자 계획에 대해 협의, 베트남 측은 한국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

자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스마트 그리드 및 한-베 신재생 에너지 R&D 센터 조성: 한국의 선진 에너지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 베트남 측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투자 계획과 협의를 통해 한국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적극적 참여

| | 태양광 | 풍력 |
|-------|--|---|
| 시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일광시간이 길고 태양복사량이 230~250 kcal/cm²에 이르는 등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보유 → 중남부지역(닌투언성, 빈투언성)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지역 중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 · 긴 해안(약 3,200km)에 걸쳐 일 년 내내 평균 7~9m/s의 바람이 부는 등 베트남 영토의 8.6%가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유 |
| 협력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센터 조성: 한-베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운영 정례화, 양국 유관기관 간 인적교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연수,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빨리 조성을 통한 베트남 진출 발판 마련 → 스마트 그리드 등 관련 비즈니스 확대 | |

- (유망품목) 신재생에너지 태양열·풍력 발전 관련 부품 등

- 최근 LS전선 베트남 제조법인 LS 비나에서 베트남 태양광 프로젝트에 전력 케이블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타 한국기업들에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부품, 기자재 관련 진출 기회 존재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3월, LS 비나는 베트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 상당의 전력 케이블 공급 예정, 베트남 중부에 건설될 1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에 중·저압 태양광 케이블 공급 예정, 프로젝트 규모는 LS 비나의 2019년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임

3-4. 한-베 농업 기술 협력 및 농산품 교역 활성화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양국 교역량 1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베트남 정부는 우수한 자국 농수산물 제품의 양국 유통망 진입 및 안정적 교역 확대를 희망함
- 양국 기업의 농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동시 참여를 통한 양국 농업 분야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기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수요)** 베트남은 전통적 농업 국가이자 세계 최대 쌀 생산국가
 - 베트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14%로 베트남 경제에의 기여도는 아직까지 큰 편임. 반면, 영세농가가 많아 농업의 기계화 비율은 아직 저조한 편으로 알려짐
 - 베트남 정부고시(Decision1342/QD-TTg)에 따르면, 농업단계별로 토양 준비작업 기계화율(70%)을 제외하면 경작 및 시비 단계, 수확 및 가공 단계의 기계화율은 30% 이하에 불과함.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농업단계별 기계화율을 70~95%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함

〈베트남 농업 단계별 기계화율 목표 설정〉

(단위: %)

| 농업단계별 구분 | 2010년 | 2020년 |
|----------|-------|-------|
| 토양준비 | 70 | 95 |
| 경작 및 시비 | 25 | 70 |
| 수확 | 30 | 70 |
| 가공 | 30 | 80 |

자료: Decision 1342/QD-TTg

- 베트남 기업들은 스마트 농업시설 도입과 하이텍 농장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베트남 주요 대기업들의 하이테크 농업 투자 현황〉

| 회사명 | 주요 투자 내용 |
|------------------------------------|--|
| 마산 MEATLife (Masan그룹 계열 육가공 회사) | 마산그룹 자회사인 Masan MEATLife는 2020년 10월 3일 통안성에 미화 7천 760만 달러 규모로 제2육가공 공장 1기를 완공함. 이 공장은 식품 안전을 위한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최첨단 공장으로서 유럽 전문가가 직접 운영, 감독 및 테스트를 하며 가공육 라인에는 네덜란드 Marel사의 로봇 자동화 육가공 생산기기 3대를 포함,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짐. 이 공장에서는 연간 140만 마리의 돼지를 도축 및 생산하도록 설계됨. 1단계에서는 매년 14만 톤의 가공육과 부속 가공품 1만 5천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2기가 준공 되면 가공육 생산량은 연간 2만 5천 톤으로 증량될 것으로 예상됨 |
| VinEco (Vingroup 계열사) | 베트남 북부 하남성 빈에코 농장은 3,000억 동(약 1,324만 달러)이 투자됐으며, 총 면적 180ha 규모로 준공되어 이스라엘(TAP, NETAFIM), 일본(KUBOTA)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기술자문을 받음. VinEco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우수농산물품질인증(VietGAP, GlobalGAP) 기준을 충족함 VinEco는 자동화 기술, 멤브레인 온실 재배 기술, 수경재배 기술, 한국의 최첨단 자동화 공법을 제휴한 식용버섯 생산기술, 이스라엘의 자동 관개 기술을 보유 및 기술협력 하여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 회사명 | 주요 투자 내용 |
|----------------------------------|---|
| Vinamilk (현지점유율1위 유제품공영기업) | 비나밀크는 베트남 중부 달랏시(Da Lat)에 베트남 최초의 유럽 기준 유기농 우유농장을 오픈함. 프리미엄 식품의 발전 추세에 따라 비나밀크는 달랏시 유기농 우유농장에 2,000억 동을 투자했으며, 네덜란드의 유럽유기농검사기관(Control Union)으로부터 '베트남 첫번째 오가닉 낙농장' 인증을 받음 또한 2019년 6월부터 비나밀크는 라오스의 Xiengkhouang지역에 비나밀크(51%), 라오스 회사와 일본 투자자(49%) 지분을 보유한 Lao-Jagro 자회사를 설립, 5천ha 크기 6,640만 달러 투자 규모로 하이테크 농장을 준공중임. 라오스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 수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 이 농장은 2020년 말 완공될 것으로 알려짐 |
| TH group | 베트남 2위 유제품 기업인 TH group은 북부 타이빈성에 하이테크 농업 투자를 위해 1억 3,640만 달러(3000ha 규모)를 투자함. 이 농장은 유기농 과일·채소 및 고품질 쌀이 생산되며, 모든 제품은 EU의 EC 834-2007 및 EC 889-2008 인증서와 미국의 USDA-NOP 인증서를 준수하는 유기농 인증 및 Global Gap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됨 2020년 9월 21일 중부 고원에 위치한 Kom Tum지역에 미화 1억 9백만 달러를 투자, 하이테크 젖소농장 건설에 착수함. 1차 사업은 60ha의 농장 클러스터 건립이며 2차 사업은 378ha의 젖소 사육 초원으로 구성됨. 추후 농장 클러스터는 이스라엘과 기술 제휴를 통해 최첨단 낙농법으로 약 10만여 마리의 소를 사육할 목표를 세움. TH그룹은 2025년까지 총 40만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것을 목표로 메콩 삼각주에 위치한 An Giang과 북부에 위치한 Cao Bang에서도 하이테크 젖소 농장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 KOTRA 하노이·호치민무역관 종합

○ (한국 역량)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 및 국가적 지원 체계 보유

- 2017년 11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 구축을 목표로 삼음
-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정책 대상을 청년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 거점을 조성 중임
- 또한 과거 1세대(농업 자동화) 및 2세대(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생산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3세대(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 통합 제어) 모델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조건들을 최적화함
-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 또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업 선진국 입지를 공고히 하는 중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협력체계) 양국의 스마트팜 특구 중심으로 기술교류, 양국 농산물 수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한국의 농업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재배환경 최적화 솔루션 등 선진 기술 등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양국 스마트팜 특구에서 생산되는 주력 농수산물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상생형 경제협력 구현

* 한-아세안 FTA 농산물 일반품목(1,086개)은 2012년 이전에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한-베트남 FTA를 통하여 총 122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 (한국) 국내 거점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 개발, 수출연계 해외바이어 상담회 등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팜 관련 R&D 활성화 및 기술 표준화(국가표준 확산 및 국제표준 추진) 사업 또한 추진 중임.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화 모델 개발로 식물공장 등 수출 모델의 다각화 수요도 증가함

- (베트남) 대표적으로 호치민을 중심으로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 Can Gio와 같은 지역에서 407ha 규모의 하이테크 농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2020년까지 최대 570ha까지 확장 계획을 발표함. 또한 최첨단 농기업 인증 기준 마련을 통해 자국 농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독려하고 동시에 주력 생산 농산품의 대(對) 한국 수출 의지 또한 다대하여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 정부의 최첨단(high-tech) 농기업 인증* 기준

- ①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물질기술, 자동화기술 등 최첨단 기술 적용 기업
- ② 최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60% 이상의 수입을 얻는 기업
- ③ 총 수입의 0.5%를 R&D에 배분하고, R&D에 참여하는 고학력자가 총 고용인원의 2.5%를 차지하는 기업
- ④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 등

*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40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재배업(12개 기업), 수산업(19개), 축산업(9개) 부문에서는 40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음

자료: Decision 19/2018/QĐ-TTg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수출유망품목〉

| 품목명 1 | HS Code | 2016.90.96 | 수입관세율(%) | 0~10% |
|-------|--|--|------------------------------|--------|
| | 수입액 (2019년/US\$ 천) | 798,919 |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천) | 29,538 |
| | 선정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는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 시장이 지난 20년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밝힘 -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으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면역강화제 등 소비 증가 | | |
| | 시장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기능성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인구 약 9억 7천만 명 중에 건강기능성식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7%로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17조 1,470억 베트남 동(약 8,319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 |
| | 경쟁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5대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업은 AmwayCorp, Tiens Group Co Ltd, Hau Giang Pharma JSC, Herballife Nutrition Ltd, Korea United Pharmaceutical Inc임 - 주로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주산, 미국산, 중국산, 한국산 등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 - 수입 브랜드 Blackmores, Now, GNC의 인지도가 높은 편 -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기보다 온라인 몰에서 가격비교 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선호,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전자상거래 판매가 유리 | |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KT&G의 홍삼 브랜드인 정관장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음력설에 고급 선물품목으로 사랑받는 제품 중 하나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점유율 8위를 차지함 - 일반 건강식품보다 고급 건강식품 시장을 노리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원산지 표기와 인증은 필수이며 불량 건강식품 단속 강화로 수출 시 통관에 주의 | | |
|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면역강화제 등) Dietary Supplement |  | | |
| 품목명 2 | HS Code | 6211.00.00 | 수입관세율(%) | 0 |
| | 수입액 (2019년/US\$ 천) | 96,261 |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천) | 19,959 |
| | 선정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외출로 인한 홈트레이닝이 인기 증가 - 또한 외출 빈도가 적어지며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 애슬레저웨어, 요가웨어 등의 매출 증가 | | |
| | 시장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베트남 스포츠 의류 매출은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까지 베트남의 스포츠 의류 분야 매출액은 미화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
| | 경쟁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모니터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아디다스(11.6%), 나이키(2.9%), 컨버스(1.9%), 리복(1.8%), 반스(1.3%), 카퍼(1.3%), 푸마(1.1%), 뉴발란 | | |
| | 애슬레저웨어 |  | | |

| | | | | |
|---|---------------------------|---|----------------------------------|--------|
| | | 스(0.9%), 스키퍼스(0.6%), 휠라(0.5%)의 브랜드 점유율을 보임 - Vinh Quang Minh, Hoang Phuc International, Crc Sport Vietnam JSC는 점유율 상위를 차지한 베트남 국내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짐 | | |
| | 진출 방안 | - 베트남의 일반 스포츠웨어 의류 시장은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음. - 베트남에 스포츠웨어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디자인과 가격 모두 경쟁력 있는 여성 요가복, 애슬레저룩 등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 |
| 품목명 3 | HS Code | 3402.20-90 | 수입관세율(%) | 0~10% |
| | 수입액 (2019년/US\$ 천) | 454,109 |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천) | 35,546 |
| | 선정 사유 | -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세탁세제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임 - 베트남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도 순한 세제, 친환경세제 구매를 위해 수입 세제 구입 선호 | | |
| | 시장 동향 | - 2019년 베트남의 세탁케어 제품 판매는 계속해서 건조한 증가세를 보임. 가루형 세제에서 농축 액체 세제 및 섬유유연제, 프리미엄 또는 천연 재료 사용 브랜드 선호도 상승 경향을 보임 - 드럼세탁기 판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액체 형태의 세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
|  | 경쟁 동향 | - Unilever는 베트남에서 Omo(세제)와 Comfort(유연제) 브랜드를 판매하며 해외브랜드 시장점유율 1위. P&G(Procter&Gamble)는 Ariel(세제)과 Downy(유연제)로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유니레버가 인수한 Seventh Generation 유기농 액체 세제가 점유율을 서서히 높이는 중. 타사 제품의 3배가량 비싸지만 주로 고소득 도시 소비자 대상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판매되고 있음 | | |
| 세탁세제 | 진출 방안 | - 유기농, 친환경 등 건강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제품에 주목 - 한국에서 수출된 LG생활건강, 무궁화 등의 세제들은 현지 생산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급 세제로 여겨지며 대형마트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 - P&G, Unilever 등은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설립, 현지브랜드 가격만큼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을 소화하며 판매하고 있음. 한국회사도 완제품 수출보다는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만들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경쟁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만든 제품 패키지에 한국어로 표기, 타 국가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경우가 있음. 고품질, 친환경 세제를 온·오프라인 옴니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권장 | | |
| 품목명 4 | HS Code | 1602.10-90 | 수입관세율(%) | 0% |
| | 수입액 (2019년/US\$ 천) | 42,976 |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천) | 1,536 |
| | 선정 사유 | - 닐슨의 2020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베트남 소비자들의 62%가 가정식을 선호한다고 밝힘 - 간편조리가 가능하나 맛과 풍미를 살린 냉동 및 냉장 간편식(밀키트) 시장이 성장함 | | |
|  | 시장 동향 | - 2019년 간편조리식 분야의 가치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9% 증가함 - 2019년 베트남 즉석식품 시장규모는 약 9,918만 달러로 최근 5년간 (2014~2019년) 연평균 9.7% 성장 (유로모니터) - 도시 거주 소비자의 간편조리식 구매비율이 높음 - 냉동식품은 2019년 한 해 4,300만 달러 매출 기록 | | |
| 간편조리식 | | | | |

| | | | | |
|---|----------------------------|--|-----------------------------------|--------|
| | 경쟁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san(33%), CJ Cau Tre(16%), Minh Trung(6.6%), Halong canned food(6.5%) 등이 시장에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임(2019년 유로 모니터) - 인기 품목은 레토르트 식품, 간편 냉동식품, 냉동 피자, 간편 샐러드, 간편 죽, 냉동 해산물 등이 있음 - 피자의 경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수입된 냉동 피자를 선호하며, 대형 마트에서 약 10만VND에 판매됨 | |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인들은 스프링롤, 딤섬, 베트남식 만두와 같은 즉석식품 구매를 선호함. 한국산 김과 라면류도 인기가 높은 품목임 - 냉장·냉동 간편식 제조 및 유통 기 진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현지 생산업체나 외식사업체와 B2B를 추진하여 생산 및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혹은 외투기업의 외식사업체와의 B2B 사업 추진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검토 가능 | | |
| 품목명 5 | HS Code | 8516.60 | 수입관세율(%) | 13~22% |
| | 수입액 (2019년/US\$ 천만) | 193,734 |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천만) | 7,991 |
|  <p>조리용 소형 가전제품</p> | 선정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82% 소비자가 외식을 줄인 것으로 알려짐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한 식생활은 예전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가정 조리용 소형가전, 제빵도구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
| | 시장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베트남의 주방가전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총 360만 대에 도달 -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 2019년 9%의 성장률을 보이며 총 1만 8,000대가 판매됨 - 판매 상위 품목은 밥솥> 전기주전자> 커피머신> 에어프라이어 등임 - 특히 최근 2년간 에어프라이어와 커피머신의 매출이 급증 | | |
| | 경쟁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소형 주방가전 시장은 일본산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Toshiba, Panasonic, Sharp 등의 브랜드와 Electrolux, Phillips 제품이 주로 판매되며 베트남 현지 제품들 역시 저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음 - 샤오미는 중간 가격대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밥솥으로 유명한 Cuckoo는 블렌더와 에어프라이어 등 다른 주방용 소형가전을 베트남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중임 -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LG, 휴롬, 코웨이, 쿠첸, 쿠쿠 등이 베트남 진출 | |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중임 - 인기 브랜드들은 브랜드 소매점을 온라인으로 옮겨 주요 쇼핑몰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며 옴니채널을 운영 중임 - 또한 샤오미는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소형가전을 잇따라 출시해서 시장 진입에 성공함. 휴대폰과 연동되어 조리 및 영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스마트 조리도구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 |

| 품목명 1 | | |
|--|--------------|--|
|  <p>냉장유통 및 물류 서비스 (Cold Chain System)</p> | <p>선정 사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체의 중소도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냉장유통 시스템(cold supply chain) 활용과 발전 가능성 증대 - 수입 농·수산물 수출입 규모 증가로 인한 냉장 유통 물류 업체 성장 기회 |
| | <p>시장 동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고품질식품사업협회(HVLCLC)에 따르면 최근 유통기업들이 농촌 지역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 Saigon Co.Op(SGC) 또한 2019년 말까지 소도시 에 일용 소비재(FMCG)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Co.Op 마트를 지방 으로 확대하고 있음 -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진출은 냉장유통 시스템 수요와 발전 가능성을 키 우는 데 기여함 지방의 소형 마트 및 편의점의 점포 수는 2017년 1,334 개에서 2020년 3월 5,228개로 대폭 증가함 |
| | <p>경쟁 동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A Cool Trans, Quang Minh, Duc Tan, Thang Long, Transimex, Hoang Lai 등의 국내기업이 있으며, Emergent Cold, FM Logistic, Konoike Vina, CLK Cold Storag, Sagawa Express 등의 해외기업이 상 위 유통 및 냉장유통 시장을 점유 |
| | <p>진출 방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 컨설팅의 201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과일·채소·육류·수산 물의 수확·보관·운반·생산·처리 과정에서의 손실률은 평균 25.4%로 동 남아시아 FAO가 정한 기준보다 5.3% 높음. 해외 수출 기준에 맞춘 고품 질의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냉장유통 시스템 확충이 불가피함 - 베트남의 냉장유통 산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유망 진출 분야 중 하 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임. 사업 진출 희망 기 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 물류 및 유통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초기 사업비 용을 낮추어 진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 품목명 2 | | |
|  <p>고급 식료품 편집 배달 서비스 앱 및 음식 배달 플랫폼</p> | <p>선정 사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강화되며 베트남에서는 그랩마트, Chopp 등 식 료품 배달 서비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함 |
| | <p>시장 동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높은 오토바이 운전자 비율로 인해 한화로 1,000원 정도의 음 료수나 저렴한 한 끼 식사(보통 한화 1,000~3,000원)도 거리에 따른 배 송비(보통 500원에서 1,000원)를 내면 주문한 지 10~15분 만에 도착하 는 시스템이 구축 - 베트남의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은 2019년 5,124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12% 성장함 |
| | <p>경쟁 동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pp의 경우 안남 고르메, Meatworks, Shark, 3Sach Food, Farmhill, Saint Honore 등 고급 식료품 소매점을 배달원이 각각 들려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모아 배달하는 온라인 편집숍으로 인기를 모 음. Chopp은 총 100개의 소매 제휴사와 협약을 맺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선 고급 식재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임. - 그랩마트는 현지 대형마트와 소형 식료품점과 제휴를 맺고 그랩 기사를 통해 식료품 및 공산품을 배달하며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

| | | |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중에는 마켓 사이공(Market Saigon)이 고급 식료품 및 식자재 배달 서비스에 진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배달의 민족이 BAEMIN 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배달 사업에 진출함. BAEMIN은 그랩 드라이버처럼 구축된 드라이버망을 통해 식료품 배달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임 -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된 이후에도 바쁜 현대인들의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로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에서는 한국 식료품이 고급으로 여겨지므로 한국산 신선 수산물, 식료품 등을 배달하는 앱 서비스를 진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p>품목명 3</p> | | |
|  <p>약품과 미용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드럭스토어</p> | <p>선정 사유</p> <p>시장 동향</p> <p>경쟁 동향</p> <p>진출 방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가 지속되며 K-뷰티스타일도 동시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 한국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이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한국에서 유행하는 네일 디자인 등은 베트남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림 - 도시지역 가구 위주로 뷰티 관련 비필수재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제약 분야 및 의약품 유통 사업 또한 유망해짐 - 약국 및 화장품 체인의 소매시장점유율은 21%에 달함 - 지난 5년간 베트남의 드럭스토어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최고 매출을 달성함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용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의 인기가 베트남에서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대기업들은 앞다퉈 대형 약국 체인을 인수하고 있음 - (베트남 기업) 메디케어가 메콩캐피탈에게 3,180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2021년까지 전국 1천여 개 매장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FTP Pharma는 현지 약국 체인인 Long Chau를 인수, 2021년까지 전국 470개 매장을 오픈할 목표 - (해외 기업) 가디언과 왓슨스가 호치민의 대형 쇼핑몰이나 외국인 주거지역에서 성업 중임. 해외기업들은 베트남처럼 출점 개수를 높이는 전략보다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하여 플래그십 스토어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함 - 코로나19로 인해 제약 및 약국 프랜차이즈 업종은 수익을 보고 있는 분야임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소형 의학 가전제품, 화장품을 모두 취급하는 드럭스토어의 인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한국의 드럭스토어 브랜드는 K-뷰티에 힘입어 플래그십 스토어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p>품목명 4</p> | | |
|  <p>미용서비스 (헤어, 네일)</p> | <p>선정 사유</p> <p>시장 동향</p> <p>경쟁 동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아진 생활수준 덕분에 비필수재 소비, 특히 미용 관련 소비 비중이 높아짐 -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가 지속되며 K-뷰티도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산 화장품은 베트남에 수입되는 해외화장품 시장을 33% 이상 점유하고 있음 - 화장품뿐 아니라 한국 연예인 헤어스타일과 네일 스타일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음 - 베트남에서 가장 큰 헤어숍 체인은 Shin Anh이 있음. 가격도 저렴하며 20대 여성들이 즐겨 찾는 트렌디한 헤어숍으로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함 - 해외 미용실은 일본계> 유럽계> 한국계로 서비스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짐 |

| | | |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미용기업 중에는 ID Hair가 지난 2017년 호치민에 진출, 대형 건물에 한국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디자이너 서비스 가격과 베트남 디자이너 서비스 가격에 차별을 두고 성업 중임 - 하노이에는 다양한 개인 뷰티살롱이 같은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베트남의 미용실 및 헤어숍은 네일아트숍과 마사지숍을 흡인숍으로 두고 함께 운영하여 점포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 한국 미용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서비스 비용 전략을 취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p>품목명 5</p> | | |
|  <p>스마트 관광</p> | 선정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분야의 기업들은 기술 플랫폼을 적극 사용 - 다양한 관광상품을 혁신적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관광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
| | 시장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교화적으로 억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관광을 촉진하며 코로나19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앱을 출시했음 - 스마트 관광 앱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나 안전도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면 고객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 경쟁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oda, Booking, Traveloka 같은 외국회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에 지사를 오픈함 - 모바일 기술력이 좋고 마케팅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국 온라인 여행사들이 베트남 시장의 80%를 장악 중 |
| | 진출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 주도의 4차 산업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ICT 솔루션 제공 등 진출 포인트를 공략 * 하노이, 다낭 등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관리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관광 모형을 연구 중 - 관광 산업의 기술 변화에 주목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 |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엑스포 2022 한국관 참가(상반기/하노이)
 -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 지속 참가를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한국 유명상품 식별 세미나 개최(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한 한국 유명상품의 위조품 단속을 위한 베트남 단속 공무원 대상 모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

□ 베트남 투자 진출 지원

-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하노이/호치민/다낭)
 - 진출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관세, 노무, 세무 등 최신 법령과 적용사례 소개 및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해외취업 지원

- 2021 베트남 하노이 취업박람회(상반기, 하반기/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 청년 구직자 간 현장/화상면접을 통한 1:1 상담회 개최
- 호치민 미니 취업상담회(연간 3회/호치민)
 - 한국 청년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처와 현지 체류 및 국내 구직 청년들 간 1:1 현장 및 화상면접 지원
- 2021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상반기/호치민)
 - 베트남 진출 구입기업 및 한-베 청년 구직자 간 사전 및 현장 매칭을 통한 1:1 상담회 개최

□ 베트남 진출기업 한-베 FTA 활용 지원

- 남부/북부지역 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전략 설명회(호치민, 하노이)
 - 지역별 진출기업 대상 한-베 FTA 활용전략 설명 및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사업 홍보

□ 유망 소비재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 내 'KOTRA 한국상품관' 입점 지원(호치민)
 - 협업플랫폼: 사업 추진 시기별로 상이(추후 무역관 별도 문의)
 - 지원내용: 온라인 벤더* 및 입점기업 관리, 한국상품관 지속 홍보
 - * 온라인 등록 벤더를 통한 수출 후 입점 가능

- 사업시기: 연중
- (오프라인) 우수 한국 소비재 오프라인 판촉전 개최(호치민)
 - 일시: 2021년 하반기
 - 장소: 호치민 1군 백화점 이벤트홀
 - 참가제품: 온라인 판매 중인 소비재에서 프리미엄 제품 선정
 - 참가기업: 50개사(벤더 혹은 플랫폼 협업을 통한 간접 참가)
 - 부대행사: 메이크업 시연회, 서포터 제품 사용법 등 동영상 현장 촬영

□ GVC 재편 대응사업

- 한국-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 시티 로드쇼 개최(다낭)
 -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주요 내용 안내 및 사전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발주처간 1:1 상담회 개최

첨부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주최 |
|-----------|----------|------------|
| 제13차 전당대회 | 2021년 1월 | 베트남 공산당 주최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주최 |
|--------------------------------------|-----------|---------|
| RCEP | 2021년 | 협상 진행 중 |
| 교통법 개정, 마약 금지법 개정, HIV/AIDS 관련 규정 개정 | 2021년 3월 | 국회 |
| 영화법, 검열법, 보험법, 지적재산권, 사이버경찰법 개정 | 2021년 10월 | 국회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주최 |
|-------------------------------------|-----------------------|--|
| 베트남 국제 가구 및 홈 인테리어 전시회(VIFA 2021) | 2021년 3월 10~14일 | Handicraft and Wood Industry Association of Ho Chi Minh City (HAWA) |
| 베트남 뷰티케어 엑스포 | 2021년 3월 17~19일 | ADPEX JSC |
| 베트남 엑스포 2021 | 2021년 4월 14~17일 | 산업무역부 |
| Analytica Vietnam 2021 | 2021년 4월 14~16일 | IMAG GmbH |
| Ledtec Asia 2021 | 2021년 4월 21~23일 | IMAG GmbH |
| Smart City Asia 2021 | 2021년 4월 21~23일 | Exporum Vietnam |
| Vietnam Medi-Pharm 2021 | 2021년 5월 12~15일 | Exporum Vietnam |
| Telefilm 2021/ICTCOMM 2021 | 2021년 6월 10~12일 | Vimedimex Vietnam |
| Automechanika Ho Chi Minh City 2021 | 2021년 6월 30일~7월 2일 | ADPEX JSC |
| Shoes and Leather Vietnam 2021 | 2021년 7월 14~16일 | Yorkers Exhibition Services Vietnam |
| Vietfood and Propack Vietnam 2021 | 2021년 8월 12~14일 | Hien Dat Co., Ltd |
| Vietnamwood and Furnitec 2021 | 2021년 9월 15~18일 | Vinexad |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주최 |
|---|---------------------|---|
| Pharmed and Healthcare 2021 | 2021년 9월 22~25일 | Vinexad |
| VietnamPlas 2021 | 2021년 10월 13~16일 | ADPEX JSC |
| VnPackPrint 2021, VnPrintable 2021, Vietnam International Bakery Equipment Show (VIBS 2021) | 2021년 10월 20~23일 | Vinexad |
| Contech Vietnam 2021 | 2021년 10월 20~23일 | Vinexad |
| Motor Show 2021 | 2021년 10월 27~31일 | Hanoi Advertising and International Fair JSC, Trinton Events(Hong Kong) |

I. 한-베트남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 비전

가. 베트남과의 협력 중요성과 필요성

□ 베트남의 잠재력과 중요성

- 경제·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아세안의 핵심적인 선도국으로 격상
→ ①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2020년) ②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2020~2021년) ③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AAPTC) 의장국 수행(2020년)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및 코로나19발(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분산·이전, 원부자재 공급선 다변화 등 목적으로 China +1, +2 후보지로서 베트남 주목

주요 기업의 글로벌 GVC 베트남 이전 사례

- (LG) 중(中)·한(韓) 거점의 생산기지 일부 베트남으로 이전 → 하이퐁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2,000명 신규 채용)
- (Foxconn) 에어팟 생산 물량 30%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 박장성 내 인도국적 기업 인수
- (폐가트론) 중국에서 하이퐁으로 생산설비 이전, 삼성 스마트폰 펜 등 제조
- (퀄컴) 중국라인 대체 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 신규 공장 및 R&D센터 신설 계획 발표
- (Sharp) 호치민시 인근, 2020년 중 LCD 패널 생산기지 마련 계획
- (Dell·HP) 노트북 생산량의 최대 30%가량을 베트남으로 이전
- (파나소닉) 태국의 냉장고, 세탁 제조설비 베트남으로 이전

○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구축

* EU-베트남 FTA 발효(2020년 8월 1일), 베트남 CPTPP 발효(2019년 1월 14일)

- 중국 남부,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메콩강 유역권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ASEAN 및 EU 등 거대 소비시장의 진출 교두보로서 통상 저변 보유

⇒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으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 베트남 협력 현황〉

| 주요국 |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
|-------------------|--|
| 중국 (1위 교역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1위 교역국(2020년 상반기 총 무역액 545.6억 달러, 전체 교역 규모의 22.7%, 2020년 상반기 기준, 대(對) 중국 수출액 196.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24% ↑, 수입액 349.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2% ↓) · 양랑일권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간 연결 촉진 MOU(베트남-중국 정부) 체결 · 하노이 깻당-하동 간 철도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중국 6억 6,962만 달러, 베트남 1억 9,842달러 투자 규모 20 |

| 주요국 |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남방전력망공사, 중국 전력국제개발 등 베트남 남부 빈투언(Binh huan)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17억 달러 규모, 중국자본 비율이 95% 이상) 2020년 8월 13일, 베트남-중국 경제 및 무역 협력 실무그룹 제9차 비대면 화상회의 공동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용 베트남 유제품 허가권, 중국 수산물 대(對) 베트남 수출을 위한 지위 회복권, 중국 베트남 동당-핑샹 철도 재개건, 베트남산 과일 중국 수출권 등에 대해 협의 |
| 미국 (2위 교역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최대 수출 시장(2020년 상반기 기준 31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4.6% ↑), 전체 수출액의 25.7% 차지 쌍방 국방 협력 촉진 MOU(2011년) 서명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언(2013년), 광산 활동 협력에 관련한 MOU(2013년) 베트남 무역촉진에 관한 MOU 체결(2014년) 국방관계 관련 공동비전성명(JVS) 발표(2015년) 코카콜라, 인텔, 페덱스 등 900개 이상(9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내 프로젝트 진행 베-미국 수교 25주년 기념(1995~2020년), 2020년 8월 25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호치민시 미국 상공회의소와 호치민-미국 비즈니스 정상회의 개최 2020년 8월 25일 미국무역개발청(USTDA)과 호치민시 정보통신부, 약 150만 달러 규모로 ‘스마트 도 이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프로젝트 계약 체결 |
| 일본 (4위 교역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대(對)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수 2위국(신규 사업 84억 3,000만 달러, 기존 사업 추가자본 37억 2,000만 달러, 전년 대비 각각 13.8%, 26.8% 증가) 베트남의 ODA 최대 공여국(매년 평균 15~17억 달러 규모의 ODA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 6일, 일본국제협력단(JICA) 대표, ODA를 통해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발표, 베트남 의료 부문 대출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미화 7억 3,300만 달러 이상 지원 투자보호 및 장려에 관한 협정 체결(2004년)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2006년) 베-일 양자 경제 파트너십 협정(2008년) 일본의 주요 완성차 기업(HONDA, TOYOTA), 전자기업(PANASONIC), 유통기업(AEON) 베트남 진출 JETRO,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대상 일본기업 15개 발표 |
| EU(3위 수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 유럽경제공동체(EEC)-베트남 수교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대 EU* 수출 비중 16.8%로 제3위 수출국, 수입 비중은 7.9%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베트남 커피의 최대 소비국으로 베트남 전체 커피 생산량의 40%, 총 수출액의 38% 점유율을 차지함. EVFTA발효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베트남의 대(對) EU 커피 수출액은 7,6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4.7% 증가 EU 과일 및 채소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25.2% 증가한 1,470만 달러로 연간 6% 증가 2020년 6월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 비준 |

□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현황

**2019년 한-베트남 양국 교역 규모 692억 달러(베트남의 제3위 교역국)
대(對)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1위국(누계 기준, 681억 달러)**

- 1992년 12월 22일,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 한-베 투자 증진 및 보호협정에 서명하는 등 경제협력 활동 시작*
 - * 코참(Korea Chamber of Commerce) 설립, 베트남에 1억 2천만 달러의 차관 제공(1993년)
- 2007년 베트남 WTO 가입 이후, 독자적인 FTA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2014년 12월 한국-베트남 FTA 타결
- 2017년 양국 교역액 600억 달러 돌파, 한-베 수교 25주년 행사 개최
- 2019년 기준, 한국 대(對) 베트남 FDI 1위(677억 달러) 진출 기업 7,000개사 이상

〈한국기업의 대(對)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D 백만,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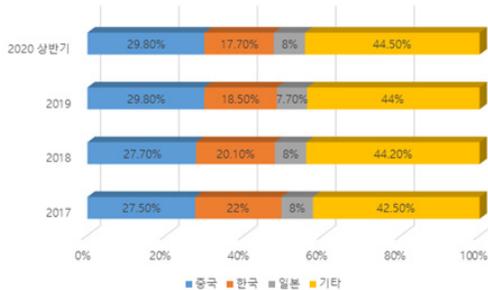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1988년~2019년 12월 누적 |
|---------------------|---------------------|---------------------|---------------------|---------------------|----------------------|
| 6,983.2 (1,029건) | 6,895.8 (1,263건) | 7,801.8 (1,339건) | 5,928.5 (1,446건) | 5,249.0 (1,594건) | 67,707.1 (8,467건)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1988년~2019년 6월 누적 투자액 순(2019년 12월 20일 기준, 소수점 이하 미만 올림)

- 2018년 3월 문 대통령 방문 시, 한-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제의 및 2020년 교역 규모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등 6개 MOU 체결
- 2019년 6월 21일 제1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분야별 이행사항 종합점검
 - * 2018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이후 첫 번째로 개최,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 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 2020년 7월 8일 제1차 베·한 전략대화 하노이 개최*
 -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외교아카데미(DAV)와 공동 주관, 양국 외교 대표 및 주요 인사 25여 명 참석, 미-중 관계, 경제 전망 및 코로나19 협력, 다자 간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조율과 기여를 위해 양국이 실행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에 대해 논의

〈한국-베트남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 베트남 상위 3위 수입국의 수입액 비중 추이



- 최근 3개년 국가별 대(對) 베트남 수입액 비중을 보면,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를 차지
- 2019년 기준, 중국 755억 달러, 한국 469억 달러, 일본 195억 달러
- 2018~2019년 증감률로 비교 시, 중국 약 15.2%, 일본 2.5%, 한국 -1.4% 순으로 수입액 증감
- 한국의 수입액 비중 추이: 2016년 18.4%, 2017년 22.0%, 2018년 20.1%, 2019년 상반기(1~6월) 18.6%

○ 베트남의 대(對) 한국 주요 수입품목 기준 주요 수입국별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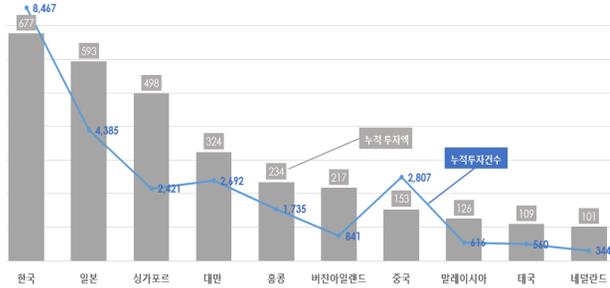
| 순번 | 품목명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1 |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 한국 (29.0) | 중국 (24.5) | 대만 (11.7) | 일본 (8.9) | 미국 (8.4) |
| 2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 중국 (41.4) | 한국 (17.5) | 일본 (12.9) | 독일 (4.0) | 대만 (3.6) |
| 3 | 휴대폰 및 그 부분품 | 중국 (50.8) | 한국 (42.2) | 일본 (1.4) | 대만 (1.4) | 홍콩 (0.2) |
| 4 | 직물 | 중국 (59.6) | 한국 (14.1) | 대만 (12.3) | 일본 (6.2) | 태국 (2.2) |
| 5 | 철강 | 중국 (34.2) | 일본 (17.3) | 한국 (15.2) | 인도 (12.1) | 대만 (11.3)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국가별 대(對) 베트남 투자 비중 및 한국의 산업별 투자 동향

〈1988년 1월 1일~2019년 12월 20일
국가별 대(對)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억, 건)



〈2020년 6월 누계 한국의 대(對) 베트남
산업별 투자 비중〉

(단위: US\$ 백만, %)

| 산업 | 금액(USD) | 비율(%) |
|-----------|----------|-------|
| 제조, 가공 | 50,103.2 | 74 |
| 부동산 경영 | 8,734.2 | 12.9 |
| 건설 | 2,843.6 | 4.2 |
| 도소매, 유지보수 | 4,354.1 | 2.0 |
| 물류운수 | 1,083.3 | 1.6 |
| 기타 | 3,588.4 | 5.3 |
| 총액 | 67,707.1 | 100% |

자료: 기획투자부(MPI)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2019년 기준 한국이 1위 투자국(20.8%)*, 뒤를 이어 홍콩(18%), 싱가포르(11.2%) 순
- * 2019년 신규 투자 금액은 제조업(63%)이 1위, 건설·부동산 (17%) 2위, 유통업 (13%) 3위 순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 약 9,000개사(2020년 2월)

- 한국의 대(對) 베트남 직접투자(누적금액 약 677억 달러**)도 제조업분야에 집중(삼성을 중심으로 벤더 클러스터 조성, 섬유·신발 등 제조 확대)

** 1988년~2020년 상반기(6월 20일) 누계 기준, 전체 투자 비중은 제조업(74.4%)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경영(12.2%), 건설 (4.1%), 도소매 유지보수 (2.1%), 물류운수(1.7%) 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시장의 변화와 기회〉

○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아세안은 역내 통합,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개선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



- 1986년 베트남 정부의 **도이머이(Doi moi)** 개방정책 이후 **시장통합 가속화**
- **베트남 정부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 가치사슬에 합류, **교역대상국 다변화**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가입(1995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가입 (199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2018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2019년 1월)
- 최근 가입한 CPTPP의 규모는 베트남 총 GDP의 12.5% 차지, 총 교역액의 15% 이상으로 **5억 인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



- ASEAN 차원에서 타결한 FTA(인도, 호주/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단독 체결한 FTA(AEC, 일본, 칠레, 한국, EAEU, EU) 등이 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진행 중,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2020년 8월 발효**, 베트남은 10년, EU는 7년에 걸쳐 상대국 재화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계획(EU: 발효 즉시 70.3%관세 철폐, 7년 안에 99.7% 철폐)
- 최근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베트남 2019년 1월 14일 발효)**, 협상 진행 중인 **RCEP가 있음**



- 2019년 IMF 기준 아세안의 경제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에 이어 5위에 등극했으며, 그 뒤로 영국, 프랑스, 인도 순으로 차지
- 2019년 베트남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70%가 35세 미만
- 중산층 증가로 인해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인해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가 확산** 중

- 중산층 증가로 소비성향 서구화·고급화

- 대도시화로 인한 소규모 가족 형태 증대, 높은 자녀교육열, 음식 소비패턴 변화, 중산층을 중심으로 미국형 쇼핑 스타일 유행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급증**(2015년 40.7억 달러, 2016년 50억 달러, 2017년 62억 달러, 2018년 80억 달러, 2019년 150억 달러로 지난 5개년간 연평균 29.8% 이상 급성장)

- 대한(對韓) 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협력 수요 증대

-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 수요가 높음**(플랜트 프로젝트, 전략물자, G2G, KSP 등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
-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4대 교역 파트너**로, 2019년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22.2%), 평판 디스플레이(16.4%), 무선통신기기(6.0%), 전자부품(4.6%), 석유화학제품(4.6%) 등
-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진출 기업이 확대 중으로, 2019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9,0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삼성, LG를 중심으로 한 협력기업 클러스터 조성)
- 박항서 신드롬, K-POP,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재 및 콘텐츠** 시장 다변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높은 무역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공동체 단위의 무역 블록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FTA, RCEP, CPTPP, EVFTA 등 **협정 참여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대(對) 동남아 투자 확대 예상

- 세계 GDP 성장률(3.5%)을 웃도는 **아세안의 높은 경제성장률**(4.8%), 2019년 아세안의 명목 GDP 규모는 3조 1,117억 달러로 **세계 5위 경제권**에 등극하는 등 높아지는 동남아의 위상으로 제조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
-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면적 및 인구 규모 면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3개 국가로 **비즈니스 환경은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우수**(2019년 비즈니스 환경 순위: 베트남 69위, 인도네시아 73위, 미얀마 171위)
- **한국의 아세안 투자 규모는 2017년 53억 달러 → 2019년 95억 달러로 3개년간 연평균 21.47% 증가했으며** 제조·유통·금융 분야에서 투자 강세를 보이고 있음(Asean Investment Report 2019)

나. 한-베 상생협력 미래 비전 도출



□ 베트남, 차기 10개년 중장기 비전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수립 준비 →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의 구상에 관한 총리령(18/CT/TTg)’ 발표

〈베트남의 협력 수요 산업〉

| 산업 | |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
|----------|---------|--|
| 자동차·전자부품 | 농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 있는 FDI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육성, 첨단산업 투자유치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메콩강 삼각주 인프라 개발 등, PPP 활성화 |
| 금융 | 에너지·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분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스타트업, 전자정부, AI, 스마트시티 |
| ICT | 4차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발전을 위한 베트남 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기술교육, ITC 인력 개발 ◆ 제조역량 공유(투자유치-수출연계) |

〈베트남의 권역별 협력 수요〉

| 권역 | 내용 |
|----------|--|
| 아시아 /태평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타결 협상 중 · 아시아 3개국 한·중·일 및 신흥국 인도·필리핀과의 교역 강화 · 라오스와의 광산·에너지 협력 강화 · 홍콩-베트남 FTA 2019년 6월 발효 |
| 북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 · 캐나다와의 교육·과학기술·교역 강화 · 멕시코와의 농업, 금융 협력 확대 · CPTPP(2019년 1월 발효) 기존 FTA 미체결국인 캐나다로의 수출 확대 기대 |
| 남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와의 무역 강화 · 베트남-MERCOSUR 간 무역 확대 · CPTPP(2019년 1월 발효) 기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페루로의 수출 확대 기대 |
| 유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발효(2020년 8월 1일)로 무역규모 확대 기대, 세계은행 EVFTA 체결 통해 2030년까지 GDP 2.4%, 수출 12% 증가 전망 · 독일과의 과학기술·스타트업 협력 · 체코와의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 네덜란드와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농·축산업 파트너십 강화 |

□ 한국-베트남,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서 협력 관계 구축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 최초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 구축 국가로,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FTA, 전자정부, 보건의료,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인프라, 환경, 금융, 농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됨

〈베트남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 협력 우선 산업 | | 구체적인 역량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식품 및 가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9 6년 연속 1위 ◆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한류 등 |
| 소비재 | 기계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UIN전자정부지수 2위(2020년) |
| 전자기기 | 보건·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전문인력 /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자 비율 약 68% |
| ICT | 에너지/인프라 | |

□ 한국, 신남방 정책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국 정부, 지난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추진**
 - 신남방특위,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신남방 정책을 한 단계 발전 필요 역설(2020년 5월)**
 -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적 대화와 교류 지속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20년 9월)〉

역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무역을 촉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한-메콩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위한 신속 통로 제도화 제안

〈제2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 대화(20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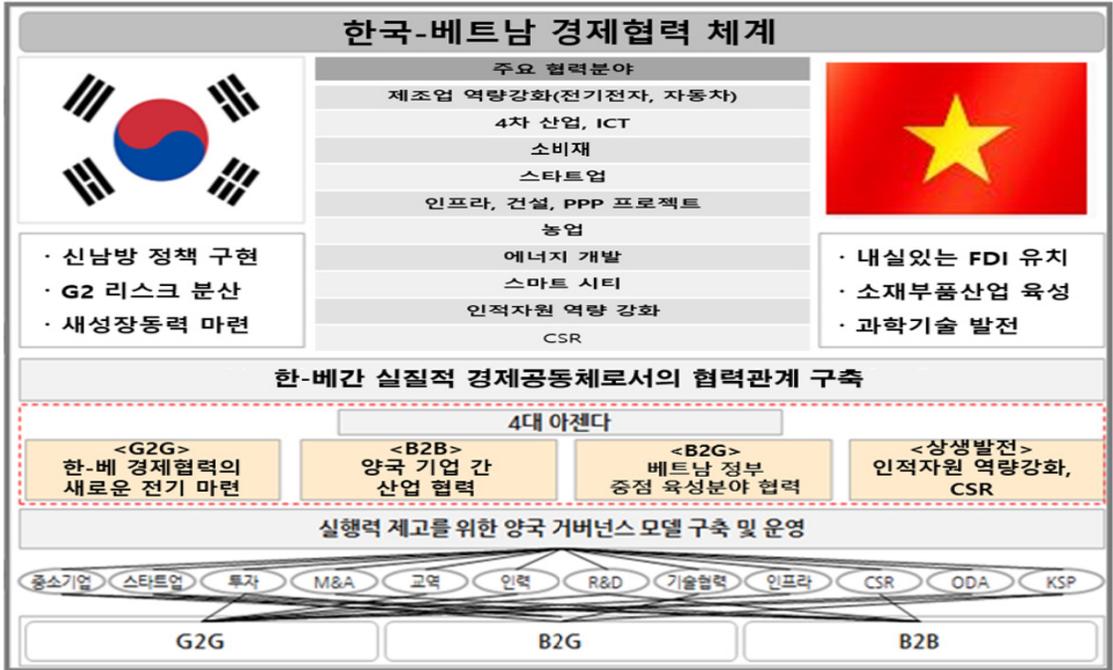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와 미-중 양대 강국의 경쟁국면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 관계 강화와 탄력적인 지역공급망 구축이 필요, 신남방정책 강화 필요성 강조

- 2020년 11월 아세안+3 회담에서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선포와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고도화 계획**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폭 총리 및 판민빈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하여 코로나19 이후 양국 고위급 간 대면 첫 교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베트남 관계와 신남방정책의 발전 계기가 되기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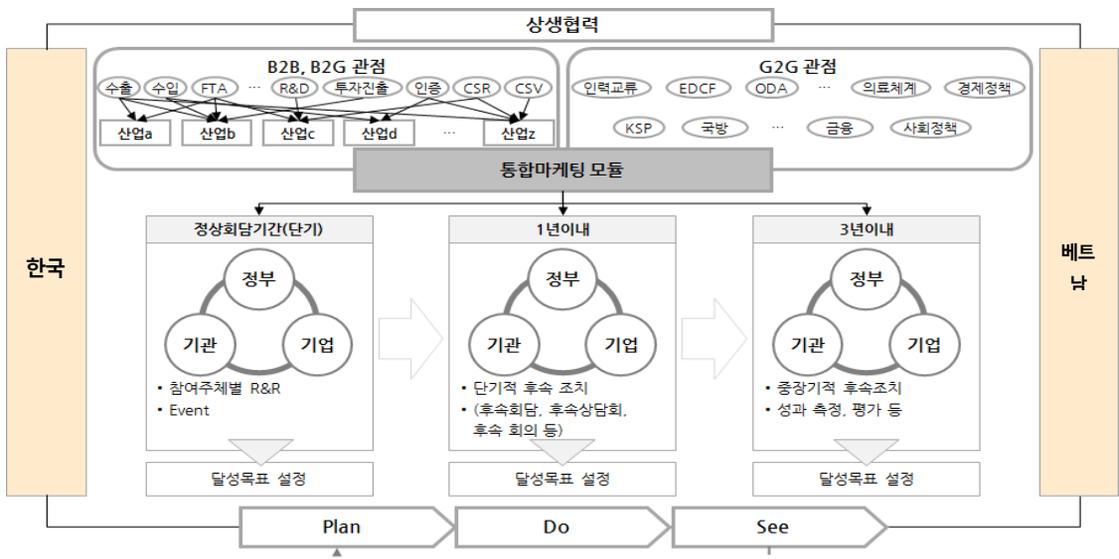
□ 한-베트남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구 하는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 대상분만 아니라 그 분야와 방식의 다양 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간 경제협력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 분야는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한-베트남 양국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한 단기-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행필요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 방안

가. [G2G] 한-베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한-베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협력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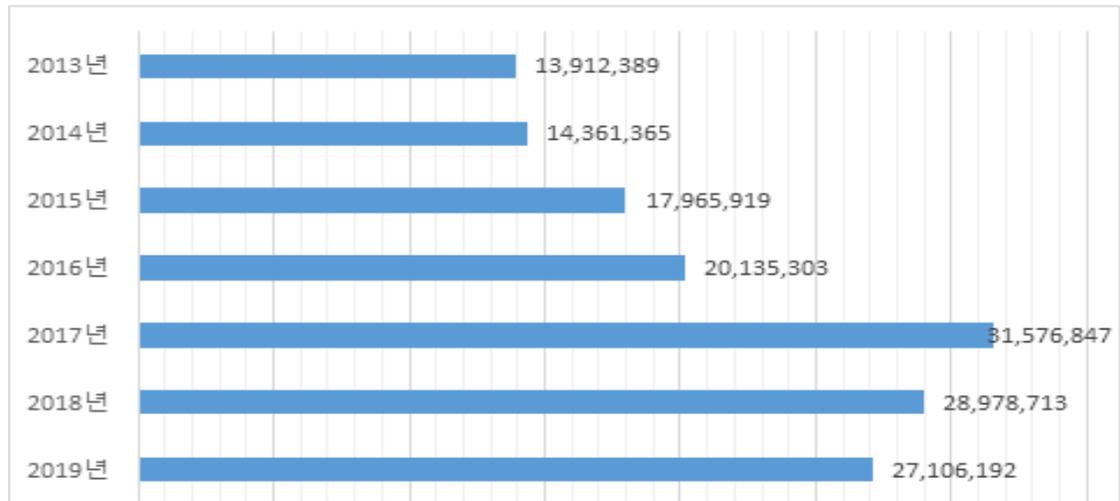
① 양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및 협정 고도화

- (정책 수요) 한-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증진 논의, 베트남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통한 양국 교역 규모 확대 필요성 증대

* 2009년 48억 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2019년 271억 달러로 확대되어 5배 이상 증가

〈베트남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액 동향〉

(단위: USD 천)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 (기업 수요) 한국기업, 양국 간 우선 협력분야로 '교역 확대'를 1위로 선정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한국(212개사) | 교역 확대(20.5%) | 투자 진출(14.6%) | 기술협력 및 이전(13.2%) |

- 또한 직간접 수입규제, 관세 인하(및 철폐)등 또한 양국 거래* 시 해결이 필요한 애로사항으로 선정 (2순위)

*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

- (협력 방안 ①) 베트남의 전통적 강제 산업 경험을 통한 '육성 - 수출 - 수입 - 교역 확대' 선순환 구조 구축

- 베트남의 경쟁력 있는 1, 2차 산업에 대한 한국의 첨단기술지원으로 베트남의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 → 베트남의 기업의 교역활동 참여 비중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 (세부 방안) 한국 첨단기술(재배 및 가공 기술) 전수 → 베트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 제고 → 베트남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대(對) 한국 수출 확대 → 베트남 무역수지 개선, 양국 교역규모 증가

〈주요 협력사례〉

-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개선을 통한 한-베 수산 경험 강화사업**
 - (배경) 베트남은 풍부한 수산물 잠재력을 보유, 그러나 수산양식은 자금력, 기술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
 - (협력 방안)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베트남에 한국 수산분야 우수 기술을 전수하고 유관기업 진출을 확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 증진에 기여 →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상생 경제협력' 실행**
 - 베트남 수산분야 안전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활동 수행
 - 수산양식 분야 어병 관리의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 수행
 - 수산물 안전성 관리 분야 전문가 초청 및 교육
 - (참여주체) [베] 베트남 수산물 수출협회, 농업농촌부, 지방정부 등
[한] 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무역협회, 대학, 기업 등
- **한국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베트남 정보 확산 사업**
 - (배경)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식품안전에 위협, 대(對) 한국 수출 농산품의 농약부적합 건수 상당 → **베트남산 농산물의 농약안전성을 강화해 대(對) 한국 수출 진입장벽 완화 및 대한민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무역 불균형 완화**
 - (협력 방안)
 - 현지 공무원 및 기업대상 PLS 제도 홍보 및 상담회 개최
 - 식품위생법, 농약관리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도출
 - (참여주체) [베] 농업농촌부, 식품안전국 등
[한]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유관기업 등

- (협력 방안 ②) **한-베 FTA 이행위를 통해 베-EU FTA에 준하는 수출세 양허가능성 검토 및 체결 추진**
 - 베트남은 자국 천연자원 보호 및 대외유출 방지를 위한 광물, 목재, 철강 및 기타 금속 등 469개 품목에 대해 1~40% 수출세 부과* → **양국 임가공 산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베-한 수탁 가공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
 - 2020년 8월 1일 발효된 베-EU FTA에서는 수출세 양허**가 규정되어 있음
 - ** 수출세 양허 유형은 일정기간 동안 수출세 균등 철폐 및 FTA 발효 일정기간 동안 수출세를 유지하고 특정 발효연도 이후 철폐로 규정

한국-EU-CPTPP FTA의 수출세 규정 여부 비교

- CPTPP의 회원국이자 베트남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CPTPP를 통한 수출세 양허 적용
- 베트남의 타 국가와의 FTA 및 다자 무역협정 사례를 들어 해당 규정 수준에 준하는 수출세 양허 적용 가능성 타진 필요

| 구분 | 규정근거 | 발효일 |
|--|--|------------------|
|  한-베 FTA | · 없음 ⇨ 당사국은 부속서 2-가 양허포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 인하 또는 철폐한다. | 2015년 12월 20일 |

| | | |
|---|--|-----------------|
|  베-EU FTA | · 협정문 Chapter 2의 Appendix 2-A-3 ⇒ “양국 간 수출세, 세금, 기타 비용은 유지 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 2020년 8월 1일 |
|  CPTPP | · 시행령 57/2019/ND-CP ⇒ “CPTPP 협정에 의거 특혜수출세율이 국가별 적용된다.” | 2019년 1월 14일 |

– (기대효과) **철강, 플라스틱 등 수출세 부과 품목군의 양국 임가공 산업 교역규모 활성화**

- 베트남 진출한 한국기업의 많은 경우 제조시설 투자 진출을 통해 한국에서 1차로 고도의 기술 처리 공정 후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 및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1)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 시 발생하는 스크랩 및 웨이스트를 한국으로 수출해 2) 고순도의 철강 및 금속제품을 재가공하여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순환구조를 가짐
-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양허를 통해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군(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해 양국 임가공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② 한-베 투자 진출 협력

- (정책 수요) 베트남, 내실 있는 FDI 유치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외국인 투자 중장기 정책 방향 의결’ 채택(2019년 8월 20일)
 - 특히, **국토 균형발전 및 제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FDI 관리와 국가 산업발전에 어려움
 -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필요성 대두**

2030년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체제 마련 로드맵(Resolution No.50-NQ/TW)

- FDI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그러나 FDI 유치, 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 봉착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국가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및 해결방안 제시**

◆ **중장기 목표**

- 2021년까지 ASEAN 국가 중 4위, 2030년 이전까지 ASEAN 국가 중 3위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세부 정책과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및 정책 완성 ·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 투자자 책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관리 및 감독 기관 확립 ·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 방안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효율적 국가 관리 방안 |
|---|---|

- (시장 수요) 과거 한국 진출기업들은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이 컸으나 최근에는 기초 산업 인프라 부재 및 부품소재 조달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큰 어려움*

* 2018년 KOTRA의 ‘베트남 투자기업 경영실태 설문’ 응답 중 인프라 부족(42.6%), 정보 부족(31.9%), 현지협력선 발굴 어려움(8.5%)을 애로사항으로 꼽음

- (한국 역량) 국가산업단지 및 지역별 특화산업 조성(혁신클러스터), 각종 에너지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노하우 보유

한국의 지역별, 분야별 관리 시스템 운용 현황

- 전국 16개 시·도에 3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개발운영으로 클러스터화
- 건설 산업, 부품소재산업, IT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전 분야에서 분야별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 제조산업 연관 기타 인프라에 대한 완벽한 구축망 조성 및 운용

○ (협력 방안 ①)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한국 진출기업 기반 마련 → 글로벌 GVC 재편을 대비한 베트남 생산거점 확보에 선제적 대응

- LH,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주요 경쟁국(싱가포르, 일본 등) 주도의 베트남 산업단지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

* 407만㎡(123만평)의 개발계획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인

- (베 정부) 베트남 주요 지역에 한-베 경제협력단지 조성 적극 협력 → 인허가, 입주관련 행정처리 등 기본적인 입주 관련 실무 지원
- (한국 정부) 생산거점 활용 극대화를 위한 현지 마케팅, 공급선 조사, 시장조사 부문 관련 LH, KOTRA 등 현지 진출 기관과 협업

○ (협력 방안 ②) 베트남 정부 개발 정책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진행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 주요 내용: 흥옌성 산업도시 중 클린산단·산단1구역을 한-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로 조성, 현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기대효과: 한-베트남 경협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되며,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 여건도 우수





자료 : 경제외교활용포털

〈세부 협력 방안〉

○ 지역별 한-베 민관 공동투자 방안

| 지역 | 베트남 정부 목표 | 유망협력사업(우선순위) | 주관기관 |
|------|---|--|---|
| 북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권역 확대조성 ·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화 · 국가 기술센터 조성 · 경제특구 활성화 · 지역 간 접근성 개선 · 폐기물 처리 개선 | ① 전기/전자, 자동차 특화 전용공단 조성 - 한-베 양국 기업 기술협력 공동 생산 | (한) KOTRA, 산업단지공단 (베) 기획투자부 공단관리국, 지방성정부 |
| | | ② 산업용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사업 - 북부지역 진출 한국기업 산업용 가스 사용 확대, 민간 수준에서 탱크 운용 | (한)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베) 석유가스공사 |
| | | ③ 산업용 폐기물 재처리 시설 건설 - 다량의 산업폐기물 재처리 기술 및 설비 부족, 한국기업 처리비용 상승 | (한) 환경공단, 폐기물협회 (베) 도시환경공단, 지방성 환경국 |
| 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역량 강화 · 중부 항만인프라확충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하이테크 산업 유치 · 식품가공업 투자유치 · 경제특구 인근 지역 개발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 · 스마트시티 조성 | ① 소프트웨어 개발 전용센터 건립 - 한-베 기업 전용센터 조성으로 한국 기업 투자 진출, IT,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및 수출 |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베) 정통부, 소프트웨어협회 |
| | | ②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센터 설립 - 중부지역 내 다수의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행, 관련사 진출 수요 증가 | (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에너지 기술연구원 (베) 에너지연구원, 지방성 정부, 상공부 |
| | | ③ 다낭시 항만 확장 사업 - Lien Chieu 항구 물류량 개선을 위한 확장 및 물류창고 건설 투자 | (한) 인천항만공사, 국토교통부 (베) 항만/물류공사, 다낭시 교통국 |
| 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접근성 개선 · 소프트웨어 산업 강화 · 교통인프라 확충 · 전력프로젝트 투자 · 식품가공업 투자유치 · 산업인프라 개선 | ① 식품가공 전용 산업단지 조성 - 선진화된 한국 식품가공기업 진출, 수출 전용 단지 조성 | (한)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산업단지공단, KOTRA (베) 농업부, 보건부, 식품산업협회, 지방성정부 |
| | | ② 복합화력발전소 건설(PPP 사업) - PPP법 시행령 발표로, 민간개발사업 수요 확대 | (한)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베) 전력공사, 상공부, 기획투자부 |
| | | ③ 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섬유, 식품, 가전사업 등 스팀사용 증대 중이나, 중앙관리 시스템 부재 | (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베) 공단관리국, 에너지 연구원, 상공부 에너지 관리국 |
| 추진방안 | 단계 | 세부 내용 | |
| | 1단계 | ① 제조산업 ② 인프라 산업 ③ 기타산업으로 구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베트남 상공부/재무부/정보통신부 + 주요 관련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한-베 민관 공동투자 협의체 구성 | |
| | 2단계 | 최우선 공동개발 사업 선정 및 각 개발주체 간 MOU체결 → 분야별 공동개발 액션플랜 수립 → 개발기금 마련 → 타당성조사(F/S) 공동 진행 및 세부 개발안 마련 → PPP형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별 SPC(특수 목적용 기업) 설립 | |
| 3단계 | 공동사업 관리기구 설립 → 프로젝트 개발 실시 → 프로젝트 완료 및 운영 | | |

○ (협력 방안 ③)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부(공업국) 간 '부품소재산업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협력 MOU 체결

- 이후 KOTRA, KIAT 및 베트남 담당부서인 공업국과 협력기반 마련 → 인증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 사항 지원*(한국 관리시스템 도입)

* 한-베트남 TASK센터 설립 추진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진행
(시스템 개발경험 공유, 인증 기준 표준화, 관리시스템 이전 등)

- **(한국 역량) 한국, KIAT의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 확인서 발급, DB 추출, 현황 파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운영을 통한 통합 관리 노하우 보유**

〈베트남 부품소재기업인증 관리 정보망 구축 필요성〉

| 구분 | 한국 | 베트남 |
|-------------------|--|--|
| 내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제도 | |
| 기본정보 · 신청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연도: 2002년 · 범위: 부품기업(3종), 소재기업(3종), 적용분야 (15종) · 지원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한국은행 대출 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보험료 할인 등 * 지원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절차: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1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연도: 2016년 · 범위: 7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첨단산업, 자동차조립, 섬유, 가죽/신발, 기계, 기타 · 지원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감면, 설비 수입세 면제, 자본금 대출 지원, 오피스 처리비용 대출, 중소기업 특별지원, 토지세 감면 등 * 지원담당기관: 공업국, 재무부, 베트남 중앙은행, 환경자원부 등 · 신청절차: 산업무역부 공업국에 직접제출(처리기간 30일 이상) * 심사기준, 심사방법, 제출 자료 등 불명확 |
| 정보망 활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시점: 2013년 ·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확인 등 모든 절차 진행, DB화, 부품소재산업 부품, 기업별 현황분석자료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시점: 2014년 ·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및 소재기업 안내 등 홍보활용 - 온라인 인허가 진행, 세부정보 추출 불가 - 등록 기업의 기술수준 및 생산능력 평가 불가, DB 활용도 낮음 |

- **(기대효과) 종합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산업 기업 정보 데이터화 가능, 베 정부 및 우리 기업 모두에 효율성 제고**

- 정보 부재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인근지역 이외 소재한 부품·소재 기업 정보발굴에 어려움. **기존의 해외 수입부품 대체를 통한 생산비용 감소**

- **(협력 방안 ④) M&A형태 투자 진출 협력 플랫폼 구축**

- M&A형태의 투자 진출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시장 진출의 진입 장벽을 완화 → 한국기업에 **매물 제공 플랫폼 구축으로 초기비용절감 지원 및 베트남 M&A 시장 정보부족 애로 해소**

- 한국기업에 **한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 허용** →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업의 대(對) 한국기업 투자기회 제공
- 한국 잠재투자기들과 베트남 잠재매물 간의 **네트워킹 포럼 개최**(매각자문사, 베트남 투자공사, 잠재매물 기업)
- **베트남 정부 차원의 절차적 지원**(대주주 변경 시 사업 인허가 내용 변경, 토지사용권 변경 등)
- 신규 사업 공동투자 시 **협력파트너 물색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베트남 M&A 시장의 기회요인〉

| | |
|------|---|
| 정책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경제 내실화를 위해 국영기업을 혁신하고, 민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침 - 2019년 8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93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발표 - 2020년도 말까지 단계적 지분 매각절차 진행 청사진 - 공기업 민영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대정부 보고 의무 부과 - (난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한 유의미한 경영권 확보 어려움, 입찰절차의 까다로움, 공기업 경영진들의 매각의지 불투명 등 |
| 시장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성장 중인 베트남 내 M&A 시장 - 2017년 최초로 거래금액 100억 달러 돌파, 2019년에 70억 달러 예상 - FMCG로 분류되는 소비재(57%)와 부동산(27%)에 주로 집중 - 금융(증권사, 은행)과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인력서비스, 제약 등 적용 분야가 확대 - (난관) 가치평가의 어려움, 회계불투명, 인수 후 경영의 어려움 등 |
| 기회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M&A 시장 내 외국인 투자비율 70% 상회, FDI의 약 22%가 M&A 형태로 진출하며, 베트남 기업인의 개방적인 매각의지가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Top 10 M&A 거래 절반 이상을 태국 기업이 차지했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1년간 전체 거래액의 30%는 한국이 차지* * 주요 거래: SK그룹의 빈그룹 10억 달러 투자, SK그룹의 Masan 그룹 4.7억 달러 투자, 하나금융그룹의 BIDV은행 9억 달러 투자, 한화그룹의 빈그룹 4억 달러 투자 등 |

③ ODA·KSP를 통한 협력

- **(현황)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6~2020년)에 따른 중점 협력분야 집중 지원**

베트남의 중소득국 진입에 따라 '원조'에서 '파트너십' 형성으로 양국 ODA에 대한 초점 이동

- **교통인프라, 환경 및 녹색성장, 기술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지원분야 확대

- **교통정책, 교통인프라 개발 지원**
 - 한국의 검증된 철도/교통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도로교통 개발 시스템을 베트남에 전수, 베트남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에 기여
- **물 관리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전문 의료병원 설립 등을 통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과학기술 분야 및 분야별 민간 고급인력 육성**
 - 혁신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 과학기술 R&D 역량지원을 위한 산·학·연 연계 인프라 지원, 전문 직업학교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등

- 전통적인 프로젝트성 자금 외에도 PPP, 프로그램 차관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

-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분야 소액차관사업(3~5백만 달러) 적극 발굴 → 한국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 **(향후 제언) 2021년 이후 신규 경제개발계획*을 대비한 ODA정책 수립**

- * 2019년 9월 19일, 베 기획투자부장관 주재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유관 부처 합동 포럼 개최
- 베트남 측 발표 내용과 우리 기업의 기술우위 산업 중첩분야를 우선협력과제로 선정 → 원조사업 참여 한국기업들의 Track record 축적 기회 확보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 주요 내용(2019년 9월 19일)

◆ 주요 정책 방향

- 현대적이고 통합된 시장기반 경제로의 전환
-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법적 프레임 워크의 구축, 수정, 시범운영
-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환경 보호 실천

◆ 핵심 과제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기업 중심의 발전 지향, 혁신적인 신규 정책의 파일럿 테스트 실행을 허용, 신규 비즈니스 및 기술(국가관리, 제조, 경영, 사회조직의 디지털화) 모델의 실행화 및 리스크 감수
- 디지털 기술,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한 신규 기술의 응용 확대, 청정에너지, 환경 기술, 생산성 향상, 경제 효율성 증대
-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 핵심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에 초점, 국가혁신센터 및 스타트업 생태계 시스템 개발

◆ KSP 지원 주요 현황



| 연도 | 사업명 | 세부내용 |
|------------|----------------------------------|---|
| 2016년 |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계획 수립 | · 호치민시 교통, 도시철도 현황 분석 및 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 계획 수립 |
| 2016년 | 베트남 고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 베트남의 고형폐기물 정책 및 제도를 활용한 통합폐기물 관리, 박닌, 타이응웬 고형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수립 방안 제시 |
| 2016년 | 베트남의 내생적 효율성 증대방안 | · 한국 경험에 기초한 베트남의 산업 개발 지원정책수립(하노이 북부지역의 전자산업 지원 공단) · 베트남의 민영화 가능한 공공서비스 식별과 민영화 모델 발굴 및 베트남의 공무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
| 2017년 | 베트남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방안 | · 베트남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
| 2020~2021년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 방안 | · 2020년 11월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도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법/제도 정책 및 IT/인프라 구축 경험 전수 |

◆ ODA 지원 주요 현황

| 연도 | 사업명 | 세부내용 |
|-------|--|---|
| 2019년 | 중부지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 · 총 31.9km에 달하는 광남성 소재 탄 니엔 해안도로와 40B번 국도 간 동서 연결도로 건설 및 교량 신설 |
| 2019년 | 케넷 철도 개량사업 | · 베트남 남부 철도 노선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 개량을 통한 철도 운행 효율성 제고 |
| 2019년 | 편반~년짜 도로 건설사업 | · 베트남 남부 호치민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효율 개선을 통하여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도로교통 수요에 대처 |
| 2019년 |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사업 | · 총 288,748km에 달하는 베트남 아스팔트 도로 포장, 인프라의 성능 향상 및 베트남 도로포장 수준 향상 유도 |
| 2019년 | 국제 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 · 개도국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정부, 대학 공동의 한국형 국제협력 선도대학 모델 창출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 기여 |
| 2019년 | 베트남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교육 훈련 지원사업 | · 베트남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실습체계수립, 교육, 교육장 구축, 실습 교보재 제공 및 현지 워크숍 개최 |
| 2019년 | 베트남 디지털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사업 | · 베트남 스마트 한국어 강의실 구축 및 강사 대상 운영 교육, 한국어 E-learning 플랫폼 구축,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
| 2019년 |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 · 53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및 암센터 건립을 통하여 하이퐁시 및 인근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
| 2019년 | 하띤성 독도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 의료진 교육훈련 및 진료과목별 최신 필수 의료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 진료수준 및 효율성 개선 |
| 2019년 | 베트남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 ·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보건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장 달성에 기여 |
| 2019년 | 베트남 병원 스마트콜센터 구축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사업 | · 베트남 병원 스마트콜센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베트남 의료 선진화에 기여 |
| 2018년 |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시범사업 | · 봉따우 지역 대상 연안통합관리 기반 구축 시범사업 실시, 워크숍을 통한 연안관리 및 해양오염 대비 대응 방안 관련 지식 공유 |
| 2018년 |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 · 베트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유통을 위한 사업지원과 우수한 종자 생산,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양국 농업 협력 강화 |
| 2018년 |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 투자정보시스템구축 방안 수립,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및 현지 연수 제공 |
| 2017년 |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 | · 소방방재청으로 차량 및 설비공급, 소방능력대비 전문 교육 훈련 시험 등을 통하여 소방방재청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
| 2017년 |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사업 | · 베트남 공안부에 과학수사센터(현장 증거분석실 및 DNA감식동)를 구축하고, 베트남 공안에 과학 수사 교육 제공 |
| 2017년 | 하이퐁시 산부인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 의료진 교육훈련을 포함한 진료과목별 최신 필수 의료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진료 수준 향상 |
| 2016년 | 틴롱교량 건설사업 | · 남딘성 내 닌코강으로 분리된 동서 지역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및 기존 도로의 효율성 제고, 남딘성 전 지역과 베트남 해안도로 축 연결을 통한 성내 경제 발전, 관광사업 촉진 및 자연재방 역할 수행 |
| 2016년 |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 · 렌강 및 황마이강 하류에 하굿둑 건설 및 양·배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인근 농경지의 염해를 방지하고 용수공급을 확대 |
| 2016년 |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사업 | ·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모델 구축,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활동 |

| 연도 | 사업명 | 세부내용 |
|-------|-----------------------|---|
| 2015년 | 티엔탄 상수도사업 | · 동나이 지역의 산업단지 발달 등으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 2015년 |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국가목표프로그램(NTP, RCC)에 기초한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및 전략개발과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기여 |
| 2015년 |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 강화사업 | · 하노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

자료: www.ksp.go.kr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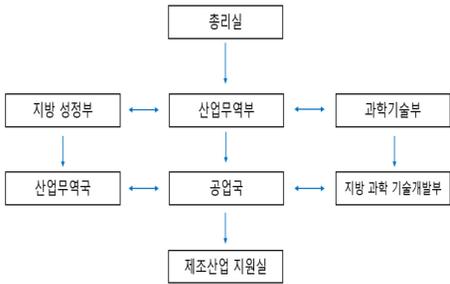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양국 유망 산업 분야의 호혜적 협력 활성화로 한-베 간 새로운 활력 기대

① 제조업 역량 강화(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분야)

- (정책 수요) 베 정부, 베트남 산업 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투자 강화 및 제조 산업의 고도화 도모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주요 육성 정책〉

| 관련산업 부처 기관도 | 주요 정책 | | | | | | | | |
|---|--|-----|----|-------------------------------|---|------------|--|------------------------|--|
|  <pre> graph TD 총리실 --> 산업무역부 총리실 --> 과학기술부 지방성정부 <--> 산업무역부 지방성정부 <--> 과학기술부 산업무역부 <--> 과학기술부 산업무역부 <--> 산업무역국 산업무역부 <--> 공업국 과학기술부 <--> 지방 과학 기술개발부 공업국 <--> 지방 과학 기술개발부 공업국 --> 제조산업 지원실 </pre> |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책명</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td> <td>· 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Đ-TTg를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td> </tr> <tr> <td>Decree 116</td> <td>· 2018년 1월부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 자동차 산업의 국가 핵심 발전산업 육성 의지</td> </tr> <tr> <td>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Decree 111</td> <td>· 2016년 1월부로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7개 부품 소재분야 발전지원정책 발표</td> </tr> </tbody> </table> | 정책명 | 내용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 · 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Đ-TTg를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Decree 116 | · 2018년 1월부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 자동차 산업의 국가 핵심 발전산업 육성 의지 |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Decree 111 | · 2016년 1월부로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7개 부품 소재분야 발전지원정책 발표 |
| 정책명 | 내용 | | | | | | | | |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 · 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Đ-TTg를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 | | | | | | |
| Decree 116 | · 2018년 1월부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 자동차 산업의 국가 핵심 발전산업 육성 의지 | | | | | | | | |
|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Decree 111 | · 2016년 1월부로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7개 부품 소재분야 발전지원정책 발표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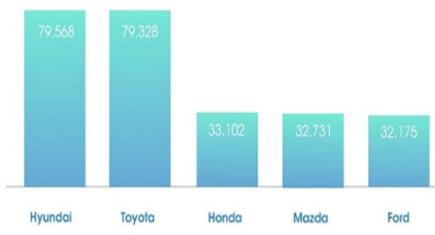
- (시장 수요) 소재부품 분야의 낮은 현지화*, 우리 기업의 대거 진출로 인해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 증가, 우리 기업들 역시 투자 리스크 회피 차원 지분투자를 통한 제조업 진출 확대 추세

* 베트남 자동차 부품사 규모 태국의 1/5 수준, 전기전자 현지화 비율 약 12.5%

〈분야별 시장 수요〉

| 구 분 | 자동차(부품) | 전기전자 |
|----------|--|---|
| 시장 수요 | · 베트남 자동차 제조를 위한 부품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 최근 현대자동차 베트남 협력사(Thanh Cong)와 생산량 10만 대 수준 공장 증설 | ·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전기전자 분야 현지화 비율은 약 12.5%에 불과 · 한국 중소기업을 위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 기술 이전 투자 수요 증대 |
| 한국 진출 현황 | · 2018~2019년 상반기 한국 자동차 부품사 150개사 대거 진출 | · 삼성, LG전자 협력사 약 500개사 진출 |

〈베트남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 구분 | 시장현황 |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 대수 약 41만 9,140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자동차 생산량 100~120만 대 전망 베트남 최대 자동차 제조사 타코(Thaco) 현지화 비율은 승용차 15%, 트럭 35%, 버스 60%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화 비율 약 70% <p>〈2019년 메이커별 자동차 판매량〉 단위 : 만대</p>  <p>자료: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현대 단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부로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조치'(Decree 116) 시행, 2020년 2월 개정령 공포(17/2020/ND-CP) 양국 산업부 장관, 자동차 산업협력 MOU 체결 (2018년 3월) 내수시장 확대 및 ASEAN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확대 추세 현대-단공은 2019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달성, 산학협력 사업과 사회공헌 사업 MOU 체결 <p>〈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투자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페스트) Lux V8등 3개 신(新)모델과 전기버스 생산 계획, 호주에 기술지원센터 설립, 호주·미국 시장 진출 준비 중 (타코) Kia, Mazda, Peugeot 등 7개 브랜드 생산, 20만 대 생산능력 보유, LS엠트론과 합작 기계센터 트랙터 생산·수출 (현대) 닌빈에 제2공장 설립, 연간 생산 15만 대로 확대, 주변 동남아 국가 수출 목표, 현대 모비스 R&D 센터 호치민 산업단지 진출 (미쯔비시) 빈딘성 제2공장 설립 건립 추진, 현지부품 비율 확대 예정 (도요타) 베트남 현지화 부품 비율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전기전자 분야 베트남 수출액 34.4%(1위) 단위: USD 백만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명</th> <th>수출액 및 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전화기 및 그 부분품</td> <td>51,800(19.60%)</td> </tr> <tr> <td>섬유 및 의류제품</td> <td>32,600(12.33%)</td> </tr> <tr> <td>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td> <td>35,600(13.47%)</td> </tr> <tr> <td>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td> <td>18,300(6.92%)</td> </tr> <tr> <td>신발류</td> <td>18,300(6.92%)</td> </tr> <tr> <td>목재 및 목제품</td> <td>10,500(3.97%)</td> </tr> <tr> <td>수산물</td> <td>8,543(3.23%)</td> </tr> <tr> <td>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td> <td>8,505(3.21%)</td> </tr> <tr> <td>카메라 및 그 부분품</td> <td>3,684(1.39%)</td> </tr> <tr> <td>방직사</td> <td>4,176(1.58%)</td> </tr> <tr> <td>기타</td> <td>72,184(27.32%)</td> </tr> <tr> <td>합 계</td> <td>264,189(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삼성전자 베트남 수출액 658억 달러, 전체 수출액의 약 24.9% 베트남 진출 전기, 전자분야 FDI 기업 수는 약 1,500개사 60만 명 고용 2019년 베트남 중앙경제연구소(CIEM)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기·전자 수출은 전 세계 12위, 아세안 3위권 | 품목명 | 수출액 및 비중 | 전화기 및 그 부분품 | 51,800(19.60%) | 섬유 및 의류제품 | 32,600(12.33%) |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 35,600(13.47%)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 18,300(6.92%) | 신발류 | 18,300(6.92%) | 목재 및 목제품 | 10,500(3.97%) | 수산물 | 8,543(3.23%) |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 8,505(3.21%) | 카메라 및 그 부분품 | 3,684(1.39%) | 방직사 | 4,176(1.58%) | 기타 | 72,184(27.32%) | 합 계 | 264,189(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전기·전자분야 기업 진출 확대 추세 전자·정보·통신 기술 분야 베트남 정부 2025~2035 10대 우선 투자 업종 2020년 현재 일부 대형 전자제품 생산 회사는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이전 완료(삼성, LG, 애플, 닌텐도 등) 2020년 6월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일부 완공, 17명의 첫 연구원 6~10월까지 단기 연수 <p>〈주요 전기전자 제조사별 투자 동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젝트명</th> <th>투자금액(USD백만)</th> <th>투자분야</th> <th>투자국가</th> </tr> </thead> <tbody> <tr> <td>UNIVERSAL</td> <td>200</td> <td>PCB, 반도체 부품</td> <td>중국</td> </tr> <tr> <td>WISTRON</td> <td>273</td> <td>컴퓨터 부품</td> <td>대만</td> </tr> <tr> <td>INFOCOMME</td> <td>50</td> <td>서버용 부품</td> <td>대만</td> </tr> <tr> <td>GLOBAL SUN</td> <td>50</td> <td>통신장비 부품</td> <td>홍콩</td> </tr> <tr> <td>CE LINK Vietnam</td> <td>20</td> <td>PCB 부품</td> <td>중국</td> </tr> <tr> <td>TOPBAND SMART</td> <td>20</td> <td>컴퓨터 부품</td> <td>중국</td> </tr> <tr> <td>PEGATRON</td> <td>20</td> <td>통신 장비 부품</td> <td>싱가포르</td> </tr> <tr> <td>ACC TECHNOLOGIES</td> <td>35</td> <td>전자기기 케이스(사출)</td> <td>홍콩</td> </tr> <tr> <td>CHEE YUEN INDUSTRIAL</td> <td>10</td> <td>전자장비 용 금속부품 가공</td> <td>대만</td> </tr> <tr> <td>FASTRONG</td> <td>1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p> | 프로젝트명 | 투자금액(USD백만) | 투자분야 | 투자국가 | UNIVERSAL | 200 | PCB, 반도체 부품 | 중국 | WISTRON | 273 | 컴퓨터 부품 | 대만 | INFOCOMME | 50 | 서버용 부품 | 대만 | GLOBAL SUN | 50 | 통신장비 부품 | 홍콩 | CE LINK Vietnam | 20 | PCB 부품 | 중국 | TOPBAND SMART | 20 | 컴퓨터 부품 | 중국 | PEGATRON | 20 | 통신 장비 부품 | 싱가포르 | ACC TECHNOLOGIES | 35 | 전자기기 케이스(사출) | 홍콩 | CHEE YUEN INDUSTRIAL | 10 | 전자장비 용 금속부품 가공 | 대만 | FASTRONG | 10 | | |
| 품목명 | 수출액 및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기 및 그 부분품 | 51,800(19.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섬유 및 의류제품 | 32,600(12.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 35,600(13.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 18,300(6.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발류 | 18,300(6.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 및 목제품 | 10,500(3.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물 | 8,543(3.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 8,505(3.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메라 및 그 부분품 | 3,684(1.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직사 | 4,176(1.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72,184(27.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64,189(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젝트명 | 투자금액(USD백만) | 투자분야 | 투자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VERSAL | 200 | PCB, 반도체 부품 |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ISTRON | 273 | 컴퓨터 부품 | 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FOCOMME | 50 | 서버용 부품 | 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LOBAL SUN | 50 | 통신장비 부품 | 홍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E LINK Vietnam | 20 | PCB 부품 |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PBAND SMART | 20 | 컴퓨터 부품 |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GATRON | 20 | 통신 장비 부품 |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CC TECHNOLOGIES | 35 | 전자기기 케이스(사출) | 홍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EE YUEN INDUSTRIAL | 10 | 전자장비 용 금속부품 가공 | 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STRONG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 방안) G2G 지원 기반, 양국 기업 중심 협업 모멘텀 조성

〈분야별 세부 협력체계〉

○ 한-베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양국 소재부품 산업 GVC 구축

| 구분 | 협력 프레임 | [G2G] 지원 | [B2B] 1단계 | [B2B] 2단계 | TO BE |
|--------|--|--|---|--|--|
| 자동차 부품 | <p>주요 한국 제조사 중심 베트남 차(車) 시장점유율 확보</p> <p>↓</p> <p>부품, 보수 등 중소업체 진출 분야 기회 확대</p> <p>↓</p> <p>대(對)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 마련</p> | <p>① 공장 증설, 생산 확대 관련 양국 간 규제완화 등 합의</p> <p>② 자동차 분야 공동 연구개발 강화, 기술이전 안전장치 마련</p> | <p>현대, 기아차 시장점유 확대</p> <p>↓</p> <p>한(韓) 자동차부품사 진출 토대 마련</p> | <p>중소 부품업체 베트남 진출</p> <p>↓</p> <p>기술이전 통한 현지기업 생산 플랫폼 공유</p> <p>↓</p> <p>현지화 비용 증대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p> | <p>베 자동차산업 경쟁력 성장 및 한국의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거점 마련</p> |

| 구분 | 협력 프레임 | [G2G] 지원 | [B2B] 1단계 | [B2B] 2단계 | TO BE |
|----------|---|--|---|---|------------------------------------|
| 전기·전자 분야 | <p>한(韓) 전기·전자 기술이전 통한 진출 확대</p> <p>↓</p> <p>(한) 생산단가 절감 (베) 일자리 창출</p> <p>↓</p> <p>베트남의 GVC 거점화</p> | <p>① 고급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이전 정부 간 지원을 통한 GVC 구축 지원</p> <p>② 전기전자 분야 양국 교류협력 MOU 체결</p> | <p>삼성, LG전자 현지화 비율확대</p> <p>↓</p> <p>단순가공 및 부품제조 참여 현지기업 증가</p> | <p>한-베 기업 간 상호 기술, 투자 협력 확대</p> <p>→ 향후 글로벌 기업 납품 1, 2차 협력사로 성장</p> | <p>베트남은 글로벌 전기·전자 산업분야 GVC로 도약</p> |

한-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GVC 구축을 위한 MOU 체결(안)

- ① KOTRA, 베 공업국, 베트남 대기업(잠정: VinGroup) 3자 MOU 체결
- ② KOTRA-베 공업국 공동조사 통해 Vingroup* 부품 현지화 전략 수립
- ③ 베트남 진출 양국 부품사 간 기술협력 통한 생산경쟁력 제고, Vingroup과의 소싱 매칭 사업을 통해 한-베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확대, Vingroup 시장경쟁력 확보

* 계열사 내 자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자동차제조(Vinfast) 및 전자제품제조(Vinsmart) 공장 가동 중

(사례) 삼성전자-베트남 주정부·박닌성 기업지원 MOU 체결

- 삼성전자, 베트남 정부 및 박닌성 인민위원회와 함께 베트남 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2020년 9월)
 - 베트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생산망에 박닌성 주재 베트남 기업의 참여도 증진 목적
 - 박닌성 지역 베트남 기업 혁신 컨설팅 프로그램,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운영*
- *12주간 선발 기업들에 전문 인력 파견, 생산 공정 조사/평가/개선방안 마련
- 2025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이며 코로나19발 GVC 재편에 한-베트남이 유대하여 참여하고자하는 목표로 운영

2 ICT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의지 다대, 2025년까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발표(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 749/QD-TTg)

〈2030년 지향, 2025년까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프로그램〉

- ◆ 디지털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 운영, 기업의 경제활동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함(2020년 6월 3일, 베트남 총리)

○ 2025년까지의 기본 목표

- a) 향상된 효율성과 성능을 가진 디지털 정부의 개발
 - 레벨 4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80%가 휴대폰을 포함한 여러 장치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 정부(Ministrial) 및 성(Province) 단위 서류작업의 90%, 구(District) 단위 서류작업의 80%와 마을 단위 수준의 서류작업의 60%는 전자적 수단으로 처리(국가비밀 관련 작업 서류는 제외)
 - 정부와 총리가 발간하는 보고서 및 사회경제적 통계지표의 100%는 정부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연결, 통합 및 공유
 - 주거, 토지, 사업자 등록, 금융 및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100% 연결 및 공유, 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공 서비스 제공하고, 일회성~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점진적으로 게시
 - 기관에 의한 검토 50%는 감독 기관의 전자적 수단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행
 -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EGDI)에서 상위 70위 달성
- b)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경제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경제가 GDP의 20%를 차지
 - 디지털 경제가 각 부문의 최소 10%를 차지
 - 연간 생산성 7% 이상 증가
 - ICT 개발지수(IDI)에서 상위 50위 달성
 -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상위 50위 달성
 - GI(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상위 35위 달성
- c) 디지털 사회 개발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광섬유 인터넷 인프라 베트남 가구 단위 80% 이상, 최소 행정구역 단위 100% 보급
 - 4G/5G 서비스 및 스마트폰의 전국적 이용
 - 인구의 50% 이상이 온라인 계좌 보유
 - GCI(Global Cybersecurity Index)에서 상위 40위 달성

- **(현지 역량)** 하드웨어 주도의 ICT 산업 구조, 풍부한 젊은 인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성장세
 - 2018년 말 기준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약 4만 개의 기업체가 베트남에서 활동, 전년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수치임
 - 2018년 베트남 ICT 산업 시장규모는 1,029억 달러(전년 대비 12.43% 증가)
 - **(하드웨어)** 2018년 시장규모는 915억 달러로 전체 ICT 산업 시장규모의 89.7% 차지
 - **(소프트웨어)** 2018년 시장규모는 44.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

〈베트남 ICT 산업 부문별 수익 현황〉

(단위: USD 백만)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IT 산업 총 수익 | 60,716 | 67,693 | 91,592 | 102,973 |
| - 하드웨어 | 53,023 | 58,838 | 81,582 | 91,516 |
| - 소프트웨어 | 2,602 | 3,038 | 3,779 | 4,447 |
| - 디지털 콘텐츠 | 638 | 739 | 799 | 825 |
| - 기타 IT 서비스 (도매, 유통부문 제외) | 4,453 | 5,078 | 5,432 | 6,185 |

자료: 2019 White Book

- **(한국 역량)** 저성장 시대 신(新)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주력 → 명실상부 ICT 강국으로서 기술 개발 및 활용 측면 역량 보유
- **(협력 체계)** 양국 ICT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너지 창출 기대 품목 우선협력 분야 선정 →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ICT 분야별 협력방안〉

| 분야 | 참여주체 | 선정 이유 |
|-----------|---|---|
| 5G | 추진방향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통신 기업 및 연구기관 · (세부 방안) 기술제휴-플랫폼 구축, 공동R&D 중심 경험활동 전개 · (참여주체) [한] KT, SK텔레콤 등 통신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베] Viettel, VNPT, FPT 등 주요 통신기업,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정부 부처, 연구소 *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중점 육성분야: 리, 스마트시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안보기술, 환경기술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margin-top: 5px;"> <p>(협력 예시1)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설립 지원: 한국기업의 5G 혁신 플랫폼 활용 → 베트남 국가혁신센터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 콘텐츠 등 다방면 기술협력 및 인력 교류</p> <p>(협력 예시2) 통신설비: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기업이 장악/베트남의 낮은 설비생산능력 → 한국기업과 투자 프로젝트 진행(베: VNPT, Viettel, FPT) → 저비용 고효율 기술개발, 상품화</p>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산업(리), 운송, 의료, 농업,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적용 가능 |
| 스마트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통신기업, 스마트시티 건설기업 · (세부 방안) 한-베 간 스마트시티 공동 G2G 프로젝트 활용 → 스마트시티 솔루션·SW·장비 등 한국 중소·중견기업 진출 · (참여주체) [한] KT, SK텔레콤 등 통신기업, 불보그룹코리아 등 스마트시티 건설 기업/LH공사, KOICA [베] VNPT, Viettel 등 주요 기업 간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밸리 공동 연구 및 사업 진행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margin-top: 5px;"> <p style="text-align: center;">〈KOICA와 베트남 지방정부, '중부지역 스마트시티밸리 프로그램' 업무 협약 체결〉</p> <p>① 후예성: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p> <p>②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지원사업</p> <p>③ 팜남성: 담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p>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요로 첨단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 다대 |
| 전자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수출입은행 · 베트남: 국가 전자정부위원회 · 전자정부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상태, 전자정부 진행 경과(정책 및 시스템), 담당 기관의 거버넌스, 향후 도전과제 등 베트남 전자정부 관련 종합적인 현황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 전자정부 혁신, R&D,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행정 혁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수립 |
| 기업 CSR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SK, KT 등 · 베트남: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 통신기기 구매력이 낮은 지방 소도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급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ICT 발전 의지 및 통신기기 수요 증가 충족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 · 베트남 시장 내에서 한국기업의 신뢰 형성 |

③ 소비재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①) 베 정부, 중소기업지원법(04/2017/QH14) 및 시행령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수출기업 육성 정책 수립**

* 중소기업의 업무공간 지원, 기술 지원, 인력지원 개발, 마케팅 지원, 제조유통망 및 협력사 체인 지원 방안을 포함 베트남 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지원

-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FTA를 활용한 한국으로의 의류 및 섬유, 목재 및 가공 식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기업 지원에 관심

- **(정책 수요 ②) 한국, 5대 유망소비재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지속 모색**

- 신남방 정책에 따른 화장품, 식품 등 해외진출 및 상호 교류 지원

| 조 항 | 정 책 |
|--------------------------------|--|
| 제9조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

- 한국 5대 유망소비재 수출 2022년까지 350억 달러 목표*

* 주요국별 10여 개 '프리미엄 유통망' 선정, 신규 수요 발굴 추진

- **(시장 수요) 한류 및 고품질·프리미엄 이미지로 한국산 소비재 판매량 증가*, 베트남산 과일 등 식품류도 한국 소비자들 대상 인지도 상승 중**

* 2019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규모 2조 7천억 원 중 30% 한국 제품이 차지, 미용, 식품, 문화콘텐츠 상품에 한국 상품 두각 나타내 한국 소비재 상품 베트남 시장점유율은 2년간 5%p 상승: 18%(2017년) → 23%(2018년)

- **(협력 전략) 한-베트남 소비재 수출입 상담회 및 직거래센터 운영**

| AS-IS | TO-B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위주의 일방적 상담회 개최 - 양국의 무역 진흥기관, 관련 협단체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후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회 진행 · 일방적 판매-구매자 관계로 양국 간 지속적 이해관계 유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수입 상담회 동시 개최 - 한-베트남 기업인들의 판매 및 구입 의사를 복합적으로 매칭 → 1개 국가 기업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쌍방 간의 이해관계 충족을 통한 양국 기업인들의 상호 진출 기회 마련 · 양국 내 식품, 화장품 직거래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소비재 유통 기회 마련 |

〈주요 협력사례〉

○ 한-베트남 상품 직거래 유통 물류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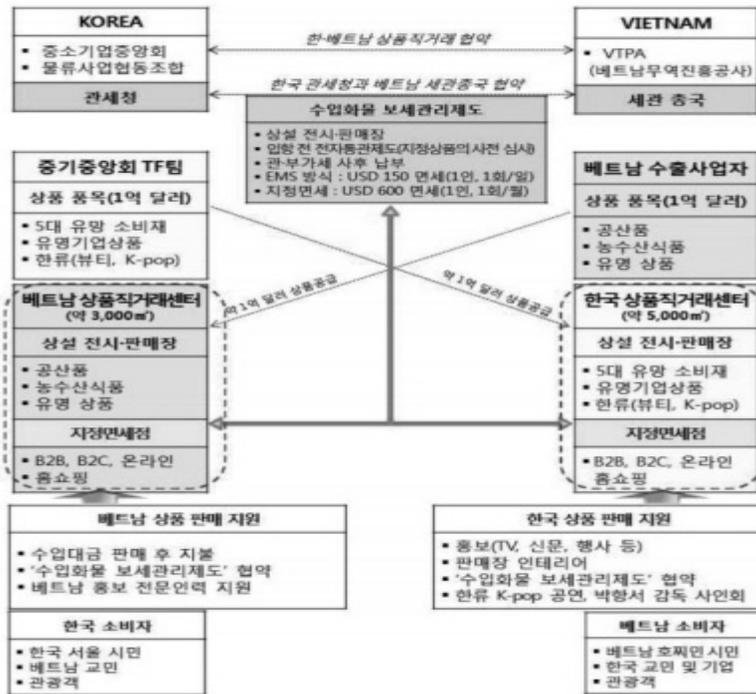
- (한국무역센터)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KITA, KOTRA)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종합 보세구역 지정, 5,000㎡ 규모의 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해 중진공의 ‘행복한백화점’ 등 유통 전문기업에 위탁 운영

* 주요 판매가능 상품: 패션의류, 생활 유아용품,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 식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유명기업의 패션, 뷰티, 가전, 인삼제품

- (베트남무역센터) VIPA가 주관, VIN커머셜 등 베트남 유통 전문 기업에 위탁해 서울과 경기도 등에 3,000㎡ 규모로 판매장을 설치 판매할 예정

⇒ B2B, B2C,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방식 활용, K-POP 등 한류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한-베 무역 (B2B), 한-베 중소기업 간 협력, 아세안 진출 등 컨설팅 지원

〈한-베 직거래센터 모식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4] 한-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정책 수요) ① 중소벤처기업부,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제안*(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 체결 추진 예정)

* 아세안 역내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환경 개선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 등 창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

- 한국 벤처기업협회-베트남 BSSC(Business Startup Support Center),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상호 진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각 기관의 서비스(인큐베이팅·교육·홍보·컨설팅·파트너 매칭) 및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의

〈베트남의 주요 스타트업 육성 정책〉

| 정책명 | 세부 내용 |
|---|--|
| 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제도 (Decision 844/QĐ-TT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2025년까지 2,000개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300개 스타트업 기업 지원, 100개 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또는 인수합병 - (대상) 창업 5년 이내의 신규 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자 - (활동) 정부 예산 및 기술 지원, 행사 개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 스타트업 생태계 이니셔티브 (National project 8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개선, 국가 스타트업 포털 개발 및 2,000억 규모의 2,000개 프로젝트 지원 - (활동)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교육 제공 및 지원, 스타트업 네트워킹 강화, 벤처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제안 -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지방공무원,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유관 기관 및 업체 |

- (상호 역량)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게임, IT, 보안, 핀테크 등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다수, 베트남은 핀테크·모바일 인터넷 분야 기회 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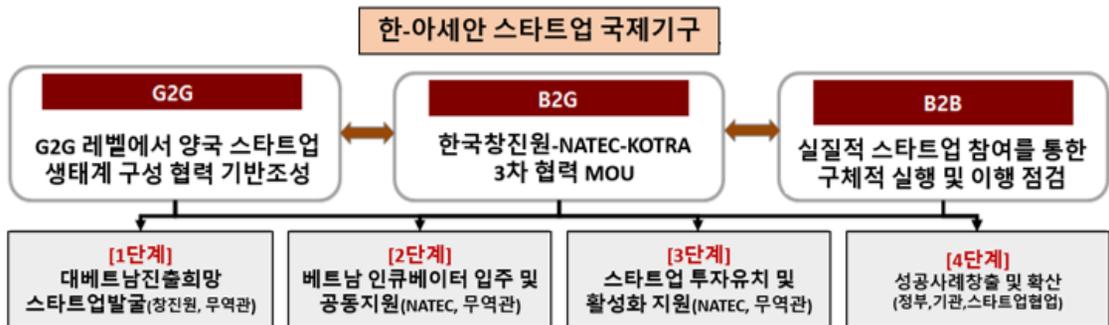
*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역량에 있어 베트남보다 비교 우위

** 2019년 베트남 스타트업 주요 투자 분야는 1위 핀테크(13%), 2위 전자상거래(12%)

- (협력방안)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주도, G2G 레벨 생태계 기반 조성 → B2G, B2B에서 협력 실현*

* 부트캠프(boot camp), 피치데이(pitch day), 해커톤(hackathon), 테크이벤트(tech event) 등 개최, NATEC(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는 베트남 스타트업 전국 단위의 지원기관

→ 미래의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인식, NATEC의 경험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융합, 비즈니스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1단계** 스타트업 선별(창업진흥원, KOTRA, NATEC): 부트캠프(bootcamp), 피치데이(pitch day), 해커톤(hackathon), 테크이벤트(tech event) 등의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 개최
- **2단계** 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NATEC, KOTRA): 상품화 및 투자유치 준비를 위한 수준까지 약 18주간 육성프로그램 제공(시드라운드 단계)*
 - * 전문가 멘토링, 자원 공유, 공간 제공, 시장전략, 홍보, 자금 지원, 마케팅 등
- **3단계** 스타트업 확장 단계(시리즈 A, B, C) 투자 및 엑시트 지원(VC, 한국 대기업, 벤처기업협회 등 협력)

○(추가 고려사항) ① 베트남 내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인큐베이터 설립 및 운영 ② 우리나라 대기업 주도 베트남 스타트업 발굴

〈베트남과 타 국가 스타트업 협력 현황〉

◆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타 국가와 MOU 체결 → 기술 협력,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 공동사업 등 추진, 국제협력 채널 구축 집중

| 협력국 | 베트남의 스타트업 협력기반 구축사례 |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핀란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IPP) 협력: 양국 정부 간의 혁신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IPP(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시행(2009년) → 혁신 스타트업 및 교육기관 발굴 및 지원, 베트남 스타트업 정책 자문 및 교육 * 지원 내용: 1단계 (2009~2013년)와 2단계 (2014~2018년)로 나누어 진행, 약 1,100만 유로 지원 /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이니셔티브(National Program 844) 정책 자문 수행 |
| 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부기관 Enterprise Singapore는 싱가포르 최대 벤처펀드 Quest Ventures 및 호치민시와 3자간 MOU를 체결(2019년 7월)하고, 싱가포르 혁신 스타트업과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의 협력 및 투자유치 지원 * 싱가포르는 GIA(Global Innovation Alliance)를 구성하여 아세안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구축 |

다. [B2G] 베트남 정부 중점 육성분야 협력

1 PPP를 통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진출 협력

- (정책 수요) 2020년 6월 18일,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법 신규 제정
 - 2015년 2월 15일 민간투자 관련 시행령인 Decree 15/2015/ND-CP를 제정, 2018년에는 해당 시행령을 Decree 63/2018/ND-CP(Decree 63)으로 개정
 - 시행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2020년 6월 18일, 2021년 1월 1일 발효로 하는 PPP 관련 신규 제정 법률안이 제14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9차 회의에서 99.75%의 찬성률로 통과
- (시장 현황) 2019년 기준, 총 336건의 PPP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약 700억 달러 규모임
 - * 전체 PPP 프로젝트 중 교통인프라가 22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이어 에너지 사업(18건)이며, 수자원 프로젝트 18건, 기타 80건
 - * 전체 건수 중 주요 개발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와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전체의 각각 140건, 188건 차지

* 2021년 1월 1일 발효 PPP법에 BT 방식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음

〈베트남 주요 PPP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발주처 | 기간(잠정) | 규모 (백만 달러) |
|---|---|------------|---------------|
| Dong Dang – Tra Linh Expressway | Cao Bang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0~2024년 | 902 |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Hoang Hoa – Sam Son section, Quang Xuong – Tinh Gia section) | Thanh Hoa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0~2023년 | 146.5 |
| Sapa Air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 Lao Ca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30년 | 256 |
| Quang Tri Airport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 Quang Tr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30년 | 345 |
| Quang Ngai – Binh Dinh Expressway | Binh Dinh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2021~2025년 | 600 |
| Ho Chi Minh – Moc Bai Expressway | HCMC People's Committee | 2021~2025년 | 460 |

〈PPP를 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출 협력 방안〉

○ 한-베 컨소시엄 조성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 | | | |
|-------|---|--------------|----|
| 참여 주체 | 한국 | 베트남 | |
| |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 금융 및 건설 현지회사 | |
| | | 금융 | 건설 |
| 협력 내용 | Vin Group, Sun Group, FLC, Van Thinh Phat, BIM Group, Trung Nam Group FECON, CIENCO 4, COTEC, Tasco, Licogi16, Lilama, Phuong Thanh, Song Da, Pacific, Thang Long, IDICO, Vinaconex, PVC | | |
| 협력 내용 | - 기술력의 우위를 가진 한국기업과 금융자본 마련 및 시공(자재조달, 원가절감, 현지 규정에) 경쟁력 지닌 베트남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 | |

○ '수출신용기관-공공기관-EPC 기업' 동반 진출

| | |
|-------|---|
| 참여 주체 | - '수출신용기관(금융 조달) - 공공기관(사업 운영) - EPC 기업(설계·조달·시공)' 협력 |
| 협력 내용 | - 지금까지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정부 및 민간기업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한 진출 필요 |
| 주요 사례 | - 총 사업비 23억 달러, 총 발전용량 1200MW의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는 베트남 대용량 석탄화력 민간발전사업(PP)으로 한전-마루베니상사 컨소시엄이 수주 - 한전(운전 보수), 두산중공업(발전소 건설), 한국수출입은행(총 사업비의 75% 상당 금융 조달) |

○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 확대 및 주재국 내 공공기관 간 협력

| | | | | | | | | | | | | |
|-------------|--|------------|---|---------------|---|----------------|------|--------------|---|-----------|---|----------|
| 참여 주체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해양수산부 | | | | | | | | | | | |
| 협력 내용 |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개발 및 발굴 활동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 기관의 개발단계(마스터플랜, Pre F/S, F/S) 자금지원 확대 필요 - KOTRA-KIN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PPP 수주 확대 지원**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OTRA 간 협력 플랫폼 MOU 체결(2018년 8월) ** KIND 베트남 하노이 '한-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개소(2019년 7월) | | | | | | | | | | | |
| 기관 간 협력 R&R | PPP 프로젝트 개발 단계 | | | | | | 사업수행 | | | | | |
| | KIND | 잠재 프로젝트 발굴 | ⇨ | 대상사업 선정 | ⇨ | 타당성조사 (F/S) 실시 | ⇨ | 프로젝트 확정 | ⇨ | 금융조달 및 투자 | ⇨ | 건설, 운영 |
| | KOTRA | 프로젝트 정보 제공 | | 평가 참여 (해외 부문) | | 타당성조사 지원(OPS) | | 해외 발주처 협상 지원 | | 금융주선 지원 | | 현지 진출 지원 |

② 농업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베 정부는 첨단농업 분야의 투자 장려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 중이며, 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실시 중*

* 베트남에는 2,690만ha의 농경지가 있고 그 중 38%(1,024ha)는 과세구역 지정. 토지면적, 종류, 위치에 따라 차등한 세금이 부과되어 투자 걸림돌로 작용, 베트남은 농업 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정책 운영(57/2018/ ND-CP)

- **(베트남 수요)** 베트남 인구의 약 35.3%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14%로 베트남 경제에의 기여도는 아직까지 큰 편임

〈2020년 상반기 산업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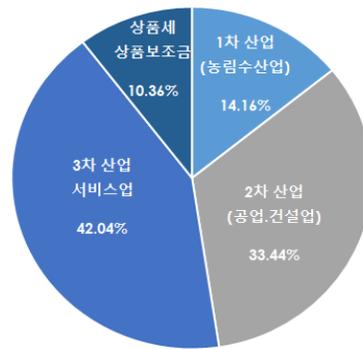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성장률(GDP 성장 기여도) |
|-------------------|-----------------|
| 전체 | 1.81 |
| 1차 산업 (농림수산업) | 1.19(2.10%p) |
| 2차 산업 (공업·건설업) | 2.98(5.30%p) |
| 3차 산업 (서비스업) | 0.57(1.03%p) |

주: 2020년 상반기 기준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산업구조〉

(단위: %)



- 반면, 영세 농가가 많아 농업의 기계화 비율은 아직 저조한 편으로 알려져 베트남 기업들은 스마트 농업시설 도입과 하이테크 농장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베트남 주요 대기업들의 하이테크 농업 투자 현황〉

| 회사명 | 주요 투자 내용 |
|-------------------------|--|
| TH group | 베트남 2위 유제품 기업인 TH group은 북부 타이빈성에 하이테크 농업 투자를 위해 1억 3,640만 달러(3000ha 규모)를 투자함. 이 농장은 유기농 과일·채소 및 고품질 쌀이 생산되며, 모든 제품은 EU의 EC 834-2007 및 EC 889-2008 인증서와 미국의 USDA-NOP 인증서를 준수하는 유기농 인증 및 Global Gap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됨 2020년 9월 21일 중부 고원에 위치한 Kom Tum지역에 미화 1억 9백만 달러를 투자, 하이테크 젓소농장 건설에 착수함. 1차 사업은 60ha의 농장 클러스터 건립이며 2차 사업은 378ha의 젓소 사육 초원으로 구성됨. 추후 농장 클러스터는 이스라엘과 기술 제휴를 통해 최첨단 낙농법으로 약 10만여 마리의 소를 사육할 목표를 세움 TH그룹은 2025년까지 총 40만 마리의 젓소를 사육하는 것을 목표로 메콩 삼각주에 위치한 An Giang과 북부에 위치한 Cao Bang에서도 하이테크 젓소 농장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 VinEco (Vingroup계열사) | 베트남 북부 하남성 빈에코 농장은 3000억 동(약 1,324만 달러)이 투자됐으며, 총 면적 180ha 규모로 준공되어 이스라엘(TAP, NETAFIM), 일본(KUBOTA)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기술자문을 받음. Vineco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우수농산물품질인증(VietGAP, GlobalGAP) 기준을 충족함 Vineco는 자동화 기술, 멤브레인 온실 재배 기술, 수경재배 기술, 한국의 최첨단 자동화 공법을 제휴한 식용버섯 생산기술, 이스라엘의 자동 관개 기술을 보유 및 기술협력 하여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 **(한국 역량)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 및 국가적 지원 체계 보유**
 - 2017년 11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 구축을 목표로 삼음**
 -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 중임
 - 과거 1세대(농업 자동화) 및 2세대(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생산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3세대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 통합 제어) 모델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조건들을 최적화함
 - 또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 또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업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중임
- **(협력체계) 양국의 스마트팜 특구 중심으로 기술교류, 양국 농산물 수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한국의 농업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재배환경 최적화 솔루션 등 선진 기술 등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양국 스마트팜 특구에서 생산되는 주력 농수산물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상생형 경제협력 구현**
 - * 한-아세안 FTA 농산물 일반품목(1,086개)은 2012년 이전에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한-베트남 FTA를 통하여 총 122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 **(협력 방안 ①) 정부-기업-학계 3자가 공동 전개하는 농업 경험 전략 →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 및 유망분야 중심으로 추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친환경·재배 기술력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 및 농기계 개발 협력,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사례〉

- **[국내사례 ①] 오리온-농식품부-단국대 산학협력단, ‘베트남 채소 계약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베트남 하이증성과 호아빈성에 한국산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이 감자를 생산한 후 인근 식품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 →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 * 감자 재배면적이 9배로 증가, 계약판매수량 약 5배로 증가 → 후속사업인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

〈사업 모델 유형〉

| 민간기업 참여 | 소득증대 인프라 구축 | 영농교육 |
|----------------------------------|----------------------------|--|
| 오리온 기업의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수급 | 시범포, 육묘하우스, 관정 등 시설 인프라 구축 | 전문가 파견, 현지·초청연수, 베트남 식량작물연구소의 역량 강화 전수 |

- **[국내사례 ②] 베트남의 농업 선진화를 위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ODA 사업을 통한 현지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지원**

| | |
|--------------|--|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2020 농업 기계화 추진전략’ * 베트남은 세계 2위 쌀 생산국, 한편, 농업 기계화율은 35%에 불과, 2020년까지 농업 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 |
| 관련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농기계협동조합 등 · (베) 산업무역부, 기획투자부, 컨터시 인민위원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컨터시에 ‘한-베트남 농기계센터’ 개소(2019년 8월 22일) · 2019년 9월 한국 LS엠트론 트랙터 100대 기증 |

| | |
|-----------|--|
|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너서 지역농민 대상 2019년 말부터 임대사업 시작 · 농기계기업 현지 진출, 중소 협력사 동반진출 기대 및 베트남 현지 농업 생산성 제고, 농업 기계화에 기여 |
|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기계의 우수성 홍보와 및 국내 농기계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기반 확보로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 합작생산을 통해 국산 부품의 베트남 수출 및 베트남 내수시장 공급 및 제3국 수출 가능 · 침체된 내수시장으로 성장이 정체된 국내 농기계산업을 ODA 진출 방식을 통해 글로벌화 촉진 및 농기계 성장 견인 |

○ **[해외사례] 베트남-일본 농업 협력:**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2014년부터 농업협력대화(Japan-Vietnam Agricultural Cooperation Dialogue)를 추진*, 학계-민간-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식량 가치사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베-일 간 공동 산업 협력·투자, 경험 이익 공유 전략을 추진**

* 일본 추진 주요 사업: ①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 관개시설 개수, 생산체계 구축(응애안성) ② 식품가공 상품개발 - 식품 가공시설과 집출하 선별저장시설 설치(램동성) ③ 유통개선 콜드체인(하노이, 호치민시) ④ 메콩 델타지역 연구, 칸토대학과 연계한 농업 공동 연구 및 교육

** 일본의 대(對) 베트남 투자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7%에 달하며, 일본 화학기업 쇼와 덴코의 100만 달러 규모 유기농 채소 재배공장 설립, 후지쓰·베트남 FPT의 공동 과일·채소 생산기술센터 개소 등이 이루어졌음

| 정부 | 기업 | 학계 |
|--|---|---------------------|
| [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KOICA 등 [베] 농업농촌개발부, 지방정부 등 | [한] CJ, 오리온 등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및 농업 솔루션 및 장비 기업 [베] VNPT, VinEco 등 | 유관 대학, 연구소, 스마트팜 특구 |

○ **베트남 정부 지원 하이테크 농업 투자 진출**

- 하이테크 농업 투자로 판정 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법인세 4년 면제, 9년간 50% 감면, 3년에서 9년간 토지세 면제 등으로 일반 농업 투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

○ **스마트팜 솔루션 및 농기계 장비 수출**

- 병해충 및 잡초예찰 관리 시스템,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등/한-베 FTA 적용으로 농기계 수입 시 유리한 관세 혜택 가능

○ **유기농·친환경 재배 기술 연구협력 및 기술이전, 공동 연구·재배 단지 구축**

- 베트남 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FTA 체결 효과로 인한 베트남 농산품의 EU, 미국, 한국 등으로의 수출도 유망

○ **(협력 방안 ②) 스마트팜 특구-유통망 협업을 통한 양국 농수산물 교류 활성화 → 스마트팜 특구 생산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 연계한 농수산물 수출·수입 상담회 개최**

-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 시장으로서 우수한 자국 농수산 제품의 한국 유통망 진입 및 안정적인 교역 확대를 희망

- 2019년 11월 베트남 응우옌 쑤언 폭 총리 방한 당시, 농수산물을 포함한 베트남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관심을 특별 요청*

* 베트남은 한국으로 5개 품목(코코넛,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옹과(백색))를 수출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몽과 옹과(적색)를 수입 허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옹과(적색)의 경우 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자몽의 경우 병충해 검역절차에 있음

| | 유통망 | 스마트팜 특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생산 농수산물에 대해 안정적인 유통망 확장을 위한 특구-유통망 간 협약 체결 · 유통구조 개선 · 농장 직거래 활성화 → 가격 경쟁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간 수출 수입이 가능한 농산물 재배 및 기술 교류 · 패키징 및 브랜딩 교육을 통한 상품성 제고 |
| 양국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농산물 교역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양국 유통시스템 분석 및 수출기업의 한-베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 · 유통시장 진출 정보 수집 및 관심기업 대상 전파 · 현지 기업인 대상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개최 | |



- 양국의 주력 농산물 대상 맞춤형 진출전략 도출 및 확산을 통한 한-베 간 안정적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무역 불균형 해소
-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수입품목 다양화 및 농산물 수입시장 다각화 기대
- 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동시 참여를 통한 양국 농업 분야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기여

(사례) 한-베 농산물 교역 활성화 포럼 개최(2019년 8월, 호치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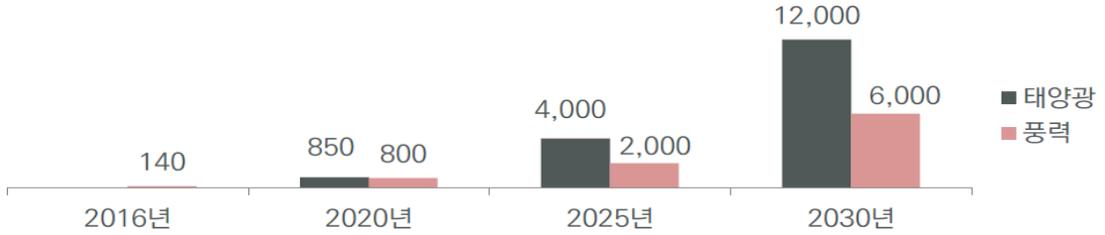
- 베트남 CJ프레시웨이 대표,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aT센터 호치민 부소장
-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 차관 등 참여로 양국 농산물의 교역 활성화를 통한 논의
- 베트남 기업과 농민을 위한 품질향상 제고, 브랜드 구축 방안 마련

3 에너지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① 베트남 정부, 국내 경제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대비한 ‘베트남 에너지 산업 발전계획 2030, 비전 2045’ 로드맵(Resolution No.55-NQ/TW) 발표(2020년 2월)
 -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자주개발률 증대, 수입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환경보호 등이 주요 내용
- ②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추어 전력산업,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에 대해 논의
 - * 개최 경과: (1차) 2011년 7월 서울, (2차) 2011년 10월 하노이, (3차) 2012년 3월 서울, (4차) 2013년 11월 켄터, (5차) 2014년 12월 서울, (6차) 2015년 11월 하노이/켄터, (7차) 2016년 12월 서울, (8차) 2018년 2월 호치민, (9차) 2019년 10월 서울
- **(시장 현황)** 베트남의 전력 소비량은 향후 5년간 평균 8.5~9.5%로 빠르게 증가하여 아세안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 시현함. 2019년 기준 베트남은 수력 발전이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다원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중도 확대 중
 -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는 소수력발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을 포함하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집중되어 있음

〈베트남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발전 계획〉

(단위: MW)



자료: Decision No.428/QĐ-TTg

- **(한국 역량)** 한국의 태양광과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주도 중, 풍력·연료전지 또한 높은 성장세 시현
- **(협력 전략)** 한국의 선진 에너지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 베트남 측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투자 계획과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적극적 참여

| | 태양광 | 풍력 |
|------|--|---|
| 시장성 | · 베트남은 일광시간이 길고 태양복사량이 230~250kcal/cm ² 에 이르는 등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 을 보유 → 중남부 지역(닌투언성, 빈투언성)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 · 동남아시아 지역 중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 · 긴 해안(약 3,200km)에 걸쳐 일 년 내내 평균 7~9m/s의 바람이 부는 등 베트남 영토의 8.6%가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 을 보유 |
| 협력방안 | · 한국-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센터 조성: 한-베 신재생에너지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운영 정례화, 양국 유관기관 간 인적교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연수,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밸리 조성을 통한 베트남 진출 발판 마련 → 스마트 그리드 등 관련 비즈니스 확대 | |
| 참여주체 | · [한]: KOIC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 [베]: 자원환경부, 베트남 전력공사, 산업무역부 등 → 한, 베, 국제기구(월드뱅크)와 공동 협업 | |

〈에너지 관련 한-베트남 MOU 체결 현황〉

| | |
|---|--|
|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 MOU (에너지공단-베 산업무역부) | (내용) 한-베트남 간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의의) 한-베트남 간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 해상풍력·ESS 실증단지 협력 MOU (두산중공업, 베 남동발전-전력공사) | (내용) 베트남 해상풍력자원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동선정부지에 1기의 해상풍력 및 ESS 실증사업 구축 (의의) 발전 공기업과 풍력발전 제작업체의 베트남 해상풍력발전 진출 교두보 확보 |
| 풍력 프로젝트 협력 MOU (두산중공업-베 CC1*) *Construction Company No.1 JSC | (내용) 발전소 운영, 정비를 위한 기술 서비스 제공과 사업 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의의) 한전KPS의 축적된 발전소 정비기술의 원활한 사업 연계를 통한 수주 확대 도모 |
| 전기기능인력 양성·교류 협력 MOU (전기공사협회-베 타이응우옌 대학) | (내용) 전기공사 분야 시공기술 향상 및 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교류, 기술교류 협조 채널 구축운영 (의의) 한-베 간 전기공사 분야 협력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교류 촉진 |
|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신재생에너지협회-베 에너지협회) | (내용) 양국 기업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동 협력지원, 제3국 공동 진출 상호협력 및 기업정보 공유 (의의)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협력창구 마련 및 시장선점 가속화 토대 마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 (정책 수요) ① 베트남은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

* 푸크(Phuc) 총리는 2018년 8월 1일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을 공포(Decision No. 950/QĐ-TTg)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주요 내용

- 2020년까지를 법률 기반 조성 및 프레임 구축 단계로 지정, 2025년까지를 시범사업 수행 단계, 2030년까지를 시범사업의 완성 및 확장 단계로 구성 (2018년 8월 1일, 베트남 총리 결정문)

| 구분 | 주요 계획 |
|-------|---|
| 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 기반 구축 · 도시 기반시설(조명, 교통, 급·배수, 쓰레기처리, 전력망,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및 표준 수립 · 기반 ICT 프레임워크 구축 · 최소 3개 이상의 도시에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유관 부처 인력의 50%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수행 · 메콩델타지역에 프로젝트 우선 개발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법률 기반 완성 · 최소 6개의 도시 또는 6개의 경제구역에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유관 부처 인력의 100%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수행 · 도시 관리, 조명, 교통, 급·배수, 쓰레기처리, 전력망,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표준 발표 |
| 203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완성 및 대규모 사업 수주로 확장 ·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건터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및 메콩델타 지역에 스마트 도시 체인을 구축 |

② VINASA(베트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협회), 베트남 스마트시티 어워드(Vietnam Smart City Award) 조직

-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베트남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 기대

Vietnam Smart City Award 2020

- 주최기관: VINA(베트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협회)
- 조직연도: 2020년(추후 매년 개최 예정)
- 주요 역할: 그룹 1~4까지 분류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련된 우수 프로젝트 선발 및 시상
- 개최기간: 2020년 9월 7일~10월 10일까지 신청서 수령 후, 11월 17일 Vietnam Smart City Summit 2020에서 시상

○ (시장 현황) 베트남은 ICT 활용도가 높은 다낭, 호치민시, 하노이*를 시작으로 하여 경제개발구역에서의 첨단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조성까지 확장 추진

* 하노이 BRG 스마트시티, 흥옌성(Hung Yen) 에코파크(Ecopark) 스마트시티, 다낭 드래곤(Dragon) 스마트시티, 호치민 시 투티엠에코(Thu Thiem Eco) 스마트시티

〈베트남의 ICT 평가지표 상위 3개 도시〉

| 순위 | 도시명 | 기술 인프라 수준 | 인적 자원 수준 | IT 활용 수준 | ICT 지수 | 순위 | | |
|----|------|-----------|----------|----------|--------|-------|-------|-------|
| | |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1 | 다낭 | 0.93 | 0.96 | 0.93 | 0.9407 | 1 | 1 | 1 |
| 2 | 호치민시 | 0.58 | 0.74 | 0.67 | 0.6652 | 3 | 2 | 2 |
| 3 | 하노이 | 0.58 | 0.77 | 0.59 | 0.6473 | 2 | 3 | 3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 'Vietnam ICT Index report 2018'

베트남 북부 광닌성(Quang Ninh) 광옌(Quang Yen)해안경제구역 개발계획

- 주요 내용: 광닌성 20개 행정구역에 걸쳐 1만 3,303ha(4024만 평) 규모, 향후 15년 동안 3단계로 개발*
 - * 우옹비시 5개 프엉(phuong, 동 단위)과 광옌사(xa, 면 단위) 8개 프엉에 6,403.7ha(1937만 평) 규모의 주거산업복합구역 및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광옌사 7개 프엉에 6,899.3ha(2087만 평) 규모의 항만서비스구역 및 도시구역이 조성
- 기대효과: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목적경제구역으로 개발, 홍강(Hong River) 삼각주지역에 산업, 서비스, 향민물류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
 - * 향후 번돈(Van Don), 딘부-갓하이(Dinh Vu-Cat Hai), 타이빈(Thai Binh)경제구역 등의 해안경제구역과 연결돼 종합적인 해안경제구역망을 구축할 계획
- 추진계획: (1단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2단계) 2021~2025년 경제 및 기술 인프라를 확충한 뒤
 (3단계) 2026~2035년 전체 구역을 스마트시티로 완성

- (한국 역량) 2008년 세계 최초 스마트도시법 제정, 스마트시티 선진국 도약을 위해 세종과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등 각종 정책적 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마련 중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 2019년 10월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의지 표명, **베트남 하노이 등 KOTRA 해외무역관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 (협력 전략) ① 주요 도시별 정책에 따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② 한국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한 베트남 기술 전수 및 유관기업 진출/수주 지원

| | 다낭 | 호치민시 | 하노이 |
|-------------|---|--|---|
| 도시면적 | 약 1,284km ² | 약 2,095km ² | 약 1,284km ² |
| 인구 | 106만 명 이상 | 845만 명 이상 | 760만 명 이상 |
|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 | 공공서비스, 오픈데이터, 여행, 커머스, 농업, 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관리, 교육, 헬스케어, 위생 및 식품 안전, 보안 및 응급 서비스, 재난 예방, 교통 등 | 교통, 의료, 식품 안전, 환경, 홍수 예방, 인적 자원, 공공 안전, 전자정부 등* * 미국 상공회의소와 호치민시, 국제금융공사(IFC)는 호치민시의 2군, 9군, Thu Duc District 등을 중심으로 공동 PPP 개발에 착수 | 헬스케어, 교육, 교통, 여행 등*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스미토모(Sumitomo Corp) 종합상사, 미쓰비시(Mitsubishi Heavy Industries)와 스마트시티 공동 개발 파트너십 체결,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 |

자료: 베트남 과학기술부,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e-Government'

한국, 우수 ICT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경험·자원·기업 기술력 보유
 → 베트남 국가적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우수 한국기업 진출 지원

- 스마트시티 공동 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 생태계 조성*
 - * 스마트시티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기업의 서비스 발굴 및 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대표적 IT 선도기업 FPT와 한국의 KT간의 MOU 체결 → 스마트시티 공동 투자 진행
 - *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정부 예산으로 국내 입찰(베트남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현지 유력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출이 필요
- 스마트시티는 도시, 철도 건설 등의 인프라 개발, 스마트 교육, 헬스케어, 전자정부, 스마트 농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

◆ (주요 사례) LH-베트남 흥이엔성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

- 주요 내용: 흥이엔성에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및 적용 분야 등에 있어 상호 교류 협력, 베트남 최초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정책, 기술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추정 사업비 약 720억 원, 면적 1.4km² 규모의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9년 8월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으며 2020년 착공 예정
- 기대효과: 흥이엔성은 수도 하노이와 남동쪽으로 바로 연접한 930km²의 면적(서울의 1.5배)과 118만 명의 인구를 보유, 베트남 북부 박닌-하노이-하이퐁으로 이어지는 핵심 삼각 경제벨트에 속해있어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스마트시티 조성 시 북부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역할 기대

라. [상생발전] 인적자원 역량 강화, CSR

고성장기 베트남이 당면한 광범위한 과제를 양국이 상생·협력 방법으로 해결

〈양국 SDGs 분석 결과〉

| SDG 점수 차이 | | | | | |
|---|-----------------|----------------------|------|-----------|------|
| > 37.4 25.3~37.4 13.2~25.3 < 13.2 | | | | | |
| No. | 내용 | 베트남 | 한국 | 한국-베트남 차이 | 절대값 |
| SDG1 | 빈곤퇴치 | 95.3 | 99.0 | 3.7 | 3.7 |
| SDG2 |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 62.6 | 77.9 | 15.3 | 15.3 |
| SDG3 | 보건증진 | 74.8 | 92.4 | 17.6 | 17.6 |
| SDG4 |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 91.7 | 95.8 | 4.1 | 4.1 |
| SDG5 |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 72.0 | 63.9 | -8.1 | 8.1 |
| SDG6 | 물과 위생 | 70.8 | 81.5 | 10.7 | 10.7 |
| SDG7 | 에너지 | 82.4 | 92.5 | 10.1 | 10.1 |
| SDG8 |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 74.2 | 86.2 | 12.0 | 12 |
| SDG9 | 인프라와 산업화 | 26.4 | 83.7 | 57.3 | 57.3 |
| SDG10 | 불평등 해소 | 78.3 | 86.5 | 8.2 | 8.2 |
| SDG11 | 지속가능한 도시 | 77.6 | 80.3 | 2.7 | 2.7 |
| SDG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 87.1 | 63.5 | -23.6 | 23.6 |
| SDG13 | 기후변화대응 | 94.5 | 87.7 | -6.8 | 6.8 |
| SDG14 | 해양자원 및 생태계 | 45.2 | 54.8 | 9.6 | 9.6 |
| SDG15 | 육상생태계 | 48.6 | 57.2 | 8.6 | 8.6 |
| SDG16 |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 61.8 | 75.4 | 13.6 | 13.6 |
| SDG17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 65.3 | 53.4 | -11.9 | 11.9 |
| 평균 | | 71.1 | 78.3 | 7.2 | 13.2 |
| 절대값의 평균, 표준편차 | | 평균: 13.2, 표준편차: 12.1 | | | |

평균 이상의 점수 차이를 가진 SDG

| SDG | 우위국가 | |
|--------------------------|------|-----|
|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 2) | 한국 | |
| 보건증진 (SDG 3) | | |
| 물과 위생 (SDG 6) | | |
| 에너지 (SDG 7) | | |
|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8) | | |
| 인프라와 산업화 (SDG 9) | | |
| 지속가능한 도시 (SDG 11) | | |
| 기후변화 대응 (SDG 13) | | |
|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SDG 5) | | 베트남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SDG 12) | | |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SDG 17) | | |
| | | |

1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정책 수요) 양국 정부 간 인적자원 역량 강화 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

- 응우옌 쩐 중 베 총리 방한(2012년 3월) 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선진 공업국 건설을 목표로 VKIST (Vietnam-KIST) 설립 제안, 베트남의 넓은 R&D체계 바꾸고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육성 의지 표명
- 2018년 2월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개최 및 TASK센터 추진 서명(산업부 장관 간 RoD 서명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KIAT 간 LOI 서명)
- 베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한 생산성본부는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 예정

- (한국 역량) 우수한 산업·과학 기술 및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경험 보유

* 한국, KIST SCHOOL(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교육과정을 통해 후발국가의 과학발전 지원, 글로벌 지한파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조성 지원 중

- (협력 방안) 산업기술 공유, 전문 과학기술인력 육성,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제조업 생산역량 강화 지원
→ 현지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과의 제3국 공동진출 등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 구조 형성, 균형적 교역관계 확대 도모

〈과학산업기술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

- 한-베 TASK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전문인력 육성

| | 한국 | 베트남 |
|-------|---|----------------------------------|
| 참여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내 소재부품사 및 대학 연구기관 | 기획투자부, 산업무역부, 베트남 국립대 공대, 하노이 공대 |
| 협력 내용 | <p>기존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연간 3회, 1회 방문 시 1사 최대 1일 지도 기술 전수로, 단발성 사업의 효과와 성과 창출에 한계 → 해결방안으로 현지에서의 상시 기술지도 센터 구축</p> <p>① (산업현장 기술 전수)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GVC 구축 지원 ② (엔지니어 양성) 베트남 대학 내 소재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운영,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의 취업 연계 지원 ③ (기술혁신역량 강화) 소재부품기업 CEO 기술경영 과정 지원, 기술혁신 마인드 배양 지원</p> | |

- VKIST 설립

| | 한국 | 베트남 |
|-------|--|-------|
| 참여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과학기술부 |
| 협력 내용 | <p>한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여 호이랑 첨단산업단지 2018년 3월 착공, 전체 사업비 7천만 달러를 한국과 베트남이 절반씩 부담하여 설립</p> <p>- 현지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 기대, 정보 기술(IT) 및 바이오 기술(BT) 중점적으로 육성 초점 - 2019년 8월 첫 연구 프로젝트 착수, 제약업체 협력 천연 허브 추출물을 통한 뇌 활성화 영양제 개발 프로젝트 추진(자재 건물 및 실험실 없어 KIST 내부에 임시 실험실 마련하여 관련 연구 진행)</p> | |

○ 생산성본부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사업

| | | | | |
|----------|--|-------------------|-----------------------|---------------------|
| 참여 주체 | 한국 | 베트남 | | |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 | 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총국 | |
| 협력 내용 |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협력,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등을 공동으로 추진 | | | |
| | 베트남 현지 기업 및 진출기업 지원 | | | |
| | 베트남 교육센터 설립(교육 인프라)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 |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교육 및 컨설팅 | 4차 산업시대 대비 자격/인증 보급 |

2 CSR 활성화

〈베트남 진출 국내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

| 기업명 | CSR 활동 |
|---------|---|
| IBK기업은행 | - 하노이 국립 대학교에 \$22,000 장학금 지원 - 무료 급식 제공을 통한 호치민 인근 지역 빈곤층 구제 -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
| 신한은행 | - 어려운 가정환경 어린이 대상 자전거 140대 및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 한-베 청년경제기술학교 설립을 통한 외곽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제공 - 정기적 헌혈활동 실시, 남부 건너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개최 등 |
| 롯데 | - 베트남 20개 대학 15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2008년부터 매년 2회 실시) - 호아빈 지역 이웃돕기 및 위생 캠페인 시행 - 매년 어린이 구순구개열 수술 지원 및 암 환자 지원 - 푸꾸옥 직업학교 설립 지원 - 베트남 어린이 축구 꿈나무 지원 |
| 삼성 | - 박닝 및 타잉응웬 초/중등학교 보수 지원 - 소방관용 열화상 카메라 300대 기증 - 대학생 지원활동을 통한 장학금 지원 및 인턴 채용 |
| 금호아시아나 | - 베트남 우수 대학생 양성 및 예술계 영재 후원을 위한 장학금 수여 - 매년 저소득층 여성 100명을 선발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한국 문화 교류 확대 및 한국어학과 대학생 양성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 CJ | - 베트남 여자 태권도 대표팀 감독 지원 및 한국 전지훈련 - 저소득층 이웃 대상으로 선물 및 학용품 전달 - 중부 3개성을 대상 2,500명 어린이 무료 영화 관람 티켓 제공 및 장학금 수여 |

G2G/B2G 레벨에서 CSR 활성화를 위한 과제

- ▶ 대-중소기업 동반 CSR 활동 지원 → CSR 사업 자금, 사업 수행 경험 측면에서 노하우가 풍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CSR 프로그램 공동 구상 및 실행 추진
- ▶ 베트남 정부 연계 CSR 사업 홍보 및 실행 →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의 영향력이 큰 바(중앙정부(인허가, 정책), 지방정부(투자법, 세금, 통관)), 타깃(target) 부처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반 도구로 CSR을 활용하여 CSR 사업 홍보 및 추진
- ▶ 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 정부 기관, 진출기업 협업 한국 문화 홍보 CSR 정례화
→ 한-베 음식문화축제(매년 하반기 개최) 등 베트남에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예: 패션, 음악, 뷰티 등)의 CSR 프로그램 정례화 추진

Ⅲ. 향후 대(對) 베트남 K패키지 실행체제(안)

□ K패키지를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및 분야별 로드맵 구체화

- K패키지를 통해 기존 양국 간 합의된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진전 있는 과제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양국 경제부총리회의* 결과 및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추후 분야별 로드맵 추진방안 및 경제부총리회의 안건으로 상정 등으로 활용

*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계기에 신설된 양국 간 경제부총리회의

2019년 6월 21일, 제1회 한-베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 한-베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향후 추진 방안 논의

| | 한국 | 베트남 |
|-------|---|---|
| 참석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참여기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부총리 · (참여기관) 기획투자부, 재무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총리실, 농업농촌개발부, 교통운송부, 노동사회보호부, 과학기술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석유공사(PVN)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 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 및 추가 신규 과제(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등 논의 | |

- 추진 과제별 양국 유관기관



| KOREA | VIETNAM |
|--|--|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MS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A: Industry Agency 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SV: Vietnam Silicon Valley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C: Ministry of Construction |

〈주요 협력 분야별 기회 및 Key Player 요약표〉

| 구분 | 협력방안 | 분야 | 관련 협력 기회 | |
|-------|-----------------------------|-------|---|-------------|
| | | | 참여주체(한국) | 참여주체(베트남) |
| | | | 관련기관(한국) | 관련기관(베트남) |
| | | | 세부 추진 내용 | |
| [G2G] | | | | |
| 1 | 한-베 FTA 이행위를 통한 수출세 양허 검토 | 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
| | | | KOTRA, 대한상공회의소 | 베트남상공인연합회 |
| | | | 한-베 FTA 이행위를 통해 베-EU FTA에 준하는 수출세 양허가능성 검토 및 체결 추진 | |
| 2 | 베트남 기업의 교역활동 참여 확대 | 교역 | 산업통상자원부 | 베트남상공인연합회 |
| | |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무역부 |
| | | | 지금과 기술이 부족한 베트남에 한국 농수산분야 우수 기술을 전수하고 대(對) 한국 수출 확대, 한국 입장에서 농수산물 수입국 다변화 도모 | |
| 3 |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무역부 |
| | | | KOTRA,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주정부 |
| | | | G2G 레벨의 인증분야 기술협력, 상호 인증, 인허가 취득 지원 기반 조성 | |
| 3 | 산업단지 협력, 산학연계 제조업 역량 확대 KSP | KSP | 기획재정부 | 기획투자부, 지방정부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 제조사협회 |
| | | | 베트남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기업 기술이전과,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 | |
| 4 | 베트남 산학협력센터 KSP | KSP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백화대학교 |
| | | | KDI(한국개발연구원) | 산업무역부 |
| | | | 베트남의 산학연계 개선에 관한 정책자문을 실시해 한국의 모범사례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모델을 전수 | |
| 5 | 메콩델타 기후변화 KSP | 공동ODA | 산업통상자원부 | ADB, WB |
| | | | KOTRA, KOICA | 지방정부 |
| | | | 메콩 델타 지역의 기후변화 공동 연구센터 조직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및 전략개발과 실행을 지원 | |
| 6 | 전자정부 KSP | KSP | LG CNS | 국가 전자정부위원회 |
| | | | 행정안전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 산업무역부 |
| | | | 국내 전자정부 성공사례를 통해 베트남 전자정부 관련 종합적인 현황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인프라, 기술 등 전체적인 제도적인 기반 구축 | |

| 구분 | 협력방안 | 분야 | 관련 협력 기회 | |
|--------------|----------------------|--------|---|--------------------|
| | | | 참여주체(한국) | 참여주체(베트남) |
| | | | 관련기관(한국) | 관련기관(베트남) |
| | | | 세부 추진 내용 | |
| [B2B] | | | | |
| 7 | 자동차 생산 협력 | 자동차 | 현대자동차 | 타코, 빈패스트 |
| |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 산업무역부, 자동차생산자협회 |
| | | | 베트남의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 중심 현지 투자, 점유율 확대 후, 부품 등 중소기업 진출 분야로 확대 | |
| 8 | 전자제품 소재부품 GVC 구축 | 전자제품 | 삼성, LG, 1, 2차 벤더 협력사 | 부품소재 기업 |
| |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 산업무역부, 지방성, 공업국 |
| | | | 현지 부품소재 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 추진,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제조사 납품을 위한 지원정책 실시 | |
| 9 | 5G 기술 제휴, 공동 R&D 추진 | ICT | KT, SK텔레콤 | VNPT, Viettel, FPT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국가혁신센터, 연구소 |
| | | | 한국기업의 혁신 5G 플랫폼을 활용하여 베트남 국가혁신센터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다방면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 |
| 10 | 공작기계 산업협력포럼 | 기계장비 |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 베트남 공작기계 업체 및 바이어 |
| |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 | 산업무역부 |
| | | | 양국 간 공작기계 산업 현황 소개, 기계 수출입 상담, 상호 미래 협력 분야 모색, 합작 및 기술협력 추진 | |
| 11 | 한류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상담회 | 소비재 유통 | 엔터테인먼트기업(SM, JYP),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 베트남 온라인 유통기업 |
| |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산업무역부 |
| | | | 베트남 내 높아지는 K-콘텐츠, K-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기업 대상 현지 시장진출 설명회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지원,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합작하여 소비자 시장 진출 및 제품 공급 협력 가능 | |
| 12 | 한-베 스타트업 협력 및 진출 지원 | 스타트업 | 쿠팡, 카카오페이 등 | 유망 스타트업 |
| | | |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 BSSC, NATEC |
| | | | 양국 정부 간 G2G 레벨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협력 기반 조성 이후, 창업진흥원-KOTRA-NATEC 3자 MOU 체결을 통한 한국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공동지원 | |
| 13 | 한국 음악, 드라마 방송 협력 | 문화콘텐츠 | SBS, KBS, MBC | VTV |
| |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문화진흥원 | 문화체육부 |
| | | |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현지 국영방송 VTV 등과 협력하여 TV 및 라디오 고정 채널 구성 등 협력 추진 가능 | |

| 구분 | 협력방안 | 분야 | 관련 협력 기회 | |
|-------|---------------------------|------|---|-----------------------------|
| | | | 참여주체(한국) | 참여주체(베트남) |
| | | | 관련기관(한국) | 관련기관(베트남) |
| | | | 세부 추진 내용 | |
| [B2B] | | | | |
| 14 | 국내기업 전자기기 지원 CSR | 전자기기 | 삼성전자, LG전자 | 베트남 취약계층 학교 및 보육시설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ICA, KOTRA | 지방정부 |
| | | | 시설이 미비한 학교 및 보육시설에 태블릿, PC 및 사무용품을 공급함으로써, 베트남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아동복지 개선 지원 | |
| [B2G] | | | | |
| 15 | PPP를 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출 | 건설 |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 FECON, Vin Group 등 |
| | |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 건설부 |
| | | | 기술력의 우위를 가진 한국기업과 금융자본 마련 및 시공에 경쟁력 지닌 베트남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 |
| 16 |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 에너지 | LS일렉트릭, LG화학, 큐엔와이에너지 | Petro Vietnam Gas |
| | | | KOIC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 자원환경부, 전력공사, 산업무역부 등 |
| | | | 한국-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빨리 조성을 통한 베트남 진출 확대, 스마트 그리드 등 비즈니스 확장 가능 | |
| 17 | 정부-기업-학계 공동 연구개발 구성 | 농업 | CJ, 오리온 등 대기업 | VNPT, VinEco |
|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KOICA | 농업농촌개발부, 지방정부 |
| | | |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친환경 재배 기술력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 및 농기계 개발 협력, 기술이전 등 | |
| 18 | 메콩 델타 지역의 농업개발협력 강화 | 농업 | 농업 관련 기업 | 농업관련 기업 |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 연구원 | 농업계획발전연구소, 지방정부 |
| | | | 기후변화 관련 포럼 개최, 공동 연구사업 실행 | |
| [국민] | | | | |
| 19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CSR 지원활동 | CSR | 대기업 및 중소기업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
| | | | KOICA, KOTRA | 중앙정부, 지방정부 |
| | | | CSR 사업 자금,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CSR 프로그램 공동 구성 및 추진 | |
| 20 | 베트남 정부 연계 CSR 사업 홍보 | CSR | 삼성전자, CJ, POSCO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
| | | | KOICA, KOTRA | 중앙정부, 지방정부 |
| | | |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 영향력이 큰 바 부처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반 도구로 CSR을 활용, 사업홍보 및 추진 | |

| 구분 | 협력방안 | 분야 | 관련 협력 기회 | |
|--------------|---------------------------------|-----|---|-----------------------------|
| | | | 참여주체(한국) | 참여주체(베트남) |
| | | | 관련기관(한국) | 관련기관(베트남) |
| | | | 세부 추진 내용 | |
| [B2B] | | | | |
| 21 | 국내기업의 베트남 학생 인턴 채용 및 장학금 지원 CSR | CSR | 삼성전자, POSCO | 베트남 고등학교, 대학교 |
| | | | KOICA, KOTRA | 교육부 |
| | | | 베트남 청년 대상 현지 국내 대기업 인턴 채용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 |
| 22 |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 | CSR | 삼성전자, LG, CJ 등 | 주정부 |
| | | | KOTRA, KOICA | 현지 수혜대상 기업, 개인, 지자체 |
| | | | 현지 정부, 유관기관 등 관계자, 현지진출 기업, 현지기업, 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CSR 시상식 개최 | |
| 23 | 베트남 청년 대상 기술전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CSR | 대한상공회의소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
| | | | 현대위아, 기아자동차, CJ 등 | 현지 청년 구직자 |
| | | | 현지 기 진출 대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베트남 현지 청년 구직자 대상 무상교육 제공 | |
| 24 | 한류 문화 전파 및 확대를 통한 문화 교류 | 기타 | 세종학당, 베트남 한인회 | 베트남 대사관 |
| | | | 문화체육관광부, 주베트남한국문화원 | 문화체육부, 베트남 주정부 |
| | | |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춤, 노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문화, 음악 강연 및 체험 행사 정기적 주최 추진(예시: 한-베 음식문화축제) | |

 작성자

| 연번 | 작성자 | 직책 | 소속 | Tel | Email |
|----|-----|----|--------|------------------|---------------------|
| 1 | 이혜인 | 과장 | 하노이무역관 | +84 24 3946 0511 | hilee@kotra.or.kr |
| 2 | 한아름 | 대리 | 하노이무역관 | +84 24 3946 0511 | rachel@kotra.or.kr |
| 3 | 김경돈 | 차장 | 하노이무역관 | +84 24 3946 0511 | kimkdon@kotra.or.kr |
| 4 | 임현진 | 과장 | 하노이무역관 | +84 24 3946 0511 | jinlim@kotra.or.kr |

KOTRA자료 21-069

2021 국별 진출전략 베트남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1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782-3(93320)
979-11-6490-692-5(95320)(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